國語學叢書 52

平北方言과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對比 研究

鄭仁浩 著

태학사

머리말

國語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우리말이 좋아 國語國文學科에 발을 들여놓은 '촌놈'에게 2학년 때의 學科 學術踏査는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다. 지금에 와서 당시에 들었던 龍仁말이 정확하게 기억날 리는 없지만 조금은 낯선 말이 신기해서 열심히 받아 적었던 기억만은 뚜렷하다. 이는 필자의 첫 方言調査이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 속했던 선생님들과의 因緣까지 더해져 필자의 기억 속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마디로 方言·音韻 硏究는 이 때부터 필자에게 運命처럼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필자는 碩士 學位 論文을 비롯하여 방언과 관련된 몇몇 논문을 발표했는데 주로 그 대상이 全南方言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선 익숙한 전남방언이라는 울타리 안에 내 자신을 가두어 버린 셈이다.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였다. 그러던 터에 李秉根 선생님과 동행하여 中國 沈陽에서 平北方言을 접하게 된 것은 필자에게 큰 행운이었다. 첫 해외 나들이라서 구름 위에서 가졌던 설레는 마음은 방언조사를 하면서 계속된 흥분으로 이어졌다. 아마도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왔던 평안도 말을 직접 대하는 것에 대한 흥분이었으리라. 하지만 첫 느낌과는 달리 방언조사가 계속될수록 그 차이라는 것이 크지 않다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博士 學位 論文에 그대로 녹아든다. 아울러 방언조사를 끝내고 찾아간 白頭山 天池의 구름 걷힌 모습을 잊을 수가 없으며 확인조사를 위해 韓成愚 同學과 동행할 때 海霧에 휩싸인

뱃전에서의 시간도 평생의 추억으로 남을 듯하다.

이 책은 博士 學位 論文「原平北方言과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對照 硏究」(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년 2월)의 내용을 일부 修訂·補完하고 제목을 바꾼 것인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 지금 이 순간 필자의 논문을 위해 힘써 주신 두 제보자의 얼굴이 뇌리를 스친다. 지금은 故人이 되셨지만 증손자뻘 되는 필자에게 고향말을 하나라도 더 일깨워 주고자 무던히도 애쓰셨던 고향 마을 할아버지, 항상 넉넉한 웃음으로 평안도 말을 즐겁게 들려주시던 中國 沈陽의 龍川 할머니,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는 과분한 행운을 누렸다. 국어국문학과에서 함께 공부하는 선배, 동료, 후배들은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여러 은사님들께서는 훌륭한 강의와 논문을 통해 필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崔明玉 선생님, 宋喆儀 선생님, 金周弼 선생님, 金鍾圭 선생님은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글을 꼼꼼히 읽고 그 모자람을 일일이 지적하여 미진하나마 한 편의 글을 이루게 하셨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대학 2학년 때부터 20년 가까이 학문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필자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李秉根 선생님께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아빠와 자주 떨어져 지내면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준 두 아들, 相燁, 俊燁,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에 고생이 많은 애들 엄마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또한 편치 않으신 몸에도 외손자들을 돌보시느라 부쩍 흰머리가 늘어나신 장인, 장모님께는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금할 길이 없다. 그리고 적지 않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고향 마을에서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한시도 아들 걱정을 떼어버리지 못하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께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올해 古稀를 맞으신 아버지께 이 책을 바친다.

끝으로 부족한 논문을 國語學叢書로 선정해 주신 國語學會의 여러 선생님들과 이 책이 출판되게 해 주신 태학사의 池賢求 사장님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책을 깔끔하게 편집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2006년 2월

차례

머리말 • 3

1. 서 론 • 11

2. 현대 [원] 용천어와 화순어의 음소 대조 • 19

2.1. 음소체계 ······ 19
  2.1.1. 모음 ······ 19
  2.1.2. 자음 ······ 26
  2.1.3. 반모음 ······ 34
2.2. 음소배열 ······ 37
  2.2.1. 음절내부 ······ 37
  2.2.2. 음절연결 ······ 40

3. 모음의 변화 • 43

3.1. 계열상의 변화 44
3.1.1. '에'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44
3.1.2.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51
3.1.3. 'Vi' 이중모음의 변화 55
3.1.3.1. 하강 이중모음의 변화 64
3.1.3.2. 부동 이중모음의 변화 77
3.1.4. 'ᄋᆞ'의 변화 88
3.1.5. 두 지역어의 '계열상의 변화' 대조 96
3.2. 통합상의 변화 99
3.2.1.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99
3.2.2. 전설모음화 113
3.2.2.1. '으>이' 전설모음화 113
3.2.2.2. 움라우트 120
3.2.3.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126
3.2.4. 고모음화 136
3.2.5. 모음연쇄의 변화 144
3.2.6. 두 지역어의 '통합상의 변화' 대조 150

4. 자음의 변화 • 155

4.1. 계열상의 변화 ········· 156
4.1.1. 'ㅅ, ㅈ'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 ········· 156
4.1.2. 'ㄷ, ㄴ'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 ········· 163
4.1.3. 'ㆅ'의 변화 ········· 168
4.1.4. 유성마찰음의 변화 ········· 171
4.1.5. 두 지역어의 '계열상의 변화' 대조 ········· 179
4.2. 통합상의 변화 ········· 181
4.2.1. 설면-경구개 이음과 관련된 변화 ········· 181
4.2.1.1. 설면음화 ········· 181
4.2.1.2. 'ㄴ'탈락 ········· 193
4.2.2. 모음간 자음의 변화 ········· 196
4.2.2.1. 'ㅎ'탈락 ········· 196
4.2.2.2. 'ㆁ'의 변화 ········· 199
4.2.3. 자음연쇄의 변화 ········· 204
4.2.4. 두 지역어의 '통합상의 변화' 대조 ········· 209

5. 결 론 ········· 211

참고문헌 • 223

1. 서 론

本稿는 '두 地域語'의 共時論的 對照와 通時論的 對照를 통해 그 類似點과 差異點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현대 두 지역어의 音素體系와 音素排列에 대한 공시론적인 대조와 두 지역어의 音素變化 樣相에 대한 통시론적인 대조 작업을 병행하여 각각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方言은 한 언어를 형성하고 있는 下位 單位로서의 言語體系이면서 동시에 한 母體로부터 다른 모습으로 變異를 일으킨 分化體이다(Chambers & Trudgill 1980, 이익섭 1984). 따라서 방언을 연구하는 方言學은 分化된 個別 方言의 體系 內的인 構造를 공시론적으로 밝히기도 하며 또한 한 언어가 지닌 구조 속에서 방언들 사이에 존재하는 類似點과 差異點을 드러내기도 한다. 우리는 전자를 記述 方言學(descriptive dialectology), 후자를 對照·比較 方言學(contrastive or comparative dialectology)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이병근 2001).

방언학에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면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이 중의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연구는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獨自 體系로서의 방언만을 강조하다 보면 방언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실패할 우려가 있으며, 分化 體系로서의 방언만을 강조하다 보면 방언 자체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실패해 피상적인 대조·비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의 方言 研究가 個別 方

言들에 대한 체계 내적인 연구에 힘을 쏟으면서 특정 방언(또는 지역어)을 정밀하게 기술하고 나아가 그 특징적인 면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이 한 언어의 分化體 내지 變種(variation)이라는 개념상의 인식이 약화되어, 한국어의 분화체인 여러 방언들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는 움츠러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개별 방언들의 체계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수긍하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방언 연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언어에 속하는 방언들을 대조·비교하는 작업에까지 나아갈 때 방언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그리고 그 때에야 비로소 한 언어가 가지는 공통적인 기반 위에서 방언들이 분화된 구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가능하면 많은 지역어를 대상으로 대조·비교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방언 연구의 최종 목표가 되겠지만 필자 능력과 여건의 한계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대상을 '두 지역어'에 한정하려 하며 나머지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본고의 硏究 對象이 될 두 지역어는 全南 和順 地域語와 原平北龍川系 沈陽 韓國語이다.[1] 하나의 지역어로 西南方言 계통에 속한 화순어를 선정한 것은 拙稿(1995)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西北方言 계통에 속한 ㉾용천어를 화순어의 대조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국어는 흔히 6개의 大方言圈(西北方言, 東北方言, 中部方言, 西南方言, 東南方言, 濟州方言)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남한에 위치하는 네 방언은 그동안 연구와 자료 보고가 꽤 진행되어 어느 정도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에 위치하는 西北方言과 東北方言에 대한 연구는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아직까지 미진한 단계라고

1)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각각 '화순어'와 '㉾용천어'로 칭하려 한다.

할 수 있다. 그나마 1992년 한·중 수교 이래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자료 보고도 주로 동북방언에 치우치고(전학석 1993, 곽충구 1994, 최명옥 2000, 소신애 2002, 최명옥 외 2002, 채옥자 2002), 서북방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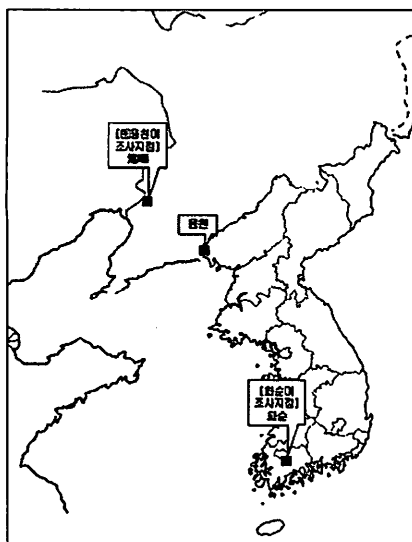
둘째, 그동안 학계에서는 서북방언의 音韻論的 特徵(예를 들어 所謂 '口蓋音化')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이것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서북방언의 음운론적 실체를 이해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된 감이 없지 않다. 서북방언과 서남방언은 같은 音長 方言圈에 해당한다.[2] 두 방언의 차이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유사점 또한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두 방언의 정밀한 음운론적 대조는 충분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북방언에서도 平北方言을 택한 데에는 中國 遼寧省에서 이 방언 화자를 상대적으로 접하기가 쉬웠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외에, 全南方言과 平北方言이 각각 한반도의 남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다시 말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두 지역어의 체계 내적인 관찰 및 대조를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이다.

본고의 한 연구 대상인 ㉾용천어는 平安北道 龍川郡 출신 제보자의 말이다. 龍川郡은 新義州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평야지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小倉進平(1929)에 따르면(보고된 자료가 많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平北의 西部 平野地域(의주, 용천, 선천, 정주)이 하나의 방언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오명숙 할머니(제1차 조사 당시 73세)는 17세 때 압

---

2) 방종현(1947)에서 '西部方言'이라는 말이 사용된 바 있다. 이 '서부방언'이 어느 방언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음장 방언(서북방언, 중부방언, 서남방언, 제주방언)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된 '서부방언'(김병제 1988, 황대화 1998, 이병근 2001)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지점 지도>

록강을 건너 中國 沈陽으로 이주하였다. 조사지점은 中國 遼寧省 沈陽市 東陵區 滿融村鄕인데 대부분 평북 출신들이 모여사는 마을로, 漢族은 거의 살지 않는 전형적인 朝鮮族 마을이다. 이 마을의 노년층은 漢語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3] 스스로의 말을 '北鮮말'이라고 할 정도로 평북방언 의식이 강하다.[4] 조사는 3차(1997년 7월 3일~15일, 2000년 8월 20일~27일, 2002년 7월 21일~25일)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제1·2차 조사는 李秉根 敎授와 함께 했으며[5] 제3차 조사는 韓成愚 同學과 함께 했다. 또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제전화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화순어의 조사지점은 全南 和順郡 北面 西酉里이며 주요 제보자는 拙稿(1995)에서와 동일한 鄭然彩 할아버지(86세)이다. 조사는 졸고(1995)을 위한 조사 이후 2001년 7월에 주로 실시되었으며 수시로 확인조사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전형적인 두 지역어의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補助 資料도 참고로 하였다. ㉪용천어는 『平北方言辭典』(김이협 1981), 『조선어방언사전』(리운규 외 1992) 등을, 화순어는 『韓國方言資料集 VI(全南篇)』(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1), 『전남방언사전』(이기갑 외 1998) 등을 참고하였다.

---

3) 물론 중국의 新造語, 예컨대 '삥샹(氷床, 냉장고), 뗸쓰(電視, 텔레비전), 꿍조(空調, 에어컨)' 등과 같은 漢語를 사용하기는 한다.

4) 北鮮말 이외에 연변지역의 동북방언 계통을 '延邊말'이라 하고 서울 중심의 남한어를 '南鮮말'이라 부르고 있다(이병근·정인호 2003).

5) 조사결과는 각각 이병근·정인호(1999, 2003)에 보고되어 있다.

평북 출신의 제보자가 중국으로 이주하여 사용하는 한국어를 평북방언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沈陽 韓國語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필자는 가능한 한 다른 방언(또는 언어)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지역과 제보자를 선정하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제보자가 중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방언을 차용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자 김이협(1981), 리운규 외(1992) 등에서 보고된 평북방언을 참고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는 또한 짧은 기간에 조사된 자료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서북방언을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남한의 조사 연구자들이 북한에 들어가 방언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큰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서북방언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 및 자료 보고는 그 연구 대상에 따라 대략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서북방언을 직접 조사하여 진행된 연구들이 있다. 분단 전의 업적으로는 小倉進平(1929, 1944), 河野六郎(1945) 등이 있다. 그리고 분단 후에는 의주·피현 방언의 '語音論的' 특성을 논한 한영순(1956ㄱ, ㄴ)이 있으며 그 이후 김영황(1982), 김병제(1988) 등이 있다. 둘째, 분단 후 월남한 실향민을 대상으로 한 업적들이 있다. 자료집으로는 김이협(1981), 김영배(1997) 등이, 연구로는 김영배(1977)을 비롯한 金英培 教授의 일련의 작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덩보(1976)은 본인의 말을 대상으로 한 평양말의 연구 보고서이다. 셋째, 주로 외국인이 19세기에 기록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업적들이 있는데 최임식(1984), 최명옥(1985ㄱ, 1985ㄴ, 1986, 1987)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현재의 요녕성에 거주하던 서북방언 화자의 언어였다. 넷째, 중국에 이주한 평안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업적들이 있는데 리운규 외(1992), 宣德五 외(1991), 왕한석(1997), 이병근 · 정인호(1999, 2003), 정인호(2003), 한성우(2003)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고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音韻論的 對照를 수행하되, 편의상 그 연구 범위를 '音素'의 대조에 한정하고 '韻素'의 대조는 별도의 연구로 미루려 한다.[6] 그리하여 먼저 현대 두 지역어의 음소체계와 음소배열에 대한 공시론적 대조를 수행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것이다(제2장). 이와 같은 공시론적 대조를 진행하려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한국어의 분화체인 두 지역어의 音素構造를 각각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함이다. 둘째, 통시론적 대조에 필요한 "共通的"인 先代形을 설정하는 데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두 지역어의 음소체계와 음소배열의 변화 양상에 대한 통시론적 대조를 수행할 것이다(제3 · 4장). 이를 통해 공시론적 대조를 통해 드러난 두 지역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 지역어의 역사적인 변화를 대조하기 위해서는 그 基準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對照의 基準이라 함은 대조 가능한 변화의 시작점, 즉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共通的인 段階를 가리킨다. 두 지역어(또는 방언)의 공통적인 단계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比較言語學에서 말하는 共通祖語(common language)이다. 共通祖語란 두 지역어가 분화되기 이전 단계의 언어를 가리키는데 그 再構는 比較 方法에 의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재구된 공통조어로부터 방언이 분화하고 나아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대조하는 것이 통시론적 대조 연구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 방법은 그 분화 시기가 오래지 않은 두 지역어의 대조에 매우 큰 효용 가치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6) 본고에서 다루는 변화가 운율과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방언형의 한글 전사에서 운율 표시를 생략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분화 시기가 오래지 않은 두 지역어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에 方言 傳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잘못된 공통조어를 재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어는 상대적으로 분화 시기가 오래될 수밖에 없어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분화 시기가 오래될수록 현대 두 지역어의 共時態가 보여주는 공통조어의 흔적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한국어를 모체로 하는 지역어들의 대조 연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변화의 시작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함으로써 원거리에 있는 지역어들의 통시론적 대조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즉 두 지역어의 共通的인 先代形은 共通祖語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분화 후에라도 동일한 음소체계나 음소배열을 가지는 시기가 있다면 이를 "共通的"인 段階로 보아 통시론적 대조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단계는 그 絶對的인 時期까지 동일하다는 말은 결코 아님을 강조하여 둔다. 필자는 이러한 대조 방법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어가 갖는 방언 전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계 내적인 변화의 대조를 가능케 하는 장점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 판단한다.

통시론적 대조 연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통적' 단계의 語形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현대 두 지역어의 對照 結果와 두 지역어 각각의 內的 證據에 의해 "共通的"인 先代形을 설정할 것인바, 內的 證據로는 形態素 結合 과정에서 실현되는 音韻現象들이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이며 複合語, 派生語, 漢字語, 音聲象徵語 등도 함께 이용될 것이다. 특히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은 역사적인 음운변화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7] 이 외에 부수적으로 중부방언의 '文獻語'[8]도 참고하려 하는데 가능한 한 意味와 形態 면에서 유사한 어형에

한정할 것이다.

필자는 통시론적 대조를 수행함에 있어 純粹音韻論的 現象이라고 보기 힘든 다음의 변화, 즉 異形態와 관련된 변화, 意味와 관련된 변화는 논의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 자음군단순화 ㉮ 닭>닥 값>갑 등
㉡ 체언 어간말의 변화 ㉮ 잎>입, 낮>낫 등
㉢ 용언 어간말의 변화 ㉮ 굽->꾸-, 듣->듫- 등
㉣ 어미 '-어/아' 교체 ㉮ 잡아>잡어 등
㉤ 어두 경음화 ㉮ 작->짝-, 사납->싸납- 등

본고에서 母音과 子音의 변화는 '系列上의 變化'와 '統合上의 變化'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전자는 音素體系와 관련된 변화, 즉 音素의 生成[音韻化], 消失[非音韻化] 그리고 對立의 變化[再音韻化]를 가리키며 후자는 音素排列과 관련된 변화를 가리킨다. 하지만 둘 사이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통합상의 변화'는 그 자체가 음소의 分布, 음소가 실현되는 頻度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체계의 변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음소배열의 변화가 음소체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중모음의 변화 ⇒ 모음체계의 변화). 이와 반대로 음소체계의 변화가 음소배열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ㅈ, ㅅ'의 재음운화 ⇒ 'ㅡ>ㅣ' 전설모음화).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계열상의 변화'와 '통합상의 변화'의 구분은 記述·說明의 便宜와 焦點(변화의 결과)의 差異에 따른 것으로서 임의적인 성격이 짙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

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규(1989), 이진호(2002ㄴ) 등을 참고.
8) 본고에서 중세 문헌어는 { } 안에 제시한다. 용례는 유창돈(1964)에서 주로 발췌하였으며 편의상 출전은 생략하고자 한다.

2. 현대 ⓦ용천어와 화순어의 음소 대조

이 장에서는 현대 두 지역어의 音素構造, 즉 音素體系와 音素排列에 대한 共時論的 對照를 진행하려 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두 지역어 각각의 음소구조를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또한 통시론적 대조를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2.1. 음소체계

2.1.1. 모음

현대 두 지역어는 母音目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 ⓦ용천어(8모음) : 이 에 애 으 어 아 우 오
♠ 화순어(9모음) : 이 애 위 외 으 어 아 우 오

두 지역어의 모음목록을 비교하면 후설모음(으 어 아 우 오)에서는 차이가 없으나[9] 전설모음에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화순어는 원순모음(위 외)

9) 곽충구(2003)에 따르면 서북방언에서 '으 ‖ 우', '어 ‖ 오'의 대립이 사라졌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부 하위방언에 한정되는 듯하다. ⓦ용천어에서는 이들의 대립이 매우

이 존재하지만 Ⓡ용천어에는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천어와는 달리 화순어에는 비원순모음 '에'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음은 音聲 實現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어/ : Ⓡ용천어에서는 語頭와 非語頭[10]에서의 음성이 다르다. 어두에서는 음장에 관계없이 중설-원순-중모음 [ɵ]로, 비어두에서는 중설-비원순-중모음 [ə]로 실현된다(1㉠). Ⓡ용천어에서 /어/가 원순모음으로 실현된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순어에서는 환경에 관계없이 중설-비원순-중모음 [ə]로 실현된다(1㉡).

(1) ㉠ [ɵɖe](어디) [sɵːm](島) ; [kuɲəŋ](穴) [yaŋɲəm](양념)
　　㉡ [ənma](얼마) [əːdi](어디) [kumək](穴) [ʧəɲyək](夕)

(나) /오/ : Ⓡ용천어에서는 어두와 비어두에서 음성이 다르다. 어두에서는 음장에 관계없이 후설-원순-저모음 [ɔ]로, 비어두에서는 후설-원순-중모음 [o]로 실현된다(2㉠). 그런데 화순어에서는 환경에 관계없이 후설-원순-중모음 [o]로 실현된다(2㉡).

(2) ㉠ [kɔru](環) [ɲrəɖa](黃) ; [pʰɔɖo](포도) [imo](이모)
　　㉡ [kori](環) [toːtɕʰi](斤) [pʰodo](포도) [iːmo](이모)

확고하여 혼란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10) 이승녕(1959)에서는 제2음절 이하 위치가 "音節母音의 分節의 不分明 또는 聽覺印象의 不分明이 흔히 수반하기 쉬운" 위치라고 하여 음운의 결합적 발달에 있어서 훌륭한 음운론적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語頭, 非語頭, 語末' 등을 변화의 음운론적 조건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음운론적 용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음운론적 용어로는 각각 '기식군의 제1음절, 기식군의 제2음절 이하, 기식군의 끝음절' 등을 사용해야 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어두, 비어두, 어말'을 사용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다) /애/와 /아/ : /애/가 (원)용천어에서는 [ε]로 실현되고 화순어에서는 [e]와 [ε]의 중간 정도의 음성 [E]로 실현된다. 그리고 /아/는 두 지역어가 음성적으로 비슷하나 화순어([a̝])가 (원)용천어([a])보다 약간 위쪽에서 발음된다. 결국 '혀의 높이' 측면에서 볼 때 화순어 모음들의 음성폭이 (원)용천어에 비해 더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모음들은 두 지역어에서 음성적으로 유사하게 실현된다.

각 모음의 음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음		이	에	애	위	외	으	어	아	우	오
음성	(원)용천어	i	e	ε	×	×	ɯ	ɐ/ə	a	u	ɔ/o
	화순어		×	E	ü	ö		ə	a̝		o

모음목록의 차이는 그 對立體系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두 지역어 모두 '혀의 전후 위치'에 따른 [±前舌性][11]에 의한 대립, '입술의 모양'에 따른 [±圓脣性]에 의한 대립, 그리고 '혀의 높이'에 따른 [±高母音性]과 [±低母音性]에 의한 대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보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12]

11) 필자는 모음의 조음위치 자질로 [±후설성](±back) 대신 [±전설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송철의(1996)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 [±전설성]은 후술할 자음의 위치자질로도 사용되는데 동일한 자질을 사용하는 것이 자음과 모음의 동화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12) 음소들 사이의 대립체계는 그것의 外的 顯現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시적인 음운 변동을 통해 잘 드러날 수 있다. 또한 파생어, 복합어, 한자어 등에서의 음소 변동을 통해서나 음소 변화에 따른 쌍형어의 음소 대응을 통해서도 그 대립은 확인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예들을 통해 음소들 사이의 대립체계를 확인할 것이다. 다만 국어 전반적으로 동일한 음운현상을 보일 때에는 편의상 그 예들을 생략하려 한다.

(가) [±前舌性]에 의한 대립 : [원]용천어에서 '아 ‖ 애, 어 ‖ 에'의 대립은 파생어에서의 움라우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 또한 '으 ‖ 이'의 대립은 '으>이' 전설모음화에 따른 쌍형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 그리고 화순어에서 '아 ‖ 애, 어 ‖ 애, 으 ‖ 이, 오 ‖ 외, 우 ‖ 위'의 대립은 공시적인 움라우트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4).

(3) ㉠ 매키-(막히-, 塞) 메기-(먹이-, 食)
㉡ 거즛~거짓(假) 기츰~기침(咳) 씨름~씨림(鬪) 이름~이림(名)

(4) 뱅이(방+이, 房) 배비(법+이, 律) 기미(금+이, 線)
쇠기(속+이, 裏) 귀기(국+이, 羹)

화순어의 [±전설성]에 의한 대립에서 특이한 점은 후설모음 '아, 어'가 하나의 모음 '애'와 대립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음운변화('에'의 비음운화)에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13] 결국 두 지역어 모두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대립의 정도는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전설-원순모음의 존재 여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 [±圓脣性]에 의한 대립 : [원]용천어에서는 공시적인 원순모음화를 통해 '으 ‖ 우'의 대립만을 확인할 수 있다(5).

(5) 아푸루(앞+으루, 前) 부수루(붓+으루, 筆) 자불(잡+을, 捕)
주군(죽+은, 死)

13) 최명옥(1978ㄱ)에서는 /으/와 /어/가 대립하지 못하는 방언에서 움라우트 현상이 달리 실현되는 것을 예로 들어 "新·舊 두 개의 음운체계가 교체되는 過渡期에는 새로운 음운체계 사용자들의 언어능력에 바로 前段階의 음운체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田相範 1977:180~81)."라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외에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보이는 모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원)용천어에는 원순모음으로 '우' 이외에 '오'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와 달리 '오'는 [-원순성] 대립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어'가 '오'의 [-원순성] 대립짝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14] 왜냐하면 '어'가 어두에서 원순모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가 '오'의 [-원순성] 대립짝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화순어의 '외[ö]'가 (원)용천어의 '웨[we]'가 아닌 '왜[wɛ]'에 대응된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원)용천어에서 '애'가 '아'와 [±전설성]에 의해 대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외>왜'의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오'는 '아'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만약 역사적으로 '아, ᄋᆞ, 오'가 自然部類를 형성하던 시기가 있었고 '오'의 [-원순성] 대립짝인 'ᄋᆞ'가 비음운화했다면 새로운 대립짝은 '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원)용천어에서 '오'는 '아'에 가까운 저모음 [ɔ]로 실현된다.[15] 이와 같은 통시적인 변화와 음성학적인 측면에 볼 때 '아'와 '오'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공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대립을 드러내 주는 음운현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아 ‖ 오'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 가능성을 보류하고 '오'의 [-원순성] 대립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려 한다. 그렇다면 (원)용천어에서 [±원순성]에 의한 대립은 相關을 이루지 못하는 셈이다.

이와 달리 화순어에서는 '어 ‖ 오'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

14) (원)용천어에 존재하는 '오마니'(어머니)가 '오'와 '어'의 [±원순성]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후행하는 양순음 'ㅁ'의 영향으로 '어'가 원순모음 '오'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2.1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에서 후술하겠지만 (원)용천어에서 양순음에 의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15) 이현복(1989:34)에 따르면 평안방언의 '오'는 '아'와 '어'의 중간 높이에서 발음되는데 '아'에 좀더 가깝다고 한다.

고 있음을 원순모음화에 따른 쌍형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6).

(6) 머시매～모시매(男兒) 머구～모구(머위, 白菜) 깽번～깽본(江邊)

결국 화순어에서는 모든 원순모음들이 [-원순성] 대립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우 ‖ 으, 오 ‖ 어, 위 ‖ 이, 외 ‖ 애'가 [±원순성]에 의한 상관 대립을 형성하여 '우 ‖ 으'만이 대립하는 [원]용천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설성]에 의한 대립과 마찬가지로 [±원순성]에 의한 대립의 정도도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 [±高母音性]과 [±低母音性]에 의한 대립 : 두 지역어 모두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선스나(선#서나, 男)[16] 새쓰방(새#서방, 新郞)
어쯔낙(어제#저낙, 昨夕) ; 바우래기(바#오래기, 繩)

(8) 자버댕이-～자부댕이-(잡+어#댕이-, 引)
삼서～삼시롱(살+음서/음시롱, -으면서)

(7)은 [원]용천어인데 '어 ‖ 으, 오 ‖ 우'의 대립을 확인시켜 주는 복합어이다. 화자들은 공시태 속에 존재하는 '서나, 서방, 저낙, 오래기'와의 대응을 통해 그 대립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화순어에서도 음변화에 따른 쌍형어를 통해 '어 ‖ 으'의 대립이 확인된다(8)[17].

---

16) '선스나'에서 '선'은 표준어 '선머슴'의 '선'과 성격이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표준어 '사내'의 중세어형이 'ᄉᆞ나ᄒᆡ'인 점을 감안하면 '선스나'의 선대형으로 '*선ᄉᆞ나ᄒᆡ'를 재구하여 제2음절의 'ᆞ'가 직접 '으'로 변화하여 '선스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지역어에서 '서나'가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스나'는 '선서나'의 변화형으로 보려 한다.

17) '자부댕이-'는 '자버댕이-'의 '어'가 '으'로 고모음화하고 이어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삼시롱'은 '삼서'에 '롱'이 결합하면서 비어말 위치에서 '어'가 '으'로 고모음화하고 이어 '으>이' 전설모음화를 경험한 것이다.

두 지역어에서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과는 달리 [±저모음성]에 의한 대립을 드러내 주는 음운현상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즉 (원)용천어에서 '에 ‖ 애, 어 ‖ 아'가 [±저모음성]에 의한 대립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변별적 자질에 의한 대립을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화순어에서 이러한 사실은 더 두드러지는데 화순어에서 '에 ‖ 애'의 대립은 상실되었지만 '어 ‖ 아'는 그러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혀의 높이' 측면에서 볼 때 두 지역어의 모음들은 점층대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모음성]에 의해 고모음과 비고모음으로 나뉘고 비고모음은 어떤 자질에 의해 다시 분류되는 것으로 필자는 보는데 본고에서는 이 자질을 편의상 [±저모음성]이라고 칭하려 한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변별적 자질을 이용하여 두 지역어의 모음 체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d colspan="2" rowspan="2"></td><td colspan="2">+전설성</td><td colspan="2">-전설성</td></tr>
<tr><td>-원순성</td><td>+원순성</td><td>-원순성</td><td>+원순성</td></tr>
<tr><td colspan="2">+고모음성</td><td>이</td><td></td><td>으</td><td>우</td></tr>
<tr><td rowspan="2">-고모음성</td><td>-저모음성</td><td>에</td><td></td><td colspan="2">어</td></tr>
<tr><td>+저모음성</td><td>애</td><td></td><td>아</td><td>오</td></tr>
</table>

<(원)용천어>

<table>
<tr><td colspan="2" rowspan="2"></td><td colspan="2">+전설성</td><td colspan="2">-전설성</td></tr>
<tr><td>-원순성</td><td>+원순성</td><td>-원순성</td><td>+원순성</td></tr>
<tr><td colspan="2">+고모음성</td><td>이</td><td>위</td><td>으</td><td>우</td></tr>
<tr><td rowspan="2">-고모음성</td><td>-저모음성</td><td rowspan="2">애</td><td rowspan="2">외</td><td>어</td><td>오</td></tr>
<tr><td>+저모음성</td><td>아</td><td></td></tr>
</table>

<화순어>

2.1.2. 자음

현대 두 지역어의 子音目錄은 19개로서 완전히 일치한다.[18]

♠자음목록 : ㅂ ㅍ ㅃ ㄷ ㅌ ㄸ ㄱ ㅋ ㄲ ㅅ ㅆ ㅎ ㅈ ㅊ ㅉ ㅁ
ㄴ ㅇ ㄹ

그리고 이들 자음의 音聲的 實現 양상도 대개 비슷한데 다만 몇몇 자음들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첫째, 현대 ㊏용천어에서 'ㅅ, ㅈ'은 調音位置上으로 각각 3개의 이음을 갖는다[19](9).

(9) ㉠ [ʃadʒɛ](사자) [ʃo](소) ;
[ʃidʒak~ɕidʒak](시작) ;
[sɯlphuda~ʃɯlphuda](哀)
㉡ [ʧa](尺) [ʧ'ok'om](조금) ;
[ʧik'ɯm~ʨik'ɯm](지금) ;
[ʦɯlda] (질-)

먼저 'ㅅ'은 대개의 모음들 앞에서 설면-후치경음 [ʃ]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 모음 앞에서는 [ʃ]와 설면-경구개음 [ɕ]가 자유변이한다.[20] 또

18) 필자는 拙稿(1995)에서 화순어의 자음으로 'ㆆ'을 추가시킨 바가 있다. 하지만 이는 音素라기보다는 形態音素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19) 본고에서 사용하는 'ㅅ, ㅈ'의 음성기호는 國際音聲記號[IPA]에 따르는바, 지금까지 우리가 편의상 사용해온 음성기호와 음가가 다름을 미리 지적하여 둔다. [s ʦ]는 齒音(dental), [ʃ ʧ]는 後齒莖音(postalveolar), [ɕ ʨ]는 前硬口蓋音(prepalatal), [ç]는 硬口蓋音(palatal)이다. 또한 [s ʦ]는 舌端音(laminal)이며, [ʃ ʧ ɕ ʨ ç]는 舌面音(dorsal)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편의상 [ɕ ʨ] 대신 사용해온 [ʃ ʧ]의 음가는 본고에서의 음가와 다르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前硬口蓋音 [ɕ ʨ]를 편의상 '경구개음'이라 칭하려 한다.

한 '으' 모음 앞에서는 [ʃ]와 설단-치경음 [s]가 자유변이한다. 다음으로 'ㅈ'은 대개의 모음들 앞에서 설면-후치경음 [ʧ]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 모음 앞에서는 [ʧ]와 설면-경구개음 [ʨ]가 자유변이한다. 또한 '으' 모음 앞에서는 설단-치경음 [ʦ]로 실현된다. 'ㅅ'과 'ㅈ'을 비교하면 두 자음 모두 주로 설면-후치경음 [ʃ, ʧ]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 모음 앞에서는 각각 [ʃ～ɕ, ʧ～ʨ]로 자유변이한다. 그런데 '으' 모음 앞에서는 'ㅅ'과 'ㅈ'이 차이를 보여 'ㅅ'은 [ʃ～s]로 자유변이하나 'ㅈ'은 항상 [ʦ]로만 실현된다. ㉾용천어에서 'ㅅ, ㅈ'은 '으'모음 앞에서 각각 설단-치경음 [s, ʦ]로 실현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순어에서 'ㅅ, ㅈ'은 'i, y' 이외의 모음 앞에서 각각 설면-후치경음 [ʃ, ʧ]로 실현된다(10㉠). 그리고 'i, y' 앞에서는 각각 설면-경구개음 [ɕ, ʨ]로 실현된다(10㉡).

(10) ㉠ [ʃaʤɛ](사자) [ʃo](소) ;
[ʧa](尺) [ʧ'ök'a](조금)
㉡ [ɕiʤak](시작) [maɕyə](마시+어, 飮) ;
[ʨigɯm](지금) [ʨ'yə:](찌+어, 肥)[21]

둘째, 두 지역어에서 'ㄷ'과 'ㄴ'은 각각 음성적으로 달리 실현된다.

(11) ㉠ [t̪ɛmɛ](다음-에) [t̪'ɛ](때) [ɔt̪](옷)

20) 반모음 'y' 앞에서도 동일한 음성적 실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용천어에서 자음 뒤의 'y'는 역사적으로 탈락 또는 축약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음-y'의 연결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ㅅ · ㅈ-y'의 연결은 ㉾용천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21) 화순어에서 'ㅈ, ㅊ, ㅉ' 뒤에 'y'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고 하겠다. 필자의 관찰로는 '지-, 치-, 찌-'가 장음 어간일 때 어미 '-어'가 결합하면 이러한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외에 '좋잖(좋지야), 하잖(하재, 하자고 해)' 등의 예도 존재한다.

㉡ [n̪a](나) [t̪ɔn̪](돈)

ⓐ [ima](이마) [kan̪ik'ən̪i](가-으니까)

(12) ㉠ [ta:mɛ](다음-에) [t'ɛ](때) [ot](옷) ;

[modi](마디) [t^{h}i](티)

㉡ [na](나) [to:n](돈)

ⓐ [ni](네) [niŋginda](넘기-)

ⓑ [həɲirago](하-느라고) [kaɲya](가-냐)

[원]용천어에서 'ㄷ'과 'ㄴ'은 환경에 관계없이 각각 설단-치음 [t̪]와 [n̪]로 실현된다(11). 특히 '이'모음이 후행할 때에도 동일한 음성으로 실현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11ⓐ).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ㄷ'은 환경에 관계없이 [t]로 실현된다(12㉠). 그리고 'ㄴ'도 주로 설단-치경음 [n]로 실현된다(12㉡). 다만 화순어에서 'i, y'가 후행할 때에는 'ㄴ'의 음성 실현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어두에서는 다른 모음 앞에서처럼 설단-치경음 [n]로 실현되나(12ⓐ) 비어두에서는 설면-경구개음 [ɲ]로 실현된다(12ⓑ). 어두와 비어두에서 'ㄴ'의 음성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로 다른 역사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4.2.1.2 'ㄴ'탈락> 참조).

셋째, 두 지역어의 'ㅇ'도 음성적 차이를 보인다. 음절말에서는 두 지역어 모두 'ㅇ'이 [ŋ]로 실현된다(㊟ [kaŋ](강), [paŋ](방) 등). 하지만 모음간에 'ㅇ'이 위치할 때에는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인다.

(13) ㉠ [ʧoŋɛ](종이) [t̪oŋɛ](동이) [n̪uŋɛ](누에)

㉡ [ku^{0}i](槽) [ko^{0}i](杵) [ka^{0}i](강+이)

㉢ [ka^{0}a](가위) [pa^{0}a](방아)

㉣ [k'o^{0}ari](꽈리) [t̪'o^{0}ari](또아리) [ʃo^{0}ari](송이)

(14) [puŋɛ](붕어) [ʧoŋu](종이) [toŋu](동이) [kaŋi](강+이) [ʃaŋɛ](상+에)

[원]용천어에서 모음간 'ㅇ'도 [ŋ]로 실현될 수 있다(13㉠). 그런데 'ㅇ'이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는 [^{ŋ}]로 실현된다. ㈎ '이'모음이 후행할 때(13㉡), ㈏ 동일한 모음 사이에서(13㉢), ㈐ '오'와 '아' 사이에 위치할 때(13㉣).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원]용천어와 달리 모음간 'ㅇ'이 환경에 관계없이 [ŋ]로만 실현된다(14).

두 지역어에서 'ㅇ'이 음성적으로 다르게 실현되는 것은 음절경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두 지역어 모두 'ㅇ'이 음절 종성에 위치할 때에는 동일한 음성 [ŋ]로 실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화순어의 모음간 'ㅇ'은 환경에 관계없이 음절 종성이 된다(兩音節的인 것까지 포함하여).[22] 하지만 [원]용천어에서는 (13㉡-㉣)의 환경에서 'ㅇ'이 후행 음절의 초성이 되며 이 때의 음성이 [^{ŋ}]인 셈이다.

이 이외의 자음은 그 이음 실현에서 두 지역어가 거의 동일하다. ㈎ 'ㅂ ㄷ ㄱ ㅈ'은 유성음 사이에서 각각 유성음 [b d g ʤ]로 실현된다. ㈏ 'ㄹ'은 모음 사이에서 탄설음 [r]로 실현된다. ㈐ 'i, y'가 후행할 때 'ㅎ'은 [ç]로, 'ㄹㄹ'은 [lʎ]로 실현된다.

각 자음의 음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음		ㅂ	ㅍ	ㅃ	ㄷ	ㅌ	ㄸ	ㄱ	ㅋ	ㄲ	ㅅ
음성	[원]용천어	p/b	p^h	p'	t̪/d̪	t̪^{h}	t̪'	k/g	k^h	k'	s/ʃ/ɕ
	화순어				t/d	th	t'				ʃ/ɕ

자음		ㅆ	ㅈ	ㅊ	ㅉ	ㅎ	ㅁ	ㄴ	ㅇ	ㄹ
음성	[원]용천어	s'/ʃ'/ɕ'	ʦ/ʣ/ʧ/ʤ/ʨ/ʥ	ʦ^h/ʧ^h/ʨ^h	ʦ'/ʧ'/ʨ'	h/ç	m	ɲ	ŋ/ŋ	l/ʎ/
	화순어	ʃ'/ɕ'	/ʧ/ʤ/ʨ/ʥ	ʧ^h/ʨ^h	ʧ'/ʨ'			n/ɲ	ŋ	r

22) 학자에 따라 중부방언에서의 모음간 'ㅇ'이 뒤 음절의 초성이라는 주장(송철의 1982)도 있고 앞 음절의 종성이라는 주장(배주채 1989)도 있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양음절적(ambisyllabic)인 것이 아닌가 한다.

두 지역어에서 子音의 對立體系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자음을 調音位置 資質([±喉頭性], [±前舌性], [±前部性], [±舌面性])과 調音方法 資質([±共鳴性], [±鼻音性], [±閉鎖性], [±摩擦性], [±激音性], [±硬音性])에 의해 분류하기로 한다.

(가) [±喉頭性]에 의한 대립 : 두 지역어에서 후음 'ㅎ'은 기타 자음과 상이한 음운현상을 보인다. 즉 'ㅎ'에 다른 자음(ㅂ ㄷ ㄱ ㅈ)이 후행할 때 격음으로 축약될 수 있는 것이다. 興용천어에는 더욱 흥미있는 음운현상이 존재한다.

(15) ㉠ [t̪alk^{h}ɯmhəd̪a](달콤하다) [p^{h}arhim](팔힘) [kyər^{h}oŋ](結婚)
㉡ [kɯb^{h}əd̪a](급하다) [mad̪^{h}yəŋ](맏형) [pug^{h}aŋ](北韓)

즉 '허-(爲)'가 결합된 구성, 복합어, 한자어에서 'ㅎ'이 후행할 때 선행자음이 공명음이든(15㉠), 장애음이든(15㉡) 관계없이 이들은 음성적으로 한 음절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는 'ㄹㅎ'연쇄에서 'ㄹ'이 설측음 [l]이 아닌 탄설음 [r]로 실현되는 것을 통해 음절경계가 'ㄹ' 앞에 놓임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두 자음이 후행 음절의 초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후행하는 자음이 'ㅎ'일 때에만 가능한 현상이다.

'ㅎ'과 관련된 이러한 현상은 'ㅎ'의 특별한 音聲的 特性에 기인한 것이다. 폐에서 시작한 기류가 하나의 음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3개의 調音器官(organs of speech)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發動部(횡격막, 폐, 기관), 發聲部(성대), 發音部(인두강, 구강, 비강)가 그것이다(이현복 1989:117 -23). 그러나 'ㅎ'만은 발음부의 작용이 없이 발동부와 발성부의 작용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성이다. 따라서 'ㅎ'은 발음부가 작용하는 소리와 동시조음되어 하나의 음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음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ㅎ'은 발음부가 작용하는 음성을 낼

때의 聲門 模樣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축소된다. 성문 모양에는 보통호흡, 심호흡, 속삭임, 발성(유성) 등이 있는데 (15)의 경우 'ㅎ'의 성문 모양이 '보통호흡'에서 '속삭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23]

이와 같이 'ㅎ'은 다른 자음과 구분되는 음운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 기타 자음과 [±후두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Clements(1985)의 {laryngeal} 자질이나 Lass(1984:84)의 [±oral] 자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나) [±前舌性]과 [±前部性]에 의한 대립 :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자음의 조음위치 자질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어 왔다. Chomsky & Halle(1968)에서 조음위치 자질로 '[ant], [cor]'을 설정한 이후에 국어에서 이 자질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계속되면서 [cor]자질 대신에 [grave]자질이 국어에서 더 유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진우 1972, 이병근 1977). 그리고 배주채(1996:47)에서는 '치음, 치조음, 경구개음'을 '전설음'으로 묶어 사실상 [전설성] 자질을 인정했으며 송철의(1996)에서도 '[grave], [front]' 자질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우(1997)에서는 '[grave], [diffuse]' 자질을, 김경아(2001)에서는 '[labial], [grave], [high], [low]'자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 논의들에서는 調音 資質과 音響 資質이 혼용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필자는 조음 자질만을 가지고도 국어의 음운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자음의 조음위치는 調音體과 調音點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조음위치 자질도 조음체를 기준으로

---

23) 이희승(1959:162-3)에도 'ㅎ'의 성질에 대한 언급이 있다. "모든 자음은 구강(口腔=입안)에서 나는 소린데, "ㅎ"만은 후두[喉頭=성대(聲帶)있는 부분]에서 공기가 마찰(摩擦)되어 나는 소리다. 구강(口腔)과는 비교적 거리(距離)가 먼 기관에서 발하는 소리다. 그리하여, <u>먼 거리에 있는 기관끼리는 동시에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ㅎ"만은 다른 자음과 동시에 발음할 수 있다</u>. 동시에 발음되는 두 가지 소리는 서로 섞이(混合되)지 않을 수 없다. <u>그러므로, "ㅎ"은 다른 모든 자음과 섞이는 성질을 가졌다</u>. 그리고 섞이는 것은 시간의 선후가 없다."

하는 자질과 조음점을 기준으로 하는 자질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필자는 조음체를 기준으로 하는 자질로 [±전설성][24]을, 조음점을 기준으로 하는 자질로 [±전부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전설성]에 의한 대립은 [+전설성] 자음의 변자음화를 통해 드러난다. 즉 [-전설성] 자음으로 '양순음, 연구개음'이 자연부류를 형성하여 [+전설성] 자음인 나머지 자음과 대립한다. 양순음과 연구개음은 다시 [±전부성]에 의한 대립에 의해 하위의 자연부류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은 [+전부성] 자음의 후부변자음화를 통해 드러난다.

(다) [±舌面性]에 의한 대립 : [+전설성] 자음을 하위 분류하는 데에 필요한 자질이 [±설면성]이며 이에 의해 설단음과 설면음이 나뉘게 된다.[25] [±설면성]은 김경아(2001)의 [±high]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다. 성희제(1997)에서는 이와 비슷한 자질로 [±하치조성]을 언급하였는데 이 자질에 의해서 'ㅅ'과 'ㅈ'은 동일한 자연부류로 묶일 수 없다고 하여 본고의 [±설면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두 지역어의 [+전설성] 자음은 이 [±설면성]에 의한 대립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두 지역어의 'ㅅ ㅆ ㅈ ㅊ ㅉ'이 [+설면성] 자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용천어에서는 이들 자음이 '으'모음 앞에서 설단-치경음([s s' ʦ $ʦ^h$ ʦ'])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설면성] 자음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 단계에서 현대 ㉯용천어의 장애음이 [±설면성]에 의한 대립을 확립하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점이 [±설면성]에 대립체계가 확고한 화순어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화순어에서는 'ㄴ'이 'i, y' 앞에서

24) [+전설성] 자질은 [-grave]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음향 자질인 [±grave] 대신에 조음 자질인 [±전설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25) 자질의 명칭은 임의적일 수도 있지만 송철의(1996)에서 언급했듯이 동화현상 ([-F][+F]→[+F][+F])을 일관성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자질로 표시할 수 있으면 더 나은 일일 것이다. 여기서 [±설면성]은 '설면음화'(<4.2.1.1 설면음화> 참조)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설면-경구개음([ɲ])으로 실현되어 이를 완전한 [-설면성] 자음이라고 하기 힘들다. 이것이, 동일한 환경에서 설단-치음([n̪]), 즉 [-설면성] 자음으로 실현되는 ⓔ용천어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共鳴性]에 의한 대립 : [±공명성]에 의해 장애음과 공명음이 대립한다. 공명음은 장애음과 달리 음성적으로 유성음이며 후행하는 'ㅂ ㄷ ㄱ ㅈ'을 유성음으로 실현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적인 비음화를 통해서도 장애음과 공명음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 [±鼻音性]에 의한 대립 : 공명음은 [±비음성]에 의해 'ㅁ ㄴ ㅇ'과 'ㄹ'로 하위 분류된다. 특히 동일한 조음 위치인 'ㄴ'과 'ㄹ'의 대립은 유음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閉鎖性]과 [±摩擦性]에 의한 대립 : 장애음은 [±폐쇄성]과 [±마찰성]에 의해 폐쇄음 ‖ 마찰음 ‖ 파찰음의 대립을 보인다. 여기에서 [±마찰성]은 [±지속성]과 유사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파찰음에 대한 [±지속성]의 자질 부여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자는 [±마찰성]을 사용하려 한다. 음성적으로 폐쇄음은 [-설면음]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마찰음·파찰음과 대립된다. 그리고 평마찰음(ㅅ)은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쇄음·파찰음과 대립된다. 음소적으로 평마찰음(ㅅ)·평파찰음(ㅈ)과 달리 평폐쇄음(ㅂ ㄷ ㄱ)은 음절 종성에 놓일 수 있다. 이들을 통해 장애음은 [±폐쇄성]과 [±마찰성]에 의해 세 개의 자연부류로 나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激音性]과 [±硬音性]에 의한 대립 : [±격음성]과 [±경음성]에 의해 폐쇄음·파찰음은 세 부류(평음 ‖ 격음 ‖ 경음)로, 마찰음은 두 부류(평음 ‖ 경음)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두 지역어 모두에서 [±격음성]과 [±경음성]에 의한 대립은 격음화와 경음화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변별적 자질을 이용하여 두 지역어의 자음 체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X_1: ⓔ용천어, X_2: 화순어).

<table>
<tr><td colspan="3" rowspan="3"></td><td colspan="4">-후두성</td><td rowspan="3">+후두성</td></tr>
<tr><td>-전설성</td><td colspan="2">+전설성</td><td>-전설성</td></tr>
<tr><td>+전부성</td><td>-설면성</td><td>+설면성</td><td>-전부성</td></tr>
<tr><td rowspan="13">-공명성</td><td rowspan="3">+폐쇄성
-마찰성</td><td>-격음성
-경음성</td><td>ㅂ</td><td>ㄷ</td><td></td><td>ㄱ</td><td></td></tr>
<tr><td>+격음성
-경음성</td><td>ㅍ</td><td>ㅌ</td><td></td><td>ㅋ</td><td></td></tr>
<tr><td>-격음성
+경음성</td><td>ㅃ</td><td>ㄸ</td><td></td><td>ㄲ</td><td></td></tr>
<tr><td rowspan="4">-폐쇄성
+마찰성</td><td rowspan="2">-격음성
-경음성</td><td rowspan="2"></td><td colspan="2">ㅅ$_1$</td><td rowspan="2"></td><td rowspan="2">ㅎ</td></tr>
<tr><td></td><td>ㅅ$_2$</td></tr>
<tr><td rowspan="2">-격음성
+경음성</td><td rowspan="2"></td><td colspan="2">ㅆ$_1$</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td><td>ㅆ$_2$</td></tr>
<tr><td rowspan="6">+폐쇄성
+마찰성</td><td rowspan="2">-격음성
-경음성</td><td rowspan="2"></td><td colspan="2">ㅈ$_1$</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td><td>ㅈ$_2$</td></tr>
<tr><td rowspan="2">+격음성
-경음성</td><td rowspan="2"></td><td colspan="2">ㅊ$_1$</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td><td>ㅊ$_2$</td></tr>
<tr><td rowspan="2">-격음성
+경음성</td><td rowspan="2"></td><td colspan="2">ㅉ$_1$</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td><td>ㅉ$_2$</td></tr>
<tr><td rowspan="3">+공명성</td><td colspan="2" rowspan="2">+비음성</td><td rowspan="2">ㅁ</td><td>ㄴ$_1$</td><td></td><td rowspan="2">ㅇ</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ㄴ$_2$</td></tr>
<tr><td colspan="2">-비음성</td><td></td><td colspan="2">ㄹ</td><td></td><td></td></tr>
</table>

<㉥용천어 · 화순어>

2.1.3. 반모음

현대 두 지역어에는 두 개의 반모음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전설 비원순	후설 원순
y	w

그런데 이들을 모음과는 다른 별개의 음소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모음 '이' 또는 '우, 오'의 이음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필자는 몇 가지 근거에 의해 이들을 독립된 음소, 즉 반모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먼저 'w'를 다른 모음의 이음으로 처리한다면 [원]용천어의 [wi, we, wɛ]의 [w]는 어떤 모음의 이음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점은 화순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y'의 경우, [원]용천어에서 'y'가 '이'와는 다른 별개의 음소일 가능성을 지지하는 음운현상이 존재한다.[26]

(16) ㉠ 가라겻(가락#엿)　호바겻(호박#엿)　배겨우(백#여우)
모교일(목#요일)　홍마겸(홍막#염, 胸膜炎)　노굥(鹿茸)
㉡ 강엿(강#엿)　물엿(물#엿)　불여우(불#여우)　곰열(곰#열, 膽)
좀약(좀#약)　일요일(일#요일)　금요일(금#요일)
절약(節約)　한약(韓藥)　동양(東洋)　심양(沈陽)

(16)의 예들은 후행요소가 'yV'로 시작하는 복합어(한자어 포함)이다. 그런데 이 때 음절경계가 놓은 위치는 선행요소의 말자음이 어떤 자음이냐에 따라 다르다. '요일'이 결합된 단어를 예로 들어 음절경계의 차이를 보기로 하자.

㉮ mo $ gyo $ il　　㉯ il $ yo $ il

우리는 선행요소의 말자음의 'ㄱ'일 때에는 음절경계가 'ㄱ' 앞에 놓이고(㉮) 'ㄹ'일 때에는 'ㄹ' 뒤에 놓인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

26) 중부방언에서 이 예들은 'ㄴ'첨가가 일어나는데 [원]용천어에서는 이와 다르다.

해 선행요소의 末子音 種類에 따라 음절경계가, 共鳴音(ㅁ ㄴ ㅇ ㄹ)이면 그 뒤에 놓이고 障碍音이면 그 앞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27)]

그런데 복합어(한자어 포함)에서 후행요소의 두음이 'i'일 때에는 선행요소의 말자음 종류에 관계없이 이 자음은 후행음절의 초성이 된다. 즉 말자음이 장애음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17㉠) 공명음이라고 하더라도 (17㉡) 음절경계는 이들 자음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17) ㉠ 지빌(집#일) 허딜(헛#일) 소깁성(속#입성)
㉡ 노닐(논#일) 매닙(맨#입) 구닙(군#입) 멩지립성(멩질#입성)

이와 같이 ㉮용천어의 'y'와 '이'는 음운현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이 점이 ㉮용천어의 'y'를 모음 '이'와는 다른 별개의 음소로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는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y'와 '이'의 음성적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음운현상의 차이가 반모음 'y'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용천어에서 'y, w'를 음소로서 설정하려 한다. 화순어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려 하는데 ㉮용천어와 같은 음운현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그 근거가 약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27) 여기에 제시한 예들은 모두 선행요소의 말자음이 'ㄱ'인데 이는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연찬(1997:162)에 따르면 중부방언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존재한다. "이중모음이 두음으로 자음을 못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음을 갖지 않는 이중모음보다는 부자연스럽다. 즉 '각양, 각왕, 갑연' 등이 '[가걍/각양], [가광/각왕], [가변/갑연]'과 같이 둘 다 가능하나 후자가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간여, 간유, 감역' 등은 연음이 거의 불가능하며 '갈열, 발열' 등의 경우는 연음이 어려워 보인다."

2.2. 음소배열

2.2.1. 음절내부

화순어의 음소배열 제약에 대해서는 拙稿(1995)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용천어와의 대조를 통해 드러난 유사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 음절의 구조는 두 지역어가 완전히 동일한데 다음과 같다($: 음절경계, C: 자음, S: 반모음, V: 모음).

♠ $\$(C_1)(S)V(C_2)\$$

즉 한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는데 초성과 종성은 자음이, 중성은 모음 또는 '반모음-모음' 연쇄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 자음과 반모음은 수의적 요소이다. 초성과 종성에는 각각 2개 이상의 자음 연결, 즉 子音群이 불가능하다. 이 때 종성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자음은 7개(ㅂ ㄷ ㄱ ㅁ ㄴ ㅇ ㄹ)뿐이다. 또한 초성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자음도 어두 음절에서 제약이 있는데 'ㅇ[ŋ], ㄹ[28]'을 제외한 17자음만이 위치할 수 있다. 그리고 ⓡ용천어와는 달리 화순어에서는 비어두 음절 초성에 'ㅎ'이 놓일 수 없다.

음절내부에서 음소들은 일정한 배열 제약을 가진다. 첫째, '반모음-모음'(상승 이중모음)의 연결에 제약이 따르는데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y계 상승 이중모음으로 ⓡ용천어에는 6개(예 얘 여 야 유 요)가 존재하는데 화순어에는 4개(여 야 유 요)가 존재한다. 즉 ⓡ용천어에는 선행자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예, 얘'가 실현되나(㉑ 옌주(연지), 얜드

28) ⓡ용천어에서 문화어 교육을 받은 젊은층은 어두 음절 초성으로 'ㄹ'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본고의 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

래미(여드름)) 화순어에는 이들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w계 상승 이중모음으로 ㉯용천어에는 5개(위 웨 왜 와 워)가 존재하는데 화순어에는 3개(왜 와 워)가 존재한다. ㉯용천어의 '위'는 화순어에서 단모음 '위'로 실현되며 화순어에서 '웨'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단모음 '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초성-반모음'의 연결에도 제약이 따른다. 먼저 '초성-y'의 연결은 두 지역어 모두 그리 활발하지 않다(<3.2.3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후술). 특히 이러한 제약은 ㉯용천어에서 더욱 심하여 초성이 [+전설성] 자음(ㄷ ㅌ ㄸ ㅅ ㅆ ㅈ ㅊ ㅉ ㄴ ㄹ)일 때 이 연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에 화순어에서는 초성이 [+전설성] 자음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환경에서 '초성-y'의 연결이 가능하다. ㈎ '설면음(ㅅ ㅆ ㅈ ㅊ ㅉ)-y'의 연결이 몇몇 환경에 한해 가능하다(18).

(18) ㉠ 마셔(마시+어#) 다셔(다시+어#) ;
 숑:{소용, 小口甁} 션:허-{싀훤ᄒᆞ-, 快}
 ㉡ 쪄:(찌+어, 烝) 져:(지+어, 負) ;
 가쟈(가자고 해, 해체 간접인용문) 가쟈(가+지+야, 해라체 의문문)

(18㉠)은 'ㅅ' 뒤에, (18㉡)은 'ㅈ, ㅉ' 뒤에 'y'가 위치하는 예이다. 'y'가 'ㅅ'에 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시'말음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29]와 모음연쇄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 경우에 한정된다. 그리고 'y'가 'ㅈ'에 후행하는 예는 '지-, 찌-' 장음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된 경우와 일부 어미에서 발견할 수 있다. ㈏ '공명음(ㄴ ㄹ)-y'의 연결은 매우 자연스럽다(㉰ 음녁(음력), 안녕(안녕), 달력(달력) 등). ㈐ '폐쇄음(ㄷ ㅌ ㄸ)-y'의 연

29) '어'로 시작하는 어미라 할지라도 '-어X'인 경우에는 어미의 '어'가 탈락함으로써 '셔'가 생성되지 못하고 '시'로 실현된다. ㉰ 마싰다(마시+었+다), 마시라잉(마시+어라#잉), 마시야(마시+어야) 등.

결은 형태소 경계에서 확인된다(예 무더(무디+어), 버텨(버티+어)).

다음으로 '초성-w'의 연결은 두 지역어가 제약 없이 실현되는데 다만 비어두 위치에서 이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양순음-w'의 연결의 경우, 형태소 내부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경계에서는 가능하다.

(19) ㉠ 봐시요~바시요(봇+앗+이요, 碎)
뷔서~버서(붓+엇+어, 腫) 바(보+아, 視)
㉡ 뿨(뿌+어, 切斷) 바(보+아, 視)

(19㉠)은 원용천어형이고 (19㉡)은 화순어형인데 이를 통해 두 지역어 모두 형태소 경계에서 '양순음-w'의 연결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w'는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특히 '바(보+아)'의 경우에는 두 지역어 모두 'w'가 거의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초성-모음'의 연결에도 제약이 따른다. 먼저 '양순음-으'의 연결을 형태소 내부에서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형태소 경계, 즉 양순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조사 '-은, -을'이 결합할 때에는 이 연결이 가능한데(예 자믄(잠+은), 지블(집+을)) 그 양상은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다음으로 '설면음-으'의 연결은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인다. 원용천어에서는 이 연결에 큰 제약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화순어에서는 이 연결을 형성하는 예들이 극소수에 불과한데(예 스-(立), 쓰-(點火), 즈그(저희) 등) 이 때의 '으'는 순정의 '으'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어두 위치에서 'ㄴ-이'의 연결이 원용천어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실현되는 반면 화순어에서는 몇몇 단어(예 니(네), 닝기-(넘기-), 니기(너희) 등)에서만 가능한데 이 때의 '이'도 순정의 '이'는 아니다.

2.2.2. 음절연결

중부방언에서 음절이 연결되는 방식은 모음 사이에 개재하는 자음의 숫자에 따라 크게 3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30] 두 지역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3가지 유형, 즉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없을 때(제1유형), 자음이 1개일 때(제2유형), 그리고 자음이 2개일 때(제3유형)로 분류할 수 있다.

㉮ 제1유형: V_1 \$ V_2
㉯ 제2유형: V_1 \$ CV_2
㉰ 제3유형: V_1C_1 \$ C_2V_2

첫째, 제1유형에 해당하는 연쇄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그 제약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두 지역어 모두 'V_2'가 '우'나 '이'일 때의 연쇄는 꽤 자연스럽다. 하지만 'V_2'가 '이'인 경우에도 'V_1'이 전설모음이면 두 지역어 모두에서 '이'가 수의적으로 탈락하기도 한다(예 내일~낼:). 그리고 이 연쇄에서 'V_1'이나 'V_2'가 '으'인 연쇄는 그리 쉽게 발견되지 않는데 이 제약도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둘째, 제2유형에 해당하는 연쇄에서의 제약은 두 지역어 모두 그리 심하지 않다. 다만 화순어의 경우 'C'에 'ㅎ'이 놓이기 힘들며 원용천어의 경우에도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ㅎ'의 실현이 가능하다(<4.2.2.1 'ㅎ'탈

30) 이 경우 음절경계가 배정되는 원리는 송철의(1982), 강창석(1984), 박창원(1987)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강창석(1984)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어의 음절 형성 규칙'을 제안했는바, 이들이 순서대로 적용됨으로써 국어의 음절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① 모음 혹은 활음+모음으로 음절핵 형성
② 음절핵 앞의 자음이 음절초에 결합
③ 음절핵 뒤의 자음이 음절말에 결합

락> 참조). 그리고 'C'가 'ㅇ[ŋ]'일 때 음절경계 배정에 있어서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임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셋째, 제3유형에서 음절경계는 두 자음 사이에 위치해 'C_1'은 선행 음절의 종성이 되고 'C_2'는 후행 음절의 초성이 된다. 이 때 'C_1'과 'C_2' 사이에는 꽤 심한 제약이 존재하는데 강창석(1984)에서는 중부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C_1'이 'C_2'보다 강한 자음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약은 두 지역어에서도 동일한데 이를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C_1'에는 7자음(ㅂ ㄷ ㄱ ㅁ ㄴ ㅇ ㄹ)만이 놓일 수 있으며, 'C_2'에는 'ㅇ'이 놓일 수 없다.
② 'C_2'가 비음(ㅁ ㄴ)이면 'C_1'에 장애음(ㅂ ㄷ ㄱ)이 놓일 수 없다.
③ 'C_2'가 'ㄴ'이면 'C_1'에 장애음뿐만 아니라 'ㄹ'도 놓일 수 없다.
④ 'C_2'가 'ㄹ'이면 'C_1'에 'ㄹ'만이 놓일 수 있다.
⑤ 'C_1'이 장애음(ㅂ ㄷ ㄱ)이면 'C_2'에 평장애음(ㅂ ㄷ ㄱ ㅈ ㅅ)이 놓일 수 없다.

다만 'C_2'가 'ㅎ'인 자음연쇄에서 두 지역어는 차이를 보인다.

(20) ㉠ [ṭalkʰɯmʰəḍa](달콤하다) [kyərʰoŋ](結婚) ;
[kɯbʰəḍa](급하다) [ŋugʰaŋnəŋ](육학년) [ʃugʰi](淑姬, 人名)
㉡ [t'andanəda](단단하다) [kyəron](結婚) [ʧaŋwa](長靴) ;
[kɯbəda](급하다) [yugaŋnyən](육학년) [ʃugi](淑姬, 人名)

(20)의 예들은 '허-(爲)'가 결합한 구성, 후행 요소가 'ㅎ'으로 시작하는 복합어·한자어인데 이들을 통해 두 지역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용천어는 'ㅎ'이 음성적으로 실현된다(20㉠). 이 때 'ㅎ'은 그 음성적인 특성으로 인해 앞 자음(공명음이든, 장애음이든 관계없이)과 결합하여 하나

의 음성적 음절을 이룰 수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이다. 이를 통해 ⑪용천어에서는 음소적으로 /자음-ㅎ/의 연쇄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ㅎ'이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자음-ㅎ/의 연쇄는 발견할 수 없다(20ⓛ).

3. 모음의 변화

이 장에서는 두 지역어의 母音에 대한 通時論的 對照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필자는 제2장에서 두 지역어의 母音體系 및 母音과 관련된 音素排列을 對照한 바 있다. 이제 그 對照 結果와 몇몇 內的 證據를 바탕으로 共通的인 先代形을 설정하고 두 지역어가 이로부터 변화하는 양상을 대조할 것이다.

현대 두 지역어의 공시론적 대조를 통해 드러난 모음체계상의 차이점만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용천어에 존재하는 '에'가 화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화순어에 존재하는 전설원순모음 '외, 위'가 ㉻용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어, 아'의 [+전설성] 대립짝이 ㉻용천어에서는 각각 '에, 애'이나 화순어에서는 동일한 모음 '애'이다.

㉣ 후설원순모음 '오'의 [-원순성] 대립짝이 화순어에서는 '어'이나 ㉻용천어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이 장에서는 먼저 현대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를 형성하게 한 모음의 변화, 즉 모음의 '系列上의 變化'를 대조한다. 그리고 모음의 상이한 分布・頻度를 초래한 음소배열상의 모음의 변화, 즉 모음의 '統合上의 變化'도 뒤이어 살필 것이다. 물론 본고의 대상이 되는 변화는 두 지역어의

공시론적 대조와 내적 증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변화에 한정한다.[31)]

㉮ 계열상의 변화
① '에'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②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③ 'Vi' 이중모음[32)]의 변화
④ 'ᄋᆞ'의 변화

㉯ 통합상의 변화
①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② 전설모음화('으>이' 전설모음화, 움라우트)
③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④ 고모음화
⑤ 모음연쇄의 변화

3.1. 계열상의 변화

3.1.1. '에'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31) 국어사 연구에서 '어'의 後舌母音化에 대한 논의가 있다. 즉 중부방언에서 '어'가 前舌母音이던 역사적인 단계가 있었는데(김완진 1963, 이기문 1965), 이 '어'가 후설모음화하여(비록 그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국어와 같은 후설모음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곽충구(1980)에서는 '으'와 '어'가 중화되지 않는 중부방언에서도 18세기 후기에 원래의 '으'를 '어'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어'의 후설모음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의 후설모음화는 ㉯용천어와 화순어의 대조와 내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32) "'Vi' 이중모음"은 그동안 학계에서 '하강 이중모음'이라고 불리던 모음을 가리킨다. 종래의 용어 대신 "'Vi' 이중모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이 때의 후행모음이 'i'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강 이중모음'이란 용어는 'Vi' 이중모음의 한 부류를 가리키는데 이에 대해서는 <3.1.3 'Vi'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용천어와 화순어의 前舌-非圓脣母音은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용천어형⇔화순어형, 이하 동일).

(1) ㉠ [i]⇔[i] : 비⇔비(雨) 씨갓⇔씨갓(種子) 짐⇔짐(負荷)
㉡ [e]⇔[i] : 메⇔미(杵) 데운다⇔딘다(溫) 세다⇔씨다(强)
㉢ [ɛ]⇔[E] : 매⇔매(鞭) 잰다⇔잰다(尺) 해⇔해(日)

일반적으로 ㉠용천어의 두 모음 '이[i]'와 '에[e]'가 화순어의 '이[i]'에 대응하며[33] ㉠용천어의 '애[ɛ]'는 화순어의 '애[E]'에 대응한다. 이를 Weinreich(1954)의 方言分化體系(diasystem)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용천어$_1$, 화순어$_2$ //	$_1$/이 ~ 에/ ——— $_2$/이/	≈ /애/ ≈ … //

우리는 두 지역어에서 이러한 차이를 유발한 변화 과정으로 3가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다. 즉 ㉮ ㉠용천어에서 '이'가 '이'와 '에'로 分岐(split)함으로써 '에'가 音韻化하였을 가능성, ㉯ 화순어의 '에'가 '이'로 合流(merger)하여 非音韻化하였을 가능성, ㉰ 제3의 음소(또는 음소연쇄)가 ㉠용천어에서는 '에'로, 화순어에서는 '이'로 변화했을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용천어의 가상적인 재구형 '*이'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환경과 '에'로 변화하는 환경을 음운론적으로 명확히 기술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 가능성은 우선 배제한다. 그리고 ㉰의 가능성도 완

33) 물론 다음과 같이 이러한 대응관계에서 벗어난 예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대응 예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후술할 '통합상의 변화'('으>이' 전설모음화, 움라우트 등)의 차이로 능히 설명할 수 있다.
① 이⇔으 : 기럼⇔기름 이럼⇔이름
② 으⇔이 : 쯪-⇔찢- 슴슴허-⇔심심허-
③ 에⇔애 : 제리-⇔재리-(저리-) 쎄기-⇔쌔기-(썩이-)

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34] 화순어의 내적 증거들이 ㊏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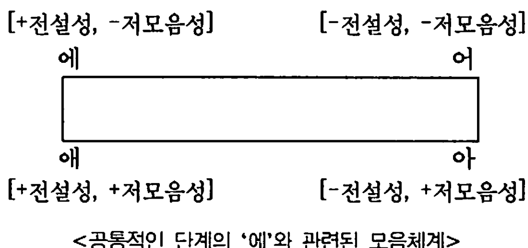
(2) ㉠ 싯~서이(三) 닛~너이(四)
㉡ 넹기-(넘기-) 미기-(먹이-)
㉢ 민경(面鏡) 빌(別) 빙(病)

(2)는 화순어형인데 이 때의 모음 '이'는 그 변화과정에서 '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어이'의 변화(2㉠), '어'의 움라우트(2㉡), '여'의 변화(2㉢)가 그것인바, 이를 통해 후설모음 '어'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하는 전설모음을 상정할 수 있겠다. (2)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모음 '이'와 '어'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몇 가지 면에서 무리가 따른다. 첫째, 현대 화순어에서는 움라우트에 의해 '어'가 '애'로 교체되기도 한다(㉥ 법+이(法)→배비[pɛbi]). 이는 현대 화순어에서 '어'의 [+전설성] 대립짝이 '애'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만약 '어'의 [+전설성] 대립짝이 현대 이전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서 '이'이고 현대 화순어에도 '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어'의 [+전설성] 대립짝이 '이'에서 '애'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찾기 힘들다. 둘째, '여>이'의 변화에 대한 음성학적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셋째, 현대 화순어에서 '이'의 [-전설성] 대립짝은 '으'이다. 만약 '이'의 [-전설성] 대립짝이 '어'인 시기가 있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대립짝이 '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대 화순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전 단계에 '어'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했던 전설-비원순모음의 존재를 가정할 수밖에 없으며 ㉯용천어와의 대조에 의해서 그 모음은 '에[e]'임을 확인할 수 있다.

---

34) 중부방언을 참고할 때 '어데⇔어디(어디), -는데⇔-는디(-는디)' 등의 예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두 지역어의 대조와 화순어의 내적 증거들에 의해서 두 지역어 모두 현대 이전의 어느 시기에 전설모음 '에'가 존재하여 '애'와 [±저모음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이들이 각각 후설모음 '어, 아'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는 공통적인 단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공통적인 단계의 '에'와 관련된 모음체계>

■ ㉯용천어

현대 ㉯용천어에서는 공통적인 단계의 대립이 유지되어 '에, 애'가 [±저모음성]에 의한 대립을, 그리고 이들이 각각 '어, 아'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다.

(3) ㉠ 베(稻) ‖ 배(腹)　테기(제기, 遊具) ‖ 태기(胎氣)

　㉡ coŋᴇ(紙)　nuŋᴇ(蠶)　molgᴇ(沙)　morᴇ(後後日)

다만 '에'와 '애'의 합류에 의해 그 대립이 약화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는데(3㉡) 이러한 현상은 비어두 위치에만 한정된다. 즉 어두에서 두 모음의 대립이 약화되는 현상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3㉠).

■ 화순어

화순어에서 '에'와 '애'의 대립은 상실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에'와 '애'의 합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에'가 '이'로 합류한 결과

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돈주 1978, 이기갑 1986). 하지만 오종갑(1998)에서는 동남방언의 변화를 예로 들어 '애'의 음성적인 변화([ɛ>E])가 단초가 되어 '에'와 '애'의 간극이 좁아짐으로써 '에>이' 또는 '에>애'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순어에 '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에>이' 변화에 기인한 것이 분명한데 그 변화의 단초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본고에서 제시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화순어에서 저모음의 상승이 하나의 경향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3.1.2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언급할 '오, 외'의 상승이라든가, '아'가 다른 방언에 비해 높은 위치에서 발음된다든가 하는 점이 이를 지지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면 '애'의 음성적 상승이 '에>이'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나 한다.

어두에서 '에>이'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일부의 단어들에서 '에'가 '애[E]'로 합류한다.[35]

(4) ㉠ 니{네, 爾} 시-{세-, 强} 끼울-{게으르-, 懶} 미-{메-, 負} 치{체, 篩}
㉡ 시상{셰상} 시수{셰슈} 지사{제ᄉᆞ} 지비{졔비}
㉢ 미느리{며ᄂᆞ리} 비실{벼ᄉᆞᆯ} 핀허-(편하-)
㉣ 이미(어미) 닝기-(넘기-) 미기-(먹이-) 비리-(버리-, 汚) 비-(보이-)
ⓐ 새끼-(셖이-) 쌔기-(쎡이-) 생기-(섬기-) 재리-(저리-)
ⓑ 배비(법+이, 法) 개비(겁+이, 怯) 생이(성+이, 姓) 재기(적+이, 炙)

먼저 '에>이'의 변화를 경험하는 '에'에는 대략 4가지 유형이 있다.[36] 즉 ㉮ 하강 이중모음 'əi'가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를 경험한 것(4㉠), ㉯ y계

35) 아산지역어(곽충구 1982)와 전북방언(최태영 1983:125) 등을 참고할 때 화순어에서도 장음을 가진 환경에서 이 변화가 먼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36) 이들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3.1.3 'Vi' 이중모음의 변화>(㉮), <3.2.3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 <3.2.2.2 움라우트>(㉱)에서 후술할 것이다.

상승 이중모음 'ye'의 'y'가 탈락함으로써 형성된 것(4㉡), ㉯ 'yə'가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를 경험한 것(4㉢), ㉰ 움라우트에 의해 형성된 것(4㉣)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움라우트에 의해 형성된 '에' 중에는 '이'로의 변화를 거부하고 '애'로 합류한 예들도 있다(4ⓐ). 화순어의 어두에서 '에'가 '애'로 합류한 예들은 움라우트에 의해 형성된 '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37] 이는 움라우트의 적용 시기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화순어에서 움라우트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그 사이에 '에>이'의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38] 그리고 형태소 경계에서는 '에>이'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4ⓑ) 이러한 사실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 규칙이 '에>이' 변화보다 뒤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5) ㉠ 얼기빗{얼에빗} 써리{서흐레} 올기쌀{올벼, 오례쌀} 행이나{힝혀}
생이{상여, 喪輿} -기-(존칭선어말어미 '*-겨-')
㉡ 언재(언제) -내(하게체 서술형 종결어미 '-네')
-개(하게체 명령형 종결어미 '-게')
㉢ 굼뱅이{굼벵이} 엉댕이(엉덩이) 껍대기(껍데기) 독댕이(돌덩이)
㉣ 너매(너머) 건내(건너) 붕애(붕어) 건내-(건너-)

비어두에서도 '에>이'의 변화는 존재하는데(5㉠) 어두에서만큼 활발하지는 않다. 대신에 '에'가 '애'로 합류한 예가 다수이다(㉡-㉣). 특히 움라

37) '채육(體育), 개산(計算), 애절(禮節)' 등에서도 '에'가 '애'로 합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은 '에'가 모음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방언(특히 표준어)의 '에'가 직접 '애'로 차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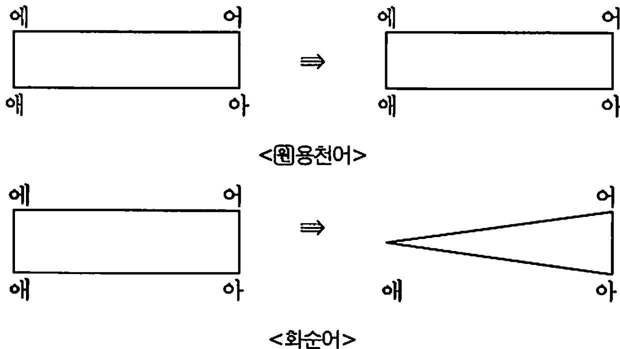
38) 예들이 많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움라우트된 '에'가 '애'로 합류한 예들은 음절두음이 주로 'ㅅ, ㅈ'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이들 자음이 '에>이'의 변화를 저지할 수 없음은 '시상(世上), 지사(祭祀)' 등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자음이 '어'의 움라우트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거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트된 '에'(5㉢)와 어간말 '어>에'에 의한 '에'(5㉣)는 '이'로의 변화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애'로 합류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에'가 '이'로 변화하고(특히 어두에서는 대부분) 나머지는 '애[E]'로 합류함으로써 '에[e]'는 화순어의 모음체계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에 ‖ 어, 애 ‖ 아'의 [±전설성]에 의한 대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 화순어에서 전설모음 '애[E]'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는 후설모음은 하나가 아니라 두 모음 '어, 아'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실은 형태소 결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움라우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후설모음 '어'와 '아'가 모두 '애[E]'로 움라우트된다(6).

(6) [pEbi](법+이, 法) ‖ [pEbi](밥+이, 食)

결론적으로 공통적인 단계의 체계가 ㉾용천어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화순어에서는 변화를 경험한다. 즉 '에'가 '이'로 합류하여 비음운화함으로써 모음의 대립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전설모음 '애[E]'가 두 후설모음 '어, 아'와 동시에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게 된다(진한 글씨는 변화 전후의 음소. 이하 동일).



3.1.2.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현대 ㉖용천어와 화순어에는 모두 음소로서 '오'가 존재하는데 그 음성이 다르다는 점은 앞서 지적하였다. 즉 ㉖용천어에서는 어두와 비어두에서 각각 [ɔ]와 [o]로 실현되며 화순어에서는 환경에 관계없이 [o]로 실현된다. 또한 두 지역어에서 '오'의 대립 관계도 다른데 그 차이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오'의 [+전설성] 대립짝이 화순어에서는 '외'이나 ㉖용천어에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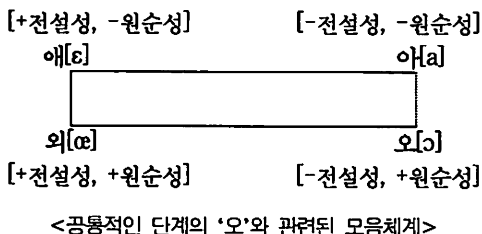
㉯ '오'의 [-원순성] 대립짝이 화순어에서는 '어'이나 ㉖용천어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두 지역어의 내적 증거들을 통해 '오'의 [+전설성] 대립짝이 전설-원순모음 '외[œ]'이었던 공통적인 단계를 상정할 수 있다.

(7) ㉠ 쏘이-~쐐- 고이-~괘- ㉡ 맵쌀(멥쌀) 모서숙(메조)

먼저 ㉖용천어에서 전설-원순모음 '외[œ]'가 존재하는 단계가 있었다. 현대 ㉖용천어에 존재하는 쌍형어에서 '오이[ɔ$i]'와 '왜[wɛ]'의 변동은 중간 단계로 단모음 '외([œ])'를 인정할 때 쉽게 설명될 수 있다(7㉠). 화순어에서도 '오'의 [+전설성] 대립짝이 '외([œ])'이며 이의 [-원순성] 대립짝이 '애([ɛ])'인 단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가 존재한다(7㉡). 여기에서 보이는 '매, 모'는 중부방언과 같은 '뫼'(粳)를 선대형으로 설정할 때 그 변이가 무리없이 설명될 수 있다. 이때 '뫼>매'의 변화는 단모음 '외'가 양순음 뒤에서 비원순모음화한 것인데 이는 '외'의 [-원순성] 대립짝이 '애'임을 의미한다. 만약 '애'가 아니라 '에'였다면 화순어에서는 '에>이'의 변화에 의해 '*미'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 지역어의 대조와 각 지역어의 내적 증거들을 통해서 두 지역어에서 '오'가 [ɔ]로 실현되어 '외[œ]'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는 공통적인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오'와 '아'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공통적인 단계의 '오'와 관련된 모음체계>

■ (원)용천어

현대 (원)용천어에서는 '오'의 [-전설성] 대립짝인 '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하강 이중모음 '외[ɔi]'가 변화한 단모음 '외[œ]'가 상승 이중모음 '왜[wɛ]'로 변화했기 때문이다(8㉠). 한편 이 '왜[wɛ]'는 양순음 뒤에서 'w'가 탈락함으로써 '애[ɛ]'로 실현된다(8㉡).

(8) ㉠ 놰(腦) 돼(升) 좨(罪) 쇄(金)
　　㉡ 배{뵈, 布} 매뚜기{묏도기, 螞} 매뗑{뫼, 墓}

그런데 이러한 '외>왜'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분명히 밝히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필자는 (원)용천어의 모음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3.1.3 'Vi'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후술할 것인데 (원)용천어에서 '오'는 이중모음 '외[ɔi]'의 변화에 의해 '외[œ]'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우'는 이중모음 '위[ui]'가 상승 이중모음 '위[wi]'로 변화함으로써 그 대립을 형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체계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단모음 '외[œ]'가 상승 이중모음 '왜

[wɛ]'로 변화하여 비음운화함으로써 ㉻용천어의 모음체계에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한다.[39]

■ 화순어

현대 화순어에서는 '오'와 '외'가 각각 中母音 [o]와 [ö]로 실현된다. 위에서 설정한 공통적인 단계와 비교해 볼 때 低母音 '오[ɔ], 외[œ]'가 각각 중모음 '오[o], 외[ö]'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김완진(1957), 이기문(1969)에서 제기한 '母音推移' 가설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오'는 혀높이가 하강하는데 만약 화순어에도 이와 같은 모음추이가 있었다면 이에 의해 하강했던 모음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은 음운변화에서 타당성을 부여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필자는 모음추이 가설을 반추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오'의 원순성 대립짝인 '외'의 변화를 통해 'ɔ>o'의 변화를 조심스레 제기하려 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외'와 '위', '오'와 '우'의 안전간격이 매우 넓다는 점, 즉 중모음의 위치가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외, 오'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40] ② 앞서 언급했듯이 전반적으로 화순어의 저모음에 소위 閉口調音原則(김진우 1971)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œ>ö, ɔ>o'의 변화는 모음들의 대립관계에 변화를 가져와 '오, 외'는 각각 '어, 에'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하게 된다. 우리는 화순어

---

39) 이러한 체계상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wi'가 '위[ü]'로 단모음화하는 것인데 화순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40) ㉻용천어에서는 '어'가 원순모음화하는데 이러한 현상도 혹시 넓은 안전간격을 메우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곽충구(2003)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인해 /어/의 후설화(ə>o)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그 공백이 'ᄋᆞ'의 비음운화에 따른 /오/의 저설화(o>ɔ)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보는 점이 본고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일어났던 '통합상의 변화', 즉 양순음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를 통해 이러한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9) ㉠ 깽번～깽본(江邊) 머시매～모시매(男兒)
㉡ 비-{보이-, 被視}

먼저 '오'와 '어'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은 '어>오'의 원순모음화를 통해 확인된다(9㉠).[41] 다음으로 (9㉡)에 제시한 어형은 '외'와 '에'의 대립관계를 드러내 주는 소중한 예이다. '비-'는 '보이->뵈-(단모음화)>베-(비원순모음화)>비-(에>이)'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모음 '외'가 '에'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외'의 [-원순성] 대립짝이 '에[e]'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만약 '외'의 [-원순성] 대립짝이 '애[ɛ]'였다면 '배-'로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모음 '외'가 [œ]에서 [ö]로 변화함으로써 [±원순성]에 의한 대립이 '외[œ] ‖ 애[ɛ]'에서 '외[ö] ‖ 에[e]'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순어에서 '에'가 소실되면서 '외[ö] ‖ 에[e]'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외[ö]'는 다시 '애[E]'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관계를 드러내 주는 예들이 있다(10).

(10) 쐐기～쐬기(蟲) 바꽤깄소～바꾀깄소(바꾸+아+기+었+소)[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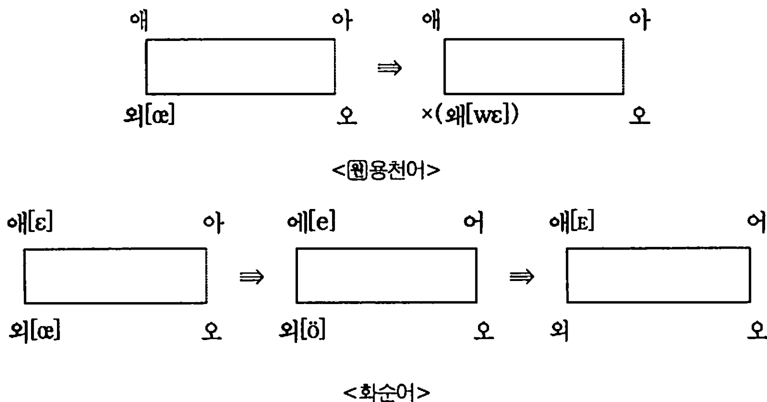
---

41) 중부방언에서도 '오'와 '어'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오>어'의 비원순모음화를 통해 알 수 있다(이병근 1970ㄴ).

42) 화순어에는 존칭선어말어미로 '-기-'가 존재하는데 역사적으로 앞뒤에 어미 '-어/아'를 필요로 한다(전남방언의 선어말 어미 '-게-'에 대해서는 박양규(1980), 고광모(2000, 2001) 등을 참조). 그리고 이 '-기-'에 선행하는 어미 '-어/아'는 움라우트를 경험하게 된다.

화순어에서 w계 상승 이중모음은 수의적으로 단모음화하는데 (10)에서 보듯이 'wᴇ'는 'ö'로 단모음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ᴇ'와 'ö'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화순어에서 '외'의 [-원순성] 대립짝은 '애[ɛ] ⇒ 에[e] ⇒ 애[ᴇ]'로 바뀌어 왔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 모두 '오'와 관련된 대립에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원)용천어에서는 '오'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이루는 전설원순모음 '외'가 상승 이중모음 '왜'로 변화하면서 비음운화한다. 다음으로 화순어에서는 '어'가 '오'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외'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이루는 모음이 '애[ɛ] ⇒ 에[e] ⇒ 애[ᴇ]'로 바뀌게 된다.



<(원)용천어>

<화순어>

3.1.3. 'Vi' 이중모음의 변화

이 절에서는 두 지역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Vi' 이중모음의 변화를 검토하려 하는데 이에 앞서 먼저 二重母音에 대한 지금

까지의 해석을 살펴 보고자 한다.

二重母音은 音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중모음을 논하기에 앞서 음절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Saussure는 음성을 內破音(implosif)과 外破音(explosif), Grammont은 漸弱音(phonème décroissant)과 漸强音(phonème croissant)으로 나누어 음절경계가 각각 내파음과 외파음, 점약음과 점강음 사이에 놓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이숭녕(1954ㄱ), 허웅(1985:112) 등을 참조). Jespersen(1926:190)에 따르면, 음절은 한 번의 呼氣壓力(Ausatmungs druck)으로 발음되는 音群(呼氣音節, Expirationssilbe)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음을 亮度[43](Schallfülle) 또는 共鳴度(Sonorität)에 따라 8등급[44]으로 나누어 도식화할 때 하나의 頂點(Gipfel)를 중심으로 音節(共鳴音節, Sonoritätssilbe)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Pike(1947:246)에서도 '한 번의 흉부-박동과 한 번의 공명 또는 prominence의 정점이 있는 동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절음으로 구성되는 음의 단위'를 음성적 음절이라고 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音聲的인 音節은 調音的 特性(흉부-박동 또는 호기압력)과 音響的 特性(공명도)에 의해 정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언어의 음절은 이러한 음성적 음절만으로 규정될 수는 없으며 특정 언어의 구조적인 제약과 관련되는 음절, 즉 음소적 음절도 함께 고

---

43) 이 번역 용어는 이숭녕(1954ㄱ)에 따른 것이다.

44)

① 무성음	a) 파열음 :	[p, t, k]
〃	b) 마찰음 :	[f, s, ç, x]
② 유성음	파열음 :	[b, d, g]
③ 〃	마찰음 :	[v, z, ɣ]
④ 〃	a) 비음 :	[m, n, ŋ]
〃	b) 측음 :	[l]
⑤ 〃	r-음	
⑥ 〃	고모음 :	[y, u, i]
⑦ 〃	중모음 :	[ø, o, e]
⑧ 〃	저모음 :	[ɔ, æ, ɑ]

려하여 규정되어야 함을 Pike(1947:246)에서 지적한 바 있다. 허웅(1985:114)에 따르면 영어의 *pay*와 프랑스어의 *pays*는 모음의 발음이 같으나 영어의 *pay*는 한 음절인 반면 프랑스어의 *pays*는 두 음절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는 동일한 음성이라도 음소적 음절은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음성적으로 이중모음은 '동일한 음절 내에 존재하는 다른 두 모음의 연결'로 정의된다(Jespersen 1926:207, Catford 1988:115). 음절이 조음적 특성과 음향적 특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모음의 종류도 이들 특성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音響的 特性(共鳴度, Sonorität)에 따른 이중모음의 분류(Jespersen 1926:207)

㉠ 下降 二重母音(fallende Diphthonge) : (공명도가 큰) 정점 모음이 다른 모음을 선행하는 이중모음. ㉾ ai, oi, au, aɛ

㉡ 上昇 二重母音(steigende Diphthonge) : (공명도가 큰) 정점 모음이 다른 모음을 후행하는 이중모음. ㉾ ia, ea

㉢ 浮動 二重母音[45](schwebende Diphthonge) : (공명도가 동일한) 두 모음의 연결로 가변적인 평형이 유지되어 어느 모음이 정점 모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중모음. ㉾ ɪə, iu

㉯ 調音的 特性(强勢-搏動, stress-pulse)에 따른 이중모음의 분류(Catford 1988:116)

㉠ 하강 이중모음(decrescendo or falling diphthong) : 강세-박동이 강하게 시작해서 점차 사라지는 이중모음. ㉾ aĭ, ɔĭ, oŏ

45) 이숭녕(1947)에서는 "原名 Schwebende는 '浮動하는'의 뜻이라하나 母音圖로 聯想하면 開口度의 비슷한 音사이의 異한 것이니 橫進的이라 于先 改稱하였다."라고 하였는데, 필자는 Jespersen(1926:207)이 사용한 용어의 원래 의미가 이 이중모음의 변화 양상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 이중모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 상승 이중모음(crescendo or rising diphthong) : 강세박동이 약하게 시작해서 점차 강해지는 이중모음. 예 ĭe, ĭɔ, ŭu, ŭɔ

그런데 음절이 음성적으로만 결정될 수 없다면 이중모음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언어 보편적인 음성적 특징 이외에 특정 언어의 특징 —운율적인 특징(길이, 높이, 세기), 음절구조적 특징 등—에 의해 이중모음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숭녕(1949)에서의 "영어의 *tie*가 현대 국어에서는 '타이'로 두 음절을 이루나 중세국어에서는 필연코 이중모음 '태(타+ㅣ)'로 느껴졌을 것"이라는 언급도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중모음은 모음의 음성적 특성(공명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특정 언어의 구조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이중모음에서 어느 모음이 核音이며 副音인가의 여부는 특정 언어의 구조와 음성적 공명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46)

이제 눈을 돌려 중세국어의 소위 하강 이중모음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河野六郎(1945:139)에서는 '割子蓋'(가위)를 *[kʌ-si-gai]로 재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애'를 /ai/로 해석한 셈이다. 또한 이숭녕(1949)는 '애, 에, 외'가 현대국어의 '위, 의'와 같은 이중모음이라고 단정하였으며 이숭녕(1954)에서 '애, 외'를 'ai, oi'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Vi/로 해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이기문(1972:140)에서는 하강 이중모음을 /Vy/로 이해하였다.47) 그리고 김완진(1964)에서는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

46) 허웅(1985:115)에 따르면 "영어의 here도 객관적인 소노리티를 보면 [ə]가 클 것이나, … [i]가 성절음이 된다."라고 하였다.

47) 이기문(1972:95)에서는 'ᄀᆞᇫ애'의 재구형으로 */kʌzgai/를 설정한 바 있으나 '/ai/>/ay/'의 변화 과정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에 3가지(㉠단위음운으로 보는 견해, ㉡한 음절 내의 두 모음 연쇄로 보는 견해, ㉢한 음절 내의 반모음과 모음의 연쇄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하고서 ㉢안을 제1안으로 채택하고 필요에 따라 국부적으로 ㉡안을 원용한다고 하였다. 결국 하강 이중모음을 /Vy/로 해석한 것인데 그 까닭은 이들이 단모음 /i/와 음운론적 행동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어간말음이 이중모음일 때에는 어미의 'ㄱ'이 탈락(또는 'ㄱ>ㅇ[ɦ]')하는 반면에(예 보내어시놀(遣), ᄃᆞ외어늘(爲) 등) 어간말음이 단모음 /i/일 때에는 이러한 음운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예 어즈리거늘(亂), 디고(落) 등).

셋째, 전광현(1976:33)에서는 하강 이중모음이 방언에 따라 음운론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중부방언의 경우에는 /Vi/로, 남원지역어의 경우에는 /Vy/으로 해석한 바 있다. 박창원(1988)에서도 하강 이중모음의 부음을 /i/로 보아 'i계 이중모음'이라고 칭한 바 있다. 그리고 김종규(1989:96~120)에서는 중세국어의 언어사실(모음연쇄의 빈칸, Glide화, Glide 삽입, 모음조화 등)을 들어 하강 이중모음을 /Vi/의 모음연쇄(모음군)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병근(2003)에서는 '올무(올모)'와 '올미'의 방언형으로부터 '*올ᄆᆡ[olmɐi]'를 재구하였는데 여기에서 /ɐi/는 "이른바 하향이중모음 /ɐy/가 아니라 'ㆍ'와 'ㅣ'가 한 음절로 합성된 重母音 또는 合成母音 /ɐi/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필자로서는 'ㄱ'탈락(또는 'ㄱ>ㅇ[ɦ]') 현상이 하강 이중모음을 /Vy/로 보아야 하는 적극적인 증거가 되기는 힘들지 않나 한다. 이숭녕(1949)와 김종규(1989:96~120)의 지적처럼 하강 이중모음이 단모음 /i/와 음운론적 행동을 같이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ㄱ'탈락의 경우에도 전혀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허웅 1985:437, 김종규 1989:116~119). 첫째, 용언 어간말 모음 '이' 뒤에서 어미의 'ㄱ'이 탈락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한다(예 ᄀᆞ리어늘(蔽), 어리오(愚) 등). 둘째, 'ㄱ'탈락이 활용과 곡용에서 차이를 보여 곡용에서는 이중모음뿐만 아니라 모

든 모음 뒤에서 'ㄱ'이 탈락한다(예 혀와, 우리옷, 八千里옴, 道具오 등).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세국어의 이러한 이중모음을 音素的으로 모음 /i/가 후행하는 'Vi' 二重母音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통시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Vi' 이중모음은 두 부류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 즉 음소적으로 동일한 'Vi' 이중모음이라 할지라도 음성적 요인에 의해 다른 변화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공명도'라는 음성적 특성이 이중모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명도에 차이에 따라 이중모음을 나눈 Jespersen(1926:207)의 방식을 받아들여 'Vi' 이중모음을 '下降 二重母音'과 '浮動 二重母音'으로 구분하려 한다.

① 하강 이중모음 : ᄋᆡ[ʌi] 애[ai] 에[əi] 외[ɔi]
② 부동 이중모음 : 위[ui] 의[ɯi]

그동안 학계에서는 하강 이중모음과 부동 이중모음을 구분하지 않고 이중모음의 변화를 고찰해 왔다. 특히 '외'와 '위'는 그 변화 과정을 동일시하려는 데에 너무 집착한 면이 없지 않다. 그리하여 두 이중모음의 변화를 ㉮로 보든지(최명옥 1982:84, 최임식 1994:45-48), ㉯로 보든지(최전승 1987, 한영균 1995), 아니면 ㉮와 ㉯를 모두 인정하려(허웅 1965:459)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 경우에 'ö'와 달리 'ü'는 그 존재가 문증되기 쉽지 않으며 ㉯의 경우에도 'oy>we'의 변화가 음성적인 타당성을 검증받기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 ① oy > ö > we 또는 wɛ
　 ② uy > ü > wi
㉯ ① oy > we 또는 wɛ > ö
　 ② uy > wi > ü

㉰ ① oy > ö > we 또는 wɛ
② uy > wi

한편 두 이중모음의 변화 과정을 다르게 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백두현 1992:94-112) 이는 필자에게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도 '외'와 '위'가 왜 다른 변화를 경험하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며 또한 'uy>wi'의 변화를 再音素化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설명이 복잡해진 감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 같이 이중모음을 구분하지 않고 변화를 관찰하다 보니까 그 변화의 정곡을 찌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하강 이중모음(ᄋᆡ 애 에 외)과 부동 이중모음(위 의)의 변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즉 하강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ᄋᆡ, 애, 에, 외'의 '이'가 항상 음절부음이 되지만 부동 이중모음은 '위, 의'의 '이'뿐만 아니라 '우, 으'도 음절부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비록 ㉯용천어와 화순어만를 대상으로 '위, 의'의 변화를 살피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때 그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부방언과 마찬가지로 두 지역어 모두에서도 역사적으로 'Vi' 이중모음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내적 증거들이 존재한다.

(11) ㉠ ai : 사이~새(間) 가이~개(犬) 재우-(寢) 채우-(滿)
㉡ əi : 서이~셋(三) 너이~넷(四) 데우-(溫) 세우-(立)
㉢ ɔi : 고이-~괘-(拄) 쏘이-~쐐-(射) 보이-~배우-(視)
㉣ ui : 누이-~뉘-(放尿) 쥔(主人)
㉤ ɯi : 키우-(長) 띠우-(浮) 씌우-(冠)[48]

(12) ㉠ ai : 사이~새 재우- 채우-

ⓛ əi : 서이~싯 너이~닛 디-(溫) 시우-(立)
ⓒ ɔi : 고이-~괴- 쏘이-~쐬-
ⓔ ui : 누이-~뉘- 주인~쥔
ⓜ ɯi : 키우- 띠우- 씨우-

(11)은 ⓦ용천어형이고 (12)는 화순어형인데 두 지역어가 비슷한 대응 양상을 보인다. 우리는 이 예들을 통해 두 지역어의 전설모음이 '후설모음$이'의 모음연쇄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두 지역어에 'Vi' 이중모음이 존재했다는 완벽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후설모음$이'가 이중모음을 형성하지 않고 후행하는 '이'의 영향으로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변화한 다음 異化에 의해 '이'가 탈락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예 사이>*새이>새). 따라서 'Vi' 이중모음이 존재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필자는 다음의 예들이 'Vi' 이중모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증거가 아닌가 한다.

(13) 구신(鬼神) 구찬허-(귀찮-) 모서숙(메조)

(13)에서 '구신'은 두 지역어 모두에서 나타나며 '구찬허-, 모서숙'은 화순어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이 예들을 통해 '이'가 탈락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Vi'와 같은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후설모음$이'의 모음연쇄에서 '이'가 탈락하는 경우는 두 지역어에서 확인하기 힘들다.[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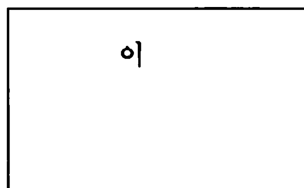
---

48) 여기에 제시한 예들이 이중모음 '의'의 존재를 확고하게 증언해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어형성 과정에서 각각 '크-(大), 뜨-(浮), 쓰-(冠)'에 접미사 '-이우-'가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모음 '이' 앞에서 '으'가 탈락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부방언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중부방언에서는 이 때 '으'가 탈락하지 않고 '이'와 이중모음(킈우-, 띄우-, 씌우-)을 형성한다.

지금까지 두 지역어의 내적 증거들을 통해 두 지역어 모두 역사적으로 'Vi' 이중모음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이제 'Vi' 이중모음이 존재할 당시에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에서 '이' 이외의 전설모음이 대립을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적 증거들을 두 지역어 모두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증거는 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중부방언과의 대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대 두 지역어에 존재하는 전설모음은 중세국어의 다음 모음들에 주로 대응된다.

① 'Vi' 이중모음(ᄋᆡ, 애, 에, 외, 위, 의)
② 상승 이중모음(야, 여, 요, 유, 예, 얘)
③ 움라우트가 가능한 환경의 후설모음(아, 어, 오, 우)

우리는 중세국어에 '이'를 제외한 전설모음이 존재하지 않다가 'Vi' 이중모음의 변화에 의해 현대국어와 같은 전설모음체계가 형성되었음을 안다. 이를 감안하면 'Vi' 이중모음이 존재할 당시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에서 전설모음으로 '이'만이 존재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공통적인 단계의 전설모음체계>

---

49) 모음연쇄에서 '이'는 전설모음에 후행할 때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질:(第一), 낼:(來日) 등.

3.1.3.1. 하강 이중모음의 변화

■ ㉥용천어

● ᄋᆡ[ʌi]

(14) 배{ᄇᆡ, 腹} 해{ᄒᆡ, 日} 태우-{ᄐᆡ오-, 乘}

중부방언에서 二重母音의 單母音化는 'ᄋᆞ>아' 이후에 또는 이 변화와 거의 동시에 'ᄋᆡ>애'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천어에서도 이러한 과정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어두에서는 'ᄋᆞ'가 '아'로 변화한 후에 '애'의 변화를 따름으로써 'ᄋᆡ'는 거의 예외없이 /ɛ/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14). 'ᄋᆞ>아'와 'ᄋᆡ>애'의 변화가 대부분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15) ㉠ 바디{ᄇᆞᄃᆡ, 筬} 가시{가ᄉᆡ, 荊}
㉡ 모구{모ᄀᆡ, 蚊} 조루{죠ᄅᆡ, 笊} 호무{호ᄆᆡ, 鋤} 나부{나ᄇᆡ, 蝶}
㉢ 종애{죠ᄒᆡ, 紙} 동애{동ᄒᆡ, 盆}
ⓐ 잔채{잔ᄎᆡ, 잔채, 宴} 선배{션ᄇᆡ, 士}

비어두에서는 'ᄋᆡ>의'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 '의'의 변화를 따라서 '이'로 실현된다(15㉠). 이는 비어두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겪은 'ᄋᆞ>으'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양순음 또는 원순모음이 선행하면 원순모음화('ᄋᆡ>외' 또는 '의>위')가 먼저 일어난 후에 뒤이은 변화('외>위>우' 또는 '위>우')를 경험하여 '우'로 실현된다(15㉡).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변화에서 벗어나 'ᄋᆡ'가 '애'로 변화한 예들이 존재한다(15㉢). 곽충구(1994:298)에 따르면 육진방언에서 't̃oe{동ᄒᆡ}, ʧõe{죠ᄒᆡ}, ore{올ᄒᆡ}'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비어두의 'ᄋᆡ'가 '에'로 변화한 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ᄋᆞ>어'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선행음절의 '오' 때문에 'ᄋᆞ>으'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가 부분적으로 일어난 'ᄋᆞ>어'의 변화물결에 휩쓸린

것으로 보았다.[50] [원]용천어에서도 육진방언과 동일한 변화를 거친 '에'가, 비어두에서 '애'와 '에'의 대립이 약화되면서 '애'로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Ross(1877)에서 '紙'가 'jiongê[ʧɔŋe]'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하지만 평북방언의 보고에 의하면 '종애'(전길성 1939ㄴ), '종왜'(한영순 1956ㄱ), '종외'(최금용 1939), '동왜'(전길성 1939ㄱ) 등의 어형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원]용천어의 '종애, 동애'가 '종왜, 동왜'의 변화형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51] 즉 'ᄋᆡ'가 'ᄋᆡ[ʌi]>외[ɔi](원순모음화)>외[œ](단모음화)>왜(상승 이중모음화)>애(w탈락)'의 변화를 겪는데 이때의 원순모음화는 선행음절의 '오'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어형에서 '외'가 비어두에서의 일반적인 변화(외>위)의 변화를 거부하고[52] '외'가 단모음화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음운론적 이유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15ⓐ)의 '잔채, 선배'도 비어두의 'ᄋᆡ'가 '애'로 변화한 것인데 이들에 대한 음운론적인 설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남겨 둔다.[53]

비어두 위치에서 閉音節의 'ᄋᆡ'는 특이한 변화를 한다. 이는 특히 한자어에서 확인되는데 어말모음이 'ᄋᆡ'이고 폐음절인 경우에 '이'가 탈락하는

50) 이를 'ᄋᆡ>의>에'의 변화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김완진(1978)에서는 이를 비판하면서 'ᄋᆡ>에'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어'의 후설모음화에 따른 'ᄋᆞ'의 말기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51) [원]용천어에서 비어두 위치의 '외'가 '애'로 변화하는 예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비어두 위치에서 전설-원순모음 또는 w계 상승 이중모음이 놓이기를 꺼려하는 음소배열 제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예] 모래{모뢰, 後後日}, 부새~부쇄{부쇠}, 부새-{부쇠-, 洗}, 땀때{똠되} 등.

52) 강력하지는 않지만 선행 음절의 '오'가 '오>우'의 고모음화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은 <3.2.4 고모음화>에서 후술할 것이다. [예] 도토리, 오소리 등.

53) {잔채}는 문헌어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잔채'를 비어두 변화의 예외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을 듯하다. 즉 '채'가 '치(菜)'와 같은 한자어이거나 복합어의 구성요소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분명히 말하기 어려우므로 비어두 변화의 예외로 처리하여 둔다. 그리고 '선배'는 '배(<ᄇᆡ)'가 결합된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

변화를 보이고 있다.

(16) ㉠ 이승{이#ᄉᆡᆼ, 生}　데승{더#ᄉᆡᆼ}　짐승{즁ᄉᆡᆼ}
　　㉡ 낙화성(落花生, 땅콩)
　　㉢ 기상~기생(妓生)　고상~고생(苦生)　동상~동생(同生)

(16)의 예들을 보면 어말의 한자가 모두 '生(ᄉᆡᆼ)'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54] 이 한자가 어두에서는 '생'으로 실현되지만(㉦ 생쌀, 생사람 등)[55] 비어두 폐음절 구조에서는 'ᄋᆡ'의 '이'가 탈락한 것이다.[56] 그리고 '이'가 탈락하고 난 뒤의 'ᄋᆞ'는 '으, 어, 아' 등으로 다양한 변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16㉢)의 예들은 쌍형으로 존재하는데 대체로 화자들은 전자를 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 애[ai] 에[əi]
'애'와 '에'의 변화 방향은 거의 일치한다.

(17) ㉠ 깨{ᄢᆡ, 蘇}　매{ᄆᆡ, 鞭}　때{ᄣᆡ, 時}
　　㉡ 새:~사이(鳥)　새:~사이(間)　개:~가이(犬)
(18) ㉠ 께-{ᄢᅦ-}　테{톄, 箍}
　　　ⓐ 채{체, 篩}
　　㉡ 셋:~서이(三)　넷:~너이(四)

54) 이는 필자의 조사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한자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보이는 예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55) 중부방언를 참고할 때 '상추{ᄉᆡᆼ치}'에 대응하는 예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용천어에서는 이 단어 대신 '쌈'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김이협(1981)에는 평북방언형으로 '생치'가 등재되어 있다.
56) 정승철(1995:90)에 따르면 제주방언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존재하는데 한자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어두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보인다는 점이 ㊊용천어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몽글-{ᄆᆡᆼᄀᆞᆯ-}, 뭊-{ᄆᆡᆽ-,結}, 문{ᄆᆡᆫ, 最}, 탕주{ᄐᆡᆼᄌᆞ} 등.

어두에서 '애'와 '에'는 각각 /ɛ/와 /e/로 단모음화하였다(17㉠, 18㉠). 단, (18ⓐ)의 '채'는 어두에서 '에'가 /ɛ/로 실현되는 거의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7㉡)과 (18㉡)은 모음연쇄를 형성하던 '아이, 어이'가 二重母音化한[57] 뒤 단모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용천어에서 모음연쇄형과 쌍형으로 공존하고 있다.[58] 이 때 단모음화한 '애, 에'는 장음으로 실현되는데 이중모음화에 따른 補償的 長音化라고 할 수 있다.

비어두에서도 '애'와 '에'의 변화는 어두에서와 큰 차이가 없다(19).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어두에서는 '애'와 '에'의 대립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19) 모래{몰개} 강애{ᄀᆞᅀᆡ} 냄새{내옴새} 써레{서흐레}

그런데 다음 문법형태소는 이와 다른 변화를 보인다(20).

(20) -앗/엇-(과거시제 선어말어미)[59]

이 문법형태소는 중부방언을 참고할 때 선대형으로 '-앳/엣-'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어미는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가 탈락한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용천어만의 특징이 아니라 거의 국어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일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이중모음 변화의 예외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이는 이중모음의 부음으로

---

57) 모음연쇄를 형성하던 예들이 모두 이중모음화한 것은 아니다. '마이(臛), 쓴나이(葬)'는 자음 'ㅇ'이 삽입되었으며 '궈이'(게)는 모음연쇄가 그대로 유지된다.

58) 그런데 '사이(鳥), 가이(犬)' 등은 그 쓰임이 매우 약화되어 화자들이 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59) ㉯용천어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엇/앗-)는 말자음이 'ㅅ'이라는 점에서 중부방언의 '-었/았-'과 차이가 있다. ㉠ 가서(가+앗+어, 갔어), 가시요(가+앗+이요, 갔어요) 등.

서 '이'가 탈락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된 통사적 구성 '-어/아 잇/이시-'에서 형태소 '잇/이시-'의 일부인 '이'가 탈락하고 '잇/이시-'의 기능이 'ㅅ/시-'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겠다.[60] 이와 유사한 현상이 현대 ㊀용천어에도 존재한다. 현대 ㊀용천어에 '본동사+어/아 잇-'의 구성이 있는데 그 문법적인 의미는 '動作의 完了持續'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경우 '잇-'의 '이'가 매우 활발하게 탈락을 경험하여 탈락형과 유지형이 자유변이하는 경우가 많다(㊈ 앉아잇는~앉앗는, 서잇구~섯구 등).[61] 그 탈락되는 양상이 과거시게 선어말 어미 '-앗/엇-'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62] 따라서 선어말어미 '-앗/엇-'은 음운변화의 예외적 존재가 아니라 형태소 일부가 탈락하여 축소된 어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㊀용천어의 'ai'와 'əi'는 환경에 관계없이 각각 'ɛ'와 'e'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 외[ɔi]

(21) ㉠ 놰(腦) 돼(升) 쐐(金) 쇄-(過) 좨(罪)
㉡ 배{뵈, 布} 매뚜기{묏도기, 螞} 매떵{뫼, 墓}

어두에서의 '외'는 대체적으로 '왜[wɛ]'로 변화한다(21㉠). 그리고 선행하는 자음이 양순음일 때에는 이화에 의해 'w'가 탈락함으로써 '애'로 변

60) 최명옥(2002)에서는 15세기 문헌에 이미 '-엣/에시-'와 '-엇/어시-'가 모두 나타나는 사실을 들고 중부방언의 '-었-'은 후자의 변화형이라고 본 바 있다.

61) 보조용언 '잇-'의 '이'가 모두 탈락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고 잇-'이 '-곳-'으로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탈락은 어느 정도의 문법화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더 깊은 논의는 삼가려 한다.

62) 서술격 조사 '-이-'의 탈락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중세국어에서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하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과 결합할 때 탈락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화하게 된다(21ⓛ). 그렇다면 이제 하강 이중모음 '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왜[wɛ]'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義州地域語[63]가 반영된 Ross(1877)에서 '외'가 어떻게 전사되었는지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외'의 표기는 3가지로 나타난다.

① oi : doiya(化) motdoin(못된) doishi(升) doi(升)

② oe : motdoen(못된) oeghoog(外國) biunoe(邊外) doe(升) hoeseg(灰色)

③ we : biunwe(邊外)

위에서 제시한 상이한 표기는 단순한 轉字 표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실제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위의 자료 중에서 'we'로 표기되어 있는 예는 ③에 제시한 한 예밖에 없다. 주로 ①과 ②의 표기가 나타나는데 ②의 표기가 약간 우세하다. 여기서 'oi'는 하강 이중모음 '외[ɔi]'를 표기한 것이고 'we'는 상승 이중모음 '왜[wɛ]'를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4] 그렇다면 'oe'는 무엇을 전사한 것인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최명옥(1986)에서는 /y/가 선행자음의 유무에 따라 'i'와 'y'로 달리 표기되는 점을 들어 'oe, ooi'의 'o, oo'는 /w/를 표기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oe'와 'we'는 선행자음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는 점에서 /y/의 경우와 다르다. 또한 /와, 워/를 표기할 때는 'o, oo'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항상 'wa, wu'로 표기(예 wassum(왓슴, 來)<1-13>, hangwun(一卷)<2-9> 등)했다는 점을 참고하면 이 견해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즉 표기 'oe'는 /ɔi/나 /wɛ/가 아닌 다른 모음, 즉 單母音을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Ross(1877)에서는 '요'가 특별한

63)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小倉進平(1929)에 따르면 ⓐ용천어와 의주 지역어가 동일한 방언권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64) Ross(1877)에서 표기 'e'는 모음 '애[ɛ]'를 표기한 것이다.

환경에서 변화한 '외'를 'oe'로 표기하고 있으며(예 doeshun(됴션, 제1강), shoesho(쇼쇼, 제3강) 등), '오'의 움라우트형도 'oe'로 표기되어 있다(예 soegi-(속이-; oppressing, 제29강). 'oe'를 단모음이라고 가정할 때에야 비로소 이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단모음 /oe/의 음가는 중모음 [ö]가 아니라 저모음 [œ]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65] 그런데 이 단모음 '외[œ]'는 <3.1.2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언급했듯이 체계적인 이유로 인해 머지 않아 상승 이중모음 '왜[wɛ]'로 변화하게 된다.

비어두 위치의 '외'는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한다.

(22) ㉠ 까마구{가마괴} 사우{사회} 파우{바회} 사마구{사마괴} 고루{골회}
 ㉡ 바뀌-{밧괴-} 사귀-{사괴-} 알귀-{알외-, 知}
(23) ㉠ 모래{모뢰} 부새~부수{부쇠}
 ㉡ 부새-{부쇠-, 洗}

먼저 하강 이중모음 '외'가 부동 이중모음 '위'로 변화하여 '위'의 변화를 따른다(22).[66] 그리고 이 변화에서 벗어난 '외'는 어두에서와 동일한 변화(외[ɔi]>외[œ]>왜[wɛ])를 경험한다(23). 다만 이 경우 '왜'의 'w'는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화순어

---

65) 곽충구(2003)의 음가 추정도 본고와 마찬가지로 [œ]이다. 다만 이 모음은 'oy>wɛ>œ'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œ]가 전설-원순모음 중 개구도가 큰 유표적 모음이므로 'wɛ>œ'의 변화가 진행되다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본고와 다르다.

66) 박창원(1988)에서는 '외'에 두 가지 음가 [oi]와 [wi]가 있다고 추정하여 '외'의 상이한 변화를 설명하려 했지만 '외'가 [wi]로 실현된다는 점이 음성학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 이

(24) ㉠ 채수{치소} 채우-{치오-} 해{히} 태우-{티오-}
㉡ 배{비} 배우-{비호-} 매-{미-} 백{빅, 百} 패-{피-, 發穗}

어두에서 '이'는 '이>애'의 변화 후에 /ɛ/로 실현된다(24). 그런데 양순음에 후행하는 '이'의 변화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화순어에서 양순음 뒤의 단모음 '으'는 원순모음화하여 '오'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으'도 동일하게 원순모음화하였다면 '외'의 변화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24㉡)의 예를 보면 양순음 뒤의 '이'는 '이>외'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화순어만을 대상으로 하면 양순음 뒤에서 '외'와 '이'가 모두 '애'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의 원순모음화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단모음 '으'가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기타 전남방언을 관찰하면 양순음 뒤의 '이'의 '으'가 '아'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에 따르면 '에'와 '애'가 대립하고 있는 전남방언에서 양순음 뒤의 '외'가 지역어에 따라 'e' 또는 'ɛ'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예 [p'ep'ujɛŋi], [p'ɛp'ujɛŋi]{뾔빵이, 茉}). 뿐만 아니라 '외'가 비원순모음화하지 않고[67] 'ö'으로 실현되기도 한다(예 möt{뫼}). 그만큼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남방언 전체를 보아도 양순음 뒤의 '이'가 '애[ɛ]' 이외의 모음으로 변화한 예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양순음 뒤의 '이[ʌi]'는 원순모음화를 경험하지 않고 '애[ai]'로 변화한 후 단모음화한 것으로 판단된다.[68]

67) 양순음 뒤의 '외'가 '왜'로 변화한 후 'w'가 탈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화순어에서 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화순어에서 양순음 이외의 자음 뒤에서 단모음 '외'가 이중모음 '왜'로 실현되는 예가 거의 없으며 도리어 '왜>외'의 변화형들이 존재한다. 예 쐐기~쐬기(蛅) 등.

68) 하지만 경남 김해방언에 '비우-{비호-, 學}'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백두현 1992:151) 화순어에서도 양순음 아래에서 '이'가 원순모음화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그렇다면 화순어에서 단모음 'ᄋᆞ'와 이중모음 'ᄋᆡ'는 양순음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ᄋᆞ'는 양순음 아래에서 '오'로의 변화를 보이는 반면 이중모음 'ᄋᆡ'의 'ᄋᆞ'는 그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아'로의 변화를 수행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중모음 'ᄋᆡ'의 'ᄋᆞ'와 단모음 'ᄋᆞ'의 음성적인 차이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추정할 뿐이며 이에 대한 해결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25) ㉠ 보디{ᄇᆞ듸} 까시{가싀} 모디{ᄆᆞ듸} 아그{아ᄒᆡ}
㉡ 모구{모긔} 조루{죠릐} 나부{나ᄇᆡ}
㉢ 잔채{잔ᄎᆡ, 잔채}

비어두 위치의 'ᄋᆡ'는 '의'로 변화한 후 환경에 따라 '이' 또는 '으'로 변화한다(25㉠). 다만 원순모음화 환경에서는 'ᄋᆡ>의>위>우' 또는 'ᄋᆡ>외>위>우'의 과정을 거쳐 '우'로 실현된다(25㉡).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애'로 변화한 '잔채'가 있는데 ㉯용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는 음운론적인 예외라고 할 수 있다(25㉢).

비어두 위치에서 폐음절의 'ᄋᆡ'가 변화하는 양상은 ㉯용천어와 비슷하다.

(26) ㉠ 학상(學生) 기상(妓生) 고상(苦生) 옹삭(壅塞)
㉡ 저승{뎌#ᄉᆡᆼ} 이승{이#ᄉᆡᆼ} 동숭[69]~동상(同生)
㉢ 안동떡{-ᄃᆡᆨ, 宅號}

'ᄋᆡ'가 '애'로 단모음화하는 어두(㉓ 택{ᄐᆡᆨ}, 백{ᄇᆡᆨ}, 쌩-{ᄉᆡᆼ}, 탱자{ᄐᆡᆼᄌᆞ}, 태고

없다.

69) '동숭'은 '동ᄉᆡᆼ>동ᄉᆞᆼ('이'탈락)>동승(ᄋᆞ>으)>동숭(원순모음화)'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ᄐᆡᆨ호} 등)에서와는 달리[70] 비어두에서는 'ᄋᆡ'의 '이'가 탈락하는 예가 다수이다[71](26). '이'탈락이 일어나고 난 후 'ᄋᆞ'는 '아, 으, 어' 등으로 다양한 변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차이가 무엇에 기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두 지역어에서 이와 같이 폐음절의 'ᄋᆡ'가 '이'탈락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국어의 音節構造制約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기원적으로 고유어의 하강 이중모음(부동 이중모음 포함)이 폐음절에 존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문헌어를 대상으로 하강 이중모음이 폐음절에 존재하는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7) ㉠ ᄀᆡᆺ도라미 ᄆᆡᆺ도기 ᄆᆡᆺ그럽- ᄆᆡᆫ ᄆᆡᆼᄀᆞᆯ- ᄆᆡᆽ- ᄉᆡᆫ ᄐᆡᆨ
㉡ ᄉᆡᆷ ᄇᆡᆫ ᄋᆡᆫ ᄒᆡᆫ/힌 ᄆᆡᆫ/민 ᄆᆡᆯ ᄆᆡᆸ- ᄆᆡᆸ- ᄉᆡᆸ-
㉢ ᄆᆡᆺᄆᆡᆺ/밋밋 ᄇᆡᆨᄇᆡᆨ/빅빅 ᄉᆡᆨᄉᆡᆨ/식식 ᄎᆡᆨᄎᆡᆨ/칙칙 ᄑᆡᆼᄑᆡᆼ/핑핑

이를 보면 많은 어형들이 형태소의 결합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거나(27㉡), 어두음절이 반복되는 의성·의태어이다(27㉢). 분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이중모음이 폐음절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예들은 (27㉠)에 제시한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도 모두 어두에 한정된다. (27㉢)을 제외하면 비어두에서 이러한 음소배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음절구조제약이 화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비어두에서는 더욱 그러하였으리라 본다. 그리하여 비어두에서 '이'탈락을 보이는 예가 다수이고 제주방언의 경우(정승철 1995:90) 어두에까지 이러한 압력이 확대되어

70) 만약 '상치'가 'ᄉᆡᆼ치'의 변화형이라면 어두에서 'ᄋᆡ'의 '이'가 탈락하는 유일한 예이다.

71) 이기갑 외(1998)에 따르면 이 외에 'ᄒᆡᆼᄉᆡᆨ(行色), 상ᄀᆡᆨ(上客)' 등도 쓰인다고 한다.

'ᄆᆞᆫ{ᄆᆡᆫ}, ᄆᆞᆼ글-{ᄆᆡᆼᄀᆞᆯ-}, ᄆᆞᆾ-{ᄆᆡᆾ-}' 등과 같은 어형이 나타났으리라 추정해 본다.

● 애 에

'애'와 '에'의 변화는 ㉯용천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예들은 생략한다. 즉 하강 이중모음 '애, 에'는 어두와 비어두에 상관없이 각각 /ɛ, e/로 단모음화한다. 다만 <3.1.1 '에'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순어에서 단모음 '에'는 뒤이어 거의 대부분 '이'로 변화한다.

● 외

(28) ㉠ 되(升) 쇠(金) 죄(罪) 묏{뫼, 墓}
㉡ 배{뵈, 布} 매떼기{묏도기, 螞} 때뿌쟁이{뵈짱이, 車前} 맵쌀{뫼ᄡᆞᆯ}
㉢ 모서숙{뫼셔쇽}

어두에서 '외'는 원칙적으로 단모음화하여 /ö/로 실현된다(28㉠). 그런데 선행자음이 양순음일 때에는 이화에 의한 비원순모음화를 경험한다(28㉡). 이 때 비원순모음화한 모음이 '애[ᴇ(<ɛ)]'라는 점이 관심을 끈다. 화순어에서 단모음 '외'가 저모음 [œ]인 단계가 있었을 가능성은 앞서 <3.1.2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외[œ]'가 비원순모음화하여 '애[ᴇ]'로 변화한 것이다. (28㉢)은 '외'의 '이'가 탈락한 어형이다. 이 한 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후술할 '위>우'의 변화(㉨ 구신(귀신), 두집-(뒤집-), 구찬허-(귀찮-) 등)을 함께 참고할 때 후행음절에 'i, y'가 존재하며 [+전설성] 자음이 개재하는 환경에서 '이'가 탈락하는 것으로 보인다.[72] 후행하는 자음이 [+전설성] 자음이고 그 뒤의

72) 필자는 하강 이중모음인 '외[ɔi]'가 '외>오'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은 이 경우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동일한 환경의 다른 하강 이중모음 '애[ai], 에[əi]'

모음 'i, y'도 [+전설성] 모음임을 감안하면 [+전설성]을 가진 음소 3개가 연달아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중모음의 '이'가 탈락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일종의 이화인 셈이다.

(29) ㉠ 까마구{가마괴} 사마구{샤마괴} 사우{사회} 바우{바회}
㉡ 알리-{알외-} 배끼-{밧괴-} 사구-~새기-{사괴-}

비어두에서 '외'는 체언이든(29㉠), 용언이든(29㉡) 관계없이 '위'로 변화한 후 '위'의 변화를 따른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변화에서 벗어나는 예외들이 화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이 ㉯용천어와의 차이이다.

지금까지 두 지역어에서 下降 二重母音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두 지역어가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즉 下降 二重母音이 浮動 二重母音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어두이든 비어두이든 그 환경에 상관없이 縮約에 의한 單母音化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73]

가 이러한 변화를 겪은 예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혹시 표준어의 '가죽나무{개둑나모}'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한다. 한편 곽충구(1982)에서는 '이'탈락이 일어나는 환경으로 [-grave] 자음이 후행할 때라고만 하였는데 이는 범위가 넓어 예외가 존재한다(㉮ 메사니{뫼사리}, 배틀{뵈틀}, 회채리{회초리} 등). 따라서 범위를 좁혀 [-grave] 자음(필자의 용어로는 '[+전설성] 자음') 뒤에 'i, y'가 위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73) 최전승(1986:225)는 '바호(巖), 거모(蜘)' 등의 예들이 'oy>o'의 변화를 겪은 것이라고 하였다. 현대 전북방언에 나타나는 '종오, 동오' 등도 이러한 견해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전승(1986:224)에서도 'u>o'의 변화 예를 19세기 서남방언(㉮ 친고, 투고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대 서남방언에서도 '화토(花鬪), 꼰토(拳鬪), 봉토(封套), 삼오(三虞)' 등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이들은 어말에서 '우'가 '오'로 변화한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호, 거모'의 어말 '오'가 '외>오'(i탈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위>우>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익[ʌi] > ai > ɛ
㉯ 애[ai] > ɛ
㉰ 에[əi] > e
㉱ 외[ɔi] > œ

하강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縮約이라고 함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음운변화가 音聲的 漸進性을 가진다(Lass 1984:331)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강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음성적 변이 과정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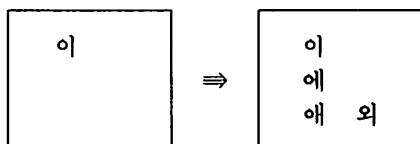
① 핵음의 음성적 변이에 의한 변화
② 부음 '이'의 음성적 변이에 의한 변화
③ 두 모음 모두의 음성적 변이에 의한 변화

①은 부음 'i'에 의해 핵음이 전설음화하고 이어 부음이 탈락한 변화이다(한영균 1991ㄱ, 고광모 1991). 성백인(1983)에 따르면 몽고어 다구르 방언에서도 하강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진행중인데 ①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②는 핵음과 동일한 혀높이로 부음이 실현되고 이어 핵음이 탈락한 변화이다. 허웅(1965:437)에서는 이를 間隙同化라고 한 바 있다. ③은 핵음과 부음 모두 음성적 변이가 일어나는 것인데 김완진(1963)은 하강 이중모음 '에'의 변화를 ③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74] 필자는 두 지역어의 하강 이중모음이 어떠한 음성적 과정

74) "音節副音的인 -i가 音聲的으로 [e]로 實現되었을 것이 아닌가 想定되며, 그런 境遇의 音節主音들도 相當히 前舌化된 allophone으로 實現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過程은 다른 言語들에서도 -i Diphthong의 單母音化에서 一般的으로 認知되는 現象이다." 여기에 덧붙여 Jespersen(1926:197)에서도 佛語 '*joie, roi*'의 'oi'가 이와 같은 변화(oi>oæ>oa>wa)를 경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을 거쳤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필자가 우연히 청취한(비록 다른 지역어이기는 하지만) 음성 [aɛ]가 '애[ai]'의 音聲的 變異이 보여주는 것이라면 ③의 가능성에 좀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한다.[75)]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두 지역어에서 하강 이중모음이 단모음화하여 전설모음 '애[ɛ], 에[e], 외[œ]'가 형성됨으로써 두 지역어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설모음체계를 갖게 된다.



<㉾용천어 · 화순어>

3.1.3.2. 부동 이중모음의 변화

■ ㉾용천어

● 위[ui]

(30) ㉠ 귀 뒤 쉬- 쥐-
㉡ 빗자루{뷔} 비-{뷔-, 空} 피-{퓌-, 發花}
㉢ 구신(鬼神)

어두에서 '위[ui]'는 上昇 二重母音 /위[wi]/로 실현된다(30㉠).[76)] 한편 양순음 뒤에서 /wi/는 '양순음+w'의 연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w'가 탈락

75) http://www.urisori.co.kr에 따르면 '오행'의 '행'이 [haɛŋ]으로 실현된다. 이는 전북 김제군 백산면 하서리의 '상여소리(오행소리)'인데 '상여소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古音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76) ㉾용천어에서 /wi, wɛ/는 [+前舌性] 子音(舌端音, 舌面音) 뒤에서 각각 수의적으로 [ü, œ]로 실현된다.

한다(30㉡). 일종의 이화인 셈이다. 중부방언의 문헌어는 양순음 아래에서 'ui> ɯi>i'(예 뷔>븨>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데 ㉾용천어는 이와 달리 'ui> wi>i'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77] 왜냐하면 Ross(1877)에서도 'booi- [pui-](空), pooi-[pʰui-](發花)'와 같은 어형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대 중국조선어에도 이러한 어형이 사용된다는 보고(한성우 2003)가 있으며 최금용(1939)에서도 '뷔'가 보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용천어에서 'ui>ɯi'의 비원순모음화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ui>wi' 변화 후에 양순음 뒤에서 'w'가 탈락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30㉢)은 어두에서 '위'의 '이'가 탈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후술할 화순어의 기제, 즉 후행 음절에 'i, y'가 존재하고 [+전설성] 자음이 개재할 때 이중모음의 '이'가 탈락하는 변화(예 구신(귀신), 두집-(뒤집-), 구찬허-(귀찮-) 등)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위'의 변화 양상을 보기 위해 Ross(1877)에서 '위'가 어떻게 표기되어 나타나는지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위'는 두 가지 표기를 보여준다.

① ooi : sooipda(易) dooi(後) nooi(誰) jooi(鼠) sooin(五十)
② wi : gwi(耳)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위에 제시한 것이 '위'를 표기한 거의 전부인데 대부분 'ooi'로 표기되어 있고(①) 한 단어만이 'wi'로 표기되어 있다(②). 'ooi'는 이중모음 /ui/를, 'wi'는 상향 이중모음 /wi/를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더 이상 '위'를 표기하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ui/가 단모음화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78] 이를 통해 보면 ㉾용천어의 변화 과정에서 /wi/의 선행 단계

---

77) 물론 ㉾용천어에서도 양순음 뒤의 '위'가 '의'로 비원순모음화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78) 최명옥(1986)에서는 'oj'와 함께 'uj'도 19세기 후기보다 앞선 시기에 단모음화한 것

로 단모음 /ü/ 인정할 근거는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중모음의 변화 과정에서 '외'와 '위'의 변화 방향을 동일시하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외'와 '위'는 음성적으로 성질이 다른 이중모음이며 그 변화 방향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용천어에 존재하는 /wi/는 /ui/가 직접 변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즉 /ui/는 어두에서 'i'가 音節核音이 되고 'u'가 音節副音이 된다. 이때 음절부음 [u]는 [w]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위'를 /uy/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uy>wi'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 설득력이 약한 주장들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uy>wi'의 변화는 중간 단계로 단모음화 단계를 상정하지 않으면 음성적인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다. 즉 반모음이 핵음화([y]>[i])하고 핵음이 반모음화([u]>[w])하는 과정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를 /ui/로 보더라도 하강 이중모음처럼 'i'만이 음절부음이어야 한다면 'ui>wi'의 변화 역시 위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위'를 부동 이중모음 /ui/로 해석할 때에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필자는 'ui>wi'의 변화가 부동 이중모음의 음성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 이중모음은 꼭 어느 한 모음으로 핵음이 고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부동 이중모음 '위[ui]'와 '의[ɯi]'에서 'i'가 핵음이 된다면 '우, 으'는 각각 부음 [u], [ɯ]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음성적 滑音 [w]와 [ɰ]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79)]

으로 추정한 바 있다.

79) 현대 중부방언에 존재하는 '의'의 음성을 흔히 [ɯy]라고 하는데 [ɰi]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허웅(1965:145)에서 "'의'의 발음은 매우 불안정하다. '의정부', '의사'의 첫 음절은 [ㅡ]에 모음점을 두어서 [ɨj]로 발음되기도 하고, 또는 [ㅣ]에 모음점을 두어 [ɨi]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어느 편이든, 그 과도(glide)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과도가 잘 두드러지지 않아서, [ɨj]는 [ɨ]로, [ɨi]는 [i]로 내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 언급을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강진철 외(1996:50)에 따르면 문화어의 '의'도 앞모음 요소의 발음시간은 147.5미리초이며 뒷요소는 평균 267.5미리초로

비어두 위치에서는 비음운론적 제약(체언과 용언)에 따라 부동 이중모음 '위'가 두 가지의 다른 변화를 경험한다.

(31) ㉠ 도꾸{돗귀, 斤} 무루{무뤼, 雹} 허우대(허위대)
㉡ 까마구{가마괴} 사마구{샤마괴} 사우{사회} 파우{바회}
바쿠{바회} 내우(內外) 차무{춤외}
㉢ 모구{모긔} 나부{나비} 거무{거믜} 몬주{몬지} 호무{호믜}
(32) ㉠ 바뀌-{바뀌-} 사귀-{사귀-} 마귀-(맞추-) 알귀-{알외-}
㉡ 버티-{버퉈우-} 무디-{무뒤/무되-} 비치-{비취-}

體言의 경우는 대개 어말 위치의 환경인데 '이'가 탈락하는 것이 큰 경향이다(31). (31㉠)은 기원적으로 '위'를 가진 예들이고 (31㉡)은 '외>위'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며 (31㉢)은 '의' 또는 '이'가 원순모음화를 거쳐 '위'로 변화한 것이다. 그런데 用言의 경우, 특히 어간말의 '위'는 체언과 달리 '이'가 탈락하지 않고 /ui/가 /wi/로 변화하거나(32㉠) /i/로 변화한다(32㉡). 우연인지는 모르나 전자의 경우는 [-전설성] 자음인 'ㄱ' 뒤의 환경이고 후자는 [+전설성] 자음인 'ㄷ, ㅌ, ㅊ' 뒤의 환경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 경우 [+전설성] 자음 뒤에서 /ui/의 /u/가 직접 탈락한 것인지, 아니면 /wi/를 거쳐 /w/가 탈락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음성적 점진성을 생각한다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여기서 'ui>u'의 변화를 보이는 체언과는 달리 /ui/가 /wi/ 또는 /i/로 변화하는 것은 用言語幹末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용언어간말의 '이'는 被使動이라는 중요한 文法的 機能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음운론적 이유로 인해 어간말 /ui/에서 'i'가 핵음화함으로써 /ui/가 /wi/로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부동 이중모음

서 뒷요소가 앞요소보다 1.47배 더 길게 발음된다고 한다.

'위[ui]'는 비어두 위치에서 어느 모음이 핵음으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변화 방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위[ui]'가 체언의 경우에는 [ui̯]로, 용언의 경우에는 [u̯i]로 실현되어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겠다.

● 의[ɯi]

우선 어두위치에서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33) ㉠ 히-{희-, 白} 씨우-(씌우-, 冠) 시-{싀-, 酸} 띠우-(띄우-, 浮)
㉡ 게-{긔-, 匍}

자음이 선행할 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의'가 '이'로 변화한다(33㉠). 이것은 '으'가 탈락한 것인데 'ɯi>ɯ̯i>ɰi>i'의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의'의 '이'가 음절핵음이라는 점에서 어두의 '위'와 그 양상이 동일하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듯한 예가 존재한다(33㉡). 하지만 '게-'는 '의' 변화의 음운론적 예외라기보다는 모음어미 '-어'가 결합한 활용형 '게'('긔+어→게' 또는 '기+어→게')의 再分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4) ㉠ 이복(衣服) 이미(意味) 이문(疑問) 이연(醫院) 이붓아들(義父)
㉡ 으주(義州) 으심(疑心) 으지(依支)

선행하는 자음이 없이 어두에 '의'가 위치할 때에는 2가지 방향의 변화를 수행한다. 즉 단어에 따라 /ɯi/의 /ɯ/가 탈락하기도 하고(34㉠) /i/가 탈락하기도 하는데(34㉡)[80] 후자에 비해 전자가 주된 경향인 것으로 보

80) '으'와 '이'로 분화되는 현상은 둘 사이의 음운론적 교체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의'를 재구하게끔 한다. 또한 이러한 분화 현상은 바로 '의'가 /ɯy/가 아니라 /ɯi/이라는 점을 말해 주며 부동 이중모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사실을

인다.[81]

선행자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두에서 '의'는 '으'가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위'의 변화와 유사하다. 즉 /ɯi/는 /ui/와 마찬가지로 어두에서 /i/가 핵음화하여 음성적으로 [ɰi]로 실현되고 이어서 [ɰ]가 탈락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점진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해석이다.

(35) ㉠ 가시{가싀} 마디{마듸} 바디{ᄇᆞ듸} 공끼(空器) 여기{이어긔}
　㉡ 아:{아희} 너:{너희} 저:{저희}
(36) ㉠ 이기-{이긔-} 디키-{디킈-} 젠디-{견듸-} 부시-{브싀-}
　　디디-{드듸-}
　　ⓐ 땡기-~당기-~대-(ᄃᆞᇰ긔-)
　㉡ 뭉개-{뭉긔/뭉기-} 쪼개-{ᄧᅩ긔-}

비어두 위치에서 체언의 경우 '의'는 '이'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5㉠).[82] 이들은 어두에서와 마찬가지로 '으'가 탈락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어두에서도 '의'의 '이'가 음절 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 점이 '위'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체언어간말 '위'는 '이'가 음절부음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35㉡)은 '의'가 특이한 변화를 보

반영하는 것이다.

81) 한영순(1956ㄱ)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한자음에서는 [ɯ]로 되고 비교적 새로운 한자음에서는 [i]가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어두와 비어두 '의'를 구별하지 않고 논의했기 때문에 논의의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82) ㊊용천어의 일상 발화에서 그 쓰임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의'가 '에'로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두께(둗긔), 무게{므긔}'와 같은 예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의'가 직접 '에'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두꺼이, 무거이'의 반사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김이협(1981)에 따르면 평안북도에 '두꺼이, 무거이'가 사용되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어형은 {둗긔, 므긔}가 음운변화를 거쳐 변화한 것이 아니라 '두겁-, 무겁-'의 간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예들이다. 이들은 '으'와 '이'가 모두 탈락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장음화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한 음운론적 이유를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외로 남겨둔다. 용언의 경우에도 '의'는 '이'로 변화한다(36㉠). 그리고 이 때의 '이'가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되기도 한다(36ⓐ). 한편 '의'가 '애'로 변화한 듯한 예들이 소수 존재한다(36㉡). 그러나 이는 '의'가 아니라 'ᄋᆡ'의 변화형일 가능성이 높다. 선행음절에 'ᄋᆞ'가 있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말해준다. 각각 {ᄆᆞᆼ기-, *ᄶᆞ기-}의 'ᄋᆡ'가 'ᄋᆡ>외(원순모음화)>œ(단모음화)>wɛ(상승 이중모음화)>ɛ(w탈락)'의 과정을 거쳐 '*뫙개-, 쫘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뭉개-'는 '*뫙개-'의 간섭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한다.[83] 결국 비어두 위치의 '의'는 체언과 용언에 관계없이 '이'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화순어

● 위

(37) ㉠ 귀(耳) 뒤(後) 쉬-(休) 쥐-(握)
　　㉡ 빗지락(掃) 비-(空) 피-(發花)
　　㉢ 구신(귀신) 두지~뒤주(뒤지) 두집-(뒤집-) 구찬허-(귀찮-)

어두에서 '위'는 단모음 /ü/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37㉠). 단 선행하는 자음이 양순음일 때에는 /i/로 변화한다(37㉡). 이것은 [+원순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이화이다. 또한 후행음절에 'i, y'가 존재하고 [+전설성] 자음이 개재할 때 '이'가 탈락하기도 한다(37㉢). 이것도 또한 [+전설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이화라고 할 수 있다.

화순어의 /ü/는 /ui/가 하강 이중모음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단모음화

83) 만일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뭉기-, 쪼기-' 정도의 어형이 기대되는데 실제로 중부방언에서 이들 어형이 쓰인다는 보고(이광호 1977)도 있다.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전승(1986)은 서남방언을 반영한 문헌의 여러 음운현상을 검토한 결과 /uy/(필자의 견해로는 /ui/)가 직접 단모음화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현대 서남방언에 나타나는 /ü/는 /wi/가 변화한 것으로 본 바 있다. 다른 방언들과의 비교도 이러한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백두현(1992)에서도 동남방언의 '위'의 변화 과정에 단모음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용천어의 변화에서도 '위'가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단계는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하강 이중모음(애 에 외)처럼 '위'가 /ü/로 단모음화한 것이 아니라 'ui>wi>ü'의 과정을 거쳐 변화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사실 화순어에서 'wi>ü'의 축약은 매우 활발하여 부동 이중모음 '위[ui]'가 변화한 '위[wi]'뿐만 아니라 '웨[we]'가 '에>이'에 의해 변화한 '위[wi]'도 단모음 '위[ü]'로 실현된다(38㉠).

(38) ㉠ 귀짝{궤, 櫃} 뀌-{<꿰-<ᄢᅰ-, 貫} 윈수{<웬수<원슈, 怨讐}
㉡ 쇠기(<쇄기, 楔) 썩회깄소(<썩해깄소, 썩후+아+기+었+소, 朽)

또한 'wi>ü'의 변화와 더불어 'wᴇ>ö'의 변화도 꽤 활발하여, 비록 수의적이기는 하지만 '왜'가 '외'로 실현되는 예들도 다수 발견된다(38㉡). 최전승(1986)에 따르면 19세기 서남방언을 반영한 문헌에서도 'we>ö'의 변화를 반영하는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초췌~초최(憔悴), ᄢᅰ-~ᄢᅬ-(貫), 웬~왼(何) 등). 이와 같이 '위, 왜'의 단모음화 현상이 화순어에서 매우 활발하게 일어남을 볼 때 부동 이중모음 '위[ui]'는 상승 이중모음 '위[wi]'로 변화한 후 단모음 '위[ü]'로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비어두 위치에서는 비음운론적 제약(체언과 용언)에 따라 부동 이중모음 '위'가 두 가지의 다른 변화를 경험한다.84)

84) 전광현(1976)은 全北 南原地域語을 대상으로 하여 語末의 '위, 의'가 변화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39) ㉠ 멀구{멀위} 머구{머휘} 더우{더위} 허우대(허위대)

㉡ 까마구{가마괴} 사마구{샤마괴} 사우{사회} 바우{바회}

㉢ 모구{모긔} 나부{나븨} 거무{거믜}

㉣ 뿌리~뿌랭이{불휘} 도치{도최} 고리{골회} 모리{모뢰}

(40) 배끼-{바뀌-} 사구-~새기-{사괴-} 버티-{버튀우-}

비치-{비취-} 무디-{무뒤-}

체언의 경우에는 이중모음 '위'가 '이'탈락을 경험하여 '우'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9㉠). 이 때 '위'는 '외'가 고모음화(외>위)하여 형성되기도 하고(39㉡) '인'나 '의'가 원순모음화를 거쳐 형성되기도 한다(39㉢). 그런데 '위, 외'는 각각 선행음절에 원순모음 '우, 오'가 존재할 때 '의'로 비원순모음화하고 이어서 '이'로 변화한다(39㉣). 이처럼 '위'가 대체로 '우'로 변화하는 체언과는 달리, 용언의 경우에는(특히 어간말에서) '위'가 '이'로 변화한다(40). 이는 ㉧용천어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환경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데 'ui>wi'를 경험한 후 /w/가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가 탈락한 '사구-'와 같은 어형도 존재한다. 그리고 '위[ui]'가 변화한 '이'는 움라우트(㉩ 배끼-, 새기-)의 동화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고 하겠다.

● 의

(41) 히-{희-} 시-{싀-} 기-{긔-} 씨우-(씌우-) 띠우-(띄우-)

(42) ㉠ 이자(倚子) 이복(衣服)

㉡ 으논(議論) 으심(疑心) 으사(醫師) 으붓아들(義父) 으지(依支)

어두에서 '의'의 변화 방향은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것인데 선행자음의 유무에 따라 탈락하는 모음이 다르다. 선행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으'가 탈락하여 '이'로 실현된다(41). 그러나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으'가 탈락하기도 하고(42㉠) '이'가 탈락하기도 하는데(42㉡) 후자의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최전승(1986:225)에서도 19세기 서남방언에서 선행자음이 없는 어두음절에서는 주로 '이'가 탈락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예 으관(衣冠), 으심(疑心), 으논(議論), 으혹(疑惑), 으외(意外), 으지(依支), 으탁(依託) 등).

비어두 위치에서는 비음운론적 제약(체언과 용언)에 따라 부동 이중모음 '의'가 두 가지의 다른 변화를 경험한다.

(43) ㉠ 거무{거믜}　무누{무늬}
　㉡ 까시{가ᄉᆡ}　보디{ᄇᆞᄃᆡ}　모디{ᄆᆞᄃᆡ}　까지{가ᄌᆡ}　문지{ᄆᆞᆫᄌᆡ}
　소리{소ᄅᆡ}
　㉢ 뿌리{불휘}　도치{돗귀}　고리{골회}　모리{모뢰}　느리{무뤼}
　㉣ 아그{아희}　느그{너회}　즈그{저회}　여그{여긔}　쩌그{뎌긔}
　사그(砂器)

체언의 경우 형태소 내부의 '의'는 비교적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먼저 원순모음화(의>위)가 선행하면 '의'는 '위'의 변화를 따라 '우'로 변화한다(43㉠). 그러나 원순모음화에서 벗어난 '의'는 두 방향의 변화를 하게 된다. 첫째, '의'가 '이'로 변화한다(43㉡㉢). (43㉡)은 'ᄋᆡ>의>이'의 변화를, (43㉢)은 비원순모음화에 따른 '위(외)>의>이'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둘째, '의'가 '으'로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43㉣). 부동 이중모음 '의'의 이러한 변화 차이는 선행자음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순모음화를 유발하는 양순음까지 포함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의>위>우 : 양순음 ([-전설성 +전부성])

㉯ 의>으 : 연구개음([-전설성 -전부성])
㉰ 의>이 : 기타 자음 ([+전설성])

결국 비어두의 '의'는 선행하는 자음이 [+전설성] 자음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뉘어 그 변화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44) ㉠ 이기-{이긔-} 지키-{디킈-} 전디-(견듸-}
디디-{드듸-} 더디-{더듸-}
ⓐ 땡기-~당그-{둥긔-}
㉡ 뭉개-{뭉긔/뭉긔-} 쪼개-{쏘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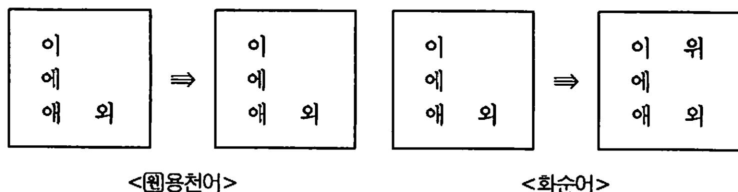
용언어간말에서는 '의'의 '으'가 탈락하여 '이'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4㉠).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이중모음 '위[ui]'가 변화한 '이'와 마찬가지로, '의[ɯi]'가 변화한 모음 '이'도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될 수 있다(44ⓐ). 한편 단어에 따라서는 '의'가 '애'로 변화한 듯한 예들이 존재하는데(44㉡) 이는 ㊎용천어에서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浮動* 二重母音 '위[ui], 의[ɯi]'는 두 지역어에서 각각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두 모음 중 어느 모음이 核音이 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즉 'i'가 핵음이 되면 ㉠과 같은 변화를, '우, 으'가 핵음이 되면 ㉡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다.

㉮ 위[ui] > ㉠ wi, ㉡ u
㉯ 의[ɯi] > ㉠ i, ㉡ ɯ

한편 Ross(1877)과 최전승(1987)에 따르면 서북방언과 서남방언에서 부동 이중모음의 변화가 하강 이중모음보다 시간적으로 늦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국어 전반적으로 동일하다(이병근 1970ㄱ, 백두현 1992, 곽충구 1994). 한편 두 지역어에서 부동 이중모음의 직접적인 반사형은 모음체계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wi/가 뒤이어 /ü/로 단모음화함으로써 모음체계에 변화가 생기며 이로 인해 (원)용천어의 전설모음체계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원)용천어> <화순어>

3.1.4. 'ᆞ'의 변화

두 지역어에서 'ᆞ'가 변화하는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중부방언의 'ᆞ' 변화에 대한 기존 논의를 요약하려 한다. 'ᆞ'는 제1단계 비어두 변화(ᆞ>으)와 제2단계 어두 변화(ᆞ>아)를 거치면서 모음체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이숭녕 1940, 이기문 1972). 하지만 이러한 두 단계의 변화로 'ᆞ'의 변화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말기적 증상으로 'ᆞ>어'의 변화를 겪어 'ᆞ'가 소실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김완진 1978). 'ᆞ>어' 변화의 예들이 주로 18세기 후기 문헌들에서 보여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곽충구 1980:83). 또한 이병근(2000)은 이미 15세기에도 어두에서 'ᆞ'가 '아'로 표기되는 예가 존재함을 논한 바 있다. 송민(1986:135)에서는 'ᆞ>아'의 확산과정을 선행자음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였는데 'ㅎ ㄱ ㅂ ㅍ ⇒ ㄷ ㅌ ㄹ ⇒ ㅅ ㅈ ㅊ ⇒ ㅁ ⇒ ㄴ'의 순서대로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하였다.[85] 그리고 'ᆞ'의 소실 시기에 대해서는 18세기 중엽 이후로 보려는

85) 현우종(1988)에 따르면 제주방언의 'ᆞ'가 두음의 종류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데 이것이 'ᆞ>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견해(전광현 1971, 이기문 1972, 허웅 1975), 18세기초로 보려는 견해(김완진 1963, 곽충구 1980), 17세기까지 소급하려는 견해(이숭녕 1977) 등이 있다.

이제 두 지역어 모두 역사적으로 'ㆍ'가 존재했다는 점을 두 지역어의 대조를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45) 바디⇔보디(筬) 팔⇔폴(腕) 팥⇔퐅(小豆) 빨-⇔뽈-(吸)
마디⇔모디(節)

우리는 (45)를 통해 [원]용천어의 '아'가 주로 화순어의 '오'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은 양순음에 후행하는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대응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이다. ㉮ 양순음 아래에서 화순어의 '아'가 '오'로 바뀌는 변화, ㉯ 양순음 아래에서 [원]용천어의 '오'가 '아'로 바뀌는 변화, ㉰ 양순음 아래에서 제3의 음소가 화순어에서는 '오'로, [원]용천어에서는 '아'로 바뀌는 변화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46)의 예들은 ㉮와 ㉯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46) ㉠ 마늘 마당 마시- 밤 발 밥 빠리-(速) 파
㉡ 모낭(모양) 모구(蚊) 모루-(不知) 보-(視) 볼 보리 폭(幅)

(46㉠)은 화순어형, (46㉡)은 [원]용천어형의 일부만 제시한 것인데 이를 통해 ㉮와 ㉯에서 벗어나는 예들이 두 지역어에 너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인바 이들은 모두 문헌어에 'ㆍ'로 표기된다. 따라서 두 지역어에서도 'ㆍ'가 음소로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예들은 더 존재한다.

(47) 달큼허-∽들큼허-(甘) 살살∽슬슬(遲) 따따허-∽뜨뜨허-(暖)

(47)은 ㉯용천어형인데 화순어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음성상징과 관련된 어형들인데 '아'와 '으'가 상징대립을 하고 있다. 두 지역어에서 '아'는 일반적으로 '어'와 상징대립을 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47)의 '아'는 '으'와 상징대립을 이루던 모음이 변화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의 '아'도 문헌어에 모두 'ᄋᆞ'로 표기된다.

두 지역어의 대조와 내적 증거들을 통해[86] 두 지역어가 역사적으로 'ᄋᆞ'를 가지는 단계가 공통적으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순어에서 양순음에 후행하는 'ᄋᆞ'가 '오'로 변화하고 ㉯용천어에도 이러한 예들이 소수 존재한다는 것은 'ᄋᆞ'가 '오'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ᄋᆞ ————	오
[-원순성]	[+원순성]

<공통적인 단계의 'ᄋᆞ'>

■ ㉯용천어

어두에서의 'ᄋᆞ'는 '아'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변화의 예는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예만 제시한다.

(48) 갈{ᄀᆞᄋᆞᆯ, 秋} 달{ᄃᆞᆰ, 鷄} 짜-{ᄧᆞ-, 鹹}

그런데 이 변화에서 벗어난 예들이 존재한다.

86) 최명옥(1987)에서는 모음조화의 파괴를 보이는 예들의 검토를 통해 의주지역어에서 'ᄋᆞ'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49) ㄱ. 봊-~보-{ᄇᆞᅀᆞ-, 碎} 몰~말{ᄆᆞᅀᆞᆶ, 村}
ㄴ. 소매{ᄉᆞ매, 袖} 놈{ᄂᆞᆷ, 他} 노누-{ᄂᆞᆫ호-, 分}
도투-~다투-{ᄃᆞ토-, 爭}

먼저 ‘ᆞ’가 ‘오’로 변화한 예들이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49㉠)의 예들이 양순음에 후행하여 ‘ᆞ’가 ‘오’로 발달한 거의 전부이다.[87] 이러한 변화가 매우 활발한 화순어와 달리 [원]용천어에서는 그 예가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49㉡)의 예들은 ‘ᆞ’에 양순음 또는 원순모음이 후행하는 경우인데 이 환경이 ‘ᆞ>오’의 동화주가 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너무 많은 예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병근(1967ㄱ)에서는 문헌에 {논ᄒᆞ-}와 같은 표기가 나타남을 들어 ‘노누-’가 ‘ᄂᆞᆫ호-’의 音韻倒置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본 바 있다. 필자로서는 ‘ᆞ>오’의 변화를 보이는 예들의 음운론적 환경을 명확히 하기가 쉽지 않아 예외로 남겨 둔다.

(50) 흘{ᄒᆞᆰ, 土} 그늘{ᄀᆞᄂᆞᆯ, 陰}

그리고 ‘ᆞ’가 ‘으’로 변화하기도 하는데 (50)의 예들이 전부인 듯하다. 이는 국어의 많은 방언들에서 공통적인 현상인바[88] 중부방언의 문헌어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보인다. 김완진(1978)에서는 ‘ᆞ’의 변화를 시기의 문제로 보아 비어두 ‘ᆞ’의 변화(ᆞ>으)가 활발한 시기에 어두의 ‘ᆞ’가 이 변화에 휩쓸린 것으로 본 바 있다.

(51) 허-~하-{ᄒᆞ-} 겉-~같-{ᄀᆞᆮᄒᆞ-} 꺼지~꺼정~까지{ᄭᆞ지}[89]

87) 곽충구(1995)에 따르면 평북방언에 ‘줏모-{ᄌᆞᆺᄆᆞᅀᆞ-, 破}’가 쓰인다고 하나 필자는 이 어형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88) 함북 육진 지역어에는 ‘핡’으로 실현되기도 한다(이숭녕 1967, 곽충구 1994).

(51)의 예들은 'ᄋᆞ'가 '어'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음소로서의 'ᄋᆞ'가 소멸되는 말기적 증상으로도 볼 수 있다(김완진 1978).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ᄋᆞ>어'의 변화가 순수하게 어두변화(ᄋᆞ>아)의 예외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51)의 예들이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주로 비어두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물론 '허-'는 예외일 수 있다. 어두에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빈도 면에서 접미사로서 사용되는 '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북방언의 '갈-'과 '걸-'에 대해서는 김이협(1981:32)에 그 쓰임의 차이가 언급되어 있다.[90]

> 걷다㊮ 【全域】 *같다. 유사하다. ★뒷 모습이 형님 걷다 / 불빛이 대낮 걷다 / 날씨가 봄 걷구나
>
> ㊟ '걷다'는 '같다'와 같은 뜻의 말이지만, 활용에 있어서 '똑 걷다', '걷어요', '이와 걷은 값이면' 등으로 발음하지 않음.

이러한 차이는 필자의 조사에서도 확인된바 '걷-'과 '같-'의 용법 차이는 분명하다. 즉 '걷-'은 어두에서 사용되기가 힘들다.[91] 또한 '까지'의 쓰임이 흔하지 않는 이유도 어두에 놓이기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결국 'ᄋᆞ>어'의 변화는 어두변화의 예외로 볼 것이 아니라 비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비어두 변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92] 그렇다면 (56)에서 '하-, 같-'

---

89) 이 때 '까지'의 사용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리고 중부방언에서 'ᄋᆞ>어'의 변화를 보이는 '벌써(볼셔)'는 ㊞용천어에서 '발쎄'로 나타난다. 또한 '못쓰게 되다'의 의미로 쓰이는 '버리-'는 ㊞용천어에서 '배리-'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ᄋᆞ'가 '아'로 변화하여 움라우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부방언의 '턱(ᄐᆞᆨ)'도 '탁'으로 쓰인다.

90) 이기문(1984)에서도 이러한 차이의 지적이 매우 정확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91) '걷이'와 '같이'도 그 용법이 다르다. '걷이'는 標準語의 助辭, '같이'는 副詞에 해당한다. 따라서 '걷이'는 어두에 사용되기 힘든 것이다.

92) 형태소 내부의 비어두에서 'ᄋᆞ'가 '어'로 변화한 예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부

은 어두 변화형이며 '허-, 걷-, 꺼지'는 비어두 변화형으로 모두 ㊗용천어 고유의 변화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52)의 예들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52) 덜~들{ᄃᆞᆯㅎ, 等} 껏~끗{ᄭᆞᆺ장} 절{ᄌᆞᅀᆞ, 核}[93] 벌~불{ᄇᆞᆯ, 件}

비어두 위치에서는 'ᆞ'가 대부분 'ㅡ'로 변화한다(53㉠).

(53) ㉠ 바늘{바ᄂᆞᆯ} 야뜰~야듧{여ᄃᆞᆲ} 아들{아ᄃᆞᆯ}
　　㉡ 바람{ᄇᆞᄅᆞᆷ} 사람{사ᄅᆞᆷ} 나가내{나ᄀᆞ내} 따따허-{ᄃᆞᆺᄃᆞᆺᄒᆞ-}

그런데 비어두의 'ᆞ'가 '아'로 변화하는 예들도 소수 존재한다(53㉡). 이들은 선행음절에 '아'가 위치한다는 점이 공통적인 것으로 보아 이 '아'가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부방언에서도 이러한 예들은 존재하는데 이들을 동화 작용의 산물이라고 보기도 하며(이기문 1959, 이숭녕 1960) 'ᆞ'변화에서의 시기적인 문제로 보기도 한다(김완진 1957).

■ 화순어

(54) 가실{ᄀᆞᅀᆞᆯ, 秋} 닥{ᄃᆞᆰ, 鷄} 짜-{ᄧᆞ-, 鹹}
(55) ㉠ 폴쎄{ᄇᆞᆯ셔, 旣} 모실{ᄆᆞᅀᆞᆯ, 村} 포리{ᄑᆞᆯ, 蠅} 폴{ᄇᆞᆶ, 臂}
　　뽈-{ᄲᆞᆯ-, 洗}
　　ⓐ 맘{ᄆᆞᅀᆞᆷ, 心} 마지막{ᄆᆞᄌᆞ막, 終} 말-{ᄆᆞᆯ-, 調} 바람{ᄇᆞᄅᆞᆷ, 風}
　　빨래(洗濯) 바래-{ᄇᆞ라-, 望}[94]

방언의 '다섯, 여섯, 여덟'은 ㊗용천어에서 각각 '다숫, 여숫, 야뜰~야듧'으로 나타난다.

93) '힌절(흰자위), 검덩절(검은자위), 노랑절(노른자위)'과 같이 쓰인다.

㉡ 소매{ᄉᆞ매, 袖} 놈~넘{ᄂᆞᆷ, 他} 노물~너물{ᄂᆞ몰, 菜}

어두에서 'ᆞ'는 '아'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4). 다만 선행자음이 양순음일 때 'ᆞ'는 '오'로 변화한다(55㉠). 전남방언의 'ᆞ'가 양순음 아래에서 '오'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小倉進平(1944)에서 지적한 이래 국어 방언 연구의 큰 주제가 되어 왔다. 화순어도 많은 단어들에서 양순음 아래의 'ᆞ'가 '오'로 변화하였다. 이는 'ᆞ>아'의 변화에 앞서 'ᆞ'의 원순모음화가 먼저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예들이 소수 존재한다(55ⓐ). 이들은 양순음 아래의 'ᆞ'가 '아'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음운변화의 예외일 수도 있지만 방언 차용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맘'과 '빨래'는 이를 강력하게 지지해 준다. 'ᄆᆞᅀᆞᆷ>맘'의 변화는 'ᆞ'뿐만 아니라 'ᅀ'의 변화에서도 예외적이며 '빨래'의 경우 노년층에서는 주로 '서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양순음이 후행할 때에도 'ᆞ'가 '오'로 변화하는 예들이 있기는 하나(55㉡) 그 예가 너무 적고 산발적이어서 후행하는 양순음이 동화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화순어에서는 '놈, 노물'과 더불어 '넘, 너물'이 쌍형으로 존재하는데 '오'와 '어' 중에 어느 모음이 'ᆞ'의 직접적인 변화형인지도 확실치 않다('남(他)'의 분포지도는 김창섭(1997)을 참고).

어두의 'ᆞ'가 이러한 일반적인 변화에서 벗어나 산발적인 변화를 하기도 한다.

(56) ㉠ 흑{ᄒᆞᆰ} 그늘{ᄀᆞ놀}

㉡ 허-{ᄒᆞ-} 벌써{ᄇᆞᆯ셔}

㉢ 비리-{<베리-, ᄇᆞ리-, 汚}[95] 디꼬{ᄃᆞ리고, 率} 널어지-{*ᄂᆞᆯ-, 降}[96]

94) 화순어의 '보랏고'는 {ᄇᆞ라-}의 'ᆞ'가 '오'로 변화한 어형이다. 이 '보랏고'는 'ᄇᆞ라보고'가 줄어든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보라-'는 이 경우에만 사용되며 그 이외에는 '바래-'가 사용된다.

(56㉠)의 예들은 'ᄋᆞ'가 '으'로 변화한 것인데 이것이 화순어만의 특징은 아니다. (56㉡㉢)의 예들은 'ᄋᆞ>어'의 변화로 추정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 (56㉡)의 예들은 화순어 고유의 변화라기보다는 방언차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허-'는 전남북부지역에서 쓰이고(이기갑 1986) 전북방언, 충남 서해안 지역을 거쳐(김창섭 1997) 더 나아가 중부방언까지 사용된다. 또한 '벌써'도 화순어에 '폴쎄'가 쓰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방언차용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97) 그리고 (56㉢)의 '비리-'는 'ᄇᆞ리-'의 변화형 '베리-'의 '에'가 '이'로 변화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 때 'ᄇᆞ리-'와 '베리-'의 중간 변화형으로 무엇을 인정하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일견 'ᄇᆞ리-'의 'ᄋᆞ'가 중부방언처럼 '어'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ᄇᆞ리->보리-(원순모음화)>뵈리-(움라우트)>베리-(비원순모음화)>비리-(에>이)'의 과정을 상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98) 이 중에 어느 것이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분명히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외로 해 둔다. 그런데 '디꼬, 널어지-'는 'ᄋᆞ>어'로 볼 수밖에 없을 듯한데 그 이유를 분명히 알기가 힘들다.

비어두에서는 'ᄋᆞ'가 대부분 '으'로 변화한다(57㉠).

(57) ㉠ 아들 마늘 하늘 까득(가득) 가늘- 오늘
ⓐ 가지런허-(整) 모실(村) 가실(秋)
㉡ 바람 사람 야달(八)

---

95) '비리-'는 '못쓰게 되다'의 의미이며 '내 던지다'의 의미로는 '내뿔-'이 쓰인다.

96) 화순어에는 '널어지-'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떨어지-'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한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떨어지-'는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의미이며 '널어지-'는 '어디 위에 올라가 있는 물건이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의미이다.

97) '벌써'와 '폴쎄'는 모두 {ᄇᆞᆯ셔}의 변화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쓰이는 상황이 다르다.
㉠ 폴쎄 갔다. (이미 오래 전에)
㉡ 벌써 갔냐?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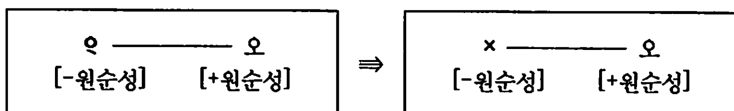
98) 화순어의 '비:-(보이-)'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이다.

㉢ 다섯 여섯

그리고 (57ⓐ)는 'ᄋᆞ>으'의 변화 후에 'ᄋᆞ>으' 전설모음화를 경험한 예들이다. 그런데 비어두에서 'ᄋᆞ'가 '아'로 변화한 예가 소수 존재한다(57㉡). 이들은 (원)용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음절에 '아'가 위치한다. 최전승(1986)에 따르면 19세기 후기 서남방언에서 'ᄋᆞ>아'의 변화가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는데 현대 화순어에 이러한 변화형이 그리 많지는 않다. (57㉢)은 'ᄋᆞ'가 '어'로 변화한 것인데 이숭녕(1940)에서는 '여ᄉᆞᆺ'의 'ᄋᆞ'가 선행음절의 '어'에 동화된 것이며 '다섯'은 이에 이끌린 것이라 하였다.

이제 두 지역어에서 'ᄋᆞ'가 변화한 양상을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어두에서는 'ᄋᆞ'가 '아'로 변화하는 것이 두 지역어의 일반적인 변화이다. 다만 화순어에서는 양순음 아래에서 'ᄋᆞ'가 '오'로 원순모음화하는 것이 매우 활발하나 (원)용천어에서는 극소수의 단어에 불과하다. 비어두에서는 'ᄋᆞ'가 '으'로 변화하는 것이 두 지역어의 일반적인 변화이다. 다만 선행음절에 '아'가 위치하는 경우 'ᄋᆞ'가 '아'로 변화하는 단어들이 소수 존재한다.

'ᄋᆞ'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비음운화함으로써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에 변화를 초래한다. 즉 두 지역어 모두에서 '오'의 [-원순성] 대립짝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원)용천어 · 화순어>

3.1.5. 두 지역어의 '계열상의 변화' 대조

위에서 필자는 두 지역어의 共時論的 對照와 內的 證據를 통해 두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 존재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 共通的인 母音體系를 단계별로 구성하고 몇 가지 變化 樣相을 通時論的으로 對照하였다.

① 'ᄋᆞ'의 변화
② 하강 이중모음의 변화
③ 부동 이중모음의 변화
④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⑤ '에'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이 때 '계열상의 변화'는 그 발생에 있어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①이 ②에 선행함은 'ᄋᆡ'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ᄋᆡ'는 'ᄋᆞ'가 '아'로 변화한 후에 '애'의 변화를 따른 것이다. 그리고 ②가 ③에 선행한다. 또한 화순어에서 ④가 ⑤에 선행함은 '비-(被視)'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어형은 '뵈->베-(비원순모음화)>비-(에>이)'의 변화를 경험한 것인데 '외'와 '에'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까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⑤는 ②에 후행한다. 화순어에서 '에[e]>이'의 변화는 있어도 '어>으'의 변화는 없다. 이는 하강 이중모음 '에[əi]'의 '어'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단모음 '에[e]'가 변화한 것임을 말해준다.

이제 '계열상의 변화'에 있어서 이러한 시기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두 지역어 母音體系의 變化를 대조하여 검토하기로 하자. 이러한 대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最古 段階의 共通的인 母音體系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현대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를 기준으로 '계열상의 변화'를 역으로 추적해 감으로써 가능한데 그 모음체계는 다음과 같다.

이	으	우
	어	
	ᄋᆞ	오
	아	

<(원)용천어 · 화순어의 共通的인 最古 母音體系>

이 모음체계에서 ‘으 ‖ 우’, ‘ᄋᆞ ‖ 오’는 각각 [±圓脣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그리고 중부방언과 동일하게 ‘어, 으, 우’와 ‘아, ᄋᆞ, 오’가 각각 자연부류로 묶일 수 있음을 化石化된 母音調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부방언을 참고하여 이를 [±舌縮性]에 의한 대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체계도만을 보면 ‘으, 어, ᄋᆞ, 아’가 ‘혀의 높이’에 따른 4단 대립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高母音性]과 [±低母音性]에 의한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두 지역어의 共通的인 最古 母音體系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 과정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모음체계		대 조
(원)용천어	화순어	
이	으 우 어 아 오	▶두 지역어 모두 ‘ᄋᆞ’가 非音韻化하여 ‘ᄋᆞ ‖ 오’의 [±圓脣性]에 의한 대립이 상실된다.
이 에 애 외	으 우 어 아 오	▶두 지역어 모두 ‘애[ɛ], 에[e], 외[œ]’가 音韻化(下降 二重母音의 單母音化)한다.

이 으 우 에 어 애 아 오	이 위 으 우 에 어 애 외 아 오	▶㉮용천어에서 '외'는 非音韻化(œ>wɛ)한다. ▶화순어에서 '위'가 音韻化(ui>wi>ü)한다.
〃	이 위 으 우 에 외 어 오 애 아	▶화순어에서 '오[ɔ], 외[œ]'는 '[o], [ö]'로 再音韻化하여 각각 '어, 에'와 [±圓脣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	이 위 으 우 애 외 어 오 아	▶화순어에서 '에'가 非音韻化(에>이)한다. 그리고 '애'는 '외'와 [±圓脣性]에 의한 대립을, '어, 아'와 [±前舌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3.2. 통합상의 변화

3.2.1.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두 지역어의 形態素 結合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을 통해 두 지역어 모두에 역사적으로 원순모음화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1) ㉠ 아푸루(앞+으루, 前) 게부루(겝+으루, 疊) ;
부수루(붓+으루, 筆) 송구추루(송곶+으루, 錐)
㉡ 자불(잡+을, 捕) 기푼(깊+은, 深) ;
보꿀(볶+을, 火) 주군(죽+은, 死)
(2) ㉠ 아푸로(앞+으로, 前) 지부로(집+으로, 家) ;
쑤구로(쑥+으로, 艾) 구구로(국+으로, 羹)
㉡ 자불(잡+을, 捕) 다문(담+은, 容) ;
무굴(묵+을, 食) 주군(죽+은, 死)

(1)은 ㉮용천어형이고 (2)는 화순어형이다. 두 지역어 모두 곡용과 활용

에 관계없이 원순모음화가 일어난다. 다만 곡용에서는 두 지역어 모두 '-으루⇔-으로'가 결합할 때에 한해 원순모음화가 일어난다.[99] 그리고 이러한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은 양순음 또는 원순모음이 선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두 지역어의 音聲象徵語들이 원순모음화가 존재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3) ㉠ 말랑말랑 ∽ 물렁물렁

㉡ 몰캉몰캉 ∽ 물컹물컹

(3㉠)은 [원]용천어형이고 (3㉡)은 화순어형이다. 먼저 [원]용천어에서 '아'와 '우'의 직접적인 상징 대립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는 음운 변화의 결과일진대 변화하기 이전의 상징대립으로 3가지를 가정할 수 있는바 '㉮아∽어, ㉯오∽우, ㉰ᄋᆞ∽으'가 그것이다. 이 중에 ㉮와 ㉯는 'ㅁ' 아래에서 각각 '어>오', '오>아'의 변화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의 가능성만이 남는데 이를 통해 '으>우'의 변화(믈>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용천어와의 대조를 통해 화순어는 '으>우'의 변화(믈>물)뿐만 아니라 'ᄋᆞ>오'의 변화(ᄆᆞᆯ>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지역어에는 비원순모음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들도 있다.

(4) ㉠ 배우-~보이-(被視)

㉡ 비-(보이-, 被視) 배기싫-(보+기)

---

99) Ross(1877)에서는 조사 '-은, -을'의 '으'도 양순음이 선행할 때 원순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지만(jivool(집-을), baboon(밥-은) 등)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 환경에서 '으'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 아플(앞+을, 前), 주근(죽+은, 粥) 등.

(4㉠)은 ㉯용천어형이고 (4㉡)은 화순어형이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두 지역어에서 '오'의 [-전설성] 대립짝이 양순음 'ㅂ'에 후행하지 못한다는 점, 다시 말해 두 지역어에서 '양순음'과 '전설-원순모음'의 연결에 변화(비원순모음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두 지역어의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의 양상을 살피려 하는데 원순모음화는 3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논할 것이다.

㉮ 同化音의 種類	㉯ 圓脣母音化의 方向	㉰ 同化主의 種類
㉠ 우 ㉡ 오	㉠ 順行 ㉡ 逆行	㉠ 兩脣音 ㉡ 圓脣母音

■ ㉯용천어

● 원순모음화

우선 '우'와 관련된 원순모음화를 보기로 한다.

(5) ㉠ 불{블} 풀{플} 물{믈}
㉡ 버물-{버믈-} 저물-{져믈-}
㉢ 거무{거믜} 너부{너븨} 글푸{글픠}
ⓐ 밉-{믭-} 미끄럽-{믯그럽-}

(5)는 兩脣音에 의한 순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예들이다. 어두이든(5㉠), 비어두이든(5㉡) 관계없이 '으'가 '우'로 변화한다. 그리고 부동 이중모음 '의'도 비어두 위치에서 원순모음화하여 '위'로 변화한다(5㉢). 하지만 어두 위치의 '의'는 '이'로 실현되어 원순모음화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5ⓐ). 왜냐하면 ㉯용천어에서 다음 두 가지의 변화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의'가 어두의 일반적인 변화에 따라 '이'로 변화한다.[100]

㉯ '의'가 양순음 뒤에서 원순모음화하고(ɯi>ui), 이어서 'wi'로 변한 후 'w'가 탈락한다.

㉰용천어는 圓脣母音에 의한 순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하기도 한다(6).

(6) ㉠ 두루-{두르-} 누루-{누르-} 부주런허-{브즈런ᄒᆞ-}
부꾸럽-{붓그럽-} 구술{구슬} 무순{므슴}
㉡ 눈추{눈츼} 요구(療飢)

이러한 변화에 개재자음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의 예들은 단모음 '으'가 변화한 것이고 (6㉡)은 부동 이중모음 '의'가 '위'로 변화한 것이다. 비어두 위치에서 단모음 '으'와 부동 이중모음 '의'의 '으'가 동일하게 원순모음화한 사실은 이중모음 '의'의 '으'가 단모음 '으'와 음성적으로 동일한 [ɯ]로 실현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역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도 ㉰용천어에 존재한다.

(7) 누펭이(늪, 濕地) 구만두-(그만두-)

(8) ㉠ 뚫-{듧-, 穿}[101] 어둡-{어듭-} 둔눕-(드러눕-) 둘오-(들어오-)

100) 만약 ㉰용천어가 이 변화를 경험했다면 이는 어두의 단모음 '으'와 '의'의 '으'가 음성적으로 다르게 실현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용천어에서 어두의 '의'는 자음 뒤에서 '이'로 변화하는데 이는 어두에서 '의'의 音節核音이 '이'이고 '으'는 音節副音이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순음 뒤에서 이중모음의 음절 부음 '으'는 단모음 '으'와 음성적으로 다르게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101) '뚫-'은 {듧-}의 어간말 자음 'ㅂ'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활용형에 나타나는 '우(<ㅸ)'의 영향으로 보아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에 포함시킨다.

수물(스물) 두릅{들흡} 신우주~신으주(新義州)

㉡ 느추-(늦추-) 능구-(碎)

(7)은 兩脣音에 의한 원순모음화를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역행적인 원순모음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불안한 면이 있다. '누펭이'의 경우 그 선대형이 '늪'이었는지도 현재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으>우'의 변화가 후행하는 자음 'ㅍ'의 영향 때문인지도 확실치 않다. [원]용천어에는 이 환경이 아니더라도 '으>우'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며(예 눚{늣, 蟲}) 양순음이 후행하더라도 '으>우'의 변화를 모르는 예(그만, 그물, 그뭄, 드물- 등)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만'도 '구만두-'와 같은 형식으로만 쓰이는데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동일한 음소배열임에도 불구하고 '그만'으로 실현된다.102) 따라서 [원]용천어에 양순음에 의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한편 圓脣母音에 의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원]용천어에서 꽤 활발한데(8㉠) 여기에도 역시 예외는 있다(8㉡).

이어서 '오'와 관련된 원순모음화를 보기로 한다. [원]용천어에서 역사적으로 '오'가 'ᄋᆞ'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했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을 드러내 주는 원순모음화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9) ㉠ 몰103)~말{ᄆᆞᅀᆞᆯ} 봇-~보-{ᄇᆞᅀᆞ-}

ⓐ 아푸-{알ᄑᆞ-} 고푸-{골ᄑᆞ-} 가물-{ᄀᆞ물-}

㉡ 배{ᄇᆡ} 맵-{ᄆᆡᆸ-}

ⓑ 나부{나ᄇᆡ} 말무{말ᄆᆡ}

102) 중부방언에서도 '그만두-'는 '관두-'로 줄어들 수 있지만 단독으로 쓰이는 '그만'은 그러지 못한다.

103) '몰'은 '데몰(저 마을), 웃몰(윗 마을), 아랫몰(아랫 마을)'에 한정되며 주로 '말'이 사용된다.

(9)의 예들은 'ㆍ'에 兩脣音이 선행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어두의 'ㆍ>오' 변화는 그 예가 극소수에 불과해 이들이 ㉯용천어 고유의 음운변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9㉠). 다만 몇몇 보고들(최학근 1990:1927, 곽충구 1995)에 따르면 {ᄇᆞᆺ-}의 경우 'ㆍ>오'형이 거의 평안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한편 비어두의 단모음 'ㆍ'는 '우'로 실현되는데(9ⓐ) 두 변화, 즉 ㉮ 'ㆍ>오>우', ㉯ 'ㆍ>으>우' 중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단정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양순음 뒤의 'ㆍ>오'의 변화가 어두에서 그리 활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린다. 하강 이중모음 'ㆎ'의 경우는 원순모음화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다. 어두이든(9㉡) 비어두이든(9ⓑ), 'ㆎ>외' 원순모음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변화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양순음에 후행하는 'ㆎ'의 원순모음화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자 한다.

(10) ㉠ 오소리{오ᄉᆞ리} 고소허-{고ᄉᆞ-}
ⓐ 도죽{도ᄌᆞᆨ} 고루-{고ᄅᆞ-} 모루-{모ᄅᆞ-}
㉡ 좋애{죠ᄒᆡ} 동애{동ᄒᆡ}
ⓑ 조루{죠ᄅᆡ} 몬주{몬ᄌᆡ} 호무{호ᄆᆡ} 조구{조ᄀᆡ} 둥무{듕ᄆᆡ}

(10)의 예들은 'ㆍ'에 圓脣母音이 선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10㉠)과 (10㉡)에서만 각각 'ㆍ'와 'ㆎ'의 원순모음화를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예들은 'ㆍ>오, ㆎ>외'에 앞서 'ㆍ>으, ㆎ>의'의 변화가 선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ㆍ, ㆎ'의 원순모음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역시 보류한다.

(11) ㉠ 소매{ᄉᆞ매} 놈{ᄂᆞᆷ, 他}
㉡ 노누-{ᄂᆞᆫ호-} 도투-~다투-{ᄃᆞ토-} -두룩(<도록<ᄃᆞ록)

(11)의 예들은 'ᄋᆞ'가 역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산발적이고 예외가 많기 때문에 音變化로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 비원순모음화

(12) ㉠ 매뚜기{묏도기} 배{뵈} 매떵{뫼}
㉡ 피-{퓌-, 燃} 비-{뷔-, 空} 비짜루{뷔, 篲} 비틀-{뷔틀-, 扭}

(12㉠)은 어두 위치에서 '외'가 비원순모음화(œ>ɛ)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는 예들이나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외[ɔi]'가 '외[œ]'로 단모음화한 후에 이 단모음이 양순음 뒤에서 '애'로 변화한 것이라면 비원순모음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용천어에서 단모음 '외[œ]'는 상승 이중모음 '왜'로 변화하였음을 상기할 때, 이 '왜'가 '애'로 변화한 것이라면 이는 이화에 의한 w탈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12㉡)의 예들은 '위'의 비원순모음화(ü>i)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원)용천어에서 이중모음 '위[ui]'가 단모음으로 실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이중모음은 '위[wi]'로 변화한 후에 양순음 뒤에서 'w'가 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양순음 뒤에서 '위[ui]>의[ɯi]' 비원순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낮음은 <3.1.3.2 부동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언급한 바 있다.

비어두 위치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3) ㉠ 구룸{구룸} 주룸{주룸} 우쿰{우훔} ;
소곰{소곰} 고롬{골홈} 쪼꼼{죠곰} 오종{오좀} 보롬{보롬}
㉡ 고굼{고곰} 고순도티{고솜돝} 쪼숨{*조솜/주솜}

'오, 우'가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13㉠). 그런데 '오'가 '우'로 변화한 듯한 예들이 존재한다(13㉡). 만약 이들이 '오>으>우'의 변화 단계를 거친 것이라면 '오>으'의 변화를 비원순모음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오>우'의 직접적인 고모음화를 경험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전자의 변화로 본다고 하더라도 ㉮용천어에는 동일한 환경에서 이러한 변화를 거부한 예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13㉡)의 예들은 예외적인 존재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 화순어

● 원순모음화

'우'와 관련된 원순모음화를 먼저 검토한다.

(14) ㉠ 불{블} 풀{플} 물{믈}
㉡ 버물-{버믈-} 저물-{져믈-}
㉢ 아부지(아버지) 어무니(어머니)
(15) ㉠ 거무{거믜} 너부{너븨} 멀무{멀믜}
㉡ 밉-{뮙-} 미끄럽-{믯그럽-}

(14)는 兩脣音이 선행할 때 '으'가 원순모음화(으>우)를 경험한 예들이다. ㉮용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두이든(14㉠), 비어두이든(14㉡) 관계없이 단모음 '으'가 '우'로 변화한다. 이때 '어'가 고모음화하여 형성된 '으'도 원순모음화의 피동화음이 될 수 있다(14㉢). 그리고 이중모음 '의'가 비어두에서는 원순모음화(ɯi>ui)를 경험한 것이 분명하지만(15㉠) 어두에서는 '의'의 원순모음화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15㉡). 그 여부에 관계없이 변화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최전승(1986:235)에 따르면 19세기 후기 전남방언에서 '뮙-~밉-'이 쌍형으로 존재하는데 '믯구리, 믯그럽-' 등은 원순모음화형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 비록 '뮙-'과 같은

원순모음화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16) ㉠ 부꾸룹-(恥) 구술(玉) 누룽밥(<눌은밥, 누룽지)
㉡ 오늘 소름

(16)은 선행음절에 圓脣母音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예들을 보면 동화주가 '우'일 때에는 '으>우'의 원순모음화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에 반해(16㉠) '오'일 때에는 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6㉡). '우 ‖ 으'가 모음체계에서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한다는 점이 이와 어떤 연관이 있을 듯하다.

역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도 있다.

(17) ㉠ 뚧-{듧-} 어둡-{어듭-} 둔누-(드러눕-) 둘오-(드러오-)
수믈(스믈) 두룹{들흡}
㉡ 느꾸-(늦추-)

㉯용천어에서와 같이 兩脣音에 의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圓脣母音에 의한 변화를 보여주는 예들은 꽤 존재한다(17㉠). 비록 동일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모르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17㉡) 원순모음에 의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와 관련된 원순모음화를 보기로 한다. 먼저 어두에서 兩脣音 뒤의 'ᄋᆞ'가 '오'로 변화하는 원순모음화가 매우 강력하게 존재했음은 앞서 <3.1.4 'ᄋᆞ'의 변화>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18) ㉠ 오소리{오ᄉᆞ리}

㉡ 종우{죠히} 동우{동히} 모구{모ᄀᆡ} 조루{죠리} 조구{조ᄀᆡ}

圓脣母音에 의한 순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예들도 존재한다(18). (18㉠)은 단모음 'ᄋᆞ'가 선행하는 원순모음의 '오'의 영향으로 원순모음화한 것이다. (18㉡)은 이중모음 'ᄋᆡ'의 경우인데 'ᄋᆡ>외' 원순모음화와 'ᄋᆡ>의' 변화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즉 'ᄋᆡ>외' 원순모음화가 먼저 일어나 'ᄋᆡ>외>위>우'의 변화를 거칠 수도 있고(최명옥 1982) 'ᄋᆡ>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 'ᄋᆡ>의>위>우'의 변화를 거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원순모음에 의한 순행적 원순모음화가 존재했음을 지적하는[104] 선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려 한다.

또한 역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것처럼 보이는 예들이 존재하기는 하나(19) 그 수효가 너무 적고 산발적이며 예외가 많기 때문에 音變化로 파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 소매{ᄉᆞᄆᆡ} 놈~넘{ᄂᆞᆷ, 他} 노물~너물{ᄂᆞᄆᆞᆯ} ;

노누-~나누-{ᄂᆞᆫ호-}

지금까지는 '으 ‖ 우, ᄋᆞ ‖ 오'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관계에서 일어나는 원순모음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화순어의 모음체계에서 'ᄋᆞ'는 사라지고 '오'가 [±원순성]에 의한 새로운 대립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대립짝이 '어'이다. 이러한 '어 ‖ 오'의 대립관계를 드러내주는 원순모음화가 화순어에 존재한다.

(20) ㉠ 머시매~모시매(머스마) 머심~모심(머슴) 머구~모구(머위)

---

104) 그런데 兩脣音에 의한 순행적 원순모음화(ᄋᆞ>오)를 경험하여 형성된 '오'는 원순모음화의 동화주가 될 수 없다. ㉮ 보디{ᄇᆞᄃᆡ} 모디{ᄆᆞᄃᆡ} 등.

㉡ 꺵번~꺵본(江邊) 매롭-(마렵-)

ⓐ 멀-(遠) 멀무(멀미) 벌(蜂) 구먹(구멍) 주먹(주먹) 주벅(주걱)

(20)의 예들을 통해 어두에서나(20㉠) 비어두에서나(20㉡) 관계없이 '어>오'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예들이 많지 않아 '어>오' 원순모음화가 큰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어두에서는 대부분 쌍형으로 존재하며 비어두에서는 상승 이중모음 '여'의 'y'가 탈락한 환경에 한정되어 '어>오'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양순음-어'의 연결을 가진 대다수의 단어들에서 이러한 변화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20ⓐ). 이와 같이 화순어에서 '어>오' 원순모음화는 그 예가 적을 뿐만 아니라 매우 산발적이며 수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어>오' 규칙의 생성 시기가 그리 오래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어'와 '오'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 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비원순모음화

먼저 어두에서는 양순음 뒤에서 전설-원순모음이 비원순모음화한다.

(21) ㉠ 매때기{묏도기} 배{뵈} 맵쌀{뫼}

㉡ 비-{보이-, 被視}

ⓐ 푀족허-(뾰쪽하-) 푀(표) 뫼(묘)[105]

하강 이중모음 '외[ɔi]'가 '외[œ]'로 단모음화한 후에 양순음 뒤에서 '애'

105) 화순어에서는 '墓'의 뜻으로 '뫼' 외에 '묏, 매뜽'도 사용된다. 여기에서 '묏'은 '묘'가 아니라 '뫼ㅎ(山)'의 변화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어간말 'ㅅ'의 존재가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순어의 일반적인 변화에 비추어 볼 때 'ɔi>œ'의 변화를 경험한 '외'가 양순음 뒤에서 비원순모음화(㊟ 매뜽)하지 않는 것도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묘'가 변화한 '뫼'의 간섭이 작용하지 않았나 한다.

로 비원순모음화한다(21㉠). 그런데 '외[œ]'가 상승하여 '외[ö]'로 변화하면서 [-원순성] 대립짝이 '애'에서 '에'로 바뀌게 된다. (21㉡)의 '비-'는 '외'와 '에'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는 체계에서 비원순모음화한 것이다. 즉 양순음 뒤에서 단모음 '외[ö]'는 비원순모음화하여 '에[e]'로 변화한 뒤 '에>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비원순모음화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화순어에서 '양순음'과 '전설-원순모음'의 연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요>외'의 변화를 경험한 '외'가 양순음에 후행할 때 비원순모음화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21ⓐ).

(22) ㉠ 피-{퓌-} 비-{뷔-} 비짜리{뷔} 삐틀-{뷔틀-}
㉡ 핑기-{품기-}

하강 이중모음 '위[ui]'도 상황은 '외'와 비슷하다. 하지만 '위[ui]'가 단모음 /ü/로 변화한 뒤 비원순모음 '이'로 변화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중부방언을 반영한 문헌을 보면 하강 이중모음 '위[ui]'가 '의[ɯi]'로 비원순모음화한 뒤 '이'로 변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순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ui]'가 '위[wi]'로 변화한 단계에서 이화에 의한 w탈락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22㉠)의 예들을 통해 화순어에 '위'의 비원순모음화가 존재했다고 확신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22㉡)의 예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핑기-'는 '품기-'가 움라우트(後部邊子音化도 포함)를 통해 '핑기-'로 변한 후에 단모음 '위[ü]'가 양순음 뒤에서 '이'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위[ü]>이' 비원순모음화의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비어두 위치에서는 원순모음 뒤에서 후설-원순모음이 비원순모음화한다.

(23) ㉠ 구름{구룸}　주름{주룸}　우름{우룸}　웅큼{우희윰/우훔}

　　ⓐ 목심{목숨}　우심{우숨}　수실(手術)　죽신(竹筍)　요짐{요주숨}

　㉡ 고름{골홈}　보름{보롬}　소금{소곰}　오금{오곰}　쬐끔{죠곰}

　　ⓑ 오짐{오좀}

(24) ㉠ 뿌리{불휘, 根}

　㉡ 모리{모뢰, 後後日}　고리{골회, 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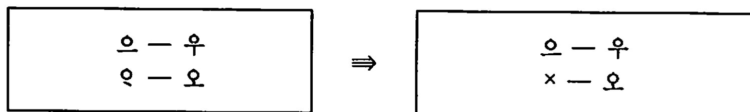
(23㉠)의 예들은 선행음절에 원순모음이 존재할 때 원순모음 '우'가 모두 '으'로 비원순모음화한 것이다. (23ⓐ)의 예들은 비원순모음화에 의해 형성된 '으'가 'ㅅ, ㅈ' 뒤에서 '으>이' 전설모음화를 경험한 것이다. (23㉡)은 원순모음 뒤에서 '오'가 '으'로 실현되는 예들이며 (23ⓑ)는 'ㅈ' 뒤에서 이 '으'가 '이'로 전설모음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오>ᄋᆞ>으'의 변화를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오>으'의 변화를 경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선 전자는 '오'가 [-원순성] 대립짝인 'ᄋᆞ'로 비원순모음화했다는 점에서 음운론적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오'의 비원순모음화가 'ᄋᆞ'의 소실 이후에 발생했다면 후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백두현(1992)에서는 'ᄋᆞ'의 소실로 인한 체계의 일시적인 혼란에 의해 '오>으'의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필자도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오'의 [-원순성] 대립짝인 'ᄋᆞ'가 소실되면서 '으'가 '우'뿐만 아니라 '오'와도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던 시기를 가정할 수 있다. 마치 '에'가 소실되면서 현대 화순어에서 '애'가 '아'뿐만 아니라 '어'와도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오'의 비원순모음화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오>ᄋᆞ>으'의 변화와 '오>으'의 변화,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길을 열어 두고자 한다. 한편 (24)의 예들은 이중모음 '위[ui], 외[ɔi]'가 선행하는 원순모음에 의해 '의'로 비원순모음화한 후 '이'로 변화한 것이다. 이 때의 '외'도 앞서 언급한 '오'와 마찬가지로 '외>

ᄋᆡ>의'의 변화를 거쳤는지, 아니면 '외>의'의 변화를 거쳤는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두 지역어의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려 한다. 우선 두 지역어에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그 예가 적을 뿐만 아니라 매우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이다. 그러나 순행적 원순모음화(으>우, ᄋᆞ>오)는 꽤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화순어에서는 '으>우, ᄋᆞ>오' 원순모음화가 모두 강력한 규칙으로 작용한 반면에, (원)용천어에서는 'ᄋᆞ>오' 원순모음화가 그리 강력하지 못하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순어에는 (원)용천어에서 존재하지 않은 '어>오' 원순모음화가 존재한다는 점도 두 지역어의 차이이다.

한편 비원순모음화 규칙이 (원)용천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화순어와의 차이이다. 화순어에서는 어두의 전설-원순모음 '외[ö], 위[ü]'가 양순음 뒤에서 각각 '애/에, 이'로, 비어두의 후설-원순모음 '우, 오'가 원순모음 뒤에서 '으'로 비원순모음화한다.

원순모음화나 비원순모음화는 [±원순성]에 의한 대립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순모음화, 비원순모음화와 관련된 두 지역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원순성]에 의한 대립체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필 수 있겠다.



<(원)용천어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의 변화>

으 — 우 ᄋᆞ — 오	⇛	이 — 위 애 — 외		으 — 우 어 — 오

<화순어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의 변화>

㉮ '으>우' 원순모음화는 두 지역어 모두에서 활발하다 : 역사적으로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에서 '으 ‖ 우'는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계속 유지한다.

㉯ 'ᄋᆞ>오' 원순모음화가 화순어와는 달리 [원]용천어에서 활발하지 못하다 : 'ᄋᆞ>오' 원순모음화가 발생한 시기에 [원]용천어에서 'ᄋᆞ'가 이미 비음운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어>오' 원순모음화가 [원]용천어와는 달리 화순어에 존재한다 : 화순어에서는 '어 ‖ 오'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 반면 [원]용천어에서는 그러지 못한다.

㉱ 화순어에서는 전설원순모음의 비원순모음화가 꽤 활발하다 : 화순어에서는 후설모음 뿐만 아니라 전설모음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도 확고하나 [원]용천어에서 [±원순성]에 의한 대립은 후설모음 '으 ‖ 우'에 한정된다.

3.2.2. 전설모음화

3.2.2.1. '으>이' 전설모음화

중부방언에서 선행자음이 'ㅅ, ㅈ'일 때 후행하는 모음 '으'가 '이'로 교체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는 결국 선행음에 의한 동화인데 이 변화에 대한 용어로 '치찰음 아래에서의 前部母音化'(이병근 1970ㄱ), '前舌高母音化'(최명옥 1982), '口蓋母音化'(남광우 1984:167), '치찰음과 유음 뒤의 前舌母音化'(백두현 1992) 등이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前部母音, 前舌高母音'이 '이'만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용천어에 모음에 의한 '으>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이러한 동화 현상을 '으>이' 전설모음화라고 칭하여 다루고자 한다.

현대 두 지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으'와 '이'가 대응하는 예들을 볼 수 있다.

(25) ㉠ 쓸-⇔씰-(掃) 이슬⇔이실(露) 즞-⇔짓-(吠) 아츰⇔아침(朝)
㉡ 기림⇔지름(油) 이림⇔이름(名)

(25㉠)은 ㉯용천어의 '으'가 화순어의 '이'에 대응하는 예들인데 선행자음이 'ㅅ, ㅈ'이다. 이와 반대로 (25㉡)은 ㉯용천어의 '이'가 화순어의 '으'에 대응하는 예들인데 선행음절의 모음이 '이'이다. 음운 변화에 있어서 이화보다는 동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면 두 경우 모두 공통단계의 모음은 '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두 지역어의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 비시로(빗+으로) 나시로(낫+으로)
㉡ 저진(젖+은) 차질(찾+을) 비시먼(빗+으먼) 버싱개(벗+응개)
(27) 미리야(밀+으야) 비리야(빌+으야) 시리문(슳+으문)

(26)은 화순어형이고 (27)은 ㉯용천어형이다. 화순어에서는 'ㅅ, ㅈ' 종성 체언에 조사 '-으로'가 결합될 때나(26㉠)[106] 'ㅅ, ㅈ' 종성 용언에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26㉡) '으'가 '이'로 교체된다. 그리고 ㉯용천어에는 (27)과 같은 '으>이' 전설모음화가 존재한다.[107] 즉 선행음절에 '이'가 위치하고 개재자음이 'ㄹ'일 때 어미 두음 '으'가 '이'로 교체된다.

---

106) 앞서 살펴본 원순모음화와 마찬가지로 체언 어간에 조사 '-은, -을'이 결합할 때에는 '으>이' 전설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오슨(옷+은, 衣) 저슬(젓+을, 乳) 등.
107) 이러한 음소의 배열은 다음과 같은 활용에서 형성된다. ㉮ 'Xilh-'말음 어간 + '으'계 모음어미, ㉯ 'Xil-'말음 어간 + 으야.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ㄹ' 종성 체언에 조사 '-은, -을'이 결합할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 이른(일+은, 事), 시를(실+을, 絲) 등.

화순어에서의 ‘시, 지’가 ‘스, 즈’에 소급될 수도 있음은 (28)과 같은 音聲象徵語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8) 살살∽실실 삼삼허-∽심심허- 자근자근∽지근지근

여기에서 ‘아’와 ‘이’가 직접적인 상징 대립을 이룰 수는 없다. 그보다는 역사적으로 상징 대립을 형성하던 모음들이 변화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화순어의 음운 변화를 참고할 때 그 대립은 ‘ᄋᆞ∽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ㅅ, ㅈ’ 뒤에서 ‘ᄋᆞ’는 ‘아’로 변화하고 ‘으’는 ‘이’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 [원]용천어

‘ㅅ, ㅈ’ 뒤에서 ‘으>이’ 전설모음화를 경험한 예들이 존재한다. 먼저 어두에서의 변화를 보기로 한다.

(29) ㉠ 싱겁-{슴겁-} 싫-{슳-} 시골{스ᄀᆞ볼} 싳-{슻-}
㉡ 짓-~집-{즛-, 접두사} 짓{즛} 찌끄레기{즈의} 칠기{츩}
질러-{즈르+어, 捷徑} 찔개{즐게} 짐승{즘싱}
㉢ 쓰-(苦) 쓸-(掃) 즐-(泥) 즞-(吠) 쯪-(破) 쯔-(拔) 츠-(養)

(29㉠)은 ‘ㅅ’에 후행하는 예들이고 (29㉡)은 ‘ㅈ, ㅊ, ㅉ’에 후행하는 예들인데 ‘으>이’ 전설모음화를 보인다.[108] 이 때 ‘ㅅ’과 ‘ㅈ’은 [원]용천어에서 설면음으로 자연부류를 형성한다. 또한 모음 중에서 설면성을 강하게 띠는 모음이 ‘이’ 모음임을 감안할 때 이는 설면성 동화라고 부를 만하다.

108) [원]용천어에서 ‘십(十)’은 ‘습’으로 실현된다. 이는 ‘으>이’ 전설모음화에 대한 과도 교정이 예가 아닌가 한다. 다만 ‘시오리(15리)’는 ‘습오리’로 실현되는 일이 없으며 ‘20, 30, …’의 경우에도 ‘이십, 삼십, …’으로만 실현될 뿐 ‘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으>이' 전설모음화는 'ㅅ, ㅈ'의 설면음화(<4.1.1 'ㅅ, ㅈ'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를 참조)가 일어난 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용천어에는 이와 동일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으>이' 전설모음화를 보여주지 않는 예들도 다수 존재한다(29㉢). 물론 단음절 어간의 경우에도 '으>이' 전설모음화를 보이는 예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29㉢)의 예들이 모두 단음절 어간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30) ㉠ 모질허-{모ᄌᆞ라다} 지질{지즑} 꺼실리우-(그슬리-)

㉡ 거출-~거칠- 어즈럽-~어지럽- 거줏~거짓 기츰~기침

㉢ 이슬 아츰(朝) 마츰(當) 비슥허-(似) 거스레미 버즘

비어두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예들이 있다(30㉠). 하지만 이 변화를 경험한 어형과 그러지 못한 어형이 쌍형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30㉡). 그리고 아직까지 '으>이' 전설모음화를 모르는 어형들도 다수 존재한다(30㉢).[109]

㊊용천어에는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와 성격이 다른 '으>이' 전설모음화가 존재한다.

(31) ㉠ 기리매(기르마) 기림[110](기름) 니리키-(일으키-) 니리-(讀, 謂)

디리-(斜, 聲) 띠리-(刺)

㉡ 씨림~씨름 이림~이름

ⓐ 기리니까니(그러니까) 기리케(그렇게) 이리케(이렇게)[111]

니리세-(일어서-)

109) ㊊용천어에서 어말어미 '-슴니다(습니다)'는 '으>이' 전설모음화를 전혀 모르나 접미사 '-스럽-'은 '-시럽-'으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110) Ross(1877)에서도 'girim(제17강)'으로 나타난다.

111) '데리케(저렇게)'라는 어형도 쓰이는데 이는 '이리케, 기리케'에 이끌린 결과로 보인다.

(32) ㉠ 가르- 거르- 아름
㉡ 비슥허- 니글니글 이슬

우리는 (31㉠)의 예들을 통해 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이 변화를 경험한 어형과 그러지 못한 어형이 쌍형으로 존재하기도 한다(31㉡). 또한 고모음화(어>으)를 경험한 후에 동일한 환경에서 '으>이' 전설모음화가 적용된 예들도 존재한다(31ⓐ). 그렇다면 이 변화의 환경을 분명히 할 필요를 느끼는데 예들을 통해 두 가지 환경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먼저, '이' 이외의 모음이 선행음절에 놓이면 이 전설모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32㉠). 그리고 'ㄹ' 이외의 자음이 개재하면 또한 이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32㉡).

㉮ 同化主 : 선행음절의 모음 '이'
㉯ 介在子音 : ㄹ

그런데 국어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두 환경 모두 매우 특이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용천어에 이러한 변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므로 이를 ㉾용천어의 특징적인 변화라고 해 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 화순어

화순어에서 'ㅅ, ㅈ'에 의한 '으>이' 전설모음화는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33) ㉠ 싱겁- 싫- 시치-(洗) 씰-(掃) 짓- 찢- 춤치-{춤츠-}
㉡ 이실(露) 아침 기침 거짓 모질허-{모즈라-}
(34) ㉠ 어지깨(어저깨) 암시롱(알면서)

ⓛ 오짐{오좀} 수실(수술) 목심(목숨) 죽신(竹筍)

예들이 너무 많아 일부만 제시한 것인데 어두에서든(33㉠), 비어두에서든(33㉡) 관계없이 이 변화는 매우 활발히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변화의 결과로 '으'모음이 'ㅅ, ㅈ' 뒤에 위치하게 될 때에도 '으>이' 전설모음화가 일어난다(34). (34㉠)은 고모음화에 의해 '어'가 '으'로 변한 것이고 (34㉡)은 원순모음 뒤에서 '우'가 비원순모음화하여 '으'로 변화한 것이다.[112]

그런데 동일한 환경에서 '으>이' 전설모음화를 보이지 않는 예들이 존재한다.

(35) ㉠ 수물(스물) 무순~무신(무슨) 우숩-(우습-) 우술(牛膝)
　ⓐ 구실{구슬} 뿌식-(부수-) 부지런허-{브즈런ᄒᆞ-}
ㄴ ㉡ 쓰-{혀-, 點火} 스-{셔-, 立}

(35㉠)은 'ㅅ' 뒤의 '으'가 '우'로 변화한 예인데 이는 규칙들의 경쟁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으' 모음이 원순모음화와 '으>이' 전설모음화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일 때 경쟁관계에 있는 두 규칙 중에 원순모음화가 먼저 적용되면 '으'가 '우'로 변화하게 되고(35㉠) '으>이' 전설모음화가 앞서 적용되면 '으'가 '이'로 변화하게 된다(35ⓐ). (35㉡)의 예들은 화자들의 어간 再分析에 의해 어간말의 '어'가 '으'로 교체된 경우인데 이 때에는 '으>이' 전설모음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ㅅ, ㅈ' 이외의 자음 뒤에서도 '으'가 '이'로 실현되는 예들도 있다.

---

112) '목심'(목#숨)과 비슷한 구성의 '한#숨'은 '한심'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이로 보아 '우>으'의 동화주는 선행음절의 '오'이며 이에 대한 異化作用으로서의 비원순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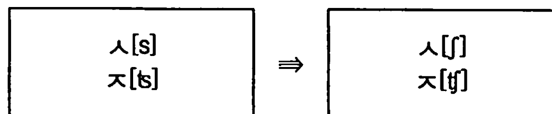
(36) ㉠ -니라고(-느라고) 오니라(<*오느라<오너라)
ⓐ 늦- 느자구(늦) 미느리(며느리) -는디(-는데)
㉡ 가리-(가르-) 짜리-(자르-) 다리-(다르-)
ⓑ 보름 누른밥(누룽지) 거름 -를

그런데 이들은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ㅅ, ㅈ'과 모음 '이'는 [설면성]이라는 자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으>이'를 동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화순어의 'ㄴ, ㄹ'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ㄴ, ㄹ' 뒤의 '으'가 '이'로 변화하지 않는 예들이 다수이다(36ⓐⓑ). 결국 'ㄴ' 뒤에서 '으'가 '이'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예는 (36㉠)의 두 예 정도이다. 그리고 'ㄹ' 뒤에서의 '으>이' 변화는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모두 용언 어간말이라는 환경에 한정된다(36㉡). 그 환경을 벗어나서 'ㄹ' 뒤의 '으'가 '이'로 변화하는 예는 없다(36ⓑ). 따라서 이는 어간말 '으'의 특수한 변화이지 'ㄹ'에 의한 음변화는 아닐 것이다.

이제 두 지역어의 '으>이' 전설모음화 양상을 대조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자음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는 '舌面性 同化'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두 지역어에 모두 존재했다. 그런데 화순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반면에 ㉯용천어에서는 일부 환경에서만 이를 경험하였다. 즉 비어두에서는 몇몇 '으>이' 전설모음화 어형이 보이는데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어두에서도 어느 정도 '으>이' 전설모음화가 진행되었지만 단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예들이 다수이다. 따라서 ㉯용천어에서 이 변화는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화순어와는 달리 ㉯용천어에는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 이외에 '이' 모음에 의한 순행적 '으>이' 전설모음화가 존재한다. 즉 ㉯용천어에서는 선행음절에 '이' 모음이 존재하고 개재

자음으로 'ㄹ'이 존재할 때 'ㅡ'는 'ㅣ'로 변화한다.

'ㅣ' 모음 뒤의 'ㅡ>ㅣ' 전설모음화에 대한 두 지역어의 차이는 체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ㅅ, ㅈ' 뒤의 'ㅡ>ㅣ' 전설모음화에 대한 두 지역어의 차이는 체계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모음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두 지역어 모두에서 'ㅡ'와 'ㅣ'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지역어의 차이는 자음체계의 차이에 기인한바, 'ㅅ, ㅈ'의 再音韻化(舌面音化) 시기, 즉 [±설면성]에 의한 대립이 형성되는 시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ㅅ, ㅈ' 뒤의 'ㅡ>ㅣ' 전설모음화가 설면성 동화임을 감안할 때 'ㅅ, ㅈ'의 재음운화 시기는 'ㅡ>ㅣ' 전설모음화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용천어(진행중) · 화순어(완성)>

㉮ 화순어에서 'ㅡ>ㅣ' 전설모음화가 매우 활발하다 : 자음체계에서 [±설면성]에 의한 대립이 완성되었다.

㉯ ㉯용천어에서 'ㅡ>ㅣ' 전설모음화의 예가 그리 많지 않다 : 자음체계에서 [±설면성]에 의한 대립이 형성되는 중이다.

3.2.2.2. 움라우트

움라우트는 이숭녕(1935), 정인승(1937)에서 언어학적으로 체계화된 이래 김완진(1963, 1971), 이병근(1971ㄱ)을 거치면서 同化主, 介在子音, 被同化音의 性格, 그리고 體系와의 關聯性 등이 상당 부분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움라우트의 範圍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이견이 존재

해 왔다. 우선 움라우트를 전설모음 계열이 모음체계에서 확립된 후에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에 한정시키는 견해(이병근 1970ㄱ, 김완진 1971, 이기문 1972, 최명옥 1989)가 있다. 이와 달리 음절부음 'ㅣ'의 첨가를 움라우트에 포함시켜 움라우트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이숭녕 1949, 허웅 1965:427, 한영균 1980, 안병희 1985, 최전승 1986:166).

현대 화순어에는 움라우트가 공시적 규칙으로 존재한다.

(37) ㉠ 뱅이(방+이) 배비(범+이) 쇠기(속+이) 귀기(국+이) 기미(금+이)
㉡ 개기(가+기) 외기(오+기) 배기싫-(보기싫-) 디끼싫-(듣기싫-) ;
외깄소(오+아+기+었+소) 개깄소(가+아+기-) 자배깄소(잡+아+기-)

즉 체언어간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할 때나(37㉠) 용언어간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와 존칭선어말어미 '-기-'가 결합할 때(37㉡) 움라우트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를 통해 화순어에서 통시적으로 움라우트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지역어에서 피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어형들은 움라우트의 존재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38) 냉기-(남기-) 매키-(막히-) 메기-(먹이-) 넹기-(넘기-)

(38)은 ㉯용천어형인데 화순어형도 '에>이' 변화를 제외하면 이와 동일하다. 여기에 제시한 예들의 제1음절 모음은 의미의 연관성을 생각할 때 각각 '남-, 막-, 먹-, 넘-'의 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변화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원용천어

원용천어에서 움라우트는 피동화음이 '아, 어'일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

(39) ㉠ 새끼{삿기} 방매이(방망이) 애비(아비) 손재비(손잡이)
보재기(보자기) 쌔기-(삭히-) 애리-(아리-) 채리-(차리-)
냉기-(남기-) 대끼-(닫기-, 閉)
ⓐ 댕기-{ᄃᆞᆼ기-}
㉡ 구세기(구석) 데미(더미) 에미(어미) 건데기(건더기)
구데기(구더기) 세구(석유) 찌께기(찌꺼기) 메기-(먹이-)
넹기-(넘기-) 뎀비-(덤비-)

(39㉠)은 피동화음이 '아'이고 (39㉡)은 '어'인데 두 경우 모두 움라우트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9ⓐ)의 '댕기-'는 용언 어간말에서 '의'가 변화한 '이'도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동화음이 '오, 우'일 때에도 움라우트를 경험한 듯이 보이는 예들이 존재하는데 모두 피사동접미사가 결합한 용언에 한정된다(40).

(40) ㉠ 쬐리-(졸이-) 쐐키-(속이-) 놰키-(녹이-)
㉡ 쥐기-(죽이-) 쉬기-(숙이-)

그런데 과연 이들을 움라우트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움라우트를 전설모음 계열이 모음체계에서 확립된 후에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에 한정시킨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원용천어에는 /외[œ]/, /위[ü]/가 전설모음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다만 상승 이중모음 '왜[wɛ]'와 '위[wi]'가 각각 [+전설성] 자음 뒤에서 음성 [œ], [ü]로 실현될 뿐이다. 그런데 원용천어에서도 역사적으로

전설모음 /외[œ]/가 존재한 적이 있기 때문에 (40㉠)의 예들은 움라우트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즉 '외[œ]'가 모음체계에 존재할 당시 '오'가 움라우트를 경험하고 뒤이어 '외[œ]>왜[wɛ]'의 변화를 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40㉡)의 예들은 문제가 다르다. ㉻용천어의 역사상 전설모음 /위[ü]/가 모음체계에 존재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도 일어난다. 즉 '외'와 '위'가 單位 音韻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두음이 'ㅅ, ㅆ, ㅈ, ㅊ, ㄷ'일 때 '오, 우'가 '외, 위'로 실현되는 것이다(이병근 1970ㄱ).

필자는 (40)의 변화에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첫째, 움라우트 規則이 內在化되기 전에 다른 규칙, 즉 'ㅣ'첨가 규칙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후 [+전설성] 자음 뒤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이중모음 '외, 위'의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용천어에 존재하는 '쒸시-{슈시-}, 쒸시{슈슈}, 쥐추{쥬츄}' 등의 예도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113) 이들 예에서 제1음절의 '유'는 일반적인 변화(유>우)에서 벗어난 것인데 후행음절에 'i, y'가 위치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114) 둘째, '오, 우'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이루는 모음이 체계에 존재하지 않더라고 어떤 모음(또는 모음연쇄)이 음성적으로 전설모음으로 실현되면 움라우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용천어에서 상승 이중모음 '왜[wɛ], 위[wi]'는 [+전설성] 자음 뒤에서 음성적으로 각각 [œ], [ü]로 실현된다. (40)의 예들에서 '왜, 위'의 음절 두음이 [+전설성] 자음이라는 점이 이와의 관련성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13) 필자가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김이협(1981)에는 보다 많은 어형들이 보고되어 있다. ㊞ 쇠식{쇼식}, 쇠주{쇼쥬}, 쥐정{쥬경}, 쥐전재{쥬젼ᄌᆞ}, 쥐제{쥬제} 등.

114) 만약 이들이 'ㅣ'첨가에 의한 것이라면 이 경우 개재자음에 'ㅅ, ㅈ' 등도 위치할 수 있어 움라우트의 개재자음 조건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곽충구(1994:129)에 따르면 육진방언에서 피동화음이 이중모음 /야, 여, 여, 유/이고 개재자음이 [+coronal] 자음일 때 이러한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를 '동화주가 앞 뒤에 위치한 움라우트'라고 한 바 있다.

위에 말한 두 가능성 모두, 원용천어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왜 움라우트를 보여주는 예들이 존재하지 않은지에[115]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 힘들다. 따라서 필자는 그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삼가려 한다.

(41) ㉠ 디리-(들이-) 디리-(드리-) 띠끼-(뜯기-) -띠리-(-뜨리-)
㉡ 그리- 흐리- 느리-

(41㉠)은 '으'가 움라우트에 의해 '이'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피동화음 '으'에 선행하는 자음이 주로 'ㄷ, ㄸ'이라는 점이다. 기타 자음이 선행할 때에는 이러한 변화를 전혀 모른다(41㉡). 따라서 이는 움라우트의 예에 포함시키기보다는 'ㄷ'의 음성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원용천어의 '디가-(들어가-), 디디-(드디-)'와 같이 움라우트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으>이'의 변화가 일어난 예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한 'ㄷ'의 음성적 특성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116]

■ 화순어

화순어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을 피동화음의 종류에 따라 보기로 한다.

(42) ㉠ 애비(아비) 싸래기(싸라기) 냉기-(남기-) 깽본(강변)

115) 원용천어에 존재하는 '쇄경{쇼경}'이 형태소 내부에서 '오'가 움라우트를 경험한 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쒸시-{슈시-}, 쒸시{슈슈}, 쥐추{쥬츄}' 등과 같은 변화를 경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116) 이병근(1970ㄱ)에서도 '으:티끼(어떻게), 그리케(그렇게)' 등을 예로 들어 'ㄷ ㄹ ㄴ' 아래에서 '으>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송철의(1987)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 음절두음이 'ㄷ ㄹ'일 때 용언어간말 '이'가 glide화하지 않고 glide 첨가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바 있다. 혹시 이들 자음에서의 [+전설성]이 관여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 이미(어미) 미기-(먹이-) 닝기-(넘기-)
ⓐ 재리-(저리-) 애룹-(어렵-)
㉢ 괴기(고기) 죄끼(조끼) 쇠키(속히) 욍기-(옮기-) 굉기-(곪기-)
ⓑ 깜배기{감보기} 매때기{몟도기} 꼰대기{본도기}
㉣ 귀경(구경) 뉘비(누비) 뉘피-(눕히-) 쥐기-(죽이-) 쉥키-(숨기-)
㉤ 기리-(그리-) 디리-(드리-) 띠끼-(뜯기-)

(43) ㉠ 뗑기-{ᄃᆞᆼ기-} 배끼-{밧괴-} 새기-~사구-{사괴-}
㉡ 배끼{밧긔}

(42)는 환경에 따라 예들의 일부만 제시한 것인데 화순어에서 움라우트는 피동화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어'는 움라우트가 일어난 후(어>에) '이'로 변화하기도 하고(42㉡) '애'로 실현되기도 한다(41ⓐ). 그리고 '오'는 움라우트가 일어난 후 비어두 위치에서 '애'로 실현되는데 이는 [+원순성]을 상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41ⓑ). 또한 화순어에서는 순정의 '이'가 아니더라도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될 수 있다(43). (43㉠)의 동화주 '이'는 부동 이중모음 '의, 위'가 용언어간말에서 '이'로 변화한 경우이고 (43㉡)은 처격조사 '의'가 '이'로 변화하여 화석형으로 존재하는 경우인데 모두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용천어에서 피동화음이 '아, 어'인 경우에 움라우트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반면에 피동화음이 '오, 우, 이'일 때에는 [+전설성] 자음 뒤에서만 미약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모든 후설모음을 피동화음으로 하여 움라우트가 일어난다. 이러한 차이는 움라우트가 일어나던 시기의 [±전설성]에 의한 대립체계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 — 으 에 — 어 애 — 아	× — 우 × — 오

<㉯용천어의 [±전설성]에 의한 대립>

이 — 으 에 — 어 애 — 아	위 — 우 외 — 오

<화순어의 [±전설성]에 의한 대립>

㉮ ㉯용천어에서는 피동화음이 '아, 어'일 때에만 움라우트가 활발하다 : '오, 우'가 [+전설성] 대립짝을 갖지 못하여 [±전설성]에 의한 대립이 不安定하다.

㉯ 화순어에서는 모든 후설모음이 움라우트의 피동화음이 된다 : 모든 모음이 [±전설성]에 의한 相關對立을 형성하여 그 대립이 매우 確固하며 安定的이다.

3.2.3.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이 절에서는 '야, 여' 등을 변화를 다룬다. 우리는 그동안 '야, 여' 등을 흔히 'y系 上昇 二重母音'이라고 일컬어 왔다. 본고에서도 이 명칭은 유효하다. 하지만 이 명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二重母音이란 한 音節 내의 두 母音의 連結이다. 우리는 흔히 현대국어의 '야, 여' 등을 半母音 /y/와 單母音의 연결로 이해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연결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이중모음이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반모음은 흔히 [-子音性, -母音性]이라고 資質明細가 되듯이 엄격한 의미에서 모음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小倉進平(1923:33-56)에서는 'y, w, ɥ' 등을 子音(摩擦音)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한 Catford(1988:116)에서는 영어의 '*you*[yu], *war*[wɔɹ]' 등을 이중모음이 아닌 '반모음(y, w)-단모음'의 연결로 파악하고서 이를 이중모음의 목록에서 배제함으로써 영어의 이중모음으로는 오직 하강 이중모음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숭녕(1949)에서도 국어의 'ㅣ+ㅗ

=ㅛ, ㅣ+ㅏ=ㅑ' 등을 "二重母音이라고도 볼 것이며 또는 [j] 音價를 머리에 가진 音群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여 二重母音과 音群(半母音-單母音)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한편 현대국어의 '야'가 '반모음-단모음'의 연결이라고 하여 중세국어에서도 그러했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먼저, 중세국어의 '야'도 현대국어와 동일한 연결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모음의 制字原理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애'와 '야'는 제자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合成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單位文字[再出字]인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애'와 '야'의 副音을 다르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김완진(1963)에서는 '애'와 '야'의 제자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ㅢ, ㆎ'를 예로 들어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얻는다면 중세국어에서 '애'와 '야'의 부음은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한 『訓民正音』(解例)의 "ㅑ與ㅏ同而起於ㅣ"에서 '야'의 'i'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앞서 중세국어의 '애, 에' 등을 'Vi' 이중모음이라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야, 여' 등이 'iV' 이중모음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현대 두 지역어의 '야, 여' 등을 /yV/ 연결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두 지역어에서도 역사적으로 /iV/인 단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iV/의 존재를 상정하더라도 /yV/와 /iV/ 중에 어느 단계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본고에서는 '야, 여' 등을 편의상 'y系 上昇 二重母音'이라고 칭하려 하는바, 그 변화의 시작점도 /yV/로 가정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두 지역어에 y계 상승 이중모음이 공통적으로 존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 있다.

(44) 헤⇔서(舌) ; 게⇔저(糠) ; 덜⇔절(寺)

(44)에서 보여주는 모음의 대응(에⇔어)과 자음의 대응(ㅎ⇔ㅅ, ㄱ⇔ㅈ, ㄷ⇔ㅈ)은 역사적으로 '여'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울러 동일한 방법에 의해 기타 y계 상승 이중모음의 존재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예들은 생략하려 한다.

또한 두 지역어의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도 '여'의 변화는 확인된다.

(45) ㉠ 이게(이기+어) 비베(비비-) 떨어데(떨어디-) 마세(마시-)
㉡ 재폈다(잡히+었+다) 이겼다(이기-) 마셨다(마시-) 다쳤다(다치-)

(45㉠)은 ㉯용천어형이고 (45㉡)은 화순어형이다. 두 지역어에서 어간 말음 '이'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용천어는 '에'로, 화순어는 '이'로 실현된다. '이'와 '어'가 결합하면 '여'가 되는 것이 음성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일진대 두 지역어의 분화는 '여'가 통시적으로 변화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용천어

먼저, '여'의 변화부터 검토하기로 한다.117)

(46) ㉠ 베{벼} 벨{별} 베루{벼로} 페-{펴-} 멫{몇}
㉡ 게{겨} 게리-{결-} 켄{켠}
㉢ 더기{뎌어긔} 덜{뎔, 寺} 턴디{텬디} 너름{녀름} 미런허-(未練)
㉣ 서른{셜흔} 섬{셤} 저물-{져믈-} 젖{졎} 천{쳔}
㉤ 헤{혀} 헤-~쎄-{쎠-} 헝데~형데{형뎨}118)

117) '여>에'의 변화가 상승 이중모음 변화의 단초가 되었을 가능성은 누차 이야기되어 온 바이다(김완진 1963, 백두현 1992:169).

ⓑ 옌주{연지}

'여'는 선행자음의 종류에 따라 그 변화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먼저 [-전설성] 자음, 즉 양순음(46㉠)과 연구개음(46㉡) 뒤에서는 '여'가 '에'로 축약된다.119) 그런데 [+전설성] 자음 뒤에서는 '여'가 y탈락을 경험한다(46㉢㉣). 'ㅎ' 뒤에서는 축약과 y탈락의 실현형이 공존하는데 고유어와 한자어의 차이로 보인다(46㉤).120) 그리고 선행자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승 이중모음이 변화를 겪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에'로 변화하는 극소수의 예가 있다(46ⓑ). 결국 '여'는 선행자음이 [-前舌性] 子音일 때에는 縮約을, [+前舌性] 子音일 때에는 y脫落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예들이 존재한다. 먼저 선행자음이 [-전설성] 자음일 때 y탈락을 보이는 예는 '-으문(<-으먼<-으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121) 그런데 과연 '-으먼'이 '-으면'의 변화형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반적인 변화 경향을 따르는 '-으멘(-으면서)'과 비교하면 '-으문'의 특이성이 더욱 드러난다.122)

118) '헝데'보다는 주로 '형데'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헹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119) 그동안 학계에 '여>에'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학설들이 제기된 바 있다. ① jə>əj>e(이광호 1977, 곽충구 1982, 최태영 1983), ② jə>e(이숭녕 1954ㄴ, 이병근 1973, 최명옥 1982), ③ jə>je>e(김완진 1963, 곽충구 1994), ④ jə>jəj>je>e(유창돈 1964ㄴ:159, 오종갑 1983, 최임식 1984, 최전승 1986), ⑤ ㉠ jə>jəj>je>e, ㉡ jə>e(백두현 1992:162).

120) 또한 이러한 차이는 'ㅎ'의 음성적인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 즉 /ㅎ/은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음 [ç](+前舌性)로, 기타 환경에서는 [h](-前舌性)로 실현되는데 이 점이 y탈락과 축약의 변화를 모두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본다.

121) ㉾용천어에서는 '가븜-'은 표준어의 '가볍-'과 비교할 때 양순음 아래에서 y탈락을 경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세문헌어 {가비얍-}을 참고할 때 다른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122) 동남방언에 존재하는 '-으모(-으면)'를 참고할 때 혹시 그 기원이 다른 것은 아닐까 한다.

다음으로 [+전설성] 자음 뒤에서 y탈락 이외의 변화를 경험하는 예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47) ㉠ 데{뎌, 彼}
㉡ 체네{쳐녀} 선네{션녀} 넘네{념려} 부체{부쳐, 夫妻}
㉢ 세-{셔-, 立}
㉣ 젤펜{졀편} 덴장{뎐쟝, 田庄} 넨세{년셰} 체네{쳐녀}
첸모{쳔묘, 遷墓}
㉤ 젠네{젼+에, 前}

하지만 이런 예외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47㉠)의 '데'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의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 본다. 즉 관형사 '이'에 이끌려 '뎌'에 '이'가 첨가되어 '뎨'가 형성되고 '뎨>데'의 변화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123] (47㉡)의 예들은 체언 어간말의 '이'첨가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 어' 종성 체언에 '이'가 첨가되는 양상은 거의 전국적이며 [원]용천어도 예외가 아니다 (예 가매(가마), 붕에(붕어) 등). 그리고 (47㉢)의 '세-'는 용언 어간말이라는 특수 환경에 기인한 것이다. 즉 어간 '셔-'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의 활용형은 '셔'인데 [원]용천어에서 활용형의 '여'는 모두 '에'로 변화한다. 따라서 활용형 '셔'가 '세'로 변화하고 화자들이 어간을 '세-'로 再分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7㉣)의 예들은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후행음절에 'i, y'가 존재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 'i, y'가 '여>에'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추정해 본다. (47㉤)의 '젠'(前)은 주

123) 이는 '그'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원]용천어에서 '그'보다는 '기'가 더 활발히 쓰이고 있는데 이 '기'도 '그'에 '이'가 첨가되어 '긔'가 되고 '긔>기'의 변화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부방언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걔, 쟤' 또는 '갸, 쟈'가 그것이다. 이들은 '그, 저'에 '애(兒)' 또는 '아(兒)'가 결합한 것인데 '얘(이#애)' 또는 '야(이#아)'에 이끌려 그와 같은 어형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로 처격조사 '-에'와 결합하여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예외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124]

'야'의 변화 양상도 '여'와 비슷하다.

(48) ㉠ 개름허-{갸름ᄒᆞ-} 깨울깨울{갸웃갸웃} 뺌{뺨}
㉡ 땲-{다ᄅᆞ-, 短} 당개{댱가} 낭반{냥반} 불량(不良)
㉢ 사마구{샤마괴} 자래{쟈래} 자루{쟈ᄅᆞ, 袋}
ⓐ 새치{샤치, 奢侈}
ⓑ 재량{쟈량}
㉣ 항뿔~항뿔(香)
㉤ 야드래미~애드래미{여드름}

[-전설성] 자음(양순음, 연구개음) 뒤에서는 '야'가 '애'로 축약된다(48㉠). 그리고 [+전설성] 자음 뒤에서는 '야'의 'y'가 탈락한다(48㉡㉢).[125] 후음 뒤에서는 '여'와 달리 축약을 보여주는 예들이 없는데 '햐'와 같은 음소배열을 가진 고유어가 존재하지 않음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행자음이 없을 때는 '야'의 실현이 자연스러운데 거의 유일하게 '야>애'의 변화를 보이는 예가 '애드래미'이다.[126] 그런데 예외적이라고 볼 수

124) 필자는 '제네'가 '저네(전+에)'의 변화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후행하는 음절에 존재하는 '에'의 영향으로, 같은 중모음인 '어'가 전설모음 '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어에서 쓰이는 '대매(다음+에), 배깨(밖+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본고에서는 더 이상의 억측을 삼가려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125) 이 지역어에서 'ㄷ, ㅌ, ㄸ' 뒤에서 '야'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디#않-'의 결합에서 '이'가 활음화하여 수의적으로 '-댢-'이 되는 경우인데 y탈락을 경험하지 않는다. ㉢ 펜티않-~펜턍-(편찮-), 귀티않-~귀턍-(귀찮-), 허디않-~허댢-(하지 않-) 등. 다만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 한해 y탈락을 보이는 예들이 존재한다. ㉢ 점댢-(점잖-), 에땽-(언짢-) 등.

126) 김병제(1980:193)에는 '애숙하-(야속하-)'가 실려 있는데 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김영황(1982:133)에는 이와 다른 변화, 즉 'y'탈락을 경험한 예로서

있는 예들이 있다(48ⓐⓑ). (48ⓐ)의 '새치'는 '여'의 변화에서 보았듯이 후행음절의 '이'가 '야>애'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48ⓑ)의 '재랑'은 그 원인을 알 길이 없다.

'여, 야'와는 달리 '요, 유'는 대부분 y탈락을 경험한다.

(49) ㉠ 뽀족허-{뾰족ᄒᆞ-} 포준말(標準) 포범(豹) 첸모{천묘, 遷墓}
㉡ 돟-{둏-} 당노(糖尿) 재로(材料)
㉢ 소{쇼, 牛} 종애{죠희} 초{쵸, 燭}
㉣ 호자(孝子) 호꽈(效果)

(50) ㉠ 두야{듀야, 晝夜} 둥무{듀미} 누행(流行) 훌룽(훌륭)
㉡ 수박{슈박, 西瓜} 죽{쥭, 粥} 중{즁, 僧}
ⓐ 쒸시-{슈시-, 扣} 쒸시{슈슈, 薥} 쥐추{쥬츄, 柱礎}
㉢ 훙(凶) 훙넌(凶年) 훙악(凶惡)

(49)는 '요'의 경우이고 (50)은 '유'의 경우이다. '요, 유'는 선행자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 'y'가 탈락한다는 점에서 '야, 여'와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듯한 예들이 존재한다(50ⓐ). 이들은 후행음절에 'i, y'가 존재한다는 점이 공통적인데 y탈락을 경험하는 대신 음성 [ü]로 실현된다.

선행자음이 존재할 때의 '예'와 '얘'는 각각 [ye]와 [yɛ]로 변화한 후 모두 'y'가 탈락한다(51). Ross(1877)에서도 '예, 얘'의 'y'가 실현되는 예들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y'탈락의 시기가 꽤 일렀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야, 여, 요, 유'와 '예, 얘'의 'y'탈락이 그 성격을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얼:다(열다), 아:단(야단)' 등을 들고 있다. 필자도 '얼:다'를 청취할 수는 있었는데 이것이 '열-'의 변화형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51) ㉠ 베-{볘-, 枕} 세상{셰상, 世上} 네장{녜장, 禮裝} 형데{형뎨}
　　㉡ 내기{<냬기<니야기, 說}

■ 화순어

먼저, '여'의 변화 양상을 보기로 한다.

(52) ㉠ 서른{셜흔} 섬{셤} 저물-{져믈-} 젓{졋} 천{쳔}
　　　ⓐ 쩌그{뎌어긔} 절{뎔} ; 저{겨} 절-{결-} ; 서{혀} 성{형}
　　　ⓑ 미런(未練)
　　㉡ 비실(벼슬) 빌(별) 밋(몇) 미느리(며느리) 핀지(편지) 핑상(평상)
　　　ⓒ 깽본(강변) 매룹-(마렵-) 개붑-(가볍-) -으먼(-으면)
　　㉢ 이드름(여드름)

이 지역어에서 [+전설성] 자음 뒤의 '여'는 거의 대부분 y탈락을 경험하는데 특히 [+설면성] 자음일 때 활발하다(52㉠). 따라서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는 舌面音化(<4.2.1.1 설면음화>에서 상술)와 시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화순어에서는 설면음화(ㄷ>ㅈ, ㄱ>ㅈ, ㅎ>ㅅ)의 시기가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이중모음의 변화가 선행한다면 동화주가 사라져 설면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어에서 'ㄷ, ㄱ, ㅎ' 뒤의 'y'는 선행자음을 설면음화시키고 이어서 'ㅅ, ㅈ' 뒤에서 탈락한다고 할 수 있다(52ⓐ). 그리고 'ㄴ, ㄹ' 뒤에서 y탈락을 경험하는 예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원]용천어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52ⓑ). [+전설성] 자음 뒤에서 y탈락을 경험하는 것과는 달리, [-전설성] 자음인 양순음 뒤에서는 '여'가 대체로 축약(여>에)된 다음 '이'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2㉡).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기원이 의심스러운 '-으먼'을 제외하면 움라우트의 동화주인 'y'가 탈락함을 알 수 있다(52ⓒ). 결국 비어두에서의 [-전설

성] 자음 뒤의 '여'가 축약된 예는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선행자음이 없는 '여'가 변화하는 것은 (52㉢)의 '이드름'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용천어에서도 '야드래미~애드래미'로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결국 화순어에서도 ㉯용천어와 마찬가지로 상승 이중모음 '여'가 [+전설성] 자음 뒤에서는 y탈락을 경험하고 [-전설성] 자음 뒤에서는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야'의 변화도 '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

(53) ㉠ 자리{쟈ᄅᆞ} 사마구{샤마괴}
　㉡ 짜우뚱(갸우뚱) 장가{댱가} 상뿔{향불}
　㉢ 동낭치(동냥아치) 성낭(성냥)

즉 [+전설성] 자음 뒤에서는 주로 y탈락을 경험한다. 특히 [+설면성] 자음 뒤에서 활발한데 그 자음이 기원적이든(53㉠) 설면음화에 의해 형성되었든(53㉡) 관계없이 후행하는 '야'는 거의 대분은 y탈락을 경험한다. 한편 'ㄴ, ㄷ' 뒤에서 '야'의 'y'가 탈락하는 예는 극소수에 불과한데(53㉢) 이는 '여'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리고 '양순음+야'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 [-전설성] 자음 뒤의 '야'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54) ㉠ 소{쇼} 좋-{둏-} 소자{효자} ;
　　푀~패(標) 푀쪽허-~빼쪽허-{뾰족ᄒᆞ-} 회녀(孝女)
　　ⓐ 비로~비료(肥料)
　㉡ 수박{슈박} 죽{쥭} 중매{듕ᄆᆡ} 숭넌(凶年) ; 귤(橘)
　　ⓑ 미루나무(美柳) 시구(石油)

'요, 유'도 '여, 야'의 변화 양상과 비슷하다. 즉 선행자음이 [+전설성] 자음일 때에는 대체로 'y'가 탈락하고(54㉠) [-전설성] 자음일 때에는 축

약을 하여 각각 '외, 위'로 변화한다(54㉡). 다만 비어두에서는 선행자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y탈락을 경험하는 예들이 적으나마 존재한다(54ⓐⓑ).

화순어에서 '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예'는 선행자음의 종류에 상관없이 반드시 'y'가 탈락하고 '에>이' 변화를 겪어 '이'로 실현된다(55).

(55) ㉠ 시-{셰-, 白髮} 시상{셰샹, 世上} 지사{졔ᄉᆞ, 祭祀} 지비{졔비, 燕}
　　㉡ 비-{볘-, 枕} 기(契)

여기에서 '예'의 변화는 2가지 면에서 '여, 야, 요, 유'의 변화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 '여' 등은 선행자음의 종류에 따라 y탈락과 축약의 변화를 보이는데 '예'는 선행자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y탈락이 일어난다. ㈏ '예'는 '여' 등과 달리 선행자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y탈락이 일어난다. 따라서 '여, 야, 요, 유'는 변화 원인이 '자음-y'의 연결을 기피하려는 데에 있지만 '예'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전설성]을 가진 'y'와 '에'의 연결을 기피하려는 일종의 이화에 의한 y탈락으로 생각된다.

화순어에서의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는 통시적으로 거의 완료된 것이 아닌가 한다. 화순어에 새로 들어온 단어(㉺ 경사, 평, 교장, 휴가 등)나 음운 변화에 의해 새로 형성된 단어(㉺ 선:허-{싀훤ᄒᆞ-, 快}, 숑:{소용, 小口瓶} 등)에서는 자음 뒤의 y계 상승 이중모음이 매우 자연스럽게 실현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에서 '야, 여, 요, 유'는 '자음-y'의 연결을 기피하려는 노력에 의해 변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선행자음이 없을 때에는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자음 뒤에서 그 변화를 활발히 관찰할 수 있다. 두 지역어에서 자음 뒤의 '여, 야'는 변화 방향이 대체로 비슷하다.

[-전설성] 뒤에서는 축약되어 각각 '에, 애'로 변화하며 [+전설성] 자음 뒤에서는 'y'가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요, 유'의 변화 양상은 두 지역어가 약간 차이를 보인다. 즉 ㉯용천어에서는 대부분 'y'가 탈락하는 데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전설성] 자음 뒤에서 축약된다.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두 지역어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서 언급한 움라우트와 마찬가지로 [±전설성] 대립체계의 차이에 기인한다.

㉮ '야, 여'는 두 지역어 모두 先行子音의 種類에 따라 縮約과 y脫落을 경험한다 : 두 지역어 모두 '어 ‖ 에, 아 ‖ 애'의 [±전설성]에 의한 대립체계가 확고하다.

㉯ '요, 유'가 화순어에서는 '야, 여'와 동일하게 縮約과 y脫落을 경험하나 ㉯용천어에서는 y脫落만을 경험한다 : 화순어에서는 '오 ‖ 외, 우 ‖ 위'의 [±전설성]에 의한 대립체계가 확고하나 ㉯용천어에서는 '오, 우'의 [+전설성] 대립짝이 존재하지 않는다.

3.2.4. 고모음화

高母音化는 非高母音이 高母音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는 두 지역어의 대응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56) ㉠ 따루⇔따로(各) 아주⇔아조(殊) 마주⇔마조(相) 모두⇔모도(集)
㉡ 바꾸- 배우- 감추-

(56㉠)에서 ㉯용천어의 '우'가 화순어의 '오'에 대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용천어에서 '오>우'가 있었거나 화순어에서 '우>오'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母音調和를 감안하면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

고 하겠다. 또한 (56㉡)은 두 지역어에 모두 나타나는 예들인데 이들도 모음조화의 측면에서 볼 때 '오>우'를 가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56)의 예들을 통해 두 지역어 모두에서 '오>우'가 있었으나 [원]용천어에서 더욱 활발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57) ㉠ 선스나(선#서나, 사내) 새쓰방(새#서방) 어쯔낙(어제#저녁)
㉡ 자버댕이-~자부댕이-(잡아#당기-) 삼서~삼시롱(살+으면서)

또 다른 고모음화도 확인할 수 있다. (57㉠)은 [원]용천어형이고 (57㉡)는 화순어형이다. 이들을 통해 두 지역어에 '어>으'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원]용천어

먼저 '어>으' 고모음화는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두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인 예는 찾아 보기 힘들다.

(58) ㉠ 어즈께~어지께(어저께) 그즈께~그지께(그저께) 어뜨케(어떻게)
㉡ 기리문(그러면) 이리케(이렇게)
ⓐ 무녕(무명) 시덥(접시) 양넘(양념) 명석 거럼(그럼) 거저(그저)
ⓑ 먹어서(먹+어서) 너꺼정(너+꺼정, 까지) 나터렁(나+터렁, 처럼)
ⓒ 버버리(벙어리) 벌거지(벌레)

결국 '어>으'는 非語頭 위치에서 일어난다(58㉠). 이 때의 '으'는 뒤이은 변화(예 으>이)를 경험할 수도 있다(58㉡). 하지만 비어두 위치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모르는 단어들이 아주 많다. 먼저 語末 위치나(58ⓐ),[127] 文法形態素(조사, 어미)의 첫머리(58ⓑ)의 '어'는 비록 비어두라고 하더라

도 이러한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58ⓒ)의 예들은 화자들의 인식속에 존재하는 '어리/아리, 어지/아지'의 대립이 '어'의 고모음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추정해 본다. 그렇다면 ㊕용천어에서 '어>으' 고모음화는 非語頭-非語末 위치의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오>우' 고모음화도 '어>으' 고모음화와 마찬가지로 어두 위치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비어두 위치에서 '오>우'의 변화는 '어>으'와 비교해 매우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語末 위치에서의 변화를 開音節과 閉音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59) ㉠ 고누 모루 베루(硯) 동무 채수(菜蔬) 산수(山所) 앵두
고추 대추 고무(姑母) 장구
ⓐ 포도 이모 수도
㉡ 모두-(集) 배우- 노누-(分) 바꾸- 가꾸- 감추-
㉢ 따루(各) 고루 아주 마주 하두(多) 바루(直) 모두 손수
㉣ -두(-도) -구(-고) -으루(-으로) -우(<-으우<-으오, 명령형 어미)
ⓑ -으오/소(의문형 어미) -어/아요

먼저 개음절인 경우에 '오>우' 고모음화는 매우 활발하다. (59㉠)은 체언의 경우인데 어원에 대한 인식이 강한 한자어에서 예외가 존재할 뿐 (59ⓐ) 많은 단어들에서 이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용언(59㉡), 부사(59㉢)의 경우는 '오>우' 고모음화가 더욱 강력해 거의 예외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용언과 부사에 '오'로 끝나는 한자어가 거의 없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59㉣)은 문법형태소(조사, 어미)의 경우인데 이 때에도 변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59ⓑ)의 어미들은 고모음화를 경험

127) '-으문(-으면)' 정도가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원이 의심스러움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한 어형을 전혀 관찰할 수가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명령형 어미 '-우'와 비교할 때 의문형 어미 '-으오'가 고모음화를 경험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결국 몇몇 비음운론적인 예외들을 제외하면 개음절 어말의 '오>우'는 매우 강력한 변화이었음을 알 수 있다.

(60) ㉠ 말뚝 삼춘 사둔 방울 동굿(鏂) 송궂(錐)
　㉡ 널굽~널곱 아웁~아옵 배꿉~배꼽 시굴~시골 손툽~손톱
　　사궁~사공
　㉢ 골목 농촌 청사초롱
　　ⓐ 보롬(望) 소곰(鹽) 고롬(膿) 쪼꼼(少) 오좀(尿)

폐음절 어말의 경우는 체언에서만 확인이 가능한데 이 때에도 '오'의 고모음화는 꽤 활발하다(60㉠). 하지만 개음절과 비교해 볼 때 그 정도는 약하지 않나 싶다. (60㉡)은 자유변이하는 어형들이며 (60㉢)은 '오>우'의 변화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예들이다. 특히 (60ⓐ)의 예들은 선행음절에 '오'가 고모음화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한다.

(61) ㉠ 까마구{가마괴} 사마구{샤마괴} 사우{사회} 파우{바회}
　　바뀌-{밧괴-} 사귀-{사괴-}
　㉡ 모래{모뢰, 後後日} 부새-{부쇠-/보쇠-, 洗}
　　종애{*조외<죠히, 紙} 동애{*동외<동히, 盆}

이중모음 '외'도 '위'로 고모음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1㉠).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예들이 있다(61㉡). 이때에도 고모음화를 방해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선행음절에 있는 '오'가 아닌가 한다.[128)]

---

128) 비록 '부새-'는 이러한 환경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주로 '가시부새-'와 같은 형태로 쓰이는 점으로 미루어 '부새-'는 '보쇠-'의 반사형

非語頭-非語末 위치에서는 매우 많은 단어들이 고모음화를 경험한다.

(62) ㉠ 까투리 갈쿠지(갈고리) 소구리(소쿠리) 차우지(창호지)
바우래기(바#오래기)
모주리(모조리) 가운대 가우리(가오리) 아무가이(아무개)
㉡ 오소리 도토리 조고리{져고리} 왜오래기{외#오래기}

대부분 개음절인 이 환경에서 가장 활발한 '오>우'변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62㉠). 다만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예들이 존재하는데(62㉡) 이 경우에도 선행음절에 '오'가 존재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 화순어

화순어에서도 '어>으' 고모음화는 비어두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63㉠).

(63) ㉠ 어무니(어머니) 아부지(아버지) 자부댕이-(잡아 당기-) 어지깨
그지깨 삼시롱(살+으면서) 그르먼~글먼(그러면) 어뜨캐
ⓐ 구먹(구멍) 구석 ; 멀어서(멀+어서) 나허고(나+하고) ;
버버리 벌거지

이 때 '으'는 환경에 따라 뒤따르는 음운변화, 즉 원순모음화, '으'전설음화, '으'탈락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비어두 '어'의 고모음화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63ⓐ) 이는 ㉾용천어에서와 유사하다. 먼저 어말의 '어'는 이러한 변화에서 제외된다. 어말과 비어말에 있어서 고모음화 여

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새-'가 '부쇠-'의 반사형이라고 하더라도 '보쇠-'의 반사형으로 '*보새-'를 상정할 수 있다면 이의 간섭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선행음절의 '오'가 모음 '익'의 변화나 '오'의 고모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은 곽충구(1994:258)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부는 동일한 기원의 '-음서'와 '-음시롱'의 비교에서 확인된다. 즉 '-음서'는 어말위치이기 때문에 어'가 실현되나 '-음시롱'의 '어'는 어말위치를 벗어나면서 '어>으'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어 'ㅅ'뒤에서 '으'가 '이'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문법형태소(조사, 어미)의 첫머리의 '어'도 이러한 변화를 모른다. 또한 '아'와의 대립이 분명한 '어리/아리, 어지/아지'의 '어'는 고모음화를 거부한다. 따라서 화순어의 '어>으'의 변화는 [원]용천어와 같이 극히 제한된 환경, 즉 非語頭-非語末 위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원]용천어와 마찬가지로 '오>우' 고모음화가 어두에서 일어난 예는 없다. 이러한 변화는 非語頭 위치에만 한정되는데 [원]용천어에 비해 그리 활발하지는 않다.

(64) ㉠ 앵두(櫻桃) 대추(棗) 부주(扶助)
ⓐ 말뚝 삼춘(三寸) 사둔(査頓)
㉡ 모두-(集) 배우- 나누- 바꾸- 가꾸- 감추-
(65) 까마구(烏) 사마구(黶) 사우(壻) 바우(巖) 배끼-(換)
사구-~새기-(交)

(64)의 예들은 어간말에 '오'가 위치하는 경우이다. 체언어간의 경우 개음절 어간(64㉠)과 폐음절 어간(64ⓐ)에 관계없이 '오>우'의 변화를 보이는 예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들은 그리 많지 않아 여기에 제시한 예들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순수하게 음운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체언과는 달리 개음절 용언어간말에서의 '오>우'는 매우 활발하다. 즉 비어두의 모든 '오'는 '우'로 변화한 것이다(64㉡). 용언어간말에서 '오>우' 고모음화가 이렇게 활발한 이유는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의존 형태소인 용언의 어간말 위치는 비어두-비어말 위치라는 점

이다. 둘째, 모음 어미 '-아/어'와의 결합시 활음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위치라는 점이다. 즉 용언어간말 모음 '오'와 '우'는 이들 어미와 결합하여 활음화하면 모두 'w'로 실현되는데 이 점이 '오'와 '우'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으리라 추정한다. 한편 고모음화가 활발하지 못한 단모음 '오'와 달리 하강 이중모음 '외[ɔi]'가 '위[ui]'로 고모음화하는 것은 매우 활발하다(65). 용언말뿐만 아니라 체언말에서도 '외>위'의 변화가 매우 자연스러운데 그 까닭이 분명하지 않으나 혹시 이중모음 '외[ɔi]'의 '오[ɔ]'도 '이[i]'에 선행하는 비어말 위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66) ㉠ 바구리(바구니) 까투리 깔쿠리(갈고리) 소쿠리 저구리(저고리)
마구자(마고자) 깨구락지(개구리) 가운대(가운데) 아무개
㉡ 오소리 도토리 상소리(상수리) 가오리

비어두-비어말 위치에서는 '오>우' 고모음화가 아주 활발함을 볼 수 있다(66㉠). 다만 이 변화에서 벗어난 예들이 존재하는데(66㉡) 원용천어에서와는 달리 그 음운론적 조건을 분명히 하기가 쉽지 않다.

이 지역어에는 '어>으, 오>우' 고모음화 외에도 전설모음 '에, 외[ö]'의 고모음화도 존재한다. <3.1.1 '에'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언급했듯이 화순어의 '에'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이'로 바뀌면서 非音韻化했다. 또한 '외'는 '외아' 연쇄라는 특별한 환경에서만 '외>위'의 변화가 수의적으로 일어난다(67). 따라서 '에>이, 외[ö]>위[ü]' 고모음화는 '어>으, 오>우'와 그 성격이 꽤 다른 것이 아닌가 한다.

(67) 뒤아지~되아지(豚) 쉬앙치~쇠앙치(犢) 쉬악~쇠악(楔)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에서 '어>으' 고모음화는 비어두-비어말 개음절 위치에 한정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우' 고모음화도 비

어두-비어말 위치와 하강 이중모음 '외[ɔi]'에 한정해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 하강 이중모음 '외'의 '오'도 비어두-비어말 위치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두 지역어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오>우' 고모음화는 非語頭-非語末 위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용천어에서는 '오>우' 고모음화가 그 환경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즉 비어두 개음절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변화가 일어나며 비어두 폐음절인 경우에도 다수 단어들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인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비어두-비어말 위치가 아닌 경우에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예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용천어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두 지역어에서 '어>으'와 '오>우'가 공통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위치가 非語頭-非語末이라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이숭녕(1959)에 따르면 非語頭는 "音節母音의 分節의 不分明 또는 聽覺印象의 不分明이 흔히 수반되는" 위치이다. 따라서 고모음화는 音聲的 不正確性에 따른 弱化 規則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변화가 폐음절일 때보다 개음절일 때 더 활발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Kenstowicz(1994:251)에 따르면 "언어보편적으로 개음절이 약화에 더 민감하기"[129] 때문이다.

고모음화는 모음들이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두 지역어에 나타나는 고모음화가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 두 지역어에서 非語頭-非語末 위치의 고모음화가 일어난다 : '어 ‖ 으, 오 ‖ 우'의 [±고모음]에 의한 대립이 형성되어 있다.

㉯ 그 이외의 고모음화는 꽤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먼저 ㉧용천어에서 '오>우'는 어말 위치까지 환경을 확대하여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 반면

129) Cross-linguistically open syllables are more suceptible to reduction.

'어>으'는 그러지 못한다. 또한 ㉥용천어에서와 달리 화순어에서는 '에'가 '이'로 고모음화하여 합류한다 : 두 지역어에서의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이 상대적으로 [±전설성], [±원순성]에 의한 대립만큼 확고하지 못하다.

3.2.5. 모음연쇄의 변화

송철의(1982)에서는 '音連鎖'와 '音群'의 차이를 音節境界의 介在 有無로 판별한 바 있다. 즉 음절경계가 개재하는 음의 연결은 音連鎖이며 개재하지 않는 음의 연결은 音群인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V: 모음, C: 자음, $: 음절경계). 여기에서 母音連鎖는 흔히 '母音衝突[Hiatus]'이라 일컬어 왔으며 母音群은 주로 '二重母音'이라고 불린다.

모음연쇄	모음군	자음연쇄	자음군
V_1 $ V_2	V_1V_2	C_1 $ C_2	C_1C_2

모음연쇄(모음충돌)는 심리적으로 우리의 감각에 심한 불쾌감을 주고(이숭녕 1954ㄱ) 음절구조의 연속성 추구라는 동기에 위배되기 때문에(강창석 1984),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숭녕(1954ㄱ)에는 그 방향으로 '母音收約(contraction), 母音脫落, 子音介入' 등의 3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허웅(1965:226)에서는 '닿소리나 반홀소리를 넣는 일, 한 성절음을 반홀소리로 하여 두 음절을 한 음절로 만드는 일, 한 성절음을 아주 없애는 일' 등을, 강창석(1984)에서는 '滑音化, 滑音挿入, 母音脫落' 등을 모음연쇄 회피 방식으로 언급한 바 있다.

두 지역어가 보이는 대응은 역사적으로 모음연쇄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68) ㉠ 갈:⇔가실(秋) 말:⇔모실(村)
㉡ 델:로⇔질:로(第一) 낼:⇔낼:(來日)

(68㉠)의 대응을 통해 ㉻용천어에서 모음 사이의 자음이 탈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음의 탈락은 모음연쇄를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68㉡)은 한자어인데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모음연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두 지역어의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도 모음연쇄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69) ㉠ 써(쓰+어) 떠서(뜨+어서) 간(가+은)
ⓐ 널:(닛+을, 繼) 싼:(쌓+은, 積)
㉡ 떼:(띠+어, 烝) 페:(피+어, 發花) 이게(이기+어) 모에(모이+어)
㉢ 쏴:(쏘+아) 놔:(놓+아) 쒀:(쑤+어) 바꿔(바꾸+어)

(69)의 예들은 ㉻용천어형인데 화순어형도 모음연쇄의 회피 방식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는 생략한다. (69㉠)은 '으'가 기타 모음에 선행하거나 후행할 때 '으'탈락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모음연쇄가 회피된다. 여기에서 (69ⓐ)의 예는 모음 사이의 자음이 탈락하여 모음연쇄를 형성하고 뒤이어 '으'가 탈락한 것이다. 또한 '이, 우, 오'에 '어, 아'모음이 후행할 때 선행모음 '이'는 반모음 'y'로(69㉡), '우, 오'는 반모음 'w'로(69㉢) 교체된다.

■ ㉻용천어

이 지역어에서 모음연쇄를 회피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두 모음 중에 어느 한 母音을 脫落시킨다.

(70) ㉠ 갈:{<가을, ᄀᆞᅀᆞᆯ} 맘:{<마음, ᄆᆞᅀᆞᆷ} 댐:{<다음, 다ᄋᆞᆷ}130)

덤:{더음} 김:{<기음, 기ᅀᅳᆷ} 밈:(<미음, 米飮) 님:{니ᅀᅳᆷ}

벰:{<비음, 비ᅀᅳᆷ}131) 냄:새{내ᄋᆞᆷ}

㉡ 시골{<ᄉᆞᄀᆞ올, ᄉᆞᄀᆞᄫᆞᆯ} 돼-{<ᄃᆞ외-, ᄃᆞᄫᅵ-} 기튼날(<그이튼날)

홑{ᄒᆞ옷} 홀애비{ᄒᆞ올아비} 뒤:-{드위-} 굴:-{그울-, 轉}

거:(<그어, 긋+어) 것:두(<*그엇두<그것두)

ⓐ 함자{<ᄒᆞ오ᅀᅡ, ᄒᆞᄫᆞᅀᅡ}

㉢ 게울르-{게으르-} 게울{겨ᅀᅳᆯ} 여울{여흘}

(71) 델:~데일{뎨일} 맬:~매일(每日) 낼:~내일(來日) 낸:(內人) 챌:(遮日)

(70)의 예들은 모음연쇄를 형성하는 한 모음이 '으' 또는 'ᄋᆞ'인데 이 경우 '으, ᄋᆞ'는 탈락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 그 위치는 연쇄를 이루는 모음에 후행하든지(70㉠), 선행하든지(70㉡)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함자'는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형태이다(70ⓐ). 이는 'ᄋᆞ>아'의 변화가 꽤 일렀거나 아니면 '한(一)'의 간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탈락에 대한 보상으로 장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돼-, 홑, 홀애비, 기튼날'과 같은 예외가 존재하기도 한다.132) 한편 이와 동일한 환경에서 '으'가 탈락하지 않고 '우'로 변화하는 예들도 있는데(70㉢) 그 음운론적 환경을 명확히 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예들을 보면 모두 선행모음이 역사적으로 이중모음이었다는 유사점이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이

130) '댐'은 '담'의 변화로 보이는데 처격조사 '-애'와 함께 쓰이는 매우 경향이 강하다. 이 점이 '담>댐'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131) '벰'은 '멩질벰'과 같이 복합어에서만 쓰인다. 또한 '벰'은 '빔'의 변화로 보이는데 심양어에는 '이>에'의 변화처럼 보이는 예들이 소수 존재한다. ㉥ 줸~쥔(主人), 데역(懲役), 넘테(廉恥) 등.

132) 고광모(1991:26)에서는 音長이 韻素가 되기 전, 즉 聲調가 韻素인 시기에 '縮約'이 音韻論的 層位에 도달했기 때문에 중부방언의 '돼-, 홑, 홑애비' 등이 短音으로 실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모음연쇄에서 후행모음이 '이'일 때 이 '이'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71). 이때 선행모음은 전설모음에 한정되며 이 경우에도 보상적 장음화가 수반된다.

(72) ㉠ 녯:(古) 냇:물(川) 매:명(墓) 개:(犬) 새:(鳥) 셋:(三) 넷:(四)[133]
㉡ 쐐:-~쏘이- 배우-~보이-(視) 채우-(차이-, 蹴) 태우-(燒)
ⓐ 쥔:~쥔:~주인 뉘:-~누피-(臥)
㉢ 새:~사이{사ᅀᅵ, 間}

둘째, 모음연쇄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二重母音化가 있다(72). 이숭녕(1947)에서는 이를 '縮約'에 의한 변화로 본 것인데 중간 과정으로 이중모음화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중간 과정으로 이중모음화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72ⓐ)의 예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u$i-'의 'u$i'가 직접적인 축약을 했다면 단모음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나 (원)용천어에서 단모음 /ü/는 인정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원)용천어에서 모음연쇄가 직접 축약의 변화를 보이는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134] 모음연쇄를 회피하는 방법은 정확히 말해 이중모음화인 것이다. '개'를 예로 들면 'ka$i > kai$(이중모음화) > kɛ(축약)'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겠다.

(73) ㉠ 녕:(<녕<*니엉, 이엉) 야:(<이아, 이아이) 여기{이어긔} ;
뒈:~두어(二三) 뒴:~두엄 멋:~뭣:~무엇 괌:(고함)

133) 앞서 보았듯이 '개, 새, 셋, 넷'은 각각 '가이, 사이, 서이, 너이'와 쌍형으로 공존한다. 그런데 화자들은 후자를 古形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자의 사용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4) 이숭녕(1947)에 따르면 중부방언의 '불곳(거웃)'이 축약의 훌륭한 예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원)용천어에서는 자료 부족에 기인한 탓도 있겠지만 이러한 예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 니약허-(이악스럽-) 시야이(<시아이, 시동생) ; 수월허-(*수헐ᄒᆞ-)

셋째, 선행모음이 半母音化하거나(73㉠) 두 모음 사이에 半母音이 添加되는(73㉡) 경우인데 이러한 변화는 선행모음이 '이' 또는 '우, 오'일 때 일어난다. 그리고 반모음화 후에 환경에 따라서 이 반모음은 탈락하기도 한다(㉵ 넝(영), 멋(무엇) 등).

(74) ㉠ 마이{:매, 鷹}

㉡ 쓴나이{나ᅀᅵ} 모이{모ᅀᅵ} 구이{구ᅀᅵ} 강애~가아{ᄀᆞᅀᅢ}

쫑{조ᅀᅵ}[135] 눙애{누베} 또아리{ᄯᅩ아리} 꼬아리{ᄭᅩ아리}

노이{노ᄒᆞ, 繩} 종애{죠ᄒᆡ}

넷째, 子音을 挿入하는 경우인데 이 때 삽입되는 자음은 'ㆁ[ŋ]'이다(74). ㉮용천어에서는 'ㆁ'의 삽입이 꽤 활발한데 이는 西北方言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上聲으로 실현되던 이중모음이나(74㉠) 모음 사이에서 자음(ᅀ, ㅸ, ㆆ)이 탈락하여 형성된 모음연쇄에서(74㉡) 'ㆁ'의 삽입이 활발한 듯하다.

그런데 ㉮용천어에는 母音連鎖가 자연스럽게 維持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우'나 '이'가 후행하는 경우가 많다(75).

(75) ㉠ 가운대(中) 따우(따위) 거우(蛔) 더우(더위) 게우(겨우)

내우(內外) 쌔우(蝦) 디우-(除) 비우(脾胃)

㉡ 가이~개:(犬) 아이(初) 귀이(게) 서이~셋:(三) 어이딸(母女)

데일~델:{데일} 노인(老人) 오이(瓜) 주인~줜:(主人)

---

135) '쫑'은 두 모음 사이에서 'ㆁ'이 삽입되고 '이'가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 화순어

이 지역어에서도 모음연쇄를 회피하는 방식은 ㊊용천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76) ㉠ 맘:(마음) 담:(다음) 덤:(뎜) 냄:시(냄새)
　㉡ 시골{스ᄀᆞ올} 되-{ᄃᆞ외-} 호래비{ᄒᆞ올아비} 혼차{ᄒᆞ오ᅀᅡ}
　㉢ 끼우리-{게으르-} 여울{여흘}
(77) 질:{뎨일} 맬:{ᄆᆡ일} 낼:~니얼~니알{ᄂᆡ일}
(78) ㉠ 새:(鳥) 새:(間) 매:(鷹) 싓:(三) 닛:(四) 묏:(墓)
　㉡ 사이(間) 서이(三) 너이(四)
(79) 여그{이어긔} 멋:(무엇) 괌:(고함) 쉴:허-(수월하-)
(80) 종우{죠희} 갱아지{가야지} 망아지{ᄆᆞ야지}

첫째, 두 모음 중에 어느 한 모음을 탈락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모음연쇄를 형성하던 한 모음이 역사적으로 '으, ᄋᆞ'인 경우인데 이들 모음은 모음연쇄에서 후행모음이든(76㉠), 선행모음이든(76㉡) 상관없이 탈락한다. 그런데 '으'가 탈락하지 않고 '우'로 변화하는 예들도 있다(76㉢). 그리고 선행모음이 전설모음일 때에 한해 후행하는 모음 '이'가 탈락하기도 한다(77). 둘째, 이중모음화에 의해 모음연쇄를 회피한다(78㉠). 이들은 이중모음화를 경험하고 이어서 단모음화하여 모음연쇄를 회피한다. 하지만 여전히 모음연쇄를 형성하고 있는 단어와 쌍형으로 존재하기도 한다(78㉡). 셋째, 선행모음이 반모음화한다(79). 넷째, 자음 'ㆁ'을 삽입한다(80). 그런데 자음 삽입에 의해 모음연쇄를 회피하려는 변화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36]

---

136) '갱아지, 망아지'가 모음연쇄를 회피하려는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기원적인 문제인지도 확실치 않다. 또한 '망아지'의 경우 'ㅁ' 아래에서 'ᄋᆞ'가 '아'로 변화한 것을 보면 이 단어는 방언차용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화순어에도 모음연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용천어와 마찬가지로 주로 '우'나 '이'가 후행하는 경우가 많다(75).

(81) ㉠ 가운대 바우(巖) 서운허- 지우-(除) 내우(內外)
　　㉡ 서이~싯:(三) 너이~닛:(四) 노인 주인 죄인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 모두 모음연쇄를 회피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는데 ㉮ 모음탈락, ㉯ 이중모음화, ㉰ 반모음화(또는 반모음 첨가), ㉱ 자음 'ㆁ'의 첨가 등이 그것이다. 다만 화순어에 비해 [원]용천어에서는 자음 'ㆁ'을 첨가하는 변화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모음연쇄에 있어서 두 지역어의 변화가 유사한 까닭은 모음들의 음소적(또는 음성적) 강도가 비슷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2.6. 두 지역어의 '통합상의 변화' 대조

지금까지 母音의 '統合上의 變化'의 對照를 통해 類似點과 差異點을 알아 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려 한다.

㈎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으>우' 원순모음화가 매우 활발하다	▷ 두 지역어 모두 '으 ‖ 우'가 [±圓脣性]에 의한 대립을 유지한다.
차이점	▶ 'ᄋᆞ>오' 원순모음화가 화순어에서만 활발하다. ▶ '어>오' 원순모음화가 화순어에만 존재한다. ▶ 전설-원순모음의 비원순모음화가 화순어에서 활발하다.	▷ [원]용천어에서는 'ᄋᆞ>오' 圓脣母音化에 앞서 'ᄋᆞ'가 非音韻化한다. ▷ 화순어에서만 '어 ‖ 오'가 [±圓脣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 [원]용천어에서 [±圓脣性]에 의한 대립은 後舌母音에 한정된다.

(나) '으>이' 전설모음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으>이' 전설모음화가 존재한다.	▷ 두 지역어에서 '으 ‖ 이'가 [±前舌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차이점	▶ '이' 모음에 의한 '으>이' 전설모음화가 [원]용천어에만 존재한다. ▶ 'ㅅ, ㅈ'에 의한 전설모음화가 화순어에서는 매우 활발하나 [원]용천어에서는 예가 그리 많지 않다.	▷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은 불가능하다. ▷ [±舌面性]에 의한 대립이 화순어에서는 完成되었으나 [원]용천어에서는 形成中이다.

(다) 움라우트

	대 조	비 고
유사점	▶ 피동화음이 '아, 어'일 때 움라우트가 활발하다.	▷ '아, 어'는 [±前舌性]에 의한 대립이 매우 安定的이다.
차이점	▶ 피동화음이 '오, 우, 으'일 때의 움라우트는 화순어에서만 활발하다.	▷ [원]용천어에서는 '오, 우'가 [±前舌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지 못한다.

(라)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야, 여'는 선행자음의 종류에 따라 축약과 y탈락을 경험한다.	▷ '아, 어'는 [±前舌性]에 의한 대립이 매우 安定的이다.
차이점	▶ '요, 유'가 화순어에서는 '야, 여'와 동일한 변화(축약과 y탈락)를 경험하나 [원]용천어에서는 y탈락만을 경험한다.	▷ [원]용천어에서는 '오, 우'가 [±前舌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지 못한다.

(마) 고모음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어>으, 오>우' 고모음화가 비어두-비어말 위치에서 일어난다.	▷ '어 ‖ 으, 오 ‖ 우'의 [±高母音性]에 의한 대립이 형성된다.
차이점	▶ ㉯용천어에서는 '오>우' 고모음화가 어말 위치에까지 일어난다. ▶ 화순어에서는 '에>이' 고모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 두 지역어의 [±高母音性]에 의한 대립이 [±前舌性], [±圓脣性]에 의한 대립만큼 확고하지 못하다.

(바) 모음연쇄의 변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모음탈락, 이중모음화, 반모음화(또는 반모음첨가), 자음첨가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 모음의 音素的(또는 音聲的) 强度가 동일하다.
차이점	▶ ㉯용천어에서 자음 'ㅇ'의 첨가가 꽤 활발하다.	

모음의 '통합상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첫째, 音素體系, 즉 音素들 사이의 對立關係를 반영하는 變化이다. 다시 말해 이 변화는 음소체계의 변화를 충실하게 드러내 준다. 따라서 음소체계에 차이를 보이는 두 지역어는 이 유형의 변화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우선 두 지역어에서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오 ‖ 외, 우 ‖ 위'의 [±전설성]에 의한 대립의 형성 여부와 '어 ‖ 오'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의 형성 여부에 기인한다. 그리고 움라우트와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에서의 차이는 '오 ‖ 외, 우 ‖ 위'의 [±전설성]에 의한 대립의 형성 여부에 따른다. 그리고 고모음화는 두 지역어에서 체계적인 모습이 덜한데 그 이유는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에서 [±원순성]과 [±전설성]에 의한 대립보다는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으>이' 전설모음화는 모음체계보다 자음체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ㅅ, ㅈ'의 설면음화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으>이' 전설모음화 양상에 있어서 두 지역어의 차이를 유발한 것이다.

둘째, 母音의 個別的 特性에 따른 變化이다. 즉 이는 개별 모음들이 갖는 音聲的 性質(예 공명도)과 그에 따른 音聲·音素的 强度가 영향을 미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각 모음들이 갖는 성질은 국어보편적일 가능성이 높아 국어 전반적으로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모음연쇄의 변화'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 변화에 있어서 두 지역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끝으로 모음의 '통합상의 변화'를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음소체계를 반영하는 변화
- ㉠ 모음체계와 관련된 변화
  - ① [±원순성]에 의한 대립 :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 ② [±전설성]에 의한 대립 : 움라우트,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 ③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 : 고모음화
- ㉡ 자음체계와 관련된 변화
  - ① [±설면성]에 의한 대립 : '으>이' 전설모음화

㉯ 음소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변화 : 모음연쇄의 변화

4. 자음의 변화

이 장에서는 두 지역어의 子音에 대한 通時論的 對照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필자는 제2장에서 두 지역어의 子音體系 및 子音과 관련된 音素排列을 대조한 바 있다. 이제 그 對照 結果와 몇몇 內的 證據를 바탕으로 共通的인 先代形을 설정하고 두 지역어가 이로부터 變化하는 樣相을 對照할 것이다.

현대 두 지역어의 공시음운론적 대조를 통해 드러난 자음체계의 차이점만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ㅅ, ㅈ'이 ㉾용천어에서는 조음위치상 각각 3개의 이음 [s/ʃ/ɕ], [ts/tʃ/tɕ]를 가지나 화순어에서는 각각 2개의 이음 [ʃ/ɕ], [tʃ/tɕ]를 갖는다.
㉡ 'ㄷ, ㄴ'이 ㉾용천어에서는 각각 舌端-齒音 [t̪, n̪]로 실현되나 화순어에서는 각각 舌端-齒頸音 [t, n]으로 실현된다.

이 장에서는 먼저 현대 두 지역어의 자음체계를 형성하게 한 자음의 변화, 즉 자음의 '系列上의 變化'를 대조한다. 그리고 상이한 자음의 分布·頻度를 초래한 음소배열상의 자음의 변화, 즉 자음의 '統合上의 變化'도 뒤이어 살필 것이다. 물론 대상이 되는 변화는 모음과 마찬가지로 두 지역어의 공시론적 대조와 내적 증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변화에 한정한다.

㉮ 계열상의 변화
① 'ㅅ, ㅈ'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② 'ㄷ, ㄴ'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③ 'ㆅ'의 변화
④ 유성마찰음의 변화
㉯ 통합상의 변화
① 설면-경구개 이음과 관련된 변화(설면음화, 'ㄴ'탈락)
② 모음간 자음의 변화('ㅎ'탈락, 'ㅇ'의 변화)
③ 자음연쇄의 변화

4.1. 계열상의 변화

4.1.1. 'ㅅ, ㅈ'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

중세국어의 'ㅈ'이 硬口蓋音 [ʧ]이 아니라 齒頸音 [ʦ]이었을 가능성은 Lee(1964), 허웅(1964)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중부방언에서는 '[ʦ]>[ʧ]'의 변화가 존재했는데 이를 'ㅈ의 口蓋音化'라고 칭해 왔다(이기문 1972).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같은 齒音으로 분류되었던 'ㅅ'은 이러한 구개음화를 거부하여 현대 중부방언에서 치경음으로 유지되고 있어 'ㅈ'과 'ㅅ'은 조음위치상 하나의 自然部類로 묶일 수가 없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필자는 拙稿(2003)에서 調音點만을 기준으로 하여 자음의 조음위치를 분류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調音體의 조음위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정란(1999)에서도 이러한 문제 인식은 드러나 있다. 본고에서는 이희승(1955), 최현배(1955)에서의 자음 분류를 참고로 제시하면서 조음점뿐만 아니라 조음체의 조음위치를 함께 고

려하여 'ㅈ'과 'ㅅ'의 조음위치를 논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 이희승(1955) : 兩脣音, 齒槽音 혹은 舌端音, 硬口蓋音 혹은 舌面音, 軟口蓋音 혹은 舌根音, 聲門音 혹은 喉音

㉯ 최현배(1955) : 입술소리(脣音), 혀끝소리(舌端音), 혓바닥소리(舌面音), 혀뿌리소리(舌根音), 목청소리(聲帶音)

중부방언의 자음이 가지는 조음위치상의 음성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실험이 梅田博之(1983)이 아닌가 한다. 이 실험은 動態口蓋圖(dynamic palato- graphy)[137]에 의한 것인데 중부방언의 특징을 일본어와의 비교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ㅈ, ㅅ'의 실험결과 보고는 다음과 같다.

<ㅈ>

㉮ /ㅈ, ㅊ, ㅉ/의 경우에는, 구개 앞부분의 제1열은 전혀 접촉을 기록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불안정한 접촉을 이룰 뿐이다. 폐쇄를 위한 접촉은 제2·3열에서 이루어진다. … 일본어는 폐쇄가 제1·2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한국어의 파찰음이 舌背音(dorsal)인 반면 일본어는 舌尖音(apical)인 점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다. (161~162면)

㉯ '자'와 '지'는 둘 다 조음위치가 거의 正中 제2·3점이지만 패턴의 추이를 보면 '지'의 경우가 약간 뒤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준다. … 양자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 자음 자체가 口蓋化子音이기 때문이다. (170면)

<ㅅ>

㉮ '사'의 조음위치는 제2열에 있으며 3점폭의 협착이 이루어진다. … 일본어 s의 패턴은 그 협착의 폭이 2개 전극이며 제1·2열 사이에서 규칙적인

137) 이는 얄팍한 인조 구개에 다수의 전극을 장치한 것으로 발성 중 조음 양상을 동적으로 기록해 보여주는 데에 뛰어난 방법이라고 한다.

폭으로 나타난다. 이 차이는 한국어의 마찰음이 舌背音(dorsal)인 반면 일본어는 舌尖音(apical)인 점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다. (162면)

㉯ '시'의 조음위치는 正中 제3점 부근에 있으며 2점폭의 협착이 이루어진다. 조음위치는 '사'에 비해 뒤쪽이다. (169면)

위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보면 중부방언의 'ㅈ'과 'ㅅ'은 조음점을 기준으로 볼 때에 조음위치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ㅅ'의 조음위치가 약간 앞인데 이는 'ㅅ'의 경우 폐쇄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조음체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모두 舌背音(필자의 용어로는 舌面音)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모음이 후행할 때에는 조음위치가 약간 후행하는데 'ㅅ'의 경우에 그것이 보다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음점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과연 'ㅈ'을 과연 경구개음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이는 'ㄷ'과의 비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梅田博之(1983)의 'ㄷ'에 관한 보고를 인용하려 한다.

'ㄷ, ㅌ, ㄸ'의 발음에서는 최대접촉면이 제1열로부터 제2 또는 3열까지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으로 제2열까지로 감소되고 마침내 제1열에서 개방된다.

이 음성실험 결과에 따르면 '아'모음에 선행하는 'ㄷ'과 'ㅈ'은 최대접촉면이 제2·3열('ㄷ'의 경우는 제1열도 포함)로 동일하다. 신지영(1998)의 실험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요약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평음(ㄷ ‖ ㅈ)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조음되지만 격음(ㅌ ‖ ㅊ)과 경음(ㄸ ‖ ㅉ)의 경우는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ㅈ, ㅉ, ㅊ'의 경우에 혀높이가 전반적으로 높다.

이러한 실험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볼 때 국어에서 'ㄷ'을 경구개음이라고 볼 수 없을진대 'ㅈ'을 경구개음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부방언에서 '이' 이외의 모음에 선행하는 /ㅈ/의 음성은 [ʧ](舌面-後齒莖音)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대 두 지역어의 대조를 통해 드러난 'ㅅ, ㅈ'의 차이는 '으'모음 앞에서의 음성 차이로 요약된다.

♠ ㉻용천어에서는 각각 설단-치경음 [s, ʦ]로, 화순어에서는 각각 설면-후치경음 [ʃ, ʧ]로 실현된다. 단 ㉻용천어에서 [s]는 [ʃ]로 자유변이한다.

필자는 ㉻용천어에서 '으' 모음 앞의 'ㅅ, ㅈ'이 설단-치경음 [s, ʦ]로 실현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려 한다. 국어 전반적으로 '이'모음에 의해 자음이 변이한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나 '으'에 의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진행중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ㅅ'이 '으' 모음 앞에서 설단-치경음 [s]와 설면-후치경음 [ʃ]로 자유변이한다거나, 'ㅅ, ㅈ'이 '이' 모음 앞에서 각각 설면-후치경음 [ʃ, ʧ]와 설면-경구개음 [ɕ, ʨ]로 자유변이하는 것이 모두 이러한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ㅅ'의 주된 이음이 설면-후치경음이고 '으' 모음 앞에서 [s~ʃ]로 자유변이한다는 사실은 그 변화 방향이 '舌端-齒頸音 > 舌面-後齒頸音'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 역방향이라면 '으' 모음 앞에서 'ㅅ'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는 것인데 여러 국어 방언들을 비추어 볼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천어에서 'ㅅ, ㅈ'이 설단-치경음으로 실현되는 어느 역사적인 단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고들도 있다. 이기문(1972), 김영배(1977)에 따르면 현대 서북방언의 'ㅅ, ㅈ'이 치경음

[s, ʦ]로 실현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영순(1956ㄴ)에서도 의주 · 피현 지역어의 'ㅈ'이 [ʦ]과 [ʧ] 사이에서 동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보아 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화순어에서 'ㅅ, ㅈ'이 [원]용천어와 같이 설단-치경음이었던 단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 ㉠ 싱겁-{슴겁-} 싫-{슳-} 칠기{츩} 찔개{즐게} 짐승{즘싱}
ㄴ 거츨-~거칠- 어즈럽-~어지럽- 거줏~거짓 기츰~기침
ⓒ 쓰- 쓸- 즞- 쯪- 쯔- 츠- 이슬 아츰 마츰

이들은 <3.2.2.1 '으>이' 전설모음화>에서 살펴본 [원]용천어형인데 선행자음 'ㅅ, ㅈ'에 의해 '으'가 '이'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원]용천어에서는 '으>이' 전설모음화를 경험한 예들도 존재하나(1㉠) 이러한 변화를 전혀 모르거나(1ⓒ) 쌍형으로 존재하는(1ㄴ)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1)에 제시한 모든 예들에 모두 '이'에 대응한다. 이러한 사실은 두 지역어에서 일어난 '으>이' 전설모음화의 정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으'와 '이'의 음소적 대립 관계나 그들의 음성적 특성에 기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두 지역어에서 '으'와 '이'는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음성적 특성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ㅅ, ㅈ'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차이를 현대 두 지역어의 음성 실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으>이' 전설모음화의 정도에 비례해 볼 때 화순어에서의 'ㅅ, ㅈ' 변화가 [원]용천어보다 앞서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부방언도 보조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화순어에서 'ㅅ, ㅈ'이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은 중부방언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

점은 화순어의 'ㅅ, ㅈ'이 중부방언과 동일한 역사적 단계를 거쳤을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만약 중부방언에서 'ㅅ, ㅈ'이 설단-치경음이었던 단계의 설정에 대한 타당성이 보장된다면(Lee 1964, 허웅 1964) 화순어에서도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가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ㅅ, ㅈ'이 [-설면성] 자음, 즉 설단-치경음 [s, ʦ]로 실현되던 공통적인 단계가 두 지역어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ㅅ[s] ㅈ[ʦ]

<공통적인 단계의 舌端音 'ㅅ, ㅈ'>

■ ㉯용천어

현대 ㉯용천어의 'ㅅ, ㅈ'은 '舌端音의 舌面音化'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拙稿(2003)에서 Ross(1877)의 자료와 필자가 조사한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그 변화 과정을 논한 바 있다. 우선 설면음화는 'y' 앞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ㅅ, ㅈ' 뒤에서 'V'와 'yV'의 관계가 음성적으로 모호해지면서 설면음화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138] 이러한 설면음화는 5단계를 거친 것으로 '사 : 샤, 자 : 쟈'의 경우를 예로 들어 그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사/	/샤/	/자/	/쟈/
단계 I	sa	sya	ʦa	ʦya
단계 II	sa	ɕya (~ʃya)	ʦa	ʨya (~ʧya)
단계 III	sa	ɕa (~ʃa)	ʦa	ʨa (~ʧa)
단계 IV	ʃa	ɕa (~ʃa)	ʧa	ʨa (~ʧa)
단계 V	ʃa	ʃa	ʧa	ʧa

138) ㉯용천어에서 'ㅅ, ㅈ'은 유독 '으'모음 앞에서만 고형인 [s, ʦ]로 실현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ㅅ, ㅈ' 뒤에서 /ɯ/와 /yɯ/의 대립이 형성될 수 없었던 점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ㅅ, ㅈ/이 모든 모음 앞에서 설단음 [s]와 [ʦ]로 발음되는 단계를 가정할 수 있다(단계Ⅰ). 그러다가 /y/ 앞에서 설면음 [ɕ](또는 [ʃ])와 [ʨ](또는 [ʧ])로 변화하여 이음으로 존재하는 단계가 있었을 것이다(단계Ⅱ). 바로 이 단계가 설면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음 단계가 없었다면 설면음화는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때 설면음 뒤의 'y'가 음성적으로 탈락되면서 두 이음 사이의 관계가 모호해진다(단계Ⅲ). 그리하여 'y'앞의 이음에 이끌려 단모음 앞의 설단음 [s]와 [ʦ]가 각각 설면음 [ʃ]와 [ʧ]로 바뀐 것이다(단계Ⅳ). 이때 음성적으로 [y]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ɕ, ʨ]에 후행하는 모음은 음소적으로 이중모음 /yV/이다. 그런데 'ㅅ, ㅈ'에 후행하는 'y'가 음소적으로 탈락하게 된다. 그로 인해 'y'에 선행하는 [ɕ, ʨ]은 [ʃ, ʧ]로 실현된다(단계Ⅴ). /yV/ 앞에서 이음으로 존재했던 음성 [ɕ, ʨ]는 /y/가 탈락해서 이음 환경이 사라짐으로 인해 /V/ 앞의 음성 [ʃ, ʧ]로 바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섯 단계를 거쳐서 현대 ㉲용천어에서는 '사, 샤'와 '자, 쟈'가 각각 [ʃa]와 [ʧa]로 실현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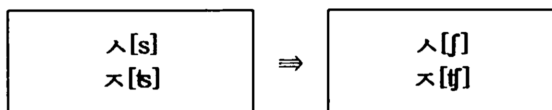
㉮ 단계Ⅰ : /ㅅ, ㅈ/이 모든 모음 앞에서 설단음 [s]와 [ʦ]로 실현된다.
㉯ 단계Ⅱ : /y/ 앞에서 설면음 [ɕ(~ʃ)]와 [ʨ(~ʧ)]로 실현된다.
㉰ 단계Ⅲ : 설면음 뒤의 [y]가 음성적으로 탈락한다.
㉱ 단계Ⅳ : 단모음 앞의 설단음 [s]와 [ʦ]가 각각 [ʃ]와 [ʧ]로 설면음화한다.
㉲ 단계Ⅴ : 이중모음의 /y/가 음소적으로 탈락한다.

■ 화순어

화순어에서도 ㉲용천어와 마찬가지로 '설단음의 설면음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 단계는 ㉲용천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런데 화순어에서 'ㅅ, ㅈ'의 설면음화는 ㉲용

천어와 비교해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이음 실현이 매우 단순화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화순어에서 'ㅅ, ㅈ'은 '이' 이외의 모음 앞에서 각각 설면-후치경음 [ʃ, ʧ]로 실현된다. 그리고 'i, y' 앞에서는 각각 설면-경구개음 [ɕ, ʨ]로 실현된다.

결론적으로 설단-치경음 [s, ʦ]이었던 'ㅅ, ㅈ'이 두 지역어 모두에서 각각 설면음 [ʃ/ɕ, ʧ/ʨ]로 변화한다. 이로써 두 지역어에서 'ㅅ, ㅈ'은 'ㄷ'과 [±설면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는 再音韻化가 일어난 것이다.[139] 다만 [원]용천어에서는 '으' 모음 앞에서 'ㅅ, ㅈ'이 설단-치경음 [s, ʦ]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이 변화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화순어는 꽤 이른 시기에 이 변화가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변화가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라고 할 수 있다.



<[원]용천어(진행중) · 화순어(완성)>

4.1.2. 'ㄷ, ㄴ'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

현대 두 지역어의 대조를 통해 드러난 'ㄷ, ㄴ'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원]용천어에서는 각각 舌端-齒音 [t, n]로 실현되나 화순어에서는 각각 舌

---

139) 이러한 재음운화가 가능했던 것은 경구개 위치가 체계의 빈칸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파찰음은 경구개 위치에서 조음되는 것이 가장 무표적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곽충구 1980, 송민 1986, 곽충구 2001).

端-齒頸音 [t, n]로 실현된다.

우리는 이러한 대조 결과를 통해, 적어도 두 지역어 중의 한 지역어에서는 'ㄷ, ㄴ'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가능성은 2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화순어와 동일한 음성이 ㉰용천어에서 변화했을 가능성, ㉯ ㉰용천어와 동일한 음성이 화순어에서 변화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두 지역어 모두가 둘 중의 어느 하나를 강력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ㄹ'의 음성 실현은 ㉮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현대 두 지역어에서 'ㄹ'의 음성 실현은 완전히 동일하여 3가지의 이음을 갖는다.

(2) ㉠ [t'al](딸) [p'ul](뿔) ; [talla](달라) [p'alla](빨라)
㉡ [p'alʎi](빨리) [məlʎi](멀리)
㉢ [tari](다리) [nara](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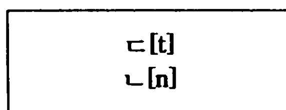
(2)는 화순어형인데 ㉰용천어형도 다른 음소의 음성에 차이가 날 뿐 'ㄹ'의 음성 실현은 화순어와 다르지 않다. 즉 음절말 또는 'ㄹ'과 모음('이' 제외) 사이에서는 舌端-舌側音 [l]로(2㉠), 'ㄹ'과 '이' 사이에서는 舌面-舌側音 [ʎ]로(2㉡), 두 모음 사이에는 舌端-彈舌音 [r]로(2㉢) 실현되는 것이다.

현대 화순어에서는 'ㄹ'과 'ㄴ'의 조음위치가 동일하다. 하지만 ㉰용천어에서는 'ㄴ'이 설단-치음으로 실현되어 조음위치가 다르다. 두 지역어 모두 'ㄴ>ㄹ'의 유음화가 존재하는데 ㉰용천어에서 두 자음의 조음위치가 다르다는 것은 체계의 측면에서 불안한 소지를 안고 있다. 결국 ㉰용천어에서 치음이던 'ㄹ'이 치경음으로 바뀌었거나 치경음이던 'ㄴ'이 치

음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음성학적으로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음성학적으로 유음이 치음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천어의 'ㄴ'은 화순어와 동일하게 역사적으로 설단-치경음인 단계를 가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부방언도 보조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화순어에서 'ㄷ, ㄴ'이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은 동일하다. 이 점은 화순어의 'ㄷ, ㄴ'이 중부방언과 동일한 역사적 단계를 거쳤을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訓民正音』(解例)에 따르면 중세국어의 舌音 'ㄴ'은 "윗잇몸에 혀가 닿아서"(舌音ㄴ。象舌附上月咢之形) 나는 소리이다. 다시 말해 중세국어에서 설음 'ㄷ'과 'ㄴ'은 음성적으로 설단-치경음 [t]와 [n]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140] 이러한 단계는 화순어에서도 가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두 지역어에서 'ㄷ, ㄴ'은 모두 설단-치경음으로 [t, n]로 실현되는 공통적인 단계가 있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공통적인 단계의 'ㄷ, ㄴ'>

■ ㉯용천어

㉯용천어의 舌端-齒頸音 'ㄷ[t], ㄴ[n]'은 조음위치가 앞쪽으로 이동하여 舌端-齒音 'ㄷ[t̪], ㄴ[n̪]'으로 바뀐다. 더구나 'ㄷ'과 'ㄴ'은 음성 실현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동일한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변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 변화의 결과 'i, y' 앞에서도 舌面-硬口蓋 異音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i, y' 앞에서 'ㄷ'이 'ㅈ'으로 변하거나 어두 'ㄴ'이 탈락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결국 'ㄷ,

---

140) 물론 중부방언에서도 15세기 이전에 'ㄷ, ㄴ'이 현대 ㉯용천어와 같이 설단-치음으로 실현되는 단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근거는 없다.

ㄴ'은 'ㄹ'과 그 음성 실현에서 차이가 생겨 체계적인 면에서 볼 때 약간 어그러진 모습을 보인다.

■ 화순어

화순어에서는 공통적 단계의 'ㄷ, ㄴ'이 그대로 유지되어 각각 舌端-齒頸音 [t]와 [n]로 실현된다. 그런데 이들의 정확한 音聲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화순어는 그 음성적 실현이 중부방언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부방언에 대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梅田博之(1983:161)에서는 한국어(중부방언)와 일본어의 음성적 실험을 통해 같은 설단-치경음이라고 하더라도 2개의 음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調音位置면에서 볼 때 일본어의 t, d, n音에서는 혀끝이 口蓋 앞부분에서 제2列까지 접촉을 이룬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ㄷ, ㅌ, ㄴ/음의 調音에서 제3列까지 접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閉鎖의 시초에는 제1列의 2, 3개 전극이 접촉을 이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우리는 일본어의 t, d, n音의 조음위치는 잇몸의 앞부분인 반면 한국어의 조음위치는 그보다 조금 더 뒤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일본어의 'ㄷ, ㄴ'은 잇몸의 앞쪽에서 조음되는 반면 한국어(중부방언)에서는 잇몸의 뒤쪽에서 조음된다. 화순어도 이와 동일하게 잇몸의 뒤쪽에서 조음되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조음을 할 때 잇몸의 앞에서 뒤까지 넓은 부분에서 폐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ㄷ, ㄴ'의 음성 실현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들 자음이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 이음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현대 화순어에서 'ㄴ'은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음 [ɲ]로 실현된다. 이는 'ㄹ'의 설측음 [l]이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음 [ʎ]로 실현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ㄴ'과 'ㄹ'이 동일한 변화를 거쳐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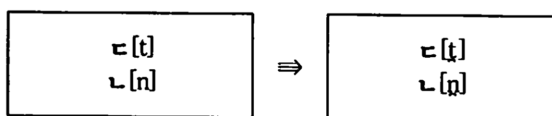
고 또한 현대 화순어의 자음체계에서도 긴밀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ㄷ'과 'ㄴ'은 체계적인 면에서 약간 어그러진 모습을 보인다. 즉 'ㄴ'은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음으로 실현되나 'ㄷ'은 'i, y' 앞에서도 설면-경구개음을 갖지 못하고 설단-치경음으로 실현된다. 이것은 'ㄷ'과 'ㄴ'의 상이한 통시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운변화의 점진성을 생각한다면 'ㄷ, ㄴ' 모두 'i, y' 앞에서 舌面音으로 실현되는 역사적 단계를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뒤이어 'ㄷ'은 어두이든 비어두이든 관계없이 'i, y' 앞에서 'ㅈ'으로 바뀌는 音素的인 變化(예짜름-{뎌르-}, -지{디} 등)를 경험했다. 한편 동일한 환경에서 어두의 'ㄴ'은 탈락했으나(예이마{니마} 등) 비어두의 'ㄴ'은 音聲的인 變化만을 경험할 뿐 음소적인 탈락을 경험하지는 못하고(예가마니[kamaɲi] 등) 현대에까지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해 설면음으로 실현되는 'ㄷ'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나 'ㄴ'은 비어두에서 설면음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된다. 'ㄷ'과 'ㄴ'의 이러한 차이는 새로 형성된 'ㄷ, ㄴ'과 '이'의 연결에도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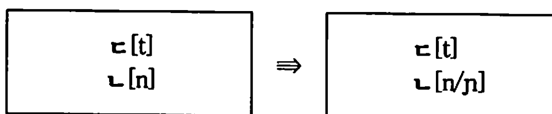
(3) ㉠ 디-{데우-, 溫} 티끄락{틔, 塵} 띠{떼, 群}
ⓐ 모디{ᄆᆞ디, 節} 보디{ᄇᆞ디, 筬} -는듸{ᄂᆞᆫ디}
㉡ 니{네, 爾} 닝기-{넘기-, 越}
ⓑ 꼬니{고노}

(3)은 순정이 아닌 '이'가 'ㄷ, ㄴ'에 후행한 예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음성에 'ㄷ, ㄴ'의 통시적 변화가 그대로 반영된다. 'ㄷ'은 어두이든(3㉠), 비어두이든(3ⓐ) 관계없이 항상 설단-치경음 [t]로만 실현된다. 반면에 'ㄴ'은 어두에서는 설단-치경음 [n]로(3㉡), 비어두에서는 설면-경구개음 [ɲ]로(3ⓑ) 실현된다. 결국 이는 'ㄷ'과 'ㄴ'의 상이한 통시적 변화가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41]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에서 'ㄷ, ㄴ'이 再音韻化하는 양상은 다르다. (원)용천어에서는 'ㄷ, ㄴ'이 각각 설단-치음 [t̪], [n̪]로 변화하여 'ㄹ'과의 체계적인 불균형을 초래한다. 반면에 화순어에서는 설단-치경음 [t], [n]가 그대로 유지되나 'ㄷ'과 'ㄴ'은 상이한 통시적 변화의 결과 체계적으로 어그러진 모습을 보인다. 결국 두 지역어 모두 'ㄷ, ㄴ'의 재음운화가 체계의 불균형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원)용천어>



<화순어>

4.1.3. 'ㆅ'의 변화

이기문(1972:50)에서는 중세국어의 'ㆅ'을 'ㅎ'의 된소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허웅(1965:369)에서도 이는 'ㅎ'의 된소리이며 정확한 음성은 [ç']라고 한 바 있다. 『訓民正音』(解例)에 따르면 'ㆅ'은 '凝

141) 물론 이것이 'ㄷ'과 'ㄴ'의 음성적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북방언의 'ㄷ, ㄴ'은 화순어와 동일한 변화(설면음화, 'ㄴ'탈락)를 경험했으며 새로 'ㄷ, ㄴ'과 '이'의 연결이 형성되는 것도 동일하다. 그런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에 따르면 'ㄷ'은 화순어와 동일한 음성, 즉 설단-치경음 [t]이지만 'ㄴ'은 어두에서도 설면-경구개음 [ɲ](표기상으로는 'nyi')로 실현된다((예)nyi:(四, 159면), nyi:(爾, 310면), ponyi(皮, 206면), munyi(紋, 349면) 등). 자료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예들이 언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면 이것은 음성학적으로 'ㄴ'이 'ㄷ'보다 설면음으로 실현되기가 쉽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된소리(경음)로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음성학적으로 'ㅎ'의 된소리([h'])가 가능한지 미지수이다. 國際音聲記號(IPA)에서도 聲門-硬音(glottal-ejective stop)을 표기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또한 중부방언에서 'ㆅ'이 'ㅋ'으로 변화하기도 하는 점은 'ㆅ'이 硬音이기보다는 激音(h^h)일 가능성을 말해준다. 하지만 'ㆅ'의 문제는 자음체계상 'ㅆ'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대 두 지역어 모두 자음 '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두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 'ㆅ'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예들이 있다.

(4) 쎄- ~ 헤-⇔쓰-(點火)

여기에서 우리는 ㉯용천어에 존재하는 쌍형 '쎄-'와 '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ㅆ'과 'ㅎ'의 자유변이를 보여주는데 어느 한 자음이 다른 자음의 변화형이라고 보기에는 음성적인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ㅆ'으로도, 또한 'ㅎ'으로도 변화가 가능한 제3의 음소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두 자음의 자질을 공유하는 자음, 즉 '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용천어와의 대조에 의해서 화순어에서도 'ㆅ'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142) 이에 대한 보조적인 증거로 중세국어에 'ㆅㅕ-'가 나타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다.143)

142) 혹자는 ㉯용천어의 '쎄-'와 화순어의 '쓰-'가 모음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 두 지역어에서 'ㆅㅕ-'의 변화형 '*써-'를 인정한다면 두 지역어의 모음 대응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는 중세국어의 '셔-'(立)가 ㉯용천어에서는 '세-'로, 화순어에서는 '스-'로 실현되는 것과 완전히 동궤의 변화인 것이다. 한편 정승철(1995)의 논의에 따르면 'ㆅㅕ-'의 'yə'는 'yʌ'에 遡及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152)에 의하면 '點火'의 제주방언형이 '싸-'이다.

143) 중세국어에서 'ㆅ'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여'에만 선행한다. 그런데 하나의 음소가 이와 같이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출현한다는 점도 꽤

ㅅ	ㅎ
ㅆ	ㆅ

<공통적인 단계의 마찰음 체계>

■ 원용천어

(5) ㉠ 쎄-～헤-(켜-, 點火, 斷)

㉡ 니리키-{니ᄅᆞᅘᅧ-, 起}　밀키-～몰키-{*밀ᅘᅧ-, *몰ᅘᅧ-, 驅}

개키-{*개ᅘᅧ-, 疊}　추키-{추ᅘᅧ-, 上}

어두에서 'ㆅ'의 반사형이 나타나는 예는 (5㉠)에 제시한 예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144] 여기서 보면 'ㆅ'은 'ㅆ' 또는 'ㅎ'으로 변화한다. 'ㆅ>ㅆ'은 설면음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ㆅ>ㅎ'은 평음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어두에서도 'ㆅ'의 반사형을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ᅘᅧ-'가 결합된 복합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5㉡). 그런데 비어두에서는 어두에서와 달리 'ㆅ'이 'ㅋ'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 흥미를 끄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허웅(1965:369)에서는 'ㆅ'의 공깃길을 한층 더 좁히게 되면 'ㅋ'으로 바뀐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ㆅ>ㅋ'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ㆅ'과 'ㅋ'이 자연부류를 형성하는 시기가 존재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드문 일일 것이다. 따라서 기원적으로는 더 넓은 환경에서 'ㆀ'이 실현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헌어 {바회(輪), 우흠(握)}의 'ㅎ'이 'ㅋ'으로 실현되는 것이 국어 전반적인 현상인데 이 'ㅎ'은 'ㆀ'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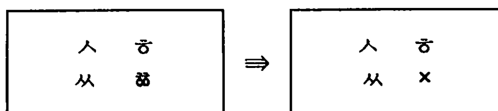
144) 표준어의 '물을 ①켜다, ②기지개 켜다, ③썰물'에 해당하는 'ᅘᅧ-'의 반사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①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②는 '하다'를 사용하며 ③'바닷물이 빠지다'라는 의미의 단어로는 '찌-'를 사용한다.

■ 화순어

(6) ㉠ 쓰-(불을 켜-) 쓰-(기지개를 켜-) 씨-(물이 켜이-)
㉡ 돌씨-(돌리-, 回) 밀씨-(밀-, 推)

(6㉠)에서 보듯이 어두의 'ᅘᅧ-'는 모두 '쓰-'로 실현된다. 즉 'ㆅ>ㅆ'의 변화는 설면음화(ᅘᅧ->쎠-)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ᅘᅧ-'의 직접적인 변화형 '*쎠-'의 'ㅕ'는 [+전설성] 자음인 'ㅆ' 뒤에서 y가 탈락하여 '써-'가 된 다음 어간의 再分析에 의해 '쓰-'가 형성된 것이다. 비어두에서 'ㆅ'의 존재는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만약 화순어의 강세접미사 '-씨-'가 'ᅘᅧ-'의 반사형이라면(6㉡) 비어두 위치에서도 'ㆅ'은 'ㅆ'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비록 세부적인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지역어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ㆅ'이 非音韻化하여 자음체계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리하여 두 지역어의 摩擦音體系는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ㅅ ‖ ㅎ'의 대립이 [±喉頭性]에 의한 相關의 지위를 잃게 된다.



<㉯용천어 · 화순어>

4.1.4. 유성마찰음의 변화

㉯용천어와 화순어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보이는 예들이 있다.

(7) 갈:⇔가실(秋) 몰:⇔모실(村) 아우⇔아시(弟)

우리는 (7)의 예를 통해 [원]용천어와 화순어가 'Ø⇔ㅅ'으로 대응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지역어의 대응은 세 가지 가능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 화순어에서 모음 사이에 'ㅅ'이 삽입되었을 가능성, ㉯ [원]용천어에서 모음 사이의 'ㅅ'이 탈락했을 가능성, ㉰ 제3의 음소가 [원]용천어에서는 탈락하고 화순어에서는 'ㅅ'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와 ㉯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원]용천어와 화순어가 모음 사이에서 'ㅅ⇔ㅅ'의 대응을 보이는 예들이 허다하기(예 다시⇔다시(再), -으시-⇔-으시-(語尾) 등)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3의 음소로는 모음(유성음)과 'ㅅ'의 자질을 공유한 음소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대응(예 새우⇔새비, 날괘⇔이래 등) 의해 모음과 'ㅂ', 모음과 'ㄱ'의 자질을 공유한 음소들을 설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부방언145)을 참고할 때 이 음소들을 각각 有聲摩擦音 'ㅿ[z], ㅸ[β], ㆁ[ɣ]'일 가능성이 높다.

두 지역어에서 유성마찰음(β, z, ɣ)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흔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8) ㉠ 덥구, 더워서(덥-, 暑)
　　ⓐ 덥구, 더버서(덥-, 疊)
　㉡ 닛구, 네(닛-, 繼)
　　ⓑ 빗구, 비서서(빗-, 梳)
(9) ㉠ 떱고, 떠와서(덥-, 暑)
　　ⓐ 접고, 저버서(접-, 疊)

145)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유성마찰음은 'ㅂ, ㅅ' 등의 변화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하며(이숭녕 1954) 기원적이라고 보기도 한다(이기문 1972). 또한 박창원(1985)에서는 유성폐쇄음이 변화된 것이라는 견해를 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성마찰음의 생성을 밝히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8)은 [원]용천어의 활용형이고 (9)는 화순어의 활용형이다. [원]용천어의 용언어간말 'ㅂ'은 두 가지 활용양상을 보인다. 자음어미와 모음어미에 관계없이 'ㅂ'이 실현되는 활용형이 있는가 하면(8ⓐ, 9ⓐ)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ㅂ'의 음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활용형이 있다(8㉠, 9㉠). 그리고 'ㅅ'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 'ㅅ'의 음가가 드러나는 활용형이 있는가 하면(8ⓑ) 그렇지 못하는 활용형이 있다(8㉡). 146) 현대 두 지역어에 존재하는 이러한 활용형들은 두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 'ㅂ, ㅅ'과는 성격이 다른 자음이 존재했으며 이 자음은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 자음의 성질을 상실하는 변화를 경험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두 지역어에 유성마찰음 'ㅸ, ㅿ, ㅇ'이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ㅂ	ㅅ	ㄱ
ㅸ	ㅿ	ㅇ

<有聲摩擦音과 관련된 공통적인 체계>

■ [원]용천어

이병근 · 정인호(2003)은 가능한 한 환경을 세분화하여 [원]용천어에서 유성마찰음이 변화한 양상을 보이려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음운론적 환경뿐만 아니라 비음운론적 환경에 따른 유성마찰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논의는 이병근 · 정인호(2003)에 넘기고 본고에서는 음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래서 비음운론적 환경은 되도록 배제

146) 우리는 (8㉠㉡)의 활용을 흔히 'ㅂ-불규칙 활용, ㅅ-불규칙 활용' 등으로 불러 왔다. 이 중 ㅂ-불규칙 활용은 두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지만 ㅅ-불규칙 활용은 [원]용천어에만 존재한다. 단 화순어에서 하나의 예외로 '져:(짓+어, 作)'가 사용되는데 이는 '지서'와 쌍형으로 존재한다.

하기 위해 형태소 내부에서의 변화 양상만을 보려 한다.[147)]

[원]용천어에서 兩脣 有聲摩擦音 'ᄫ'[β]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10) ㉠ 가운대{가ᄫᆞᆫᄃᆡ} 쌔우{사ᄫᅵ} 함자{ᄒᆞᄫᅀᅡ} 돼-{ᄃᆞᄫᅵ-}
　　㉡ 갈배(갈비) 버버리{버워리} 데불구(데리고)[148)] 우벙(우웡)[149)]

이 지역어에서 'ᄫ'은 대부분 탈락하거나 '우'(또는 w)로 변화한다(10㉠). 이병근 · 정인호(2003)에서는 조사한 단어의 87%가 이러한 변화를 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조사항목에 따라 통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변화의 경향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경우 'ᄫ'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김완진(1972)에서는 'ᄫ'이 'w'로 변화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김경아(1996)에서는 'ᄫ'이 'ɦw'로 변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주필(2001)에서는 'ᄫ'이 가지고 있던 [유성성] · [순음성] · [지속성] 가운데에 [순음성]이 剩餘資質이 됨으로써 [유성성] · [지속성]을 가진 [ɦ]으로 약화된다고 하였다. 현재 필자는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ᄫ'이 有聲音 사이에서 [+子音性]을 喪失했다는 점만을 지적하려 한다.[150)] (10㉡)은 국어의 방언들을 고려할 때 'ᄫ'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인데 [원]용천어에서 이 자음이 'ㅂ'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예는 극히 소수이다. 따라서 이들 단어에서는 'ᄫ'이 선대형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151)] 또한 변화 과정에

147) 또한 형태소 내부라고 하더라도 체언 · 용언 어간말 위치는 어간 재구조화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148) 이와 더불어 '데리구, 뎁꾸'도 함께 쓰인다.

149) 이는 시장에서 배운 말이라고 한다. 그로 보아 [원]용천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150) [+자음성]을 상실한다는 말은 [-자음성]을 가진 音素(母音, 半母音)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151) [원]용천어에서 '자:땡다(잡아 당기-)'라는 어형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는 '잡-'의

서 비음운론적 제약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원)용천어에서 'ㅸ'은 [+자음성]을 상실하는 것이 주된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軟口蓋 有聲摩擦音 'ㅇ'[ɣ]을 선대형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중세 문헌어에 'ㅇ'으로 표기되어 있고 국어방언형에 'ㄱ'이 나타나는 어형들을 위주로 하여 이 지역어에서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물론 형태소 내부 환경에만 한정한다.

(11) ㉠ 게으르다{게으르-} 냄새{내옴새} 댐{다옴, 後} 따우(따위)
　㉡ 멀구{멀위} 벌기~벌거지{벌에} 널괘{널웨} 몰개{몰애}
　물구지{물읏} 달개-{달애-} 얼개빗{얼에빗} 돌가지{돌앗}
　ⓐ 꾸래미{굴에}

(11㉠)은 두 모음 사이의 경우인데 대부분 'ㅇ'이 탈락한다. 하지만 자음 연쇄, 즉 'ㄹ' 뒤에서는 대부분 'ㄱ'으로 변화한다(11㉡). '꾸래미' 정도가 'ㅇ'이 탈락하는 예일 것이다(11ⓐ). 따라서 (원)용천어에서 'ㅇ'은 모음 사이인가, 아니면 자음 'ㄹ' 뒤인가에 따라 다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 갈{ᄀᆞᅀᆞᆯ} 구이{구ᅀᅵ} 모이{모ᅀᅵ} 게울{겨ᅀᅳᆯ} 아우{아ᅀᆞ}
　㉡ 꺼스레미{그ᅀᅳ름} 무숩-{므ᅀᅴ엽-} 오소리{오ᅀᆞ리} 쪼숨{주ᅀᅮᆷ, 쯤}
　㉢ 삼질랄(*삼ᅀᅵᆯ날)

齒頸 有聲摩擦音 'ㅿ'[z]은 3방향의 변화를 한다. 먼저 'ㅿ'은 탈락한다

'ㅂ'이 'ㅸ'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낮은데도 탈락하는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병근(1969)에 따르면 국어 방언들에서 /ㅂ/이 [β]로 실현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β]가 탈락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12㉠). 이병근 · 정인호(2003)에서는 조사한 단어의 72%가 이러한 변화를 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음으로 'ㅿ'이 'ㅅ'으로 변화하는 예들도 소수 존재한다(12㉡). 그리고 'ㅿ>ㅈ'의 변화를 보이는 예도 존재하는데(12㉢)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질랄' 한 예뿐이다. 후술할 화순어 뿐만 아니라 중부방언에서도 이 단어는 'ㅿ>ㅈ'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한자어라는 비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ㅁ'이 선행하는 환경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용천어에서 유성마찰음은, 'ㅸ'과 'ㅿ'의 경우에는 [+子音性]을 喪失하는 것이 일반적인 변화 방향이다. 하지만 'ㅇ'의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 변화가 달라 두 모음 사이에서는 탈락하고 'ㄹ' 뒤에서는 'ㄱ'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화순어

(13) ㉠ 가운대{가ᄫᆞᆫᄃᆡ}　혼차{ᄒᆞᄫᆞᅀᅡ}　되-{ᄃᆞᄫᅵ-}
　㉡ 갈비(갈비)　버버리{버워리}　새비{사ᄫᅵ}
　㉢ 궁굴-{그울-, 轉}　또가리{ᄯᅩ아리}　뚜겅{두에}

화순어에서 'ㅸ'은 3가지 방향의 변화를 경험한다. 형태소 내부에서 'ㅸ'은 [+자음성]을 상실하는 변화가 일반적이다(13㉠). 이병근 · 정인호(2003)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86% 정도에 달한다고 한 바 있다. 다만 'ㅸ'이 'ㅂ'으로 변화하거나(13㉡) 'ㄱ'으로 변화한 예들이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한다(13㉢). '갈비, 버버리'에서 'ㅸ'이 'ㅂ'으로 변화하는 것은 ㉺용천어와 동일하다. 그리고 'ㅸ'이 'ㄱ'으로 변화하는 것은 'ㅂ-ㄱ' 交替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ㅸ'이 선대형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4) ㉠ 끼우리-(懶怠) 냄시(嗅) 담(다음) 따우~따구(따위)
㉡ 멀구{멀위} 벌거지{벌에} 달개-{달애-} 물긋{물읏}
얼기빗{얼에빗}
ⓐ 굴래{굴에} 이래{닐웨}

화순어에서 'ㅇ'이 변화하는 방향은 ㉮용천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모음 사이의 'ㅇ'는 대부분 탈락한다(14㉠). 단 쌍형으로 존재하는 '따구~따우'에서 'ㄱ'으로 변화한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152) 그리고 'ㄹ' 뒤에서 'ㅇ'이 대부분 'ㄱ'으로 변화하며(14㉡)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굴래, 이래' 정도가 탈락을 경험한다(14ⓐ).

(15) ㉠ 가실{ᄀᆞᅀᆞᆯ} 구시{구ᅀᅵ} 모시{모ᅀᅵ} 아시{아ᅀᆞ} 여시{여ᅀᆞ}
㉡ 사이~새{사ᅀᅵ} 맘{ᄆᆞᅀᆞᆷ} 금{그ᅀᅳᆷ} 요즘{요ᄌᆞᅀᆞᆷ} 첨{처ᅀᅥᆷ}
마운{마ᅀᆞᆫ}
㉢ 삼진날 푸징가리{프ᅀᅥᆼ귀} 거진{거ᅀᅴ}
㉣ 혼차{ᄒᆞᄫᆞᅀᅡ}

'ㅿ'은 4가지 방향의 변화를 경험한다. (15㉠)은 'ㅿ'이 'ㅅ'으로 변화한 예들의 일부만 제시한 것이다. 이병근·정인호(2003)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80% 정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15㉡)은 'ㅿ'이 탈락한 예들인데 여기에 제시한 예들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15㉢)은 'ㅿ'이 'ㅈ'으로 변화한 전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ㅿ'이 'ㅊ'

152) 전남방언의 '따우~따구'는 모음 사이에서 'ㄱ'의 실현형과 탈락형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머휘}, {바회, 巖} 등과 동일한 부류로 묶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들은 전남방언에서 각각 '머우~머구', '바우~바구' 등의 반사형을 갖는다(이기갑 외(1998)을 참조). 그렇다면 '따구'의 'ㄱ'은 선대형으로 'ㅎ'을 재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ㅎ'이 연구개 유성마찰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으로 변화하는 예도 존재한다(15ⓔ).

화순어에서 'ㅸ'은 [+자음성]을 상실하는 것이, 'ㅿ'은 'ㅅ'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ㅇ'은 두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고 'ㄹ' 뒤에서 'ㄱ'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컨대 'ㅸ'은 두 지역어에서 모두 '[+子音性]>[-子音性]'의 변화가 큰 경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ㅇ'이 두 가지 방향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도 두 지역어가 공통적이다. 즉 두 모음 사이에서는 대체로 'ㅇ'이 탈락하고 'ㄹ' 뒤에서는 'ㅇ'은 'ㄱ'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ㅿ'의 변화는 두 지역어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용천어에서는 'ㅿ'이 탈락하는 것이, 화순어에서는 'ㅿ'이 'ㅅ'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성마찰음	㉿용천어	화순어
ㅸ[β]	Ø	
ㅇ[γ]	① Ø(두 모음 사이) ② ㄱ('ㄹ' 뒤)	
ㅿ[z]	Ø	ㅅ

有聲摩擦音 'ㅿ[z], ㅸ[β], ㅇ[ɣ]'은 비록 세부적인 변화 양상과 그 변화 시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두 지역어 모두에서 非音韻化하여 자음체계에서 'ㅂ ‖ ㅸ, ㅅ ‖ ㅿ, ㄱ ‖ ㅇ'의 대립을 상실하게 된다.

ㅂ	ㅅ	ㄱ	⇒	ㅂ	ㅅ	ㄱ
ㅸ	ㅿ	ㅇ		×	×	×

<㉿용천어 · 화순어>

4.1.5. 두 지역어의 '계열상의 변화' 대조

위에서 필자는 두 지역어의 공시론적 대조와 내적 증거를 통해 두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 존재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자음체계를 단계별로 구성하고 몇 가지 변화 양상을 통시론적으로 대조하였다.

① 유성마찰음의 변화
② 'ㆅ'의 변화
③ 'ㄷ, ㄴ'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
④ 'ㅅ, ㅈ'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

이 때 '계열상의 변화'는 그 발생에 있어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있어서 ④가 현대 ㉤용천어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 가장 뒤늦은 변화일 가능성만 어느 정도 확실할 뿐, ①과 ② 그리고 ③과 ④는 각각 변화 발생 시기의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기가 힘든 면이 있기도 하다.

이제 '系列上의 變化'에 있어서 이러한 시기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두 지역어 子音體系의 변화를 대조하여 검토하기로 하자. 이러한 대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最古 段階의 共通的인 子音體系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현대 두 지역어의 자음체계를 기준으로 '계열상의 변화'를 역으로 추적해 감으로써 가능한데 그 자음체계는 다음과 같다.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	
	ㅅ		ㅎ
	ㅆ		ㆅ
ㅸ	ㅿ	ㅇ	
	ㅈ		
	ㅊ		
	ㅉ		
ㅁ	ㄴ	ㆁ	
	ㄹ		

<(평)용천어 · 화순어의 共通的인 最古 子音體系>

이 자음체계에서 有聲摩擦音 'ㅸ, ㅿ, ㅇ'은 'ㅂ, ㅅ, ㄱ'과 대립을 형성한다. 그리고 'ㆅ'은 'ㅆ'과 [±喉頭性]에 의한 대립을, 'ㅎ'과 [±硬音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그리고 'ㄷ, ㄴ, ㄹ, ㅅ, ㅈ'은 同一한 自然部類를 형성한다. 이러한 두 지역어의 共通的인 最古 子音體系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 과정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자음체계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 ㅅ ㅎ ㅆ ㅈ ㅊ ㅉ ㅁ ㄴ ㆁ ㄹ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 ㅅ ㅎ ㅆ ㅈ ㅊ ㅉ ㅁ ㄴ ㆁ ㄹ
대조	▶有聲摩擦音이 두 지역어 모두에서 非音韻化한다. ▶'ㆅ'이 두 지역어 모두에서 非音韻化한다.	▶두 지역어에서 'ㄷ ㅌ·ㄸ ㄴ'이 서로 다른 양상의 再音韻化를 경험한다. ▶'ㅅ ㅆ ㅈ ㅊ ㅉ'이 再音韻化(舌面音化)한다. 다만 두 지역어가 변화 시기와 정도의 차이를 보여 화순어에서는 舌面音化가 完成된 반면, (평)용천어에서는 현재 進行中이다.

4.2. 통합상의 변화

4.2.1. 설면-경구개 이음과 관련된 변화

4.2.1.1. 설면음화

국어의 音韻史에 존재하는 所謂 '口蓋音化'에 대한 논의는 곽충구(2001)에 정리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ㅈ'은 齒頸音[ʦ]이었으며, 'ㅈ'이 /i, y/ 앞에서 구개음화하는 異音規則이 발생한 후 t구개음화 규칙이 출현하였다. 그 뒤 이음 [ʦ]와 [ʧ]는 [ʧ]로 점차 합류의 길을 걷게 되었다.

㉡ t구개음화 규칙은 形態素 內部(非語頭→語頭)→形態素 境界로 점차 그 적용 영역을 넓혀 나갔다.

㉢ 구개음화 규칙은 h구개음화, t구개음화, k구개음화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 t구개음화는 남부와 북부(함남)에서 각각 발생하였고 h구개음화는 황해, 육진, 함경, 남부방언에서 多元發生하였다.

필자는 먼저 소위 '구개음화'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만약 'ㄷ>ㅈ, ㄱ>ㅈ, ㅎ>ㅅ'이 동일한 기제에 의한 변화라고 한다면 '구개음화'라는 용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ㅅ'을 치경음이라고 하면서 'ㅎ>ㅅ'의 변화를 'ㅎ구개음화'라고 불러왔는데 이는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희승(1955)에서처럼 '설단음화'라고 하여 'ㄷ>ㅈ'의 '구개음화'(ㄷ구개음화)와 구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舌端音化(ㅎ구개음화)와 口蓋音化(ㄷ구개음화)가 다른 기제에 의한 변화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들을 아우를 필요가 있는데 'ㅅ'과 'ㅈ'이 공유하는 음성적 특성이 舌面音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구개음화의 동화주인 'i, y'가 설면성을 강하게 띠고 있

다는 점이 이 변화의 자연성을 이야기해 준다. 따라서 필자는 拙稿(2003)에서 '口蓋音化'라는 용어 대신에 '舌面音化'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설면음화(소위 '구개음화')의 기제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기문(1972)에서는 'ㄷ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음운체계에 경구개음이 존재해야 된다고 하였다. 즉 'ㄷ구개음화'에 선행하여 'ㅈ'이 구개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곽충구(2001)에서는 '구개음화'를 음성층위에서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음변화의 과정으로 파악하고서 이를 체계적 관점에서만 논리적으로 형식화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육진방언이나 황해방언을 예로 들어 'ㅈ'이 음소적으로 경구개음으로 바뀌지 않고 치경음인 상태에서도 'ㄷ구개음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황해방언에서 '댜·자·쟈'가 모두 [tsa]로 발음된다는 사실은 이미 小倉進平(1929)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ㄷ구개음화'와 동일한 기제라고 볼 수 있는 'ㅎ구개음화'를 아울러 생각할 때 'ㅅ'이 경구개음이 아니어도 'ㅎ>ㅅ'의 변화는 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곽충구(2001)에서 논의한 '구개음화'의 기제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즉 'ㄷ구개음화'는 'ㅈ'이 음소적으로 경구개음으로 변화한 후에 생긴 규칙이 아니라 'ㅈ'이 /i, y/ 앞에서 이음으로 설면-경구개음 [tɕ]를 갖는 단계에서 형성된 규칙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위 구개음화라고 하는 것은 音聲學的 誘因에 의한 音聲層位의 變化인 셈이다.[153] 여기서 음성학적 유인이라면 그것은 /i, y/에 선행하는 자음들이 舌面-硬口蓋 異音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음성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일 것이다. 곽충구(2001)에서는 ㅎ구개음화가 가장 먼저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하

153) 김주필(1994:75)에서도 "음성적 특징이 [+front]와 [+high]에 가까운 음에서부터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리라 추측"하여 'i'보다는 'y' 앞에서 이 변화가 먼저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설면음화를 음성층위의 변화로 이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면서 그 이유는 /i, y/ 앞에서의 'ㅅ'과 'ㅎ'의 이음이 각각 [ʃ](필자가 사용하는 정확한 음성기호는 [ɕ]일 듯)와 [ç]로 아주 가깝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ㄷ구개음화'와 'ㄱ구개음화'의 양상도 이와 동일하리라 본다. 즉 /i, y/에 선행하는 'ㅈ'과 'ㄷ, ㄱ'의 이음이 음성적으로 유사해짐으로 인해 이들 음운변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구개음화는 이음들 사이의 음성적 유사성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이 때 화자들이 음소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만약에 '구개음화'를 音素의 再解釋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자칫 그 변화가 무원칙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구개음화를 경험한 방언들을 통해 보면 여기에 일정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ㄷ>ㅈ', 'ㅎ>ㅅ', 'ㄱ>ㅈ'의 변화이다.[154] 바로 변화 후의 자음이 'ㅅ, ㅈ'으로서 설면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설면음과 [+설면성]을 가진 동화주 'i, y'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소위 '구개음화'라고 하는 것은 '舌面性 同化'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구개음화'라는 용어는 '설면음화'로 대체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본다.

'설면음화'(ㅎ>ㅅ, ㄷ>ㅈ, ㄱ>ㅈ)는 두 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즉 ① 'i, y' 앞에서 설면음으로 변화, ② 'ㅅ, ㅈ' 뒤에서 'y'의 변화(탈락 또는 축약)가 그것이다. 엄격히 말해 ①만을 설면음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중부방언에서 'ㅅ, ㅈ' 뒤에서 'y'는 모두 변화(주로 탈락)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변화까지 포함시켜 설면음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지역어의 자음 대응을 통해 공통적으로 'ㄷ, ㅎ, ㄱ'과 'i, y'의 연결이 가능했으며 여기에 서로 다른 변화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154) 물론 실제로 드러나는 언어현상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위 '逆口蓋音化'가 그 한 예라고 하겠다.

(1) ㉠ -디⇔-지{-디} 티-⇔치-(打) 띵-⇔찡-(擣)
㉡ 둏-⇔죻-(好) 댱개⇔장개(婚)
㉢ 무티-⇔무치-(㊟ 묻-, 埋) 부티-⇔부치-(㊟ 붙-, 着)
(2) ㉠ 힘⇔심(力) 헤⇔서(舌) 헤캐⇔서까리(蟣)
㉡ 길⇔질(道) 키⇔칭이(箕) 끼리⇔찌리(끼리) 게⇔저(糠)

먼저 '이' 모음 앞에서 ㉯용천어의 'ㄷ, ㅌ, ㄸ'이 각각 화순어의 'ㅈ, ㅊ, ㅉ'에 대응한다(1㉠). 그리고 (1㉡)의 경우에 후행음소로 반모음 'y'를 인정하지 않으면 'ㄷ⇔ㅈ'의 대응을 설명할 수 없는바, '이' 모음 앞에서와 동일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응은 두 지역어에서 'i, y'에 선행하는 'ㄷ, ㅌ, ㄸ'에 상이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변화 방향은 피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 즉 두 지역어 모두 어근말 자음은 'ㄷ, ㅌ'인데 피사동접미사 '-이/히-'가 결합할 때에 ㉯용천어와 달리 화순어에서 자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때의 대응 양상은 (1㉠)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지역어에 'ㄷ, ㅌ, ㄸ'과 'i, y'의 연결이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가능하다가 화순어에서만 자음의 변화가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에 의해 'ㅎ'과 'i, y'의 연결(2㉠), 'ㄱ, ㅋ, ㄲ'과 'i, y'의 연결(2㉡)도 역사적으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용천어

● ㅎ>ㅅ

'ㅎ>ㅅ' 舌面音化는 'i, y' 앞에서 喉音 'ㅎ'이 舌面-後齒頸音 '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곽충구(2001)에 의하면 중부방언에서 '슈지'라는 어형이 문헌을 통해 상당히 이른 시기에 보인다는 점을 들어 'ㅎ>ㅅ' 설면음화가 역사적으로 다른 설면음화에 비해 일찍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i, y' 앞에서 'ㅅ'의 이음과 'ㅎ'의 이음이 음성적으로 제일 가까웠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 서까래{혀, 椽} 설마{현마,혈마} 수지(休紙)
㉡ 쎄-~헤-{혀-, 點火, 斷}
(4) 형~형(兄) 항~향(香) 호자(孝子) 홍(흉) 홍악(凶惡) 홍년(凶年)
힘(力) 헤{혀, 舌} 헤캐{혀, 蟣} 헤-{혜-, 算}

(3)에서 볼 수 있듯이 'ㅎ>ㅅ' 설면음화를 확인할 수 있는 예들은 ㉻용천어에 그리 많지 않다. (3㉠)은 'ㅎ'이 'ㅅ'으로 변화하고 (3㉡)에서 'ㆅ'이 'ㅆ'으로 변화하는데 이들이 'ㅎ>ㅅ' 설면음화의 예로 제시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ㅎ-y'은 'ㅎ>ㅅ' 설면음화를 모르고 'y'가 탈락하거나 뒷모음과 축약된다(4).

'ㅎ, ㆅ'이 설면음 'ㅅ, ㅆ'으로 변화하는 예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3)의 예들이 과연 'ㅎ>ㅅ' 설면음화를 경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들은 달리 해석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곽충구(2001)에서는 'ㅎ>ㅅ' 설면음화를 모르는 평북방언에서 '서까래'가 실현되는 점을 들어 문헌어의 '혓가래'는 '셧가래'의 과도교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가능성에는 '설마'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서까래, 설마'는 'ㅎ>ㅅ' 설면음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원적으로 '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155] 그리고 '수지'는 문헌어에서도 상당히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ㅎ>ㅅ' 설면음화가 한자어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이 다른 설면음화와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혹시 차용 당시의 한자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쎄-'는 'ㆅ>ㅆ'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y' 앞이라는 조건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중부방언의 'ㆅ>ㅋ'의 변화처럼 무조건 변화로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논증될 수 있

155) 문헌어의 'ㅅ'이 ㉻용천어에서 'ㅎ'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헤-~세-{셰-, 白髮}'가 그것이다. 이런 대응의 존재 이유도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면 [원]용천어에서 'ㅎ>ㅅ' 설면음화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평북방언에서 'ㅎ>ㅅ' 설면음화가 없었다는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서까래, 설마'에 대한 해석은 자칫 순환론으로 흐르기 쉽다.156) 따라서 [원]용천어에서의 'ㅎ>ㅅ' 설면음화 여부는 미지수로 남겨 두려 한다.

[원]용천어에서 'ㅎ>ㅅ' 설면음화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 또는 그 변화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어형이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설면음화의 기제와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다. 즉 설면음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i, y'에 선행하는 이음들의 음성적 유사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2가지 정도라고 생각한다. 첫째, 'ㅅ'과 'ㅎ'이 'i, y' 앞에서(둘 모두 또는 어느 하나가) 설면-경구개 이음으로 실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 [원]용천어에서는 'ㅅ'과 'ㅎ'이 '이'모음 앞에서 각각 [ʃ~ɕ]와 [ç]로 실현된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이음을 가졌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기문(1972)에 따르면 현대 평안방언에서도 'ㅅ'이 'i, y' 앞에서도 이음을 갖지 않고 설단-치경음으로 실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ㅅ'과 'ㅎ'이 설면-경구개 이음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둘 모두 설면-경구개 이음을 가졌는데 조음위치상의 거리가 혼란을 일으킬 만큼 가깝지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현대 [원]용천어의 'ㅅ'이 '이'모음 앞에서 [ʃ~ɕ]로 실현된다고 했는데 이는 그만큼 이음이 조음위치상 앞쪽에서 실현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2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때 'i, y'에 선행한 'ㅅ'과 'ㅎ'의 음성은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조음위치상의 거리가 가깝지 않았고 이것이 'ㅎ>ㅅ' 설면음

156) '설마'는 15세기 문헌에 '현마'로 나타난다. 후자를 과도교정형으로 본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15세기에 'ㅎ>ㅅ' 설면음화가 활발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한편 김이협(1981)에서는 평북 용천에서 '혈마'가 사용되기도 한다고 했으나 필자의 조사에서는 이 어형을 발견하지 못했다.

화가 미약하게 일어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ㄷ>ㅈ

'ㄷ>ㅈ' 舌面音化는 'i, y' 앞에서 舌端-齒頸音 'ㄷ'이 舌面-後齒頸音 '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ㄷ>ㅈ' 설면음화는 [원]용천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몇 예만을 제시한다.

(5) ㉠ -디(-지) 디-(落) 뗑-(碎) 티-(打)
㉡ 댱개{댱가} 더기(뎌어긔) 둏-{둏-} 두야{듀야, 晝夜}
ⓐ 데{뎌, 彼} 덴장(*뎐장, 田庄)

(5)에서 보듯이 'ㄷ'은 'i, y' 앞에서도 그대로 'ㄷ'으로 실현된다(5㉠). 그리고 'y'는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에 따라 대다수 탈락하며(5㉡) 소수의 예만이 축약의 변화를 보인다(5ⓐ).

그런데 [원]용천어에서 'ㄷ>ㅈ' 설면음화를 겪은 것처럼 보이는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6).

(6) 중국 조선 공장 교장 중병
정기~덩기(전기) 중심~둥심 정거장~덩거당

하지만 이 예들이 [원]용천어에 고유한 'ㄷ>ㅈ' 설면음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고유어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예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이는 국어 여타 방언의 차용이거나 인접언어(중국어)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본다.[157]

---

157) 한편 逆口蓋音化가 의심스러운 예들이 몇 개 있다. ㊇ 뗠짱구~쟐짱구(질경이), 제티-(젖히-), 지티-(지치-, 疲). 하지만 '뗠짱구'는 '질경이'와의 어원적 연관성이 의심스러운 면이 있고 '제티-, 지티-'는 파생접미사 '-티-'에 유추되었을 가능성도

그동안 서북방언이 'ㄷ>ㅈ' 설면음화를 모르는 이유는 'ㅈ'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왔다(이기문 1972).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설면음화의 기제에서 'ㅈ'의 '구개음화' 여부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다. [원]용천어가 'ㄷ>ㅈ' 설면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이유는 'ㄷ' 자체의 음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4.1.2 'ㄷ, ㄴ'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원]용천어의 'ㄷ'은 '설단-치음'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i, y' 앞에서도 그 음가 그대로 실현되어 설면-경구개 이음을 갖지 못한다. 결국 'i, y'에 선행하여 'ㄷ'과 'ㅈ'의 이음이 음성적으로 비슷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점이 바로 'ㄷ>ㅈ' 설면음화를 방해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설단음-yV' 연결에서 부음 'y'가 탈락함으로써 설면음화의 환경이 사라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하겠다(김영배 1969).

● ㄱ〉ㅈ

'ㄱ>ㅈ' 舌面音化는 'i, y' 앞에서 舌根-軟口蓋音 'ㄱ'이 舌面-後齒頸音 '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원]용천어에서는 'ㄱ>ㅈ' 설면음화를 보이는 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7) ㉠ 길(道) 기림(油) 길-(長) 김(海苔) 키(箕)
㉡ 지태-(기대-) 짓(깃) 지질{지즑} 질드리-(길들이-)
ⓐ 기애{디ᅀᅢ, 瓦} 기래(지라)

대부분 (7㉠)과 같이 'ㄱ'을 유지하고 있다. (7㉡)은 중부방언에서 소위 역구개음화에 의해 기원적인 'ㅈ'이 'ㄱ'으로 변화한 예들인데 [원]용천어에서는 이들도 'ㅈ'으로 실현된다. 다만 (7ⓐ)의 두 예가 'ㄱ'으로 실현되

있어 역구개음화의 예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는데 방언차용일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 화순어

● ㅎ〉ㅅ

화순어에서 'ㅎ>ㅅ' 설면음화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 심(힘) 서(혀) 상뿔(香불) 성(兄) 소자(孝子) 솜:(效驗) ;
쓰-{혀-, 點火}
ⓐ 효녀～회녀(孝女) 효도～회도(孝道) 효과(效果)
㉡ 히-(회-) 힜:어(했어) 히푸-(헤프-)
ⓑ 셤:(헤엄, 泳)
㉢ 회주{쇼쥬}

(8㉠)은 'ㅎ>ㅅ, ㆅ>ㅆ'의 설면음화를 보이는 예들의 일부인데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만 한자어 중에는 이 변화를 모르는 예들도 많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8ⓐ). 한편 'ㅎ'에 후행하는 모음이 기원적인 'i, y'가 아니고 음운변화에 의해 형성된 경우에는 'ㅎ>ㅅ' 설면음화를 모르는 것이 원칙이다(8㉡). 하지만 '셤'은 '헤엄>히엄>시엄>셤'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외적으로 '에>이'에 의해 형성된 '이'에 의해서도 'ㅎ>ㅅ' 설면음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8ⓑ).[158] 그리고 화순어에는 'ㅎ>ㅅ' 설면음화의 방향과 반대되는 변화를 보이는 듯한 예가 존재한다(8㉢). 이는 '쇼쥬>효쥬>회주'의 변화를 가정할 수 있는데 소위 역구개음화의 예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159] 하지

158) '泳'의 재구형으로 '*혜-'를 설정할 수 있다면 '헤엄>셰엄>세엄>시엄>셤:'을 거친 것으로 보아 예외를 없앨 수 있겠지만 문헌에는 '헤-'만이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만 이러한 유형의 예를 더 이상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그래서 혹시 '燒'의 한자음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한다.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ㅎ>ㅅ' 설면음화는 어두 위치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형태소 내부의 비어두 위치에서 'ㅎ'이 실현되기 힘들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화순어에서 'ㅎ>ㅅ' 설면음화를 보이는 위치가 비어두라면 이는 複合語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9).

(9) 입심(입#힘) 뱃심(배#힘)[160]

● ㄷ〉ㅈ

(10) ㉠ -지{-디} 짜릅-{다ᄅᆞ-} 장개{댱가} 좋-{둏-} 중간{듕간}
㉡ 가치(같+이) 야치(얕+이) 부치-(붙+이-) 구치-(굳+히-)
㉢ 보디{ᄇᆞᄃᆡ} 모디{ᄆᆞᄃᆡ} 티끄락{틔} 디-(데우-)
ⓐ 업지-{업듸-, 伏}

화순어에서 'ㄷ>ㅈ' 설면음화는 어두이든, 비어두이든 그 위치에 관계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10㉠). 그리고 파생접미사가 결합된 때에도 'ㄷ>ㅈ' 설면음화는 예외없이 적용된다(10㉡). 하지만 'ㄷ>ㅈ' 설면음화는 원칙적으로 'y'나 순정의 'i'가 후행할 때에만 가능하다. 즉 모음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 'i' 앞에서는 'ㄷ>ㅈ' 설면음화가 불가능하다(10㉢).

159) 최전승(1986)에 따르면 19세기 후기의 서남방언을 반영한 문헌에 'ᄒᆞ쥬'와 같은 어형이 나타난다.

160) 복합어 구성에서 후행요소가 '힘'인 경우, 중부방언에서도 '입심, 뱃심, 뚝심'처럼 '심'으로 실현되는데 단일어 '힘'이 'ㅎ>ㅅ' 설면음화를 경험하지 않은데도 복합어 구성의 후행요소일 때는 '심'으로 실현된다는 점이 홍미를 자아낸다. 한편 이기갑 외(1998)에 의하면 전남 동부지역어에서 '춘세'(추녀)라는 어형이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문헌어의 '춘혀'가 '춘#혀'와 같은 복합어 구성이었을 가능성도 점칠 수 있겠다.

'보디, 모디, 티끄락'의 '이'는 '이' 또는 '의'가 변화한 것이며 '디-'의 '이'는 '에'가 변화한 것이다. 이는 화순어에서 '의>이, 에>이'의 변화보다 'ㄷ>ㅈ' 설면음화가 앞섰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서남방언을 반영한 문헌에 16세기 후반부터 'ㄷ>ㅈ' 설면음화를 경험한 어형이 나타난다고 점을 참고할 수 있다(안병희 1972, 김주필 1994). 그런데 (10ⓐ)의 '업지-'가 {업듸-}의 변화형이라면 이는 '의'가 변화한 '이'가 'ㄷ>ㅈ' 설면음화의 동화주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ㄱ〉ㅈ

(11) ㉠ 질(길) 지름(기름) 질-(長) 저(겨) 저릅(겨릅) 절-(결-)
자우뚱(갸우뚱) 칭이(箕) 지지배(계집애)
ⓐ 경사 경우 교장 귤 게옥(계획)
㉡ 기-{긔-} 키{킈} 기{게} 기냥(그냥)
㉢ 질드리-(길들이-) 짓(옷깃) 지대-(기대-) 지래(지라)

화순어에서 'ㄱ>ㅈ' 설면음화도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다(11㉠). 다만 한자어의 경우에는 'ㄱ>ㅈ' 설면음화가 활발하지 않다(11ⓐ). 그리고 'ㄱ>ㅈ' 설면음화도 원칙적으로 'y'나 순정의 'i'에 선행할 때에만 가능하다. 즉 모음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 'i' 앞에서는 'ㄱ>ㅈ' 설면음화를 확인할 수 없다(11㉡).[161] 또한 화순어에서 소위 역구개음화의 예는 발견할 수 없다(11㉢).

'ㄱ>ㅈ' 설면음화는 'ㅎ>ㅅ' 설면음화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어두음절에서만 가능하다.[162] 홍윤표(1985)에서는 이를 변화의 시기적인 문

161) 전광현(1977)에 의하면 전북 익산지역어에서 '지차{긔챠, 汽車}, 지별{긔별, 寄別}, 지-{긔-, 匍}' 등의 어형이 나타난다고 한다.

162) 최전승(1986:302)는 Gale(1897)에 실려있는 '삼치-(삼키-)'를 비어두 음절에서

제라고 본 바 있다. 하지만 곽충구(2001)에서는 동질적('i, y'가 동화주) 음운현상인 움라우트와의 관련성(전광현 1977, 김주필 1994)과 'ㅎ'이 어중에서 탈락한다는 점 때문에 각각 'ㄱ>ㅈ'설면음화와 'ㅎ>ㅅ'설면음화가 비어두에서 실현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비어두에서 'ㄱ>ㅈ' 설면음화를 보이는 경우는 複合語에 한정된다(12).

(12) 왕저(왕#겨) 우리찌리(우리#끼리) 홧짐(홧#김)

결론적으로 ⓦ용천어에서는 설면음화를 모르나('ㅎ>ㅅ' 설면음화는 보류) 화순어에서는 설면음화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는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 이음이 실현되는 양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설면음화는 'ㅅ, ㅈ'과 'ㅎ, ㄷ, ㄱ'이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 이음을 가지며 이들이 음성적으로 가까울 때 일어날 수 있는데 두 지역어의 이음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 'ㅎ>ㅅ' 舌面音化, 'ㄱ>ㅈ' 舌面音化 : 'i, y' 앞에서 실현되는 'ㅎ, ㄱ'의 이음이 두 지역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i, y' 앞에서 실현되는 'ㅅ, ㅈ'의 이음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즉 ⓦ용천어에서는 'ㅅ, ㅈ'이 설면-후치경음 [ʃ, ʧ]와 설면-경구개음 [ɕ, tɕ]로 자유변이하는 반면 화순어에서는 설면-경구개음 [ɕ, tɕ]로만 실현된다. 다시 말해 ⓦ용천어보다 화순어의 'ㅎ'과 'ㅅ', 그리고 'ㄱ'과 'ㅈ'이 음성적으로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다.

㉯ 'ㄷ>ㅈ' 舌面音化 : 'ㅅ, ㅈ'의 이음 이외에 'ㄷ'의 이음도 두 지역어의 분화에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화순어와 달리 ⓦ용천어에서는

'ㄱ>ㅈ' 설면음화가 적용된 예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어두에서도 'ㄱ>ㅈ' 설면음화가 활발하지 못한 중부방언이 비어두에서 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ㄷ'이 설단-치음 [t̪]이어서 설면음으로의 실현이 전혀 불가능하다.

4.2.1.2. 'ㄴ'탈락

국어사에서 'ㄴ'은 'i, y' 앞에서 경구개 이음 [ɲ]로 실현되고 이어서 어두의 [ɲ]은 탈락함으로써 어두에서 'ㄴ-{i, y}'의 연결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설면-경구개 이음이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설면음화'와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설면음화와는 달리 어두의 'ㄴ'[ɲ]은 탈락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지역어의 자음 대응을 통해 공통적으로 'ㄴ'과 'i, y'의 연결이 가능했으며 여기에 서로 다른 변화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3) ㉠ 니⇔이(齒) 닛-⇔잇-(繼) 니마⇔이마(額)
㉡ 냥반⇔양반(兩班) 녀자~네자⇔여자(女子) 뉵⇔육(六)

먼저 '이' 모음 앞에서 Ⓦ용천어의 'ㄴ'이 화순어의 'Ø'에 대응한다(13㉠). 그리고 (13㉡)의 경우에 후행음소로 반모음 'y'를 인정하지 않으면 'ㄴ⇔Ø'의 대응을 설명할 수 없는바, '이' 모음 앞에서와 동일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응은 두 지역어에서 'i, y'에 선행하는 'ㄴ'에 상이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 Ⓦ용천어

현대 Ⓦ용천어의 'ㄴ'이 설단-치음 [n̪]임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i, y' 앞에서도 설면-경구개 이음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러한 음성적인 실현이 'ㄴ'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14) ㉠ 니(齒) 니마(額) 닛-(繼)

㉡ 냥(兩) 냥반(兩班) 녀자(女子) 녀관(旅館) 뇽천(龍川) 뉵(六)
ⓐ 네비(旅費) 넨세(年歲) 네자(女子)

먼저 어두에서 'i, y' 앞의 'ㄴ'에는 변화가 없다(14). (14㉠)의 예들은 'ㄴ'과 '이'의 연결이 그대로 유지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ㄴ'과 'y'의 연결에서도 'ㄴ'에 변화가 없는 것은 동일하나 다만 'y'에 변화가 생겨 'ㄴ'과 'y'의 연결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ㄴ' 뒤에서 'y'는 탈락하거나(14㉡)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를 경험한다(14ⓐ).

(15) 여자(女子) 여학생(女學生) 요리(料理) 유리(琉璃) 요구(療飢)

그런데 어두의 'ㄴ'이 'i, y' 앞에서 탈락한 것처럼 보이는 예들이 약간 존재한다(15). 하지만 이들은 언어내적(음운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방언 차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것이 중국으로 이주하기 전의 차용인지, 이주한 후의 차용인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小倉進平(1944ㄱ:168), 김이협(1981) 등에서 '料理'의 평북방언형으로 '노리'가 보고되어 있는 것을 보면 (15)의 예들은 이주 후에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비어두에서도 'i, y' 앞의 'ㄴ'이 변화하는 양상은 어두와 동일하다(16).

(16) ㉠ 기리니까니(그러니까) 다니-(行)
㉡ 구넝(穴) 저낙(夕) 저넘(傳染) 마낙(萬若)

즉 'i, y' 앞의 'ㄴ'은 전혀 변화가 없고 다만 'ㄴ' 뒤의 'y'가 탈락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 때의 'ㄴ'도 설단-치음 [n]로 실현된다.

■ 화순어

(17) ㉠ 이(齒) 이마빡(額) ;
여자(女子) 양반(兩班) 용(龍) 육(六)
㉡ 니:(爾) 닛:(四) 닝기-(넘기-)

먼저, 어두에서 기원적인 'i, y' 앞의 'ㄴ'은 모두 탈락했다(17㉠). 이는 'ㄴ'이 'i, y' 앞에서 경구개 이음 [ɲ]로 실현되고 어두에서 이 음성이 탈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화순어에서 'ㄴ'과 '이'의 연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17㉡). 그런데 이 경우 'ㄴ' 뒤에 놓이는 '이'는 순정의 '이'가 아니라 다른 음운변화(예를 들면 '에>이' 변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이 경우의 'ㄴ'은 '이' 앞에서 舌面-硬口蓋音 [ɲ]로 실현되지 않고 舌端-齒頸音 [n]로 실현된다. 따라서 어두에서의 'ㄴ'탈락은 '에>이'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완성된 변화가 아닌가 한다.

비어두에서는 'ㄴ'이 'i, y'(기원적이든, 음운변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든) 앞에서 설면-경구개음 [ɲ]로 실현될 뿐, 어두에서와 같은 'ㄴ'탈락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18). 어두와 비어두의 어떠한 음운론적(또는 음성학적) 차이가 'ㄴ'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8) ㉠ 달팽니(蝸) 가마니(袋) 카마니(가만히) 가냐(가-냐)
㉡ 구녁(穴) 저녁(夕)

결론적으로 [원]용천어에서는 'i, y' 앞에서의 'ㄴ'탈락을 전혀 모르나 화순어에서는 어두에 한정하여 이러한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두 지역어의 차이는 'i, y' 앞에서 실현되는 'ㄴ'의 음성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원용천어에서는 어두이든, 비어두이든 관계없이 'ㄴ'탈락을 보이지 않는다 : 'i, y'에 선행하는 'ㄴ'은 항상 설단-치음 [n̪]로 실현된다.

㉯ 화순어에서는 어두에 한해 'ㄴ'탈락을 보인다 : 'i, y'에 선행하는 'ㄴ'이 설면-경구개음 [ɲ]로 실현된다. 그런데 어두와 달리 비어두에서 'ㄴ'탈락을 보이지 않는 음운론적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4.2.2. 모음간 자음의 변화

이 절에서는 <2.2.2 음절연결>에서 언급한 음절연결의 제2유형(V_1 \$ CV_2)에서 母音間 子音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 알아본다. 모음간 자음은 그리 많은 변화를 겪지 않은 점에서 두 지역어가 유사하다. 본고에서는 'ㅎ'과 'ㅇ'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4.2.2.1. 'ㅎ'탈락

두 지역어에서 모음간 'ㅎ'이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는 점은 두 지역어에 존재하는 공시적인 규칙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 도아서⇔조아서(좋+아서) 싸:니까니⇔쌍:개(쌓+으니까)

두 지역어 모두 'ㅎ' 말음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하면 이 때의 'ㅎ'은 탈락한다(19). 이를 통해 두 지역어 모두 모음간 'ㅎ'이 탈락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원용천어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통시적으로도 모음간의 'ㅎ'은 탈락하는 것이 큰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 ㉠ 사우{사회} 파우{바회, 巖} 아웁{아홉} 여울{여흘}
아{아히} 너{너희} 머우{머휘} 종애{죠히}[163]
㉡ 배우-{비호-} 싸우-{사호-} 썰-{서흘-}
(21) ㉠ 바쿠{바회, 輪} 우쿰{우흠, 우희윰}
㉡ 여호(狐)

(20)에서 볼 수 있듯이 체언이든(20㉠), 용언이든(20㉡) 관계없이 모음간의 'ㅎ'은 탈락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나는 듯한 예들도 있다(21). 먼저 'ㅎ'이 'ㅋ'으로 변화하는 예들이 있는데 '바쿠, 우쿰'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21㉠).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용천어에만 한정되지 않고 거의 국어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따라서 이는 중부방언의 문헌어에 'ㅎ'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20)의 'ㅎ'과 그 기원이 달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 그리고 모음 사이에서 'ㅎ'이 실현되는 예가 있는데(21㉡) 이는 '狐'에 이끌린 화자들의 의식적인 발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호'는 어말에 '오'가 실현되어 ㉯용천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오>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이에 대한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oss(1877)에 '여우(yuoo, 제10강)'로 나타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Ross(1877)을 참고할 때 모음 사이의 'ㅎ'탈락이 19세기 후반에 거의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형태소 결합 과정이든(22㉠), 형태소 내부이든(22㉡) 관계없이 모음간의 'ㅎ'이 표기된 예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2) ㉠ sáushi(쌓+으시, 積) noooshi(놓+으시, 放)
㉡ nai{나ㅎ+이, 年} buin{버히-, 斬} gai(可히)
ⓐ shoeshohan(小ㄴ小ㄴ하-) gweihada(貴하-)

---

163) '종애'는 '죠히'의 'ㅎ'이 탈락하고 모음충돌을 막기 위해 'ㅇ'이 첨가된 것이다. 'ㅎ'이 'ㅇ'으로 변화했다고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poːɦyəda](보햐-) [ʃ'ɛːɦəda](새하햐-) ;
[pɛɦim](뱃심) ; [ɕiɦyəŋ](媤兄)

다만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에 '하-'가 결합할 때에는 'ㅎ'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22ⓐ).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현대 ㊎용천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하-'가 결합된 구성뿐만 아니라 복합어, 한자어 등에서도 'ㅎ'은 약화된 유성음 [ɦ]로 실현된다(22ⓑ). 이는 형태론적 요인이 음운변화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는 모음 사이의 'ㅎ'이 유성음화를 통해 약화됨으로써 탈락하는 과정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 화순어

화순어에서도 ㊎용천어와 마찬가지로 모음간에서 'ㅎ'은 탈락하는 것이 원칙이다(23㉠).

(23) ㉠ 사우(胥) 바우(巖) 아옵(九) 종우(紙) ; 배우- 싸우- 썰-
㉡ 바쿠~바꾸(輪) 웅쿰(捧)
㉢ 아그{아희} 느그~니기{너희} 즈그~지기{저희} 머구{머휘}

다만 (23㉡)의 '바쿠, 웅쿰'은 ㊎용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ㅎ'이 'ㅋ'으로 변화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ㅎ'의 기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천어에서는 탈락을 했던 모음간 'ㅎ'이 화순어에서는 'ㄱ'으로 변화한 특이한 예들이 있다(24㉡). 이들도 또한 'ㅎ'의 기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164)

그런데 화순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에 '하-'가 결합할 때에도 'ㅎ'이 탈락한다(24).

164) 이병근 · 정인호(2003)에서는 이들이 연구개유성마찰음 [ɣ]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4) [poːəda](보얗-) [məːndago](뭐한다고) [naəgo](나하고)

그리고 이 점이 동일한 환경에서 'ㅎ'이 약하게나마 실현되는 ㉿용천어와의 차이이다. 이는 ㉿용천어보다 한 단계의 변화가 더 진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의 결과 화순어에서는 모음간에 'ㅎ'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지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 모두 모음간 'ㅎ'은 탈락을 경험하게 된다. 다만 ㉿용천어에서는 형태론적 요인에 의해 모음간 'ㅎ'이 실현되기도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지역어는 차이를 보인다.

4.2.2.2. 'ㅇ'의 변화

두 지역어는 몇몇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ᵑ/Ø⇔ŋ'의 대응을 보인다.

(25) ㉠ [paᵑi]⇔[paŋi](방+이) [t'aᵑida]⇔[t'aŋida](땅+이다)

ⓐ [paŋ](방) [t'aŋ](땅)

㉡ [ʈaᵑa~ʈaː]⇔[ʧaŋᴇ](장+에) [ʧanɖuɯŋɯ~ʧanɖuɯː]⇔[tuɯŋᴇ](둥+에)

ⓑ [ʧaŋe](장+에) [ʧanɖuɯŋe](둥+에)

먼저, 주격조사 '-이'나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할 때, 다시 말해 조사 '-이' 앞에서 'ŋ/Ø⇔ŋ'의 대응이 나타난다(25㉠). 두 지역어 모두 단독형일 때 어간말의 'ㅇ'이 [ŋ]로 실현되는 것을 감안하면(25ⓐ) ㉿용천어에서 '-이' 앞의 'ㅇ'이 음성적인 변화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격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변화가 ㉿용천어에 존재한다(25㉡). ㉿용천어에서는 特異 處格助辭 '-V'가 있다.[165] 이 '-V'는 몇몇 'ㅇ'으로 끝나는 체언에만 결합하는데 'V'는 어간말 모음과 동일하게 실현된

다. 그리고 이 때 어간말 'ㆁ'은 [ᵑ]로 실현되거나 아예 탈락해 버린다. 다시 말해 ㉪용천어에서 동일한 모음 사이의 'ㆁ'은 음성적 변화, 나아가 음소적 변화까지 경험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현대 ㉪용천어에서는 처격조사로서 '-에'의 사용이 매우 흔하고 일반적인데 언제든지 '-V'를 대체할 수 있다(25ⓑ). 그리고 이 때에 'ㆁ'은 [ŋ]로 실현되어 '-V'가 결합할 때와 차이를 보인다. 결국 모음간의 'ㆁ'이 화순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용천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변화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 ㉪용천어

㉪용천어에서 모음간 'ㆁ'은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초성에 표기된 'ㆁ'은 [ᵑ]).

(26) ㉠ 마이(膺) 막내이(막내) 구이(槽) 고이(杵)
㉡ 가아~강애(가위) 바아~방애(방아)
㉢ 꼬아리(파리) 또아리(또아리) 소아리(송이) 모아리(망울)

(27) 붕애(붕어) 종애(종이) 동애(동이) 눙애(누에) 겡우(경우)

먼저 모음간 'ㆁ'이 약화되어 [ᵑ]로 실현되는 예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26). ㈎ '이'모음이 후행할 때에는 'ㆁ'이 약화된다(26㉠). 이 때 선행모음의 종류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변화의 원인은 후행모음 '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동일한 모음 사이에 위치하는 'ㆁ'이 약화된다(26㉡).[166] '바아~방애', '가아~강애'를 비교하면 그 차

---

165) 처격조사 '-V'가 결합할 때에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 ㉮ Ross(1877)에도 이 조사가 쓰이는데 'ŋ' 외에 'i' 말음어간에도 쓰인다는 점이 현대 ㉪용천어와 다르다(표기상으로는 'u'). ㊀ biungu(병+에, 제6강), beyu(배+에, 제9강) 등. ㉯ ㉪용천어에서 변별적 장음은 어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ŋ'이 탈락하는 경우에 비어두이더라도 장음이 실현된다. ㊀ 잔드:(등+에), 서다:(서당+에) 등.

이를 알 수 있다. ㈐ '오'와 '아' 사이에 위치하는 'ㆁ'는 약화된다(26㉢).[167] 모음간 'ㆁ'이 [ᵑ]로 실현되는 환경은 이것이 전부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환경이 음성적으로 공유하는 특성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나머지 환경에서는 모음간 'ㆁ'이 [ŋ]로 실현된다(27).[168]

그런데 'ㆁ' 뒤에 상승 이중모음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이와 약간 다른 변화를 한다.

(28) ㉠ 페양(平壤) 고양미(供養米) 보양(奉養) 디역~데역(懲役)

㉡ 타냑~탄약(湯藥) 호녁~혼역(紅疫)

이들은 모두 漢字語 구성인데 선행요소의 말자음이 'ㆁ'이고 후행요소의 모음이 상승 이중모음[169]이며 종성은 연구개음(ㆁ, ㄱ)이다. 이 경우에 상승 이중모음은 전혀 변화가 없고 다만 선행요소의 말자음 'ㆁ'이 탈락하거나(28㉠) 'ㄴ'으로 변화한다(28㉡). 그런데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ㄴ'으로 변화하는 예는 '타냑, 호녁'이 전부인데[170] 이것이 ㉯용천어

---

166) ㉯용천어의 '짜짠디{장앗디히}'의 어두 음절 '짜'는 '장앗'의 'ㆁ'이 탈락하여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 '짠디'는 '김치'를 가리킨다.

167) ㉯용천어의 '오자떼'는 '오징어'가 화석형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여기서 '오자'는 '*오좡아'의 'ㆁ'이 탈락한 것이 아닌가 한다. 김병제(1980)을 보면 서북방언에서 '魚'는 주로 '아'로 실현된다(㉣ 붕아(鮒), 숭아(鯔) 등). 한편 '봉사(봉숭아), 복사(복숭아)'는 중부방언과 비교할 때 'ㆁ'이 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봉쇼아, 복쇼아'의 직접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168) 한영순(1956ㄱ)은 '눙에, 종왜(종이), 생우지(새우), 강에(가위)'의 'ㆁ'도 '비음자음[˜]'이라 하여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 경우의 'ㆁ'은 약화되지 않고 [ŋ]로 실현된다. 이것이 시대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69) 그 음성적 특성으로 볼 때 상승 이중모음뿐만 아니라 모음 '이'도 포함시킬 수 있을 듯한데 '잉, 익'이 결합된 단어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밝혀 두며 이에 대한 논의는 보류하고자 한다.

170) 중부방언의 '시늉'에 해당하는 ㉯용천어가 '헤늉'인데 만약 이 단어의 어원이 '형용(形容)'이라면 이것도 'ㆁ>ㄴ'의 예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그 어원이 불확실하기

의 고유한 변화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용천어는 'ㄴ' 뒤에 상승 이중모음이 놓이기 힘들다는 매우 강력한 제약이 있는데[171] 음운 변화가 그 제약을 어기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결국 'Vŋ#yV{ŋ · k}'의 환경에서 'ㅇ'이 탈락하는 것이 ㉯용천어의 일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ㅇ'의 탈락은 중부방언에서도 존재하는데 이승녕(1960)에서는 이를 異化에 의한 脫落으로 보았다. 다만 이승녕(1960)에서는 후행음절의 종성이 'ㅇ'인 경우로만 한정하여 이 'ㅇ'에 의한 이화로 보았는데 'ㄱ'까지 포함시켜 同器官的 異化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화순어

화순어에서는 ㉯용천어와 달리 모음간 'ㅇ'의 약화 또는 탈락은 존재하지 않고 항상 [ŋ]으로 실현된다(29).

(29) 봉애 종우 동우

그런데 'ㅇ' 뒤에 상승 이중모음이 위치할 때에는 특이한 변화를 경험한다.

(30) ㉠ 여냥까(營養價) 시뇽차(乘用車) 지뇽(徵用) 보냥(奉養)
㉡ 호녁(紅疫) 노냑(農藥) 타냑(湯藥) 지녁(懲役)
㉢ 동양(東洋) 공약(公約)

때문에 제외한다.

171) 이들이 음소배열 제약을 어기고 있음은 각각의 쌍형어 '탄약, 혼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들 쌍형어는 음절경계의 조정(V$nyV > Vn$yV)에 의해 형성된 단어들인데 이러한 조정의 원인은 'V$nyV'가 ㉯용천어의 음소배열 제약을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음절경계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 쌍형어들은 ㉯용천어에 다수 존재한다. ㉥ 니라듦~널야듦, 피로~필요, 저념~전염, 저락~절약, 마낙~만약 등.

즉 이 때의 'ㅇ'은 'ㄴ'으로 변화하는데 그 환경은 ㉯용천어와 마찬가지로 상승 이중모음('이'모음은 보류)이 위치한 음절의 종성이 'ㅇ'이거나(30㉠) 'ㄱ'이라는(30㉡)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同器官的 異化에 의해 'ㅇ'이 변화를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72] 한편 이러한 변화를 모르는 예들도 있는데(30㉢) 이들은 방언차용(특히 표준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서 그 차용 시기도 얼마되지 않아 이 변화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변화는 한자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를 요구하기 때문이다(이숭녕 1939). 이제 'ㅇ'이 왜 'ㄴ'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필자는 우선 이러한 변화가 음성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이숭녕(1939)에 따르면 "('ㅇ'이) j에 先行될 때는 j의 위치에 끌려 口腔位置가 앞으로 조금 옮겨져 언뜻 보면 ɲ音에 가까이 발음되는 듯 느껴진다."라고 한다. 따라서 'y' 앞에서 'ㅇ'이 'ㄴ'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성 'ㅇ, ㄱ'도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성적인 이유만으로 변화를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두 모음 사이의 'ㅇ'이 변화하는 양상은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인다. 즉 ㉯용천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ㅇ'이 음성적으로 약화되어 [ᵑ]로 실현되는 데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없이 항상 [ŋ]로 실현된다. 그리고 'Vŋ#yV(ŋ · k)'의 모음간 'ㅇ'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두 지역어가 동일한데 다만 그 방향은 다르다. 즉 ㉯용천어에서는 'ㅇ'이 탈락하는데 화순어에서는 'ㅇ>ㄴ'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72) 예들이 많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동기관적 이화가 'ㅇ'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들이 있다. ㉠ 다님(담임), 치님(침입) 등. 이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ㅁ'이 'ㄴ'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4.2.3. 자음연쇄의 변화

두 지역어는 자음연쇄($C_1\$C_2$)에 대해 동일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는 두 지역어의 자음연쇄가 유사한 변화를 겪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① 'C_1'에는 7자음(ㅂ ㄷ ㄱ ㅁ ㄴ ㅇ ㄹ)만이 놓일 수 있으며, 'C_2'에는 'ㅇ'이 놓일 수 없다.
② 'C_2'가 비음(ㅁ ㄴ)이면 'C_1'에 장애음(ㅂ ㄷ ㄱ)이 놓일 수 없다.
③ 'C_2'가 'ㄴ'이면 'C_1'에 장애음뿐만 아니라 'ㄹ'도 놓일 수 없다.
④ 'C_2'가 'ㄹ'이면 'C_1'에 'ㄹ'만이 놓일 수 있다.
⑤ 'C_1'이 장애음(ㅂ ㄷ ㄱ)이면 'C_2'에 평장애음(ㅂ ㄷ ㄱ ㅈ ㅅ)이 놓일 수 없다.

이는데 이 절에서는 이에 대해서만 알아보려 한다. 이러한 두 지역어의 차이는 <2.2.2 음절연결>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제시된 예들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싣는다.

(31) ㉠ [talk^{h}ɯm^{h}əd̥a](달콤하다) [kyər^{h}oŋ̊](結婚) ;
[kɯb^{h}əd̥a](급하다) [ŋ̊ug^{h}aŋŋ̊əŋ̊](六學年) [ʃug^{h}i](淑姬, 人名)
㉡ [t'andanəda](단단하다) [kyəron](結婚) [ʧaŋwa](長靴) ;
[kɯbəda](급하다) [yugaŋɲyən](六學年) [ʃugi](淑姬, 人名)

(31)의 예들은 '허-(爲)'가 결합한 구성, 후행요소가 'ㅎ'으로 시작하는 복합어・한자어인데 이들을 통해 두 지역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용천어에서 음소적으로 /자음-ㅎ/의 연쇄가 가능함은 분명하나(31㉠) 화순어에서는 'ㅎ'이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자음-ㅎ/

의 연쇄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31㉡).

그런데 'C_2'가 'ㅎ'일 때 역사적으로 다른 변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 두 지역어에 존재한다.

(32) 그피(急히) ; 조피-(좁히-) ; 조캐(族下, 姪)

(32)는 두 지역어에서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들인데 각각 부사화접미사 '-히'의 결합형, 피사동접미사 '-히-'의 결합형, 후행요소가 'ㅎ'으로 시작하는 한자어이다. 이들은 선행요소의 말음이 자음이고 후행요소의 두음이 'ㅎ'인 구성인데 이들은 모두 격음으로 실현되어 현대 두 지역어에서의 공시적 규칙과 차이를 보인다. 우리는 이를 통해 두 지역어 모두 'C_2'가 'ㅎ'인 자음연쇄의 변화 흐름이 달라졌음을 감지할 수 있겠다.

■ ㉯용천어

㉯용천어에서 'C_1-ㅎ' 연쇄는 'C_1'에 해당하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다. 먼저, 'C_1'이 공명음일 때에는 형태론적 환경에 따라 후행하는 'ㅎ'이 탈락하기도 하고(33) 유지되기도 한다(34).

(33) ㉠ 노누-{논호-} 동애{동히} 방애{방하} 고루{골회} 뿌레기{불휘}
오리{올히} 이리{일히} 이름~이림{일훔}
㉡ 가미(敢히) 마따이(마땅히) 마니(많이)
(34) ㉠ 달큼허-(달콤하-) 어럴허-(얼얼하-) 쌔완허-(시원하-)
㉡ 팔힘(팔심) 자근형(작은형) 열한나(열하나)
㉢ 남향(南向) 방향(方向) 결혼(結婚)

형태소 내부에서는 'ㅎ'이 거의 대부분 탈락한다(33㉠). 또한 부사화접미

사가 결합된 파생어의 경우에도 'ㅎ'은 탈락한다(33㉡). Ross(1877)에서도 이 경우에 'ㅎ'이 표기된 예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허-'가 결합된 구성(34㉠), 복합어(34㉡), 한자어(34㉢) 등에서는 'ㅎ'이 탈락하지 않고 음소적으로 유지된다. 단 음성적으로 'ㅎ'은 약화된 [ɦ]로 실현되며 선행하는 공명음 중 'ㄹ'은 [r]로 실현된다(㉾ /팔힘/[pʰarɦim]).

'Ci'이 장애음일 때에도 형태론적 환경에 따라 2가지 방향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은 공명음일 때와 동일한데 그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 즉 'Ci'과 'ㅎ'이 축약(격음화)을 경험하기도 하고(35) 이 자음연쇄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한다(36).

(35) ㉠ 배캐젓(白蝦) 매캐(木花) 조캐(族下)
㉡ 그피(急히) ;
조피-(좁히-, 狹) 쏘티-(쏟히-, 覆)
(36) ㉠ 빼뺀허-(뺏뺏하-) 급허-(급하-)
㉡ 입힘(입심) 헏힘(혓심) 맏형(큰형) 첟해(첫해) 습호(十號)
눅항넌(六學年)
㉢ 북한(北韓) 약혼(約婚) 축하(祝賀) 국화(菊花) 석홰(石灰)
북향(北向) 숙히(淑姬, 人名)

먼저 축약된 예들은 일부 한자어(35㉠)와 부사화접미사(-히) 또는 피사동접미사(-히-)가 결합한 경우(35㉡)로 한정된다. 그리고 '허-'가 결합된 구성(36㉠), 복합어(36㉡), 한자어(36㉢) 등에서는 'ㅎ'이 축약되지 않고 음소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단 음성적으로 이 때의 이 'ㅎ'은 약화된 [ɦ]로 실현되며 선행하는 장애음은 유성음으로 실현된다(㉾ /입힘/[ibɦim]). 두 가지 변화가 '공명음-ㅎ'과 완전히 평행함을 알 수 있다.

■ 화순어

화순어의 경우도 '자음-ㅎ'의 변화 양상이 ㉚용천어와 유사하다.

(37) ㉠ 나누-{논호-} 동우{동히} 방애{방하} 고리{골회} 뿌랭기{불휘}
　　오리{올히} 이리{일히} 이름{일훔}
　㉡ 가미(敢히) 마땅이(마땅히) 마니(많이)

(38) ㉠ 조캐(族下) 서카(石花)
　㉡ 그피(急히) 쇠키(速히) ;
　　조피-(좁히-, 狹) 마키-(막히-, 塞)

먼저 ㉚용천어의 (33), (35)와 같은 환경에서의 '자음-ㅎ' 변화는 ㉚용천어와 완전히 동일하다. ㈎ '공명음-ㅎ'에서 'ㅎ'이 탈락한다(37). 그 환경은 형태소 내부나 부사화접미사가 결합된 경우이다. ㈏ '장애음-ㅎ'은 축약된다(38). 그 환경은 일부 한자어와 부사화접미사 또는 피사동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이다.

(39) ㉠ 달코머-(달콤하-) 얼러러-(얼얼하-)
　㉡ 크녕(큰형) 자그녕(작은형) 여란나(열하나)
　㉢ 나먕(南向) 방양(方向) 겨론(結婚)

(40) ㉠ 빼빼더-(뺏뺏하-) 그버-(급하-)
　㉡ 시보(十號) 유강년(六學年)
　㉢ 지밥(集合) 구각(國學) 수기(淑姬, 人名) 노고(祿浩, 人名)

하지만 ㉚용천어의 (34), (36)과 같은 환경, 즉 '허-'가 결합된 구성, 복합어, 한자어 등에서는 그 변화 양상이 ㉚용천어와 차이를 보인다. 즉 이때의 'ㅎ'은 탈락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것이 그리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필자는 ㉚용천어와 동일하게 실현되는 'ㅎ'의 약화된 음

성 [^{ɦ}]이 화순어에서 완전히 탈락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원]용천어와 화순어는 '자음-ㅎ' 연쇄의 변화에서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 화순어가 [원]용천어보다 한 단계 앞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41) 부칸(北韓) 야콘(約婚) 추카(祝賀) 구콰(菊花) 서쾨(石灰) 바카(薄荷)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원]용천어의 한자어는 대부분 激音으로 실현되지 않는 데에 반해(36㉢) 화순어에서는 많은 한자어들이 격음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41). 이는 두 지역어의 변화 양상을 대조해 볼 때 매우 異質的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화순어의 독자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標準語의 借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즉 이들 단어는 격음으로 실현된 표준어가 화순어의 화자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두 지역어에서 보이는 자음연쇄 제약이 비슷한 점을 보면 두 지역어가 자음연쇄에서 동일한 변화를 경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두 지역어뿐만 아니라 국어 전반에 걸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어 각 方言들의 母體로서 國語가 가지는 一般的인 特性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후행자음이 'ㅎ'일 때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두 지역어 모두 단어내부에서는 선행자음의 종류에 따라, 공명음이면 탈락하고 장애음이면 축약된다. 반면에 자음과 'ㅎ' 사이에 단어경계가 놓일 때에는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원]용천어에서는 자음 뒤에서 音素的으로 'ㅎ'이 유지되는 반면, 화순어에서는 'ㅎ'이 탈락한다. 하지만 이러한 두 지역어의 차이는 그리 큰 것이 아니다. 단지 同一한 변화의 程度差를 보일 뿐이다.

4.2.4. 두 지역어의 '통합상의 변화' 대조

지금까지 子音의 '統合上의 變化'의 對照를 통해 類似點과 差異點을 알아 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 설면음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차이점	▶ 'ㅎ>ㅅ, ㄱ>ㅈ'의 설면음화가 화순어에서만 일어난다. ▶ 'ㄷ>ㅈ'의 설면음화가 화순어에서만 일어난다.	▷ 화순어보다 [원]용천어에서 'i, y' 앞의 'ㅅ, ㅈ'이 音聲的으로 前舌에서 실현된다. ▷ 'i, y' 앞의 'ㄷ'이 [원]용천어에서는 舌端-齒音으로 실현된다.

㈏ 'ㄴ'탈락

	대 조	비 고
유사점	▶ 비어두에서 'i, y'에 선행하는 'ㄴ'은 탈락하지 않는다.	
차이점	▶ 어두에서 'i, y'에 선행하는 'ㄴ'이 화순어에서는 탈락하나 [원]용천어에서는 탈락하지 않는다.	▷ 'i, y'에 선행하는 'ㄴ'이 화순어에서는 舌面-硬口蓋音으로, [원]용천어에서는 舌端-齒音으로 실현된다.

㈐ 모음간 자음의 변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다수의 모음간 자음에 큰 변화가 없다.	▷ 모음간 자음의 音聲的 特性에 큰 차이가 없다.
차이점	▶ 모음간 'ㅎ'이 화순어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나 [원]용천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실현될 수 있다. ▶ 모음간 'ㅇ'이 [원]용천어에서는 [ŋ]로 실현될 수 있음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항상 [ŋ]로 실현된다.	

㈑ 자음연쇄의 변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자음연쇄의 변화가 유사하여 유사한 자음연쇄 제약을 형성한다.	▷ 자음의 音素的(또는 音聲的) 强度가 동일하다.
차이점	▶ '자음-ㅎ' 연쇄의 변화가 단어 내부에서는 동일하나 단어경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 원용천어에 비해 화순어에서 '자음-ㅎ' 연쇄의 音聲的인 變化가 한 단계 더 진행된다.

자음의 '통합상의 변화'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첫째, 音素體系, 즉 音素들 사이의 對立關係를 반영하는 變化이다. 설면음화와 'ㄴ'탈락은 자음체계에서 'i, y'에 선행하는 'ㅅ, ㅈ, ㄷ, ㄴ'이 설면-경구개음으로 실현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다. 즉 원용천어에서 'ㅅ, ㅈ'은 설면-경구개음으로 실현된 지가 오래지 않으며 'ㄷ, ㄴ'은 설단-치음으로 실현된다.

둘째, 子音의 個別的 特性에 따른 變化이다. 즉 이는 개별 자음들이 갖는 音聲的 性質(예 공명도)과 그에 따른 音聲·音素的 强度가 영향을 미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모음과 마찬가지로 각 자음들이 갖는 성질도 국어보편적일 가능성이 높아 국어 전반적으로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즉 음성적 특성에 따라 'ㅎ, ㅇ'이 보이는 약간의 변화 차이를 제외하면 모음간 자음의 변화나 자음연쇄의 변화에 있어 두 지역어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끝으로 자음의 '통합상의 변화'를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음체계를 반영하는 변화 : 설면음화, 'ㄴ'탈락

㉯ 음소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변화 : 모음간 자음의 변화, 자음연쇄의 변화

5. 결 론

본고에서는 音素에 한정하여 두 가지의 音韻論的 對照 硏究를 진행하였다. 우선 현대 ㉥용천어와 화순어에 대한 共時論的 對照를 통해 音素體系와 音素排列의 類似點과 差異點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두 지역어의 共時論的 對照 結果와 內的 證據를 토대로 해서 두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 단계에 共通的으로 존재하는 先代形을 설정하고 이로부터의 變化 樣相을 通時論的으로 對照하여 그 類似點과 差異點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현대 두 지역어의 音素體系와 音素排列에 대한 共時論的 對照 硏究이다. 먼저 音素體系上의 類似點과 差異點을 보기로 한다. ㈎ 母音體系 : 두 지역어의 후설모음은 동일하나 전설모음은 차이를 보인다. 즉 화순어와 달리 ㉥용천어에는 원순모음 '위, 외'가 존재하지 않으며 반면에 화순어에는 '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음들은 약간의 음성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모음		이	에	애	위	외	으	어	아	우	오
음성	㉥용천어	i	e	ɛ	×	×	ɯ	ɞ/ə	a	u	ɔ/o
	화순어		×	E	ü	ö		ə	ạ		o

두 지역어는 모두 [±전설성], [±원순성],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는데 이 중에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의 정도가 가장 약하다. 그러나 두 지역어는 세부적인 대립에서 차이를 보인다. ㉠ ㉥용천어에서는 後

설모음 '아, 어'의 [+전설성] 대립짝이 각각 '애, 에'이나 화순어에서는 하나의 모음 '애'이다. ㉡ ㉯용천어에서는 '으 ‖ 우'만이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이루나 화순어에서는 '으 ‖ 우, 어 ‖ 오, 이 ‖ 위, 애 ‖ 외'가 대립을 형성한다.

		+전설성		-전설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고모음성		이		으	우
-고모음성	-저모음성	에		어	
	+저모음성	애		아	오

<㉯용천어>

		+전설성		-전설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고모음성		이	위	으	우
-고모음성	-저모음성	애	외	어	오
	+저모음성			아	

<화순어>

㈏ 子音體系 : 두 지역어의 자음목록은 완전히 일치한다. 하지만 이들은 약간의 음성적 차이를 보인다.

자음		ㅂ	ㅍ	ㅃ	ㄷ	ㅌ	ㄸ	ㄱ	ㅋ	ㄲ	
음성	㉯용천어	p/b	p^{h}	p'	t̪/d̪	t̪^{h}	t̪'	k/g	k^{h}	k'	s/ʃ/ɕ
	화순어				t/d	t^{h}	t'				ʃ/ɕ

자음		ㅆ	ㅈ	ㅊ	ㅉ	ㅎ	ㅁ	ㄴ	ㅇ	ㄹ
음성	㉯용천어	s'/ʃ'/ɕ'	ʦ/ʣ/ʧ/ʤ/ʨ/ʥ	ʦ^{h}/ʧ^{h}/ʨ^{h}	ʦ'/ʧ'/ʨ'	h/ç	m	n̪	ŋ/ŋ	l/ʎ/r
	화순어	ʃ'/ɕ'	/ʧ/ʤ/ʨ/ʥ	ʧ^{h}/ʨ^{h}	ʧ'/ʨ'			n/ɲ	ŋ	

그리고 두 지역어의 자음은 調音位置 資質([±喉頭性], [±前舌性], [±前部性], [±舌面性])과 調音方法 資質([±共鳴性], [±鼻音性], [±閉鎖性], [±摩擦

性], [±激音性], [±硬音性])에 의한 유사한 대립을 형성한다. 다만 [±舌面性]에 의한 대립에서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X_1: ㊊용천어, X_2: 화순어).

<table>
<tr><td colspan="3" rowspan="3"></td><td colspan="4">-후두성</td><td rowspan="3">+후두성</td></tr>
<tr><td>-전설성</td><td colspan="2">+전설성</td><td>-전설성</td></tr>
<tr><td>+전부성</td><td>-설면성</td><td>+설면성</td><td>-전부성</td></tr>
<tr><td rowspan="13">-공명성</td><td rowspan="3">+폐쇄성
-마찰성</td><td>-격음성
-경음성</td><td>ㅂ</td><td>ㄷ</td><td></td><td>ㄱ</td><td></td></tr>
<tr><td>+격음성
-경음성</td><td>ㅍ</td><td>ㅌ</td><td></td><td>ㅋ</td><td></td></tr>
<tr><td>-격음성
+경음성</td><td>ㅃ</td><td>ㄸ</td><td></td><td>ㄲ</td><td></td></tr>
<tr><td rowspan="4">-폐쇄성
+마찰성</td><td rowspan="2">-격음성
-경음성</td><td rowspan="2"></td><td colspan="2">ㅅ$_1$</td><td rowspan="2"></td><td rowspan="2">ㅎ</td></tr>
<tr><td></td><td>ㅅ$_2$</td></tr>
<tr><td rowspan="2">-격음성
+경음성</td><td rowspan="2"></td><td colspan="2">ㅆ$_1$</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td><td>ㅆ$_2$</td></tr>
<tr><td rowspan="6">+폐쇄성
+마찰성</td><td rowspan="2">-격음성
-경음성</td><td rowspan="2"></td><td colspan="2">ㅈ$_1$</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td><td>ㅈ$_2$</td></tr>
<tr><td rowspan="2">+격음성
-경음성</td><td rowspan="2"></td><td colspan="2">ㅊ$_1$</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td><td>ㅊ$_2$</td></tr>
<tr><td rowspan="2">-격음성
+경음성</td><td rowspan="2"></td><td colspan="2">ㅉ$_1$</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td><td>ㅉ$_2$</td></tr>
<tr><td rowspan="3">+공명성</td><td colspan="2" rowspan="2">+비음성</td><td rowspan="2">ㅁ</td><td>ㄴ$_1$</td><td></td><td rowspan="2">ㅇ</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ㄴ$_2$</td></tr>
<tr><td colspan="2">-비음성</td><td></td><td colspan="2">ㄹ</td><td></td><td></td></tr>
</table>

(다) 半母音體系 : 두 지역어 모두 반모음으로 'y, w'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音素排列上의 類似點과 差異點을 보기로 한다.

(가) 音節內部 : 한 음절을 구성하는 음소들의 제약은 두 지역어가 완전히 동일하다. 하지만 음절내부의 음소연결 제약은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첫째, '반모음-모음'의 연결인 y계 상승 이중모음(㉮㊊용천어(6개) : 예 애 여 야 유 요 ㉯화순어(4개) : 여 야 유 요)과 w계 상승 이

중모음(㉮㉯용천어(5개) : 위 웨 왜 와 워 ㉯화순어(3개) : 왜 와 워)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초성-y'의 연결은 두 지역어 모두 그리 활발하지 않다. 특히 이러한 제약은 ㉯용천어에서 더욱 심하여 초성이 [+전설성] 자음일 때 이러한 연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초성-w'의 연결은 두 지역어 모두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하지만 '양순음-w'의 연결은 두 지역어 모두 형태소 경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w'는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넷째, '초성-모음'의 연결에도 제약이 따른다. ㉠ '양순음-으'의 연결은 일부 형태소 경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양상은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 '설면음-으'의 연결이 ㉯용천어에서는 큰 제약이 보이지 않는 데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이러한 연결을 허용하는 예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 어두 위치에서 'ㄴ-이'의 연결이 ㉯용천어에서는 제약이 없는 데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몇몇 단어에서만 가능하다.

㈏ 音節連結 : 두 지역어에서 음절이 연결되는 유형은 3가지(㉮제1유형: V_1 \$ V_2 ㉯제2유형: V_1 \$ CV_2 ㉰제3유형: V_1C_1 \$ C_2V_2)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1유형에서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그 제약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양상은 두 지역어가 유사하다. 특히 두 지역어 모두 'V_2'가 '우'나 '이'일 때의 연쇄는 꽤 자연스럽다. 둘째, 제2유형에서의 제약은 두 지역어 모두 그리 심하지 않다. 다만 두 지역어 모두 'C'에 'ㅎ'이 놓이기 힘들다는 제약이 있는데 화순어에서는 이 연쇄가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C'가 'ㅇ[ŋ]'일 때 음절경계 배정에 있어서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인다. 셋째, 제3유형에서의 제약도 두 지역어가 거의 비슷하다. 다만 'C_2'가 'ㅎ'이고 'C_1'이 장애음(ㅂ ㄷ ㄱ)인 연쇄에서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이는데 ㉯용천어와 달리 화순어에서는 이 연쇄가 전혀 불가능하다.

제3장은 母音의 變化 樣相에 대한 通時論的 對照 硏究이다. 母音의 '系列上의 變化', 즉 母音體系의 變化 樣相을 對照하기 위해 最古 段階의 共通的인 母音體系를 설정하고 現代에 이르기까지 그 變化 過程을 對照하면 다음과 같다.

이	으	우
	어	
	ᄋᆞ	오
	아	

<(원)용천어 · 화순어의 共通的인 最古 母音體系>

모음체계		대 조
(원)용천어	화순어	
이 　　 으 우 어 아 오		▶ 두 지역어 모두 'ᄋᆞ'가 非音韻化하여 'ᄋᆞ ‖ 오'의 [±圓脣性]에 의한 대립이 상실된다.
이 　　 으 우 에 　　 어 애 외 아 오		▶ 두 지역어 모두 '애[ɛ], 에[e], 외[œ]'가 音韻化(下降 二重母音의 單母音化)한다.

이 　 으 우 에 　 어 애 　 아 오	이 위 으 우 에 　 어 애 외 아 오	▶(원)용천어에서 '외'는 非音韻化(œ>wɛ)한다. ▶화순어에서 '위'가 音韻化(ui>wi>ü)한다.
〃	이 위 으 우 에 외 어 오 애 　 아	▶화순어에서 '오[ɔ], 외[œ]'는 '[o], [ö]'로 再音韻化하여 각각 '어, 에'와 [±圓脣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	이 위 으 우 애 외 어 오 아	▶화순어에서 '에'가 非音韻化(에>이)한다. 그리고 '애'는 '외'와 [±圓脣性]에 의한 대립을, '어, 아'와 [±前舌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그리고 母音의 '統合上의 變化'를 對照함으로써 드러난 類似點과 差異點을 要約 · 整理하고 이들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으>우' 원순모음화가 매우 활발하다	▷ 두 지역어 모두 '으 ‖ 우'가 [±圓脣性]에 의한 대립을 유지한다.
차이점	▶ 'ᄋᆞ>오' 원순모음화가 화순어에서만 활발하다. ▶ '어>오' 원순모음화가 화순어에만 존재한다. ▶ 전설-원순모음의 비원순모음화가 화순어에서 활발하다.	▷ [원]용천어에서는 'ᄋᆞ>오' 圓脣母音化에 앞서 'ᄋᆞ'가 非音韻化한다. ▷ 화순어에서만 '어 ‖ 오'가 [±圓脣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 [원]용천어에서 [±圓脣性]에 의한 대립은 後舌母音에 한정된다.

(나) '으>이' 전설모음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으>이' 전설모음화가 존재한다.	▷ 두 지역어에서 '으 ‖ 이'가 [±前舌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차이점	▶ '이' 모음에 의한 '으>이' 전설모음화가 [원]용천어에만 존재한다. ▶ 'ㅅ, ㅈ'에 의한 전설모음화가 화순어에서는 매우 활발하나 [원]용천어에서는 예가 그리 많지 않다.	▷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은 불가능하다. ▷ [±舌面性]에 의한 대립이 화순어에서는 完成되었으나 [원]용천어에서는 形成中이다.

(다) 움라우트

	대 조	비 고
유사점	▶ 피동화음이 '아, 어'일 때 움라우트가 활발하다.	▷ '아, 어'는 [±前舌性]에 의한 대립이 매우 安定的이다.
차이점	▶ 피동화음이 '오, 우, 으'일 때의 움라우트는 화순어에서만 활발하다.	▷ [원]용천어에서는 '오, 우'가 [±前舌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지 못한다.

(라)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야, 여'는 선행자음의 종류에 따라 축약과 y탈락을 경험한다.	▷ '아, 어'는 [±前舌性]에 의한 대립이 매우 安定的이다.
차이점	▶ '요, 유'가 화순어에서는 '야, 여'와 동일한 변화(축약과 y탈락)를 경험하나 (원)용천어에서는 y탈락만을 경험한다.	▷ (원)용천어에서는 '오, 우'가 [±前舌性]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지 못한다.

(마) 고모음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어>으, 오>우' 고모음화가 비어두-비어말 위치에서 일어난다.	▷ '어 ‖ 으, 오 ‖ 우'의 [±高母音性]에 의한 대립이 형성된다.
차이점	▶ (원)용천어에서는 '오>우' 고모음화가 어말 위치에까지 일어난다. ▶ 화순어에서는 '에>이' 고모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 두 지역어의 [±高母音性]에 의한 대립이 [±前舌性], [±圓脣性]에 의한 대립만큼 확고하지 못하다.

(바) 모음연쇄의 변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모음탈락, 이중모음화, 반모음화(또는 반모음첨가), 자음첨가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 모음의 音素的(또는 音聲的) 强度가 동일하다.
차이점	▶ (원)용천어에서 자음 'ㅇ'의 첨가가 꽤 활발하다.	

㉮ 음소체계를 반영하는 변화

㉠ 모음체계와 관련된 변화

① [±원순성]에 의한 대립 :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② [±전설성]에 의한 대립 : 움라우트,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③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 : 고모음화

㉡ 자음체계와 관련된 변화

① [±설면성]에 의한 대립 : '으>이' 전설모음화

㉯ 음소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변화 : 모음연쇄의 변화

제4장은 子音의 變化 樣相에 대한 通時論的 對照 硏究이다. 子音의 '系列上의 變化', 즉 子音體系의 變化 樣相을 對照하기 위해 最古 段階의 共通的인 子音體系를 설정하고 現代에 이르기까지 그 變化 過程을 對照하면 다음과 같다.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	
	ㅅ		ㅎ
	ㅆ		ㆅ
ㅸ	ㅿ	ㅇ	
	ㅈ		
	ㅊ		
	ㅉ		
ㅁ	ㄴ	ㆁ	
	ㄹ		

<龍용천어 · 화순어의 共通的인 最古 子音體系>

자음체계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 ㅅ ㅎ ㅆ ㅈ ㅊ ㅉ ㅁ ㄴ ㅇ ㄹ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 ㅅ ㅎ ㅆ ㅈ ㅊ ㅉ ㅁ ㄴ ㅇ ㄹ
대조	▶有聲摩擦音이 두 지역어 모두에서 非音韻化한다. ▶'ㆅ'이 두 지역어 모두에서 非音韻化한다.	▶두 지역어에서 'ㄷ ㅌ ㄸ ㄴ'이 서로 다른 양상의 再音韻化를 경험한다. ▶'ㅅ ㅆ ㅈ ㅊ ㅉ'이 再音韻化(舌面音化)한다. 다만 두 지역어가 변화 시기와 정도의 차이를 보여 화순어에서는 舌面音化가 完成된 반면, [원]용천어에서는 현재 進行中이다.

그리고 母音의 '統合上의 變化'를 對照함으로써 드러난 類似點과 差異點을 要約·整理하고 이들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설면음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차이점	▶ 'ㅎ>ㅅ, ㄱ>ㅈ'의 설면음화가 화순어에서만 일어난다. ▶ 'ㄷ>ㅈ'의 설면음화가 화순어에서만 일어난다.	▷ 화순어보다 [원]용천어에서 'i, y' 앞의 'ㅅ, ㅈ'이 音聲的으로 前舌에서 실현된다. ▷ 'i, y' 앞의 'ㄷ'이 [원]용천어에서는 舌端-齒音으로 실현된다.

(나) 'ㄴ'탈락

	대 조	비 고
유사점	▶ 비어두에서 'i, y'에 선행하는 'ㄴ'은 탈락하지 않는다.	
차이점	▶ 어두에서 'i, y'에 선행하는 'ㄴ'이 화순어에서는 탈락하나 ㉯용천어에서는 탈락하지 않는다.	▷ 'i, y'에 선행하는 'ㄴ'이 화순어에서는 舌面-硬口蓋音으로, ㉯용천어에서는 舌端-齒音으로 실현된다.

(다) 모음간 자음의 변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다수의 모음간 자음에 큰 변화가 없다.	▷ 모음간 자음의 音聲的 特性에 큰 차이가 없다.
차이점	▶ 모음간 'ㅎ'이 화순어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나 ㉯용천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실현될 수 있다. ▶ 모음간 'ㆁ'이 ㉯용천어에서는 [ŋ]로 실현될 수 있음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항상 [ŋ]로 실현된다.	

(라) 자음연쇄의 변화

	대 조	비 고
유사점	▶ 자음연쇄의 변화가 유사하여 유사한 자음연쇄 제약을 형성한다.	▷ 자음의 音素的(또는 音聲的) 强度가 동일하다.
차이점	▶ '자음-ㅎ' 연쇄의 변화가 단어 내부에서는 동일하나 단어경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 ㉯용천어에 비해 화순어에서 '자음-ㅎ' 연쇄의 音聲的인 變化가 한 단계 더 진행된다.

㉮ 자음체계를 반영하는 변화 : 설면음화, 'ㄴ'탈락

㉯ 음소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변화 : 모음간 자음의 변화, 자음연쇄의 변화

필자는 본고에서 두 가지의 대조 연구, 즉 공시론적 대조 연구와 통시론적 대조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方言硏究가 개별 방언의 체계 내적인 구조를 밝히는 일, 그리고 방언간의 대조·비교에 의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일, 이 둘 중의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은 한 편의 試攷라고 할 수 있는데 方法論上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본고가 方言硏究의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그리하여 이 방법론을 보완하고 그 대상을 전방언으로 넓히는 연구가 뒤따른다면 그것은 필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姜信沆(1983), 「齒音과 한글表記」, 『國語學』 12, 13~34.

강진철 · 김성근 · 김수길(1995), 『조선어실험음성학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한국문화사]

姜昶錫(1984), 「國語의 音節構造와 音韻現象」, 『國語學』 13, 199~228.

_____(1985), 「活用과 曲用의 形態論과 音韻論」, 『울산어문논집』 2, 47~67.

고광모(1991), 「국어의 보상적 장음화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_____(1992), 「국어의 음운 변화 syV>sV에 대하여」, 『목포대論文集』 13-2, 1~17.

_____(2000), 「일부 방언들의 주체 높임법에 나타나는 '-겨-'의 역사(1)」, 『한글』 250, 189~225.

_____(2001), 「일부 방언들의 주체 높임법에 나타나는 '-겨-'의 역사(2)」, 『언어학』 28, 3~26.

郭忠求(1980), 「十八世紀 國語의 音韻論的 硏究」, 『國語硏究』 43.

_____(1982), 「牙山地域語의 二重母音 變化와 二重母音化」, 『方言』 6, 27~55.

_____(1985), 「'떼-'(貫)의 通時的 變化와 方言分化」, 『國語學』 14, 215~235.

_____(1994),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 태학사. [1991,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_____(1995), 「語義分化에 따른 單語의 形態分化와 音韻變化」, 『國語史와 借字表記(素谷南豊鉉先生回甲紀念)』, 太學社.

_____(1996), 「國語史 硏究와 國語 方言」,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45~71.

_____(2001), 「口蓋音化 規則의 發生과 그 擴散」, 『震檀學報』 92, 237~268.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國語學』 41, 59~91.

김경아(1996), 「β>w에 대하여」, 『韓國文化』 17, 17~42.

_____(2001), 「국어의 변별적 자질체계 연구」, 『國語學』 38, 55~87.

金芳漢(1964), 「國語母音體系의 變動에 關한 考察」, 『東亞文化』 2, 29~80.

_____(1977), 「韓國語 語頭 h-의 起源 및 語頭子音群語와 傍點」, 『언어학』 2, 9~24.

김병제(1980), 『방언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한국문화사]

_____(1988), 『조선언어지리학시고』,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탑출판사]

金星奎(1989), 「活用에 있어서의 化石形」, 『周時經學報』 3, 159~165.

김성규(1996), 「'드릏'과 '듣글'의 공존」,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84~96.

金英培(1965), 「有氣音化에 대하여」, 『東岳語文論集』 3, 30~46.

_____(1969), 「平安方言과 口蓋音化」, 『東岳語文論集』 6, 45~61.

_____(1973), 「平安方言의 '듣다'(聞)에 대하여」, 『梁柱東博士古稀紀念論文集』, 探求堂, 186~200.

_____(1977), 『平安方言의 音韻體系硏究(韓國學硏究叢書 11)』, 東國大 韓國學硏究所.

_____(1979), 「平安方言의 形態論的 考察」, 『省谷論叢』 10, 246~290.

_____(1982), 「ROSS 목사의 著作과 平安方言」, 『韓國方言學』 2, 1~12.

_____(1983), 「'Corean Primer'의 音韻과 表記」, 『東岳語文論集』 17, 45~58.

_____(1984), 『平安方言硏究』, 東國大出版部.

_____(1988), 「'ㅈ · ㄷ'의 實驗音聲學的 한 考察」, 『東國大論文集』 27, 1~49.

_____(1990), 「平安方言의 長母音 小考」, 『東岳語文論集』 25, 49~58.

_____ 編著(1992), 『南北韓의 方言 硏究』, 慶雲出版社.

_____(1997), 『平安方言硏究(資料篇)』, 太學社.

김영황(1982), 『조선어방언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한국문화사]

金完鎭(1957), 「捷解新語에서의 日本語 轉寫에 對하여」, 『文理大學報』(서울大) 5-2, 37~46.

_____(1963), 「國語 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4, 63~99.

_____(1964), 「中世國語 二重母音의 音韻論的 解釋에 對하여」,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4, 49~66.

_____(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10, 91~115.

_____(1972ㄱ), 「다시 β>w를 찾아서」, 『語學研究』 8-1, 51~62.

_____(1972ㄴ),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위하여」, 『東亞文化』 11, 273~299.

_____(1973), 「國語 語彙 磨滅의 研究」, 『震檀學報』 35, 35~59.

_____(1974), 「音韻變化와 音素의 分布」, 『震檀學報』 38, 107~120.

_____(1975), 「全羅道 方言 音韻論의 研究方向 設定을 爲하여」, 『어학』(全北大) 2, 1~6.

_____(1978),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語學研究』 14-2, 127~139.

金履浹(1981), 『平北方言辭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김정우(1997), 「조음 자질과 음향 자질」, 『國語學』 29, 51~70.

金鍾圭(1989), 「中世國語 母音의 連結制約과 音韻現象」, 『國語研究』 90.

_____(2003), 「히아투스와 音節」, 『韓國文化』 31, 1~22.

김주원(1988), 「母音調化와 舌縮」, 『언어학』 9・10, 29~43.

_____(1992), 「14세기 모음추이가설에 대한 검토」, 『언어학』 14, 53~74.

_____(1996), 「만주퉁구스제어의 전설모음의 발달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6, 25~34.

金周弼(1985), 「口蓋音化에 대한 通時論的 研究」, 『國語研究』 68.

_____(1988), 「十五世紀 被動接尾辭의 異形態와 그 分化過程에 대하여」, 『冠岳語文研究』 13.

김주필(1994), 「17・8세기 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_____(2001), 「ㅸ의 [순음성] 관련 현상과 ɦ로의 약화」, 『國語學』 38, 27~54.

金周弼(2003), 「후기 중세국어의 音韻現象과 母音體系」, 『語文研究』(韓國語文教

育研究會) 117, 5~30.
김진우(1971), 「국어음운론에 있어서의 공모성」, 『語文研究』(語文研究學會) 7, 87~94.
_____(1972), 「Gravity in Korean Phonology」, 『語學研究』(서울大) 9-2, 274~281.
_____(1976), 「國語音韻論에 있어서의 母音音長의 機能」, 『語文研究』(語文研究學會) 9, 47~56.
김창섭(1997), 「『한국방언자료집』에 따른 서남방언의 특징」, 『한국어문』 4, 61~99.
金亨奎(1974), 『韓國方言研究』, 서울大出版部.
南廣祐(1984), 『韓國語의 發音研究(Ⅰ)』, 一潮閣.
도명보(1976), 『피양말』, 필사본.
都守熙(1981), 忠南方言의 움라우트現象, 『方言』 5, 1~53.
리운규·심의섭·안운(1992), 『조선어방언사전』, 연변인민출판사.
朴良圭(1980), 「西南方言 敬語法의 한 問題」, 『方言』 3, 27~45.
朴正南(1982), 「平北 定州地方의 方言研究」,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朴昌遠(1982), 「자음군 분류와 자음자질(Ⅰ)」, 『冠岳語文研究』 7, 127~142.
_____(1983), 「固城地域語의 母音史에 대하여」, 『國語研究』 54.
박창원(1985), 「국어 유성장애음의 재구와 변화」, 『국어국문학』 93, 57~85.
_____(1987), 「표면음성제약과 음운현상」, 『國語學』 16, 301-324.
_____(1988), 「15세기 국어의 이중모음」, 『경남어문논집』 창간호, 63~88.
_____(1996), 『중세국어 자음 연구』, 한국문화사.
方鍾鉉(1947), 「獨島의 하루」, 『京城大學校 豫科 新聞』 13. [방종현(1963:568~572)에 재수록]
_____(1963), 『一簑國語學論集』, 民衆書館.
배주채(1989),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國語研究』 91.
_____(1994),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_____(1996ㄱ),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_____(1996ㄴ),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성격에 대하여」, 『李基文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313~322.

白斗鉉(1988), 「'ㆍ,오,으,우'의 대립관계와 圓脣母音化」, 『國語學』 17, 177~202.
_____(1992),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硏究』, 太學社.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1995), 『언어사』, 북경: 민족출판사.
成百仁(1976), 「滿洲語 音韻史硏究를 위하여」, 『언어학』 1, 73~98.
성백인(1978), 「한국어와 만주어의 비교 연구(1)」, 『언어학』 3, 121~144.
_____(1983), 「몽고어 다구르 방언의 음운체계 연구」, 『東方學志』 40, 119~152.
성희제(1997), 「[하치조성]과 구개음화의 과정」, 『語文硏究』(語文硏究學會) 29, 299~325.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蘇信愛(2002), 「延邊 琿春地域 朝鮮語의 進行中인 音變化 硏究」,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宋 敏(1965), 「韓日兩國語 音韻對應 試考」, 『文理大學報』(서울大) 12-1, 36~46.
_____(1986), 『前期近代國語 音韻論 硏究』, 塔出版社.
宋喆儀(1977), 「派生語形成과 音韻現象」, 『國語硏究』 38.
_____(1982), 「國語의 音節問題와 子音의 分布制約에 대하여」, 『冠岳語文硏究』 7, 175~194.
_____(1987),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에 대한 音韻論的 考察」, 『國語學』 16, 325~360.
_____(1993), 「준말에 대한 形態·音韻論的 고찰」, 『東洋學』 23, 25~49.
_____(1995), 「國語의 滑音化와 관련된 몇 問題」, 『단국어문논집』(단국대) 1, 269~292.
_____(1996), 「國語의 音韻現象과 辨別的 資質」,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342~356.
_____(2000), 「形態論과 音韻論」, 『國語學』 35, 287~311.
申昇容(2001), 「音韻 變化의 原因과 過程에 對한 通時的 硏究」,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신지영(1998), 「한국어 /ㄷ,ㄸ,ㅌ,ㅈ,ㅉ,ㅊ/의 조음적 특성에 관한 연구」, 『國語

學』 31, 53~80.
安秉禧(1972), 「壬辰亂直前 國語史資料에 관한 二三 問題에 대하여」, 『震檀學報』 33, 81~102.
_____(1985), 「別行錄節要諺解에 대하여」, 『건국어문학』 9·10.
梁東暉(1967), 『英語音聲學』, 汎韓書籍株式會社.
오정란(1991), 「모음강화 현상으로서의 원순·전설모음화」, 『國語學』 21, 103~132.
_____(1999), 「중세국어 설음과 치음의 불투명성에 대하여」, 『國語學』 33, 69~97.
오종갑(1983), 「ㅑ, ㅕ, ㅛ, ㅠ의 변천」, 『韓國學論集』(啓明大) 10, 285~305.
_____(1998), 「'ㅔ, ㅐ'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방언학과 국어학(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563~591.
왕한석(1997), 「언어생활」,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85~211.
유영대·이기갑·이종주(1998), 『호남의 언어와 문화』, 백산서당.
유재원(1985), 「현대 국어의 모음충돌 회피 현상에 대하여」, 한글 189, 3~24.
_____(1988), 「현대 국어의 악센트 규칙에 대한 연구」, 『省谷論叢』 19, 293~322.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延世大 出版部.
_____(1975), 『李朝 國語史 硏究』, 二友出版社.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광호(1977), 「i母音化의 音韻論的 解釋」, 『語文學』(韓國語文學會) 36, 77~92.
李克魯(1947), 『音聲學』, 雅文閣.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塔出版社.
_____·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 공편(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李基文(1955), 「語頭 子音群의 生成과 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17, 188~258.
_____(1959), 『十六世紀 國語의 硏究』, 塔出版社.
_____(1962), 「中世國語의 特殊 語幹 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119~153.
_____(1968), 「雞林類事의 再檢討」, 『東亞文化』 8, 205~248.
_____(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 32, 131~150.

_____(1972), 『國語音韻史硏究』, 塔出版社.
_____(1973), 「十八世紀의 滿洲語 方言 資料」, 『震檀學報』 36, 99~132.
_____(1984), 「金履浹 編著 「平安方言辭典」」, 『方言』 7, 189~199.
李敦柱(1985), 『全南方言』, 螢雪出版社.
李秉根(1967ㄱ), 「國語의 倒置現象 小攷」,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6, 147~161.
_____(1967ㄴ), 「中部方言의 語幹形態素 小攷」, 『文理大學報』(서울大) 13-1・2, 31~38.
_____(1969), 「黃澗地域語의 音韻」, 『論文集』(서울大 敎養課程部) 1, 27~54.
_____(1970ㄱ), 「19世紀 後期 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9, 375~390.
_____(1970ㄴ), 「京畿地域語의 母音體系와 非圓脣母音化」, 『東亞文化』 9, 151~167.
_____(1971ㄱ), 「雲奉地域語의 움라우트現象」, 『金亨奎博士 頌壽紀念論叢』, 一潮閣.
_____(1971ㄴ), 「現代韓國方言의 母音體系에 대하여」, 『語學硏究』 7-2, 11~17.
_____(1973), 「東海岸方言의 二重母音에 대하여」, 『震檀學報』 36, 133~147.
_____(1975), 「音韻規則과 非音韻論的 制約」, 『國語學』 3, 17~44.
_____(1976ㄱ), 「19世紀 國語의 母音體系와 母音調和」, 『국어국문학』 72・73, 1~14.
_____(1976ㄴ), 「「새갱이」(土蝦)의 通時音韻論」, 『어학』(全北大) 3, 1~5.
_____(1976ㄷ), 「派生語形成과 i逆行同化規則들」, 『震檀學報』 42, 99~112.
_____(1977), 「子音同化의 制約과 方向」, 『國語國文學論叢(李崇寧先生古稀紀念)』, 塔出版社, 249~264.
_____(1978), 「國語의 長母音化와 報償性」, 『國語學』 6, 1~28.
_____(1979),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塔出版社.
_____(1986), 「發話에 있어서의 音長」, 『國語學』 15, 11~39.
_____(1998), 「'마름(菱仁)'의 어휘사」, 『방언학과 국어학(청암 김영태박사 화갑

기념논문집)』, 태학사, 729~751.
_____(2000), 「'노을(霞)'의 어휘사」, 『冠岳語文硏究』 25, 23~42.
_____(2001), 「方言과 方言學」, 『方言學 事典』, 태학사, 19~27.
_____(2003), 「'올가미'의 語彙史」, 『國語學』 41, 25~57.
_____ · 崔明玉(1997), 『國語音韻論』, 韓國放送大出版部.
이병근 · 정인호(1999), 「중국 조선어 방언 조사」,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출판부, 1~75.
_____ · _____(2003), 「中國 沈陽 朝鮮語의 特徵」,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 문화』, 서울대출판부, 1~95.
李相億(1989), 「李克魯(1947), 「實驗圖解 朝鮮語音聲學」」, 『周時經學報』 3, 182~193.
李崇寧(1935), 「Umlaut 現象을 通하야 본 모음 'ㆍ'의 音價攷」, 『新興』 8, 96~113.
_____(1939), 「朝鮮語異化作用에 對하여」, 『震檀學報』 11, 1~42.
_____(1940), 「「ㆍ」音攷」, 『震檀學報』 12, 1~106.
_____(1947), 「朝鮮語의히아투스(Hiatus)와子音發達에對하여」, 『震檀學報』 15, 50~89.
_____(1949), 「'애, 에, 외'의 음가변이론(音價變異論)」, 『한글』 106, 25~35.
_____(1954ㄱ), 「十五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ction的 發達에 대하여」, 『東方學志』 1, 331~432.
_____(1954ㄴ), 「脣音攷」, 『서울大論文集』(人文 · 社會科學) 1, 40~76.
_____(1955),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關한 試論」, 『서울大論文集』(人文 · 社會科學) 2, 62~166.
_____(1956), 「△音攷」, 『서울大論文集』(人文 · 社會科學) 3, 51~235.
_____(1957), 「語幹變形說의 提起」, 『서울大論文集』(人文 · 社會科學) 6, 81~106.
_____(1959), 「"ㆍ"音攷再論」, 『學術院論文集』 1, 41~154.
_____(1960ㄱ), 「中期語의 異化作用의 考察」, 『學術院論文集』 2, 1~27.
_____(1960ㄴ), 「15世紀의 '어'의 音價에 對하여」, 『한글』 126, 19~28.
_____(1961),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_____(1967), 「韓國方言史」, 『韓國文化史大系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325~411.
_____(1977), 「/ㆍ/音의 消失期 推定에 對하여」,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16, 79~136.
_____(1988ㄱ), 『李崇寧國語學選集(音韻篇Ⅰ)』, 民音社.
_____(1988ㄴ), 『李崇寧國語學選集(音韻篇Ⅱ)』, 民音社.
_____(1988ㄷ), 『李崇寧國語學選集(音韻篇Ⅲ)』, 民音社.
李丞宰(1977), 「南部方言의 圓脣母音化와 母音體系」, 『冠岳語文研究』 2, 401~420.
_____(1980), 「求禮地域語의 母音體系」, 『國語研究』 45.
_____(1983), 「再構와 方言分化」, 『國語學』 12, 213~234.
李翊燮(1984), 『方言學』, 民音社.
이진호(2002ㄱ), 「화석화된 활용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0, 27~57.
_____(2002ㄴ), 「음운 교체 양상의 변화와 공시론적 기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현복(1989),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李賢熙(1982), 「국어의 語中·語末 'ㄱ'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신논문집』 4, 225~282.
_____(1987), 「중세국어 '둗겁-'의 형태론」, 『震檀學報』 63, 133~150.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李熙昇(1955), 『國語學概說』, 民衆書館.
田光鉉(1970), 「『勸念要錄』에 대하여」, 『駱山語文』 2, 13~15.
_____(1971), 「18世紀 後期 國語의 一考察」, 『語文集』(全北大) 13.
_____(1976), 「南原地域語의 語末-U型 語彙에 대한 通時音韻論的 小考」, 『國語學』 4, 25~37.
_____(1977), 「全羅北道 益山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語學』(全北大) 4, 71~92.
_____(1978), 18世紀 前期 國語의 一考察, 『어학』(全北大) 5, 15~24.
全吉星(1939ㄱ), 「시골말(价川)」, 『한글』 66(7-4), 633~637.
_____(1939ㄴ), 「시골말(价川)」, 『한글』 67(7-5), 22~25.
田相範(1977), 『生成音韻論』, 塔出版社.

______(1985), 『英語音聲學』, 乙酉文化社.
전학석(1993), 『함경도 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태학사.
鄭承喆(1995), 『濟州島 方言의 通時音韻論』, 太學社.
______(1995), 「濟州島 方言의 派生接尾辭」, 『大同文化硏究』 30, 359~374.
______(1996), 「제주도 방언 'ㅎ'말음 용언 어간의 通時論」,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738~753.
정연찬(1997), 『개정 한국어음운론』, 한국문화사.
鄭寅承(1937), 「"ㅣ"의 逆行同化 問題 그 原理와 處理方案」, 『한글』 41(5-1), 303~309.
______(1938), 「語感 表現上 朝鮮語의 特徵인 母音相對法則과 子音加勢法則」, 『한글』 60(6-9), 419~434.
정인호(1995), 「和順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國語硏究』 134.
______(1997), 「ㅂ-불규칙 용언 어간의 변화에 대하여」, 『애산학보』 20, 145~178.
______(2003), 「평북방언에서의 'ㅈ, ㅅ'의 음변화」, 『韓國文化』 31, 23~47.
鄭 喆(1982), 音韻資質의 吸收現象, 『方言』 6, 97~109.
蔡玉子(2002), 「中國 延邊地域 韓國語의 音韻體系와 音韻現象」,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崔金鎔(1939), 「시골말(義州)」, 『한글』 69(7-7), 95~103.
崔明玉(1978ㄱ), 「東南方言의 세 音素」, 『國語學』 7, 71~89.
______(1978ㄴ), 「「ㅸ, ㅿ」와 東南方言」, 『語學硏究』 14-2, 185~194.
______(1980), 『慶北 東海岸 方言硏究』, 嶺南大出版部.
______(1982), 『越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出版部.
______(1985ㄱ), 「존 로스의 *Corean Primer* [한국어초보]와 평북 의주 지역어」, 『素堂千時權博士回甲紀念 國語學論叢』, 螢雪出版社, 703~724.
______(1985ㄴ), 「西北方言의 文敍述語에 대한 形態論的 硏究」, 『方言』 8, 57~97.
______(1986), 「19世紀 後期 西北方言의 音韻 體系」, 『國語學新硏究(若泉金敏洙敎授回甲紀念)』, 塔出版社, 749~763.
______(1987), 「平北 義州地域語의 通時音韻論」, 『語學硏究』 23-1, 65~90.
______(1988), 「國語 UMLAUT의 硏究史的 檢討」, 『震檀學報』 65, 63~80.

_____(1989), 「國語 움라우트의 硏究史的 考察」, 『周時經學報』 3, 7~39.

_____(1990), 「方言」,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667~675.

_____(1997), 「동남방언과 동북방언의 대조연구」,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성재 이돈주 선생 화갑기념)』, 태학사, 585~630.

_____(1998), 「진양지역어와 김해지역어의 대조연구」, 『방언학과 국어학(청암 김영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367~397.

_____(2000), 「中國延邊地域의 韓國語 硏究」, 『韓國文化』 25, 17~62.

_____(2002), 「過去時制 語尾의 形成과 變化」, 『震檀學報』 94, 135~162.

최명옥 · 곽충구 · 배주채 · 전학석(2002),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 태학사.

崔世和(1965), 「處格 /-에/ 攷」, 『東岳語文論集』 3, 13~29.

_____(1978), 「韓國語 摩擦音 · 破擦音의 調音 特質」, 『국어국문학』 78, 41~56.

崔林植(1984), 「19世紀 後期 西北方言의 母音體系」,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_____(1994), 『國語方言의 音韻史的 硏究』, 文昌社.

崔銓承(1986), 『19세기 후기 全羅方言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翰信文化社.

_____(1987), 「二重母音 '외', '위'의 단모음화 과정과 母音體系의 변화」, 『語學』(全北大) 14, 19~48.

崔泰榮(1978), 「全州方言의 Umlaut 現象」, 『語學』(全北大) 5, 25~41.

_____(1983), 『方言音韻論』, 螢雪出版社.

崔鶴根(1990), 『韓國方言辭典』(增補版), 明文堂.

최현배(1955), 『우리말본(깁고 고침)』, 정음사.

韓國精神文化硏究院(1989), 『韓國方言資料集 VII』(慶尙北道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_______________(1991), 『韓國方言資料集 VI』(全羅南道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_______________(1995), 『韓國方言資料集 IX』(濟州道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한성우(2003), 「의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韓榮均(1980), 「完州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 『冠岳語文硏究』 5, 211~232.

_____(1985), 「國語 音韻史에 대한 地理言語學的 硏究」, 『國語硏究』 55.

_____(1991ㄱ),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過程에 대한 挿疑」, 『國語學의 새로운 認

識과 展開(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民音社, 128~141.
_____(1991ㄴ), 「母音體系의 再定立과 現代國語의 非音節化」, 『震檀學報』 71·72, 249~264.
한영균(1995), 「'ㅚ, ㅟ'의 단모음화와 방언분화」, 『國語史와 借字表記(素谷南豊鉉先生 回甲紀念論叢』, 太學社, 817~846.
한영순(1956ㄱ), 「평안북도 의주·피현 지방 방언의 어음론적 특성(상)」, 『조선어문』 4, 64~81.
_____(1956ㄴ), 「평안북도 의주·피현 지방 방언의 어음론적 특성(하)」, 『조선어문』 5, 47~63.
許 雄(1964), 「齒音攷」, 『國語國文學』 27, 45~54.
허 웅(1965), 『국어음운학(改稿新版)』, 正音社.
_____(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_____(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현우종(1988), 「제주도 방언 「 ˎ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耽羅文化』(제주대) 7, 25~58.
洪允杓(1985), 「口蓋音化에 대한 歷史的 硏究」, 『震檀學報』 60, 143~157.
황대화(1998), 『조선어 동서방언 비교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한국문화사]

梅田博之(1983), 『韓國語의 音聲學的 硏究』, 螢雪出版社.
宣德五·趙習·金淳培(1991), 『朝鮮語方言調査報告』, 延邊人民出版社.
小倉進平(1923), 『國語及朝鮮語 發音概說』, 近澤印刷所出版部.
_______(1929), 「平安南北道の方言」,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硏究調査冊子』 第1輯. [小倉進平(1944:249~296)에 재수록]
_______(1944), 『朝鮮語方言の硏究(下)』, 東京: 岩波書店. [1964, 亞細亞文化社]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東都書籍.

Catford, J.C.(1988), *A Practical Introduction to Phonetics*, Oxford: Clarendon Press.

Chambes, J.K. & P. Trudgill(1980), *Dialec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rles, A.(1901), 『법한ᄌᆞ뎐 *Petit Dictionair Francais-Coréen*』, Seoul Press.

Chomsky, N. & M. Halle(1968),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 Low.

Clements, G.N.(1985), "The geometry of phonological features", *Phonology Yearbook* 2, 225~252.

Gale, J.S.(1897), 『韓英字典한영ᄌᆞ뎐 *A Korean-English Dictionary*』, Kelly & Walsh.

Jespersen, O.(1926), *Lehrbuch der Phonetik*, Verlag von B.G. Teubner in Leipzig und Berlin.

Kenstowicz, M.(1994), *Phonology in Generative Grammar*, Blackwell Publishers.

Kim, Jong-Kyoo(2000), "Quantity-Sensitivity and Feature-Sensitivity of Vowels",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Kiparsky, P.(1982), *Explanation in Phonology*, Foris.

Ladefoged, P.(1971), *Preliminaries to Linguistic Phone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ss, R.(1984),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 Ki-Moon(1964), "Mongolian Loan-words in Middle Korean", *Ural-Altaische Jahrbücher* 35.

MacIntyre, J.(1880-1882), "Note on the Corean Language", *The China Riview* Vol.Ⅷ-Ⅸ.

Pike. K.(1947), *Phonemic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Ramstedt, G.J.(1928),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58.[歷代韓國文法大系(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編, 1979, 塔出版社) ②16에 재수록]

_______(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Suomalais-Ugrilaisen Seura.[歷代

韓國文法大系(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編, 1979, 塔出版社) ②18에 재수록]

Ross, J.(1877), *Corean Primer*,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歷代韓國文法大系(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編, 1979, 塔出版社) ②02에 재수록]

Weinreich, U.(1953), *Languages in Contact*, Mouton.

________(1954), "Is a Structural Dialectology Possible?", *Word* 10, 388~400.

鄭仁浩

· 전남 화순 출생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1993)
·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1995)
·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2004)
·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홍익대학교 강사 역임
· 서강대학교 BK 계약교수(2005)

주요 논문

「평북방언에서의 'ㅈ, ㅅ'의 음변화」(2003)
「下降 二重母音과 浮動 二重母音의 音變化」(2004)
「전남 방언에서의 운율 및 그와 관련된 음변화」(2005)

平北方言과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對比 硏究

초판 1쇄 인쇄 ---------------------- 2006년 2월 28일
초판 1쇄 발행 ---------------------- 2006년 3월 2일

지은이 ---------------------- 정인호
펴낸이 ---------------------- 지현구
펴낸곳 ---------------------- 태학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498-8
전화 : (031) 955-7580
전송 : (031) 955-0910
등록 제406-2006-00008호
전자우편 : thaehak4@chol.com

ISBN 89-5966-042-6 94710
ISBN 89-7626-147-X (세트)

값 13,000원

☞ 이 책은 지은이와의 협의하에 인지를 생략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한 곳이나 본사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國語學 叢書 目錄

①	李崇寧	(근간)
②	姜信沆	한국의 운서
③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④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研究
⑤	鄭然粲	慶尙道方言聲調研究
⑥	安秉禧	(근간)
⑦	남기심	국어완형보문법 연구
⑧	宋 敏	前期近代國語 音韻論研究
⑨	Ramsey, S. R.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⑩	蔡 琬	國語 語順의 研究
⑪	이기갑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⑫	李珖鎬	國語 格助詞 '을/를'의 研究
⑬	徐泰龍	國語活用語尾의 形態와 意味
⑭	李南淳	國語의 不定格과 格標識 省略
⑮	金興洙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⑯	金光海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⑰	李丞宰	高麗時代의 吏讀
⑱	宋喆儀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⑲	白斗鉉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研究
⑳	郭忠求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
㉑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㉒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
㉓	鄭在永	依存名詞 'ᄃᆞ'의 文法化
㉔	韓東完	國語의 時制 研究
㉕	鄭承喆	濟州道方言의 通時音韻論
㉖	김주필	구개음화의 통시성과 역동성 (근간)
㉗	최동주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근간)
㉘	신지연	국어 지시용언 연구
㉙	權仁瀚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㉚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國語學 叢書 目錄

㉛ 이은경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㉜ 배주채 고흥방언 음운론
㉝ 양명희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㉞ 문금현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㉟ 황문환 16, 17세기 언간의 상대경어법
㊱ 남윤진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㊲ 임동훈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㊳ 김경아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㊴ 李浩權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㊵ 이정복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㊶ 장윤희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㊷ 신선경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㊸ 신승용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
㊹ 양정호 동명사 구성의 '-오-' 연구
㊺ 최형용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㊻ 채현식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㊼ 석주연 노걸대와 박통사의 언어
㊽ 박소영 한국어 동사구 수식 부사와 사건 구조
㊾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㊿ 송원용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51 이은섭 현대 국어 의문사의 문법과 의미
52 鄭仁浩 平北方言과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對比 硏究